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 (305)

차 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자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 결정을 계속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고 각 부문앞에 구체적인 전투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당 대표자회가 채택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치며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킬것을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당대표자회 결정실천을 위한 투쟁전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과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섰으며 도처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실로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표자회 결정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보다 준비있게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다.

* *

현시기 조성된 정세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그것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최근년간 미제는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의 장성을 가로막아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시키고있다. 그들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작은 나라, 분렬된 나라를 하나씩 먹어들어가려는 교활한 전략에 더욱더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1962년에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카리브해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도전하여 나섰으며 그후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아세아에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최근시기에 미제는 민족해방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중근동지역에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과 함께 아련과 수리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에 미쳐 날뛰고있다.

이러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국방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적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때 일격으로 분쇄하고 남반부를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실한 과업의 하나이다.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도록 준비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나 적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할수 있고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국방건설에 특별한 력량을 돌려 조국보위의 완전을 기하는것은 정세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혁명의 근본적리익에 부합되는 방침으로 된다.

우리는 국방건설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 그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은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사기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자립적민족경제를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계속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주며 조국이 통일된후 남반부경제를 급속히 복구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조성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튼튼히 하는것은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때나 경제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뒤로 미룰수 없으며 오늘의 긴장된 정세하에서도 국방건설과 함께 경제건설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데로부터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에 거의 동등한 력량을 돌리면서 이 두 과업을 병행하여 다같이 적극 추진시키는 로선을 채택한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어떠한 침략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우리 혁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킬수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어떠한 조건에서나 혁명을 견결히 추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남반부인민들에게 더욱 큰 혁명적영향을 주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게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조선혁명을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립장을 보여주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격파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려는 견결한 반제투쟁의 립장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이다. 그것은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치적과업과 경제건설, 국방건설의 호상관계를 가장 정확히 해결한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작성된 새로운 로선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생활에 의하여 이미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다. 우리는 이 로선을 관철시킨 결과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음으로 하여 최근 더욱 격화된 원쑤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었으며 만약 원쑤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감히 분별없는 전쟁을 또다시 일으킨다면 그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어 이 땅에서 종국적으로 소멸할 철저한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실로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 *

김일성동지는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와 그에 앞서 있은 함흥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들과 그 실현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경제건설에서 우리는 당대표자회기 제시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더욱 빠른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규모적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부문들에서 더 많은 기계설비와 강재와 화학제품을 생산해내고 채취공업과 동력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또한 전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증대되는 수송수요를 원활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고 축산물, 남새, 과실, 유지작물 등의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켜야 하며 수산부문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고 잡은 고기를 더 잘 가공해야 한다.

국방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군대로 더욱 강화하며 전체 인민들을 더 잘 무장시키고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꾸며야 한다.

국방건설에 계속 커다란 힘을 돌리면서 나라의 경제력을 부단히 강화할것을 요구하는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앞에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욱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배가의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천리마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배가의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빨리 전진하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의 요구

이며 금번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사상적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전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락후한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락후한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이다. 락후한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109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새로운 혁명적로선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요구한다. 그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이 없이는 관철될수 없다.

우리 혁명의 지나온 로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당의 새로운 로선은 언제나 보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었다. 전후 우리 당 경제건설로선의 실현도, 1957~1958년의 천리마운동도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 소극성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관철하는데 있어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그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수립하며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다.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범접할수 없다. 이런 사람이래야 당적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항상 그것을 자로 삼아 일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15성상에 걸쳐 전개한 영웅적항일무장투쟁과정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며 견결한 혁명가로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혁명적량식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

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꾸준히 혁명화하여야 하며 특히 인테리들을 더욱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조직생활, 군중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당성을 더욱 단련하며 오직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공산주의적혁명적기풍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할 때 우리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하여질것이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반대하고 당의 새로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더욱 커다란 혁명적앙양이 이룩될것이다.

* *

전원회의는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잘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것을 강조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군들이 모든 단위에서 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실생활에 옳게 구현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모든 경제기술사업을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 그 사업의 목적과 의의, 그의 수행방도와 전망에 대하여 당원들과 군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제기된 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김일성).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기술실무적으로 풀기전에 먼저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당적방법으로 풀며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잘하는데 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들이 그처럼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항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함으로써 전투에서 백전백승한것처럼 우리 앞에 복잡하고 어려운 전투과업이 제기되면될수록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방법으로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일상적으로 해석침투시키며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의 정당성을 옳게 해설해주어야 한다.

정치사업을 선행하고 이에 조직사업을 따라세움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기업관리와 생산활동에 더욱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파묻혀있는 생산예비와 가능성을 모조리 탐구동원하여 있는 설비,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좋게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동시에 경제관리운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추진은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교양사업을 강화함으

로서 그들이 자각적으로 사회적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에서 로력관리질서와 규률을 강화하고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하며 로동에 대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직접부문의 생산로력을 계통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후방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 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는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숭고한 사명이다.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고조를 일으키며 일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자면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기술혁명에 대한 무관심성, 소극성, 보수주의를 극복하고 도처에서 집단적기술혁신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며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선진기술공정과 선진작업방법을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며 모든 부문의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전면적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국방건설에 많은 힘을 돌리면서 경제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는 동시에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이 필요하다. 나라의 크고 작은 재부를 정성껏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우고 모든 단위에서 살림살이를 그 어느때보다도 깐지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배가의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천리마의 진군속도를 다그치는데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는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시기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창조하고 나라의 경제를 단시일내에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켰다.

우리는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전국이 창조와 혁신의 불길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이 운동을 통하여 자기들을 더욱더 혁명화하며 로동과 학습과 생활에서 공산주의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구호밑에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도처에서 분초를 다투어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력사적인 당대표자회 결정관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도록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차게 부르고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고조를 일으킬수 있는 모

든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선두에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서계시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로선과 정책, 그 수행방도들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쳐주고있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언제나 과학적예견성과 확고한 원칙성,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불굴의 의지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운명과 후손들의 장래를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칠석같이 단결되여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를 가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자력갱생하여 대고조를 일으킨 경험이 있다. 또한 수많은 과학기술일군들의 대렬이 있고 대중의 혁명적기세도 대단히 높다.

오늘 우리가 지난날 항일유격대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싸워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란 없으며 정복하지 못할 요새란 없다.

우리는 국제국내적으로 어려웠던 1957년에 당과 김일성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고도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킨것처럼 오늘 또다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과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우리 인민의 억센 의지와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들을 반대하여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악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고 전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전원회의문헌들을 심오히 연구체득하고 전원회의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여기에서 당성, 계급성,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모두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엄 기 현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불멸의 귀감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충직성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가장 고귀한 혁명적품성이다.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성과적추진여부는 당의 령도적역할에 의존되며 당의 령도는 수령의 역할에 의하여 좌우된다. 수령은 로동계급앞에 정확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

수령에 대한 충직성은 곧 당과 혁명에 대한 충직성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유격대원들은 15성상에 걸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시종일관 조선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인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어떤 역경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옹호관철하였으며 그이가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직성은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령에 대한 충직성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은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실현하는것이 조선혁명승리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데서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전망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내다보시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명철하게 제시하였으며 우리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항일무장투쟁의 로선, 당창건을 위한 방침, 반일민족통일전선형성을 위한 방침을 비롯하여 근거지에서의 인민혁명정부로선, 각이한 형태의 유격근거지창설방침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

고는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것이였다.

또한 신출귀몰하는 전술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어김없이 적을 타승하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은 적들을 공포속에 전률케 하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그이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를 자아내게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반《민생단》투쟁, 근거지방위 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옳은 방침을 제시하였을뿐만아니라 그를 관철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서 혁명전도에 난국이 조성될 때마다 몸소 그것을 타개함으로써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보장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고 투쟁하였으며 그이를 령도자로 모시게 된 궁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은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민들과 하부를 극진히 사랑하고 신임하시는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덕성에 의하여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언제나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남김없이 바치시였으며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대원들을 어비이심정으로 보살피시였으며 그들에게 높은 신임을 표시하시였다. 또한 대원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로, 언제나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과 함께 살고 싸우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키우는데 심힐을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고매한 덕성과 가르침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그이처럼 모든것을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열렬한 혁명투사로 되게 하였으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조선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직성은 그 무엇으로도 움직일수 없는 확고하고도 절대적인 것이였다.

오늘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의 모범을 본받는것은 전당과 전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지금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일층 촉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국제국내적으로 긴장된 정세하에서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는것이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에서 배우고 그것을 본받음으로써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는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수립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 *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 그이께서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해방을 달성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며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수행할데 대한 사상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은 바로 이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김일성동지는 이 로선과 방침들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실현할수 있는 투쟁의 길을 명철하게 밝히시였으며 혁명력량을 꾸리고 투쟁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 유일하게 옳은 방도를 가르치시였다. 이 로선과 방침들은 조선혁명의 승리적기치였으며 이 기치를 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우리 인민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있었다.

유격대내의 혁명조직들과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사상, 로선과 방침, 그이의 가르침으로 대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은 그것을 체득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들은 가렬한 전투의 여가마다, 강행군의 피로를 푸는 우등불가에서, 지어 길을 걸으면서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면서 수령의 뜻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조국광복회강령에 담겨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하여 소책자가 닳도록 그것을 반복하여 학습하였으며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토론하며 지어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를 만들어 외우는 등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꾸준히 학습한 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때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였다. 바로 이 신념으로 하여 그들은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 부닥쳐도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용감히 싸웠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자신을 희생하는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를 직접 모시고있을 때에는 말할것도 없고 일시 그이의 곁을 떠나 단독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최고의 밀림속에 홀로 남아 수십일씩 풀과 나무뿌리로 연명할 때에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거기에서 무한한 힘을 얻었으며 그이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살고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옥중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대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지어 단두대에 오른 준엄한 순간에도 비록 자신은 희생되여도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굳게 믿고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혁명적절개를 지켰다.

우리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싸운 충직성의 모범을 최희숙동지의 혁명활동에서 찾아보게 된다.

적들에게 두눈과 젖가슴마저 도려여

내는 헤아릴수 없는 악형을 당하면서도 그는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고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쳤으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우리는 이밖에도 이러한 모범을 마동희동지를 비롯한 혁명선렬들의 고결한 최후에서 그리고 《공청원 리순희동무》, 《혁명의 투지로, 사장동지의 의지와 신념으로 그는 싸웠다》, 《필승의 신념》, 《불사조》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수많이 보고 배우게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확고히 옹호하였으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부정적현상과 무자비하게 투쟁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철석같은 통일을 보장하였다.

그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쏘베트로선을 고집한 좌경기회주의자들, 반《민생단》투쟁의 구호하에 혁명에 해독을 끼친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 유격근거지에서 광활한 지대에로의 진출을 반대한 교조주의자들 기타 일체 불건전한자들을 반대하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정당한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렇게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혁명대오에 확고히 수립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웠다. 바로 이것이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비상한 혁명적의지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어떤 난관도 뚫고 끝까지 싸워이기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의 혁명로선과 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항상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가 제시한 당의 로선과 정책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각도에서 보고 판단하며 그대로 무조건 집행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사상과 위반되는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등 일체 그릇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혁명적대교조를 계속 발전시킬것이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것이다.

* *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혁명임무로 여기고 그것을 기어코 완수하였다.

혁명조직과 상부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혁명적규률이다.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대

으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그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이였으며 그들은 수령의 명령, 지시를 혁명의 지상과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조건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규률은 수령에 대한 충직성,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확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는것은 곧 그이의 혁명사상,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는 구체적방도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령, 지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임무, 적아간의 력량관계 등 모든 조건들을 세밀히 타산한데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정확하고 구체적인것이였다.

그이의 명령, 지시에는 구체적인 수행방도와 함께 급변하는 정황에 따라 불의의 사태에 대처할수 있는 행동까지 면밀히 타산한 과학적예견성이 담겨져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구체적이고도 예견성있는 수령의 명령, 지시를 집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신속히 끝까지 관철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실로 우리들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규률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고 배우게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김일성동지의 명령과 지시를 적시에 무조건 실현하였으며 온갖 난관과 애로를 타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집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오중흡동지를 회상하여》,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황정해동지를 회상하여》를 비롯한 수 많은 회상기들에서 보고 배우게 된다.

황정해동지는 1938년봄 림강방향으로 행군하던 도중 김일성동지로부터 림강동패자부근에 있는 목재소의 산림경찰대를 습격하고 그곳 로동자들과 주변인민들 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받았다.

대원들을 인솔하여 목적지부근에 다달았을 때 목재소에는 산림경찰대뿐만아니라 수백명의 적《토벌대》들이 집결하여 휴식차비를 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집행하려면 얼마 안되는 대원들로 무려 수십배에 달하는 적을 족치는 힘에 겨운 전투를 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정세가 급변하고 어려웠으나 김일성동지의 명령이라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관철하고야마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추호도 동요하지않았다.

그들은 적정을 다시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적들이 강행군끝에 극도로 지쳤으며 숙영준비에 골몰하여 무경각하게 흩어져있는 약점을 리용하여 불의에 타격을 가한다면 지휘체계를 혼란시키고 능히 놈들을 소멸할수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어려운 정황에서 적《토벌대》의 대부대를 소멸하고 목재소 로동자들과 그 일대의 주민들 속에서 군중정치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훌륭히 관철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재봉

대원들》에서 우리는 1937년초봄 5명의 재봉대원들이 총알이 비발치는 격발속 진펄에서 무릎우에 재봉기를 올려놓고 군복제작임무를 제정된 시간내에 완수함으로써 부대기동을 제때에 보장한 사실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의 명령, 지시를 직시에 수행한 모범을 배운다.

또한 우리는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를 비롯한 많은 회상기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견결하게 끝까지 관철한 모범을 보고 배운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명령, 지시를 빛나게 완수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여기였다. 그들은 수령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바로 수령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충직성으로 하여 그들은 15성상 풍찬로숙하면서 갖은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간악한 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이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맡은 혁명임무를 제때에 철저히 수행하는 혁명적규률을 확립하고 모든 단위에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이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결정과 지시를 이김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여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야마는 견결한 혁명투사가 되여야 한다.

※ ※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가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혁명의 지휘부는 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이다.

김일성동지가 계신 혁명의 사령부—이는 당시 조선혁명의 참모부였다.

바로 여기에서 백전백승하는 전략전술이 작성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위대한 구상이 제시되였다.

김일성동지가 계신 사령부를 떠나서는 혁명투쟁의 성과적추진도,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것은 조선혁명을 보위하는것이였으며 그것은 조선의 혁명가들, 항일유격대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임무였다.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에 몸바쳐 투쟁한 간고한 나날에 어느 한 시각, 어느 한 장소에서도 수령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었으며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정치사상적으로 확고히 보위하였을뿐만아니라 그이가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는것을 자기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숙영할 때나, 행군할 때나, 적과 싸울 때 그이의 안전에 제일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이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오면 서슴없이 몸으로 막아나섰으며 언제 어떤 정황에서나 그이가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을 독립시키는 혁명의 심장이요.

우리는 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 그를 받들며 철석같이 보위하여야 하오.

이 정신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바쳐 고수하여야 하오》.

권영벽동지의 이 말은 사령부에 대한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의 한결같은 태도와 립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 《오중흡동지를 회상하여》, 《심장의 나팔소리》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고귀한 품성을 본받게 된다.

1934년말 북만원정의 귀로에 적들의 4면포위속에서 혹한을 만나신 김일성동지를 구원한 유격대원들의 정성, 1937년 추두산밀영에서 은밀히 기여든 수십배의 적을 결사적인 돌격으로 물리치고 그이의 안전을 보장한 유격대원들의 결사성과 용감성, 1939년봄 15도구전투를 지휘하시던 김일성동지의 주변에 적탄이 마구 떨어지게 되자 그이의 앞으로 뛰여나가 몸으로 적탄을 막아나섬으로써 자신이 중상을 당하면서도 그이의 신변을 보위한 리권해동지의 희생성 등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을 보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는것으로서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한다.

특히 오중흡동지의 생애와 활동은 김일성동지가 계신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모범으로 된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령부를 생각하고 김일성동지의 신변상 안전을 념려하였으며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1938년말~1939년초 고난의 행군시 오중흡동지는 사령부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 부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적들을 유인하면서 대원들에게 《우리가 많은 적을 끌고 어려운 전투를 할수록 사령부는 안전할것이요》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10여차례씩 힘겨운 전투를 하였다.

그러다가도 적들이 추격해오지 않으면 놈들이 사령부쪽으로 뒤따르지나 않는가고 걱정하여 되돌아가 적들을 족치고 다시 유인하여 끌고다녔다.

오중흡동지의 용감하고 희생적인 투쟁은 당시 가장 위험한 고비에서 사령부를 수호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혁명의 수뇌부이며 참모부인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 《죽어도 사령부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으며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렇게 행동하였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과 그이가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훌륭한 모범을 본받아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조선혁명의 참모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령도사상을 훼손하려는 내외의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줄 아는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되여야 하며 혁명대오를 철석같이 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 ✻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직성은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을 본받아 그이처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쳐 혁명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데서도 표현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이의 높은 덕성을 본받아 그이처럼 인민의 충복이 됨으로써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갖은 고생을 다하여 원쑤와 싸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대원들에게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을 깊이 명심하고 언제 어데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놓이더라도 항상 자신들이 인민의 군대라는것을 잊지 않았으며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진심으로 도와주는 립장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하신 가르침을 명심하고 인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민의 행복을 가장 귀중히 여기였으며 인민에 의거하여 살며 싸우는 인민적사업작풍을 생활에서 구현하였다.

우리는 《인민의 리익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인민의것이라면》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어떻게 인민의 리익을 존중히 하고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였는가를 감명깊게 보고 배운다.

이렇게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높은 덕성을 본받아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며 항상 인민들에게 의거하는 인민적사업작풍을 구현함으로써 광범한 혁명군중을 튼튼히 결속시키고 혁명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진시켰던것이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는 유격대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들에게 높은 신임을 표시하시였다.

그이는 지방의 혁명조직을 통하여 유격대에 입대하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과 혁명적청년들, 인테리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의거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혁명사상과 애국심을 믿으시고 높은 신임을 표시하시였으며 한품에 너그럽게 포옹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하부를 뜨겁게 사랑하신 수령의 덕성을 본받아 동지를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굳게 뭉쳐 싸웠다.

참으로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혁명동지는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것이였다. 그들은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우는 혁명동지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한목숨을 바치는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뜨거운 동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수많은 회상기들에서 수령의 덕성을 본받아 혁명동지를 뜨겁게 사랑한 훌륭한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대로 진실로 인민의 충복답게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며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쳐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가적품성을 따라 계속 배워야 하며 그것을 실천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생활기풍과 사업작풍을 따라 배우고 본받아야만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을 보다 훌륭히 소유할수 있으며 혁명동지를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우리앞에 어떤 난관과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타개하고 해결해나갈수 있다.

* *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은 해방후 우리 인민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일편단심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투쟁하고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미제침략자를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이 세운 불멸의 위훈도, 전후 우리 인민이 당의 로선을 관철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쟁취한 빛나는 승리도 모두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본받고 그들처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이루어진것이다.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계속 조선혁명의 진두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계신다.

40여년간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행복이며 영광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 때 어떤 난관과 애로도 뚫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충만되여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거울로 삼아 그 모범을 따라 배우며 그들처럼 김일성동지에게 무한히 충실하는것은 오늘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오직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고 자신을 혁명화하여야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자주적인 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고 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갈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에게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삼아 일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것이라면 비록 사소한것이라도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을 적극 지지옹호하며 당정책에서 리탈되는 모든 경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244~245페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에 대한 충직성은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오늘 우리의 조건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수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옹호관철하고야만 혁명적기풍을 본받고 그들처럼 투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참된 전사로 되기 위하여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더욱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직접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여 혁명투쟁한 사람들과 같은 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함으로써만 우리 당과 혁명의 근본을 알게 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과 사상을 본받아 자신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할수 있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할 때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고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문 정 석

금번 진행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비롯하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제반 정책들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이 현실에서 빛나게 실증되고있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당대표자회결정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킬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급속히 촉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조성된 정세와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내세웠다.

* *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항상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로동은 인간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인류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137페지)라고 교시하시였으며 《행복한 사회주의사회는 오직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력에 의하여서만 건설될수 있다》(김일성선집 제6권, 428페지)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오직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주인이 된 수백수천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다 인입하고 그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모두다 힘껏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로동 및 로임 조직을 합리화하며 로력후비양성과 로동보호사업을 개선하고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는 등 제반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된다.

로동행정사업은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관리조직사업의 하나이다.

물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자면 계획화를 잘하고 기술관리와 설비관리 그리고 물자, 재정 관리 등 제반 관리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기계와 설비를 움직이고 원자재를 리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로동을 관리하는 로동행정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

우리 당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경제발전의 매시기마다 정확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방대하게 요구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들에 다 힘껏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실시된 농촌로력을 증가시키며 농촌핵심진지를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 지방의 유휴자재, 유휴로력에 의거하여 지방산업공장을 대대적으로 창설하고 많은 녀성들을 생산에 인입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대당 수입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제고시킨 조치, 정규교육망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망체계를 통한 기술인재와 로력후비의 양성조치, 정치도덕적자극과 밀접히 결부하여 물질적자극을 주기 위한 새로운 생산 및 로력 조직과 보수형태의 도입,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선행시키며 모성로동자들에게는 6시간 로동제를 실시하여 그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고 후대교양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조치 등 일련의 창조적조치들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들이였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창조적조치들로 하여 우리는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기술경제적락후성과 혹심한 전쟁피해를 급속히 가시고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기능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착취와 압박, 실업과 빈궁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직업에 대하여, 의식주에 대하여,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하여 근심걱정없이 모두가 다 조국의 륭성발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흥겹게 일하고 다같이 배우면서 보람찬 생활을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로동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라는 구호하에 생산과 기술,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이미 달성한 성과들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자랑찬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힘들고 고된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할 과업이 남아있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달성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7개년계획의 총적과업과 함께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며 국방건설을 더욱 다그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는 한편 새로운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나라의 동력, 연료 기지를 계속 강화하면서 흑색 및 유색 금속생산의 급격한 장성을 위한 개발사업과 함께 철도의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원유정제공장과 김책제철소에 강철 및 압연 공장을 건설하는 등 방대한 규모의 기본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근거하여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계속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진지를 공고히 하고 알곡을 비롯한 남새, 육류, 과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으며 도처에서 많은 로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오늘 일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장에 진출하고있는 조건에서 놀고있는 사람이란 없으며 조직적로력원천은 극히 제한되여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과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있는 로력으로 지금보다 배이상 더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 모든 사정은 로동행정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무차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오늘 누구든지 로력을 잘 조직하고 이를 절약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자로 될것이다》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생산이 복잡한 기술공정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오늘 사람들의 로동을 관리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내부예비를 찾아내고 생산의 앙양을 일으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도처에서 요구되는 로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하며 있는 로력으로 생산의 체계적인 장성을 보장하는 기본방도의 하나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절배치하며 기술혁신을 강력히 전개하는것이다.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구체적인 로력계획과 로력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직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에 따라 로력을 생산로력과 관리 및 비생산 로력, 남성로력과 녀성로력, 녀성로력중에서도 가정부인유모로력, 기능로력과 무기능로력 등으로 세분하여 로력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개 일군들을 기술공정의 요구와 그들의 체질, 기능에 맞게 배치

하며 그것을 또한 로력대장에 정확히 반영하여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할 때만이 있는 로력을 보다 생산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불합리하게 배치되였거나 지나치게 늘어난 관리 및 비생산 로력과 간접로력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기본생산로력 그중에서도 직접공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로동부문에 배치되여있는 청장년로력을 탄광, 광산,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중요부문에 조절배치하고 대신에 녀성, 가정부인 로력을 인입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면서 특히 채취공업부문로력의 질적구성을 개선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로력에 대하여서는 그를 고착시키며 농촌핵심진지를 공고히 하는데 계속 깊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현시기 로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결정적담보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강력히 촉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신을 일으키는것이다.

《기술혁명—이것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전면적기술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기술발전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며 그 수행에 모든 기술자들을 조직적으로 인입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일군들 속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무관심성과 소극성, 보수주의 그리고 로력수만 늘이여 생산장성을 보장하려는 경향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면서 창의고안합리화운동을 광범히 조직하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하며 선진기술공정과 선진작업방법을 도입하는 등 전면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아가야 한다. 특히 기업소들에서 기술혁신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을 지체없이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기동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공업과 건설 부문에서는 운반작업, 상하차작업, 토공작업 등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부문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할것이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할것이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에 화력을 집중하여 생산능력과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개선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로동생산능률을 2배이상 높이도록 할것이다.

현시기 로력을 절약하며 추가적로력없이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는 예비의 다른하나는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생산이 서로 밀접히 련계된 기술공정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조건하에서 그에 맞게 질서를 세우고 로동규률을 확립함이 없이는 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생산의 정상화도 보장할수 없다.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

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가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착취계급의 치부를 위한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행복과 자기 조국의 번영을 위한것이다》(김일성선집 제5권, 428페지).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로동에서 자기의 온갖 창조적열성을 다할 때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결부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하루에 8시간로동을 하는것이 모든 공민의 영예로운 권리이며 법적의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모두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로동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기업소들에서는 당 및 사회단체초급정치일군들이 자기의 솔선적모범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을 480분의 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모든 지도일군들은 480분 로동시간을 충분히 리용하는데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신부터 로동규률을 확립하는 앞장에 서며 집단내에 로동시간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기풍이 넘치도록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체계에 의하여 로력관리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대안체계에 상응하게 통일적인 생산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된다.

이에 있어서 공장참모부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공장참모부는 생산조직에 앞서 설비, 자재 상태와 함께 반드시 기업소로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생산지명시에는 생산과제뿐만아니라 그것을 담당수행할 로력과 로동보호조건을 동시에 지적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공정간 균형을 맞추고 작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자재를 현장에 날라다주는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작업휴지로 인한 로동시간의 랑비를 근절하고 480분 로동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작업반과 교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고속도굴진, 다기대운동, 겸직작업, 4조2교대 등 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로력조직형태와 작업방법을 도입일반화하는 동시에 로동자들의 로동시간리용정형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의 하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후비양성과 기술기능향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기술혁명의 시기인 현조건하에서 로력

후비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전반적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혁신과 제품의 질 제고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새로운 많은 조업개시대상을 제대로 움직일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당의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새로 조직된 기능공학교를 잘 꾸리고 로력후비를 계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자기 부문의 기능공을 자체로 해결하는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능공들을 전공직종에 배치하고 오래 고착시키며 특히 고급기능공들과 특수기능공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강화하며 다기능공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을 바로잡고 로임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로동행정사업부문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본래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객관적법칙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성을 자극하며 그들의 물질적복리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킴에 있어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밀접히 결부하여 물질적자극을 줄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현시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로동정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계획과 로동 및 로임 조직의 기초이며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최근년간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지도와 통제가 미약한데로부터 로동정량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로동정량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여 로동정량을 과학적인 기술경제적타산과 로동자들이 실지로 일해본 경험에 기초하여 군중토의의 방법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그 수준은 반드시 도달된 평균실적수준이상 선진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로동정량사업에서 성, 관리국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로동정량사업에서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준량을 타파하고 혁신적로동기준량을 창조하기 위한 전군중적운동을 광범히 조직전개할것이다.

로임조직에서는 국가의 승인이 없이 로임지불형태를 자의로 제정적용하는 현상이 발로되지 않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돋우며 제품의 질 제고와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향상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로임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도

일되고있는 작업반우대제와 분조도급제를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그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며 사회보험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제도하에서 제일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우리가 생산하는 목적도 결국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데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일상적으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선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로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계획적으로 완비하고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로동보호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엄격한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로동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후방공급사업이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체의 부업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과 함께 자기 기업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원, 상점, 학교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통일적인 후방공급체계를 수립하도록 할것이다.

사회보험사업을 개선하여 당과 정부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할것이며 특히 애국렬사유가족, 전사자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며 그들에 대한 국가적방조와 사회적원호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로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이 사업에서는 항상 로동과정과 관련되는 복잡한 기술경제적문제들과 함께 사람들의 리해관계와 직접 결부되는 신중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로동행정사업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와 내용으로 보나, 사회주의건설에서 노는 역할과 위치로 보아 이 부문의 몇몇 일군들에게만 맡겨둘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여가지고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따라세울수도 없다.

로동행정사업을 1~2년내에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로동행정사업을 모든 지도일군들의 첫째가는 관심사로 되게 하며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과 지혜를 적극 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행정사업에서 각급 로동행정기관

들의 조직지도 및 통제적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생산 성, 관리국,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며 이 사업에 근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조건하에서만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그리고 광범한 군중들 속에 당의 로동정책,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체계적으로 해설침투시키고 그들을 로동행정사업개선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고착시키며 로동행정사업에서 대안체계와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이 사업을 심중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고 그것을 과학적기초우에서 부단히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새로운 혁명적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층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 이는 모든 근로자들을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그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지난시기 대내외적으로 일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였을 때 천리마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신과 기적을 창조한 그 경험을 살리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층 심화발전시키는데 깊은 당적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집단적혁신운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천리마작업반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라는 구호가 전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특히 전체 근로대중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가 가르치는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조직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며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며 이 운동에서 근로단체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빛나게 수행하며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 문 덕

최근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계속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가 제시한 대책들에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는 방대한 기본건설의 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다.

건재공업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실현하는 기본건설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보장하여주는 기간적공업부문의 하나로서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아름답고 튼튼하고 오래 갈수 있는 질 좋은 건재를 생산해주어야 건설하는 사람도 좋은 집을 지을수 있다. 건설의 질은 중요하게 건재에 달려있다》 (김일성선집 제6권, 154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문화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 국방력강화를 위한 방대한 기본건설을 실현하는 필수적조건이다.

또한 건재공업을 발전시켜 보다 새롭고 경제적인 건재를 보장하는것은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건설비를 낮추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건재공업이 가지는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건재공업을 창설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기본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재생산을 앞세울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세멘트, 조립부재, 판유리부문을 비롯한 대규모의 건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여기에 중소규모 지방건재공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켰다.

7개년계획기간에 들어서면서 당은 현대적인 대규모건설이 방대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건재공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건재공업의 발전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켰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불과 몇개의 락후한 세멘트공장과 벽돌공장밖에 없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에 와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수많은 중앙 및 지방 건재공장들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건재공업은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자립적이며 현대적

인 공업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경제의 중요구성부문의 하나로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건재공업에 의거하여 전후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문화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을 꾸려놓았다. 전국 도처에 자리잡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다층건물이 즐비한 웅장한 도시들, 오랜 락후성의 흔적을 털어버린 문화농촌들은 자체의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기본건설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있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오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고조는 건재공업부문앞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방대한 기본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미제와 그 추구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국방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면서 대규모의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과 김책제철소 압연직장, 원유가공공장 등 복잡하고 현대적인 대규모의 산업건설들을 진행하며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하여 철도, 도로, 항만 및 수산 건설도 계속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관개 및 간석지 건설과 하천정리사업을 강화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도시와 농촌에 매해 20만세대이상의 주택과 함께 교육문화후생시설들을 더 건설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모든 도시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며 우리 나라 농촌을 더욱 사회주의적인 문화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오늘 각종 현대적건재들을 요구하는 산업건설의 비중이 증대되였으며 건설물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조건에서 건재의 량을 더욱 장성시키면서 그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는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건재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건설을 진행하는데서만 제기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건설하여놓은 현대적인 건설물들과 시설들을 더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건재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건재는 외화를 얻기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12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을 리용하여 건재를 대량 생산하며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가 자체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기초하여 세멘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 좋은 건재들을 생산하고 수출을 확대한다면 귀중한 외화를 더 많이 획득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이와 함께 조국이 통일된후 파괴된 남반부경제를 복구건설하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급속히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도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요구된다.

건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질 좋고

아름다우면서도 값싸며 화학물리적작용에 잘 견디는 각종 건재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기본건설사업을 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절실한 과업으로 된다.

* *

이번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건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건재공업발전의 기본방향은 전원회의 결정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보강하고 이에 새 건설을 배합하여 중앙적인 건재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규모의 지방건재공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키며 건재생산의 화학화와 기계화, 자동화, 프레스화를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품종을 확대하며 질을 높이는것이다.

현존생산기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재생산을 질, 량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이 방향은 현시기의 조건하에서 건재공업발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으로 된다. 오직 이 방향을 철저히 실현할 때에만 우리 건재공업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이 방향의 실현과 관련하여 건재공업앞에 제기되는 선차적인 과업은 현존건재공업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일부 새 건설을 이에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건재공업의 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생산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것이다.

우선 우리 나라에 풍부하고 얻기 쉬운 각종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기본구조용 건재물인 세멘트와 조립부재, 건설용강재, 벽돌 등의 생산기지들을 더욱 완비하고 그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켜야 한다.

기본구조용 건재생산의 확대는 건설의 속도와 규모를 규정하는 결정적조건의 하나로 된다. 특히 세멘트생산을 확대하는것은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고 건설사업을 보장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멘트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멘트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수 있다》**(김일성선집 제5권, 371페지). 주택도 더 짓고 도로도 더 포장하고 철도와 항만, 관개시설, 산업시설을 더 많이 건설할수 있으며 국방건설도 더 할수 있다.

모든 세멘트공장들에서는 낡은 설비와 대형부속품들을 체계적으로 갱신하며 현생산공정에서 약한 고리로 되고있는 분쇄 및 건조 능력을 보강하고 저장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일부 락후한 세멘트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야 한다.

부재를 더 많이 그리고 보다 크고 가볍게 생산하는것은 건설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며 건설물의 원가를 낮추는 중요한 전제로 된다. 부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현존부재공장들을 전면적으로 정비보강하여 그 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는 한편 부재생산기지가 없는 일부 지방도시들과 산업건설지구들에 새로운 생산능력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며 공장생산과 함께 로천생산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산업부재들의 로천생산을 조직하며 군 및 로동자구 또는 농촌들에서 건설용 부재들을 간단한 설비를 갖추고 로천에서 광범히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멘트, 부재생산과 함께 질 좋은 벽돌생산을 증대시키는것은 기본건설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벽돌생산에서는 현존벽돌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며 공정간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생산량을 장성시키는 동시에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기본구조용 건재생산기지를 꾸리면서 화학건재, 목질건재 등 새 건재기지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건재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하고 그 생산능력을 확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건재의 화학화는 건재공업 발전에서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건재의 화학화는 목재와 철재를 비롯한 건설의 기본재료들을 각종 합성수지제품으로 대용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방수, 방음, 보온재들을 손쉽게 만들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을 간편하게 하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건설원가를 낮출수 있게 한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유기합성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각종 합성수지건재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도료, 방수재, 접착제, 각종 메움재의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건재의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목질건재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목질건재를 대량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이미 있는 목삭판, 목섬유판, 목삭세멘트판 생산공정들을 확장하고 기술적으로 완성하여 그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목재부산물이 집중되는 지역들에 새로운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꾸리는것이 필요하다.

각종 금속건재와 건축설비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새 건재기지를 꾸리고 기본건설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선 지붕용 합석과 창살강, 얇은 아탈강판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최신설비를 갖춘 쇠문생산기지를 시급히 꾸리고 그 생산량을 급속히 증대시키며 현대적건물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현실정에 맞게 승강기와 난방, 환기 설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생산을 장성시켜야 한다.

건재공업의 구조를 완비하고 그 생산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건설용 요업건재와 유리건재기지 [illegible]히는 각종 공업로용 내화물기지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각종 요업원료와 아름답고 질 좋은 석재원천이 도처에 풍부하게 있다. 이것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석재를 건설에 광범히 리용하는것은 건설물을 만년대계로 더욱 튼튼하게, 그리고 보다 아름답게 지을수 있게 한다.

큰 규모의 요업, 석재 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 요업, 석재 공장들을 원료조건과 지역적수요에 맞게 잘 꾸리고 벽돌, 타일, 위생자기 등 각종 건설용 요업제품들과 석재생산을 급속히 확대하는것이 요구된다.

유리건재기지를 꾸리고 그 생산을 장성시키는것은 공장건물들과 주택, 공공문화후생시설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용 유리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그 품종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질 좋은 내화물을 생산하는것은 야금로들과 세멘트소성로들을 비롯한 각종 공업로들의 가동률을 높임에 있어서 극히 큰 의의를 가진다. 내화물생산을 확대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현존내화물기지들을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개건확장하면서 고압성형과 고온소성을 도입하며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건재공업을 발전시켜 건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원료기지와 수리기지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건재공업에서 현존원료기지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새로운 원료기지들을 전망성있게 조성하며 수입원료를 국내원료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건재원료들을 재질별, 규격별로 원만히 생산공급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염화비닐수지와 가소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금속공업부문들에서는 건재생산용 금속자재들을 재질별, 규격별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림업부문에서는 각종 건재생산용 목재를 수종별, 규격별로 3개월이상 선행하여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료기지를 꾸리는 동시에 수리기지를 강화하고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요구된다.

우선 건재공장들에 있는 현존 공무직장들을 더욱 정비보강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며 전문부속품생산기지들을 계속 정비확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건재공업자체로 해결하기 곤난한 대형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그 부속품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건재공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지방건재공업을 확대강화하는것이다.

중앙적인 건재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요구되는 방대한 건재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도처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지방원료들을 그 원천지에서 가공하여 지방건설을 보장하는것은 건재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큰 투자없이 충족시킬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수송의 긴장성을 완화시킬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958년에 지방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것처럼 건재공업에서도 광범한 대중의 열성과 지혜를 동원하여 전국도처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건재생산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지방건재생산을 담당하고있는 모든 기관들에서는 건재의 지역적수요와 원료원천을 충분히 타산한 토대우에서 기존공장들을 재정비하고 생산기술공정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여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필요한 일부 건재공장들을 새로 꾸려야 한다. 특히 지방적수요가 많고 원료가 풍부한 벽돌, 기와, 소석회 등의 건재를 생산하는 중소규모공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전면적인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고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건재공업을 짧은 시일내

에 혁신하며 증대되는 건재의 질, 량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고 새 건재를 해결하며 건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건재공업부문의 기술혁신은 건재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 동시에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시키고 프레스화의 비중을 높이며 각종 공업페설물을 리용하여 건재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기술혁신의 이 당면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건재생산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부문별로 제품설계실과 시작품작업반을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며 로동자와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창의고안 및 합리화운동이 광범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이 요구된다.

이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나라 원료원천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할것이며 여기서 얻은 성과들이 지체없이 생산에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건재부문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

건재공업부문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창조적열성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건재공업기지를 확대하고 새 건재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이는 방대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건재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건재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당결정,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옹호하며 그를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보수주의, 소극성과의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가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락후한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락후한 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이다. 락후한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109폐지).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 속에서 소극성, 보수주의, 안일과 침체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살고 일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당이 건재공업부문앞에 제시한 방대한 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일떠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광범한 근로대중을 새로운 혁명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층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의 창조적열성과 지혜를 고도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더 빨리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조건들이 변화된 구체적현실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깊은 당적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과 건재공업앞에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도처에서 혁명적고조를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건재공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수립하여 이 부문의 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체계의 기본요구는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다.

건재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관리일군들은 반드시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조력을 발동하며 기업관리에 대중을 광범히 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계획화사업에서 당의 세부계획화방침을 옳게 구현하여 모든 계획지표들을 정확히 맞물리게 하며 관리운영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재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관리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480분 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1인당 생산액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건재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쳐 건재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능히 기본건설의 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중대한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불패의 힘

오 국 렬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 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김일성).

(1)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방금 력사무대에 출현하여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청소한 조선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과 싸워이긴 전쟁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이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최초의 전쟁이였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급속히 장성하기 시작한 혁명력량앞에서 극도로 당황망조하여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를 막아보려고 공공연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후 아세아인민들의 혁명적각성과 이 지역에서의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장성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공포로 되였다.

조선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곳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장차 아세아를 침략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조선의 《유리》한 군사적위치를 탐내였으며 어리석게도 조선에서의 장성하는 혁명력량을 진압함으로써 세계적추세로 된 반제혁명력량의 앙양을 가로막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이 사회주의력량을 반대하는 첫 전쟁을 조선에서 일으킨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장성하는 혁명력량을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에서 우심해진 경제적위기로부터도 벗어나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전선에 최신기술로 무장한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해군함대의 중요부분을 동원했을뿐만아니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한 2백수십만명의 대병력과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를 투입하였으며 전쟁력사에 그 류례가 드문 간악하고 포악한 전쟁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실로

모든 발악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한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는 3년간의 전쟁행정에서 39만 7,000여명의 미군을 포함한 109만 3,000여명의 유생력량을 살상포로당하였으며 1만 2,000여대의 비행기와 550여척의 함선, 3,000여대의 전차, 7,600여문의 각종 포를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를 상실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대에 의하여 호되게 얻어맞고 코대가 꺾인 미제침략자들은 마침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쟁에서 패배당함으로써 그들이 이 전쟁에서 노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을뿐만아니라 정치도덕적으로도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는 시초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국제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선전쟁은 세계의 많은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를 주었으며 이 전쟁을 통하여 세계인민들의 반제기세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미제를 타승하고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북반부에 혁명기지를 축성할데 대한 로선이 얼마나 정확하였는가를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가 처한 주객관적인 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 혁명의 앞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화정책이 로골화되고있는 당시의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미리 예견하시였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급속히 강화하여 북반부에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혁명기지를 축성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주기지로선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려는 철저한 주체사상과 반제국주의적인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혁명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로 발전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이 실시되여 사회적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고 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게 될 우리 혁명의 전도를 멀리 내다보시고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인민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고 그 위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리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에 도사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그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든지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출수 있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혁명로선과 그것을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이 평화적건설시기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해방후 짧은 기간에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변혁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3페지).

우리 인민은 당과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미제침략자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하여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영용한 항전에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력침공을 즉시에 분쇄하고 신속히 반공격에로 이전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던 조국해방전쟁의 전 과정에서 김일성동지는 전쟁지도의 모든 수하를 두어깨에 걸머지시고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를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김일성동지의 호소에 따라 모든 사업을 기동성있게 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전선과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대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은 대열내의 변절자, 동요분자, 비겁분자를 적발폭로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인 당자체를 조직사상적으로 일층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는 한편 평화산업을 군수산업으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동원하였다. 우수한 간부들과 당원들을 인민군대에 파견하여 전투대오를 급속히 확대강화하였고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부단한 관심을 돌렸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주체적힘을 믿으시고 그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이 전쟁에서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과 위훈을 떨치였다.

이리하여 전쟁과정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더욱 장성하였고 전선과 후방은 하나의 강력한 전투보루로 전변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한치땅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에서 조성되는 정황을 예견성있게 통찰하시고 천재적인 전략작전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전쟁의 전 행정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었다. 조선전선에서 미제침략군은 수차례에 걸치는 대규모적인 공격을 기도했으나 인민군대는 그때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전략작전적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전쟁의 승국적승리를 보장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미제를 타승할수 있은것은 또한 당과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이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한결같이 결사전에 떨쳐일어나서 영용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과거에 나라를 잃고 주권을 못가졌던 탓으로 하여 망국노의 쓰라린 운명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은 조국의 한치땅도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여줄수 없었다. 막대한 희생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주권과 되찾은 조국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실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이였다. 해방후 그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새 제도하에서 새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로동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체험하였고 자기의 조국과 주권이 귀중함을 가슴깊이 깨닫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번영하는 새 제도하에서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깨달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인민이였기 때문에 고귀한 희생과 피의 대가로 되찾았고 자기들의 행복이 깃들어있는 조국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서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에게 가장 무자비한 징벌을 가했던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그것을 운영하고있으며 자기 손으로 공장, 광산, 철도운수, 교육, 문화 기관들을 운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서 어느놈이 이러한 권리를 빼앗아낼수 있겠는가? 빼앗아낼자는 한놈도 없으며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자기의 인민정권기관에서 받은 토지를 자유롭게 경작하고있는 우리 농민들에게서, 자기자신이 공장의 주인으로 되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자기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우리 로동자들에게서 그리고 자기 나라의 자주적민족경제의 건설과 민족문화의 개화를 위하여 민주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있는 우리 학생들에게서 토지와 공장과 학교를 절대로 빼앗아낼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67페지).

미제침략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각오로 충만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적의 야수적인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전시생산을 보장하였으며 농민들은 밭머리에 대피호를 파고 전선에서와 같이 자신과 역축을 위장해가면서 식량을 증산하여 전선으로 보냈다. 남강마을녀성들을 비롯한 전연지대의 영웅적인민들은 포탄이 우박치는 사선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고지의 전투원들과 한몸이 되여 싸웠다.

인민대중이 원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란 없다. 전쟁의 주인은 어데까지나 무장한 인민대중이다. 전쟁의 종국적승리는 당과 수령의 정확한 령도밑에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조선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은 그들을 제국주의군대, 반혁명군대와는 비할바 없는 강유력한 무장력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고 항일유격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그 뿌리에서 자라난 혁명군대이며 인민의 군대이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 정책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는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들이다. 그들은 당이 제시한 혁명로선을 무력으로 옹호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다.

당과 수령의 전사된 자각과 자기 혁명임무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대의 수많은 용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쳤다. 리수복, 강호영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영웅들이 자기 한몸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끓는 가슴으로 적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을 보장하였으며 두팔과 두다리에 중상을 입은후에도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굴러들어가 원쑤를 족치고 조국의 한치땅을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바쳐 수호하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이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7페지).

인민군대는 자기의 이와 같은 우월성으로 하여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군대를 때려눕히고 세인을 경탄케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당과 수령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들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각오로 충만된 인민군장병들과 우리 인민은 진공시기에 용감히 싸웠을뿐만아니라 전략적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도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전략작전적방침에 따라 침입해오는 적의 주력을 견제하면서 끝까지 사령부를 따라왔으며 대부대에 의한 적후투쟁을 전개하여 적을 정면과 후면에서 부단히 후려갈김으로써 적의 기도를 여지없이 분쇄하고 후퇴의 모든 난관을 성과적으로 타개하였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단결된 인민,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그러한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켰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굳합없이 싸우는 열렬한 혁명투사의 대부대로,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로혁명투사들과 함께 새로 자란 수많은 전투영웅들을 가진 강력한 혁명군대로

장성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악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으며 그들에 대한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항상 철저히 준비되여있을것을 우리 인민에게 가르쳐주었다. 동시에 이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력사적승리는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자기의 수령과 맑스—레닌주의당의 옳은 령도밑에 확고한 자위적원칙에 서서 끝까지 싸울것을 각오한 인민은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도 능히 물리칠수 있으며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결히 싸움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였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전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자기자신의 위대한 힘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오직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2)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또다시 침략과 전쟁으로 구원해보려고 망상하면서 계속 무모한 전쟁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계속 무장충돌을 야기시킴으로써 조선전쟁을 일으킨 6.25전야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전쟁을 더욱 확대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괴뢰침략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력량과 반제력량을 말살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궁지로부터 헤여나기 위하여 극도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현실은 우리들에게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저들의 발악적인 침략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우리가 준비된 태세에 있을 때에만 원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며 설사 그들이 분별없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침략자들을 격파할수 있는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49페지).

우리 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 나라의 주객관적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과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촉진시키는 동시에 국방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만 사회주의 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들을 일격에 소멸하고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 전체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당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자기의 뼈와 살로 되게 함으로써 자신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한뜻으로 단결되고 오직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때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타승하지 못할 적이란 있을수 없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심도있게 학습하며 항일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뿌리를 똑똑히 인식할 때에만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당의 로선과 정책,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여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목숨바쳐 보위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전쟁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제국주의와 맞서서 혁명을 수행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윁남에서의 정세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의 혁명이 전진하면 할수록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더욱 발악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제국주의자들을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준비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테로통치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말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긴장된 혁명적분위기속에서 살며 일하도록 부단히 교양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 속에서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훌륭히 발양하도록 교양하며 인민군대와

그 가족들을 적극 원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철석같이 꾸리는 동시에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상비적인 정규군은 나라의 방위체계에서 핵심력량을 이룬다. 그러므로 전투에서 주동적역할을 담당하는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유사시에는 모든 군인들이 한등급 높은 직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그 무장장비를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군인들을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격파할수 있는 일당백의 군대로 준비시켜야 한다.

현대전쟁은 강력한 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을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는 가장 정당한 군사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로농적위대대열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 속에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군사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전쟁경험을 연구하게 하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

미제를 타승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보다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쑤를 격멸하고 남녘땅을 해방할 혁명적기백으로 들끓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분별없이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무장한 전체 인민과 함께 영웅적투쟁에 궐기하여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소탕하고야 말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군사기지화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기본

강 동 칠

현대제국주의괴수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군사기지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횡포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오늘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는 미제의 전쟁정책에서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기지화정책은 특히 악랄하고 횡포한 성격을 띠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들씌울뿐만아니라 정치적무권리와 예속을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다.

1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6페지).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군사기지화에 중점을 두고있다.

미제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이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는데 발광적으로 날뛰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근 6만명의 침략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다. 그들은 원자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와 최신식전투기자재들을 끌어들이고있으며 150여개의 륙해공군기지들로 남조선전역을 뒤덮고있다.

남조선에 배치된 미군의 구성에서도 그들이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군사기지화를 중요시하는것이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기본군종인 륙군을 위주로 구성되여있다. 남조선과 린접한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기본주력은 공군이다. 기타 오끼나와, 필리핀 등에 배치된 미해공군은 남조선에 포치된 기본군종인 륙군의 작전을 엄호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일본과 기타 군사기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

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

남조선에 제공되는 《원조》배당에서도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군사기지화정책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이 잘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에 배당되는 《원조》총액의 40%를 남조선에 투입하고있으며 그중 80%이상을 군사장비와 괴뢰군유지비에 쓰고있다.

미제는 군사기지화정책을 통하여 남조선을 직접적인 군사적강점에 의한 전초기지로서뿐만아니라 인적자원을 획득할수 있는 대포밥공급기지로서, 경제력을 군사적목적에 최대한으로 징발할수 있는 원천지로서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저들의 방대한 무력을 《주둔》시키고있을뿐아니라 괴뢰무력을 장악하고 온 남조선을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군사기지로만들고있다.

오늘 《주한미군사령관》은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직접 틀어쥐고 처리하고 있으며 괴뢰정부의 《국방부》와 괴뢰군의 각 단위들에 《미군사고문단》들을 파견하여 지휘통제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군고문》들의 동의와 승인이 없이는 단 한명의《국군》도 움직일수 없게 되여있으며 무기, 탄약, 휘발유도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미제는 괴뢰군을 철저히 예속시켰을뿐만아니라 남조선을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일대 병영으로 전변시키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청장년들을 마음대로 침략적목적에 동원하고있으며 2백 수십만의 괴뢰군제대자를 임의의 시각에 징발할수 있는 군사체제를 확립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군사기지화에 중심을 두고있는것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순전히 미제의 군사정치적책략의 필요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다.남조선경제의 군사화는 보통 자본주의나라들에서처럼 군비확장과 함께 경제위기의 완화에 리용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목적에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징발하는데 복무하고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매우 큰 규모로 감행되고있다. 남조선의 군수공업의 상태는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에 있지만 총체적으로 경제적잠재력이 군사적목적에 리용되고있는 정도는 극히 높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1962~1966년 기간에 총투자액의 47%를 군사적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문에 돌렸으며 그중 투자의 약 76%를 전기, 철도, 도로, 항만, 운수, 통신 등에 집중시켰다. 그들은 인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문의 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이러한 부문을 발광적으로 조장시키고있다.

남조선국민소득에서 군사적소비는 큰 제국주의나라들에 비해서는 물론 아세아의 기타 미제의 《동맹국》들에 비해서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괴뢰정부의 직접적군사비, 《유엔군》에 의한 토지와 건물 기타의 징발,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 체신, 항만 시설 등의

군사적리용, 전략자원의 략탈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군사적소비는 막대한 액에 달하고있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미제는 군사기지화를 위하여 남조선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군사적목적에 징발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그들의 침략의 예봉이 아세아에 집중되면서 한층 적극적인 단계에 돌입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침략기지로서의 남조선과 그 군사적잠재력을 자기들의 전쟁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7페지).

미제는 웰남침략전쟁에서 소모되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면서도 남조선강점미군병력만은 계속 증가시키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있을뿐아니라 각종 대량살륙무기와 유도무기, 최신식전투폭격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으며 상륙작전을 위한 지원함, 구축함, 수송함들로써 괴뢰해군장비를 강화하고있다.

한편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남조선강점미군은 괴뢰군과 함께 빈번히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으며 《림전태세확립》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전시에 대처하기 위한 《후방안전》을 운운하면서 파쑈적폭압을 한층 강화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파쑈적폭압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폭압정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그들은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고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무서운 공포분위기에 잠그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적대적도발행위를 일층 격화시키고있다. 특히 군사분계선에서 대규모적인 도발행동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정세는 1950년 미제와 그 주구들이 도발한 조선전쟁직전의 정세를 방불케 한다.

미제는 군사기지로서의 남조선과 그 군사적잠재력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노골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사실 남부웰남전쟁터에서는 수만명의 남조선청장년들이 미제의 대포밥으로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는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의 전반적내용이 증명하듯이 남조선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최대한으로 감행할수 있는 식민지, 군사기지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군사기지화정책은 미국의 극동전략에서 남조선이 중요하고도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2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

고있는 군사기지화정책의 목적은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된 그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수행하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미제는 극동침략에서 남조선이 차지하는 군사전략상 위치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기어든 첫날부터 일관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여왔다. 그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하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6~87페지).

물론 남조선의 자연지리적위치가 부르죠아지정학자들이 설교하는것처럼 미제의 군사기지로서의 사명을 숙명적으로 지니고있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미제가 남조선의 자연지리적위치를 저들의 흉악한 군사침략적목적에 리용하는데 있다.

오늘 미제의 극동침략정책수행에서 남조선은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의 극동침략방향은 《북부코스》, 《중부코스》, 《남부코스》로 나뉘여지고있는데 그중에서 미제는 남조선을 요충으로 삼는 《북부코스》를 매우 중요시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제가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초기지이며 침략전쟁의 직접적행동지대이다. 아세아에 산재한 미제의 군사기지들과 군사동맹들은 남조선을 중요한 전초선으로 하고있다.

그들자신이 남조선은 《북부아세아의 어면 지역에 대해서도 공격할수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군의 가장 중요한 전초적전략기지》로 되고있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들은 이미 남조선을 리용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전 조선을 삼키려 하였으며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남조선을 끌어들여 중요한 대포밥공급지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다.

이처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는 저들의 흉악한 침략과 전쟁정책을 위하여 군사적거점을 축성하는 발악적책동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통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무력으로 뒤받침할것을 타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타국을 예속화함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오늘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력에 의거하여 통치를 유지하는 정도는 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그들자신도 《한국에서는 군사를 정치나 경제에 앞세워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발광적으로 무력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증오를 받고있는 괴뢰정부를 총검으로 유지하고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계속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들고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을 번번이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기지화는 식민지지배

의 주요수단으로 된다. 동시에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는 괴뢰들을 미국의 지시대로 조종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기지화에서 남조선의 인적자원과 경제의 잠재력을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 징발할것을 목적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징모하여 미국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군사비지출을 굉장히 〈절약〉하는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47페지).

사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값싼 고용병을 리용함으로써 막대한 리득을 보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이 아세아에 있는 식민지《동맹국》들중 일본 다음가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진 조건을 중요하게 타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인적자원을 대포밥으로 징발하는 정도는 다른데서 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발광적이다. 미제는 남조선의 병력수를 미국 다음가는 60여만의 수준으로 유지케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국군》병력은 인구 1,000명당 병력수에 있어서 필리핀의 7.3배, 타이의 4.9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미군대신 고용병을 유지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고있다. 미국하원세출위원회에서 한 놈들의 증언자료에 의하더라도 군인 1인당 년간유지비는 미국은 6,600딸라(해외)이고 일본은 917딸라, 남부웰남은 677딸라인데 남조선은 264딸라에 불과하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괴뢰군을 대포밥으로 리용함으로써 동일한 수효의 미군을 남조선에 배치하는 경우보다 순전한 병력유지비만도 해마다 수십억딸라를 절약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기지화를 통하여 잉여상품과 자본의 남조선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막대한 원료들을 략탈하고있다.

미제는 《군사원조》를 리용하여 방대한 잉여군수물자를 남조선에 투입함으로써 독점자본들의 잉여상품과 구식무기들을 처분할 길을 열어주고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미국경제의 군사화를 자극하고있다. 특히 《군사원조》에 배당된 금액의 70~80%가 미국내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소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이밖에도 미국독점자본가들의 원료원천지, 자본투하권확대를 보장하는 무제한한 리윤획득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일례로 남조선의 광업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군수독점자본의 전략자원략탈에 리용되고있다.

미제는 자본투하도 그 대부분을 군사적목적에 종속시키고있다. 자본의 대부분이 군사적의의가 큰 교통운수, 동력, 건재 및 일부 소비재생산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하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의 특수한 군사전략적지위로부터 군사기지화를 통하여 독점자본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해주고있다.

미제는 전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과 관련하여 한층 적극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체의 침략적 본성으로부터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길로 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3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군사기지화정책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남조선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가중케 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흉악한 군사기지화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으며 미제의 몰락을 촉진할뿐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1페지).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장 횡포하고 가혹한것으로 되게 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6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청장년들을 괴뢰군에 끌어감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부담을 가져다주고있다.

특히 미제는 월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을 대량적으로 내몰고있으며 이것은 월남에 끌려간 괴뢰군들자신과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은 남조선의 사회경제적발전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의 군사화는 남조선 경제구조전반을 더욱더 편파적이며 기형적인것으로 만들고있으며 그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경제적요구의 기본은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 및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의 확장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군수공업, 교통운수, 체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적인 군사경제체제를 남조선에 조성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기지화에 막대한 재물을 징발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중요항만들과 중요지점들을 군사기지로 마음대로 략탈하고 있다. 남조선강점미군은 남조선농민들로부터 10만정보이상의 토지를 군용지로 강탈하고 수많은 농민들을 리농결식케 했다. 미제는 어민들에게서 어장들과 항구들을 군사연습지, 군사요새수역의 명목으로 때앗아냈다.

남조선의 군사기지화,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다.

남조선에서 군사비지출은 급속히 증대되고있다. 1966년도 괴뢰정부예산에서는 그 전해에 비하여 직접적군사비를 37%, 군사경제력강화를 위한 투융자를 49%씩이나 증대하였다. 금년도예산에

서도 작년보다 순 군사비를 24.6%, 군사경제력강화를 위한 투융자를 28.5%나 더 증대시키고있다. 증대되는 방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제와 괴뢰도당은 해마다 막대한 재정적부담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군사비의 팽창은 재정규모의 팽창을 조건지음과 동시에 인민들로부터의 조세수탈의 강화를 동반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은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을 위한 방대한 규모의 조세를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왔다. 조세수탈이 1966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56%, 금년에는 작년보다 또다시 58%나 급격히 증대되였다.

그들은 또한 관영료금과 공공료금도 체계적으로 인상시키고있다. 관영 및 공공 료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가의 전반적앙등을 초래하고있으며 근로인민의 생활을 더한층 도탄속에 몰아넣고있다.

이로 인하여 지금 남조선에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여지없이 령락되고있으며 생존 그자체가 문제로 되고있다. 전쟁준비가 로골화됨에 따라 로동자들의 로동강도가 높아지고 로동시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생계비와 조세부담의 증대로 인하여 실질임금은 박정희도당이 집권한 이래 엄청나게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이 계속 파산, 몰락하고있으며 실업자들이 늘어나고있다. 농민들의 실질소득도 해마다 줄어들고있으며 농민들의 호당평균 부채액은 계속 붇어나고있다.

군사기지화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인민들이 강요당하고있는 재난의 하나는 미군야수들의 만행에 의한 피해이다.

인간증오사상으로 가득찬 미제침략군은 도처에서 강간, 살인 등 온갖 야수적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발광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산 사람을 포사격의 과녁으로 삼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기지화정책으로 인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적무권리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쑈폭압에 적극 매달리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폭압의 예봉은 인민들의 온갖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며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있다.

그 결과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의 활동은 물론 온갖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사상과 인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금지되고있다. 특히 근로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에 의하여 력사상 최대의 민생고를 겪으면서도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있으며 학원에는 티끌만한 민주주의도 없다. 지어 남북의 접촉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은 모두 억제되고있으며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이 파쑈테로통치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군사기지화정책이 남조선인민에게 실로 크고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주는 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식민지군사기지화정

력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증오와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2페지).

원쑤들이 총칼의 위협으로 인민대중을 억누를수록 인민들의 반항심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사실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4.19, 6.3투쟁을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타격을 가하였을뿐만아니라 금년에 또다시 《6.8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전개하여 미제와 박정희도당에게 새로운 타격을 가했다.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조직성과 단결이 강화되고있으며 농민들의 투쟁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폭압으로도 앙양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결속되여가고있으며 반면에 극소수의 반혁명세력은 더욱더 고립되여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결코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더는 저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누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그들은 남조선에서 조만간 쫓겨날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괴뢰도당의 폭압과 략탈에서 해방될 날은 오고야 말것이다.

위기에 처한 미제의 《반공》군사동맹체계

박 순 재

미제국주의가 력사무대에 등장한이래 오늘처럼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에 직면한적은 없었다.

세계적범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도처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극도로 고립당하고있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과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2페지).

현시기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체계의 위기는 사회주의력량의 장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급격한 앙양과 함께 미제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그들을 더욱더 쇠퇴와 몰락에로 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침략》이라는 날조된 구호하에 만들어놓은 침략적군사쁠럭체계는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그들이 대외군사정책에서 크게 의거하여온 나토는 이미 분별되고 쎈또와 씨아또는 생명력을 잃은지 벌서 오래다.

* *

미제의 대외군사정책에서 침략적군사쁠럭체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2차대전후 자본주의세계의 전반적위기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환경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행동전략》에 주로 의거하여왔다.

미제의 이러한 《행동전략》중 《반공》군사쁠럭정책은 무엇보다도 그의 강도적인 침략적본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지만 그것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세력의 취약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대전후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되였고 그 위력은 급속히 증대되였다. 장성하는 사회주의력량의 영향하에 민족해방운동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서구라파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로동운동이 비상히 앙양되였다. 이와 반면에 제국주의세력범위는 현저히 축소되였으며 세계력량관계는 제국주의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변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력량을 위시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합된 진출을 더는 단독으로 반대하여

나서기 곤난하게 되였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처지에서 서방국가들과 기타 추종국가들을 묶어세워 《반공》군사쁠럭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체제를 수립하며 세계제패계획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제2차대전직후 미제의 침략적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팽창정책을 실현하며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침범하기 위하여 <원자탄외교정책>, <딸라외교정책>, <트루맨주의>, <마샬계획> 등 각종 술책을 다 쓰고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면적인 반룡공세로 넘어갔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7페지).

대전직후 미제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주되는 수단으로 삼은것은 그들의 증대된 경제력과 일시적인 핵무기의 독점이였다. 그들은 핵무기의 독점에 기초한 《원자외교》와 《딸라외교》에 의거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에 군사경제적압력을 가하며 서방국가들을 묶어세워 저들의 침략적군사쁠럭체계를 완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하고 《힘》으로 세계를 재패하려 하였다.

바로 이러한 목적밑에 1949년 4월에 미제가 통제하는 서부렬강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조작되였고 1951년에는 《안쥬스동맹》이 만들어졌으며 그보다 앞서 1948년에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미주국가기구》가 나왔다.

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이 서방국가들과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손쉽게 긁어모아 《반공》군사쁠럭체계를 만들수 있었던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우세와 결부되여있었다.

대전결과 파쑈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은 패망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비록 전승국의 편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전쟁과정에서 심히 약화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세계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미제는 대전과정에서 막대한 전시리윤을 얻어 비대해졌는바 1948년에 미국의 공업생산은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의 공업생산을 합친것보다도 두배나 더 많았으며 자본주의세계 공업총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세계자본주의공업생산에서뿐만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미제는 서방국가들에 비해 결정적우세를 차지하고있었다. 미국은 병력수효는 물론 군사기술장비, 군수생산 등에서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을 압도하고있었으며 일시 핵무력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고있었다.

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유리한 지위를 리용하여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쥐였고 서방국가들을 저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수행에 비끄러매였다.

미제가 서방국가들을 자기의 침략적동맹체계에 손쉽게 끌어넣을수 있었던것은 대전후 미제의 세계제패야망과 함께 서방국가들과 미제의 추종국가반동들의 리해관계와도 결부되여있었다.

당시 전쟁과정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심히 약화되였던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서독 등 서방국가들은 미국의 군사,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여 파괴된 자체의 경제와 군사력을 재건하려 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 하

였다.

서방국가들이 미제의 군사쁠럭정책을 접수하고 그에 가담한것은 또한 서구라파반동지배층들이 외세에 의존하여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보려는 반동적목적과도 관련된다.

대전후 서구라파를 휩쓸었던 인민대중의 강력한 투쟁앞에서 반동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있었다. 서구라파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서방국가들은 미제의 군사쁠럭정책을 받아들이고 그에 가담함으로써 자체의 취약성을 보충하며 반동적지반을 강화하며 하였던것이다.

침략적군사쁠럭체제를 완성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특히 조선전쟁이후 더욱 적극화되였다. 조선전쟁은 제2차대전후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무력이 사회주의나라를 반대하여 감행한 첫 전쟁이였으며 미제의 《힘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전쟁이였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무력은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 앞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악명높은 《힘의 정책》은 파탄되였고 그들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분쇄되고 말았다.

조선전쟁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미제는 더욱 급속히 쇠퇴와 몰락의 과정을 걷게 되였고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은 급격히 고조되였다.

국제정세발전의 이러한 추세앞에서 더욱 곤경에 빠진 미제는 수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핵무기에 기초한 군비확장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진영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고 공격하기 위한 이른바 《주변전략》에 힘을 집중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한편으로는 이미 구라파에 조작한 나토를 강화하면서 다른편으로는 1954년에 《동남아세아조약기구》(세아토)를 조작하였고 1955년에는 《바그다드조약기구》(1958년에 이라크에서 혁명이 승리한후 이 조약에서 이라크가 탈퇴하면서부터 쎈토로 개칭함)를 만들어놓았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서구라파에는 나토, 중근동에는 쎈토, 동남아세아에는 세아토, 대양주에는 안쥬스, 라틴아메리카에는 《미주국가기구》를 각각 조작하였다.

미제가 조작하려고 책동하고있는 《동북아세아군사동맹》(네아토) 역시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일적인 《포위환》을 형성하려는 책동의 중요한 일환이다. 그들은 네아토를 조작함으로써 그것을 중근동의 쎈토 및 서구라파의 나토와 련결시킬뿐아니라 주요하게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진출을 가로막아보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조약인 《한일협정》을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을 결탁시킴으로써 사실상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였을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소위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의 결성을 위한 실제적인 길을 마련하였다.

현재 미제침략자들은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40개 자본주의나라들을 저들의 《반공》군사쁠럭에 끌어넣었고 그 밖에 수많은 나라와 쌍무적군사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모험적인 침략책동으로써도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의 장성과 민족해방운동,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으며 저들의 군사정치적위기를 만회할수 없다.

* *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전후 대외군사정책의 중요한 공간으로 추진시켜온 군사뿔럭체계는 오늘, 그자체의 극복할수 없는 모순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대전후 미제가 서방국가들과 기타 추종국가들을 《반공》군사뿔럭에 묶어세우는데서 표방하고나왔던 《자유세계의 수호》와 《공동번영》의 구호는 이미 파산되였다.

미국지배층들은 《공산주의위협》이라는 날조된 구실하에 소위 《자유세계의 수호》를 표방하면서 인민들의 대중적인 진출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있은 서구라파반동세력을 규합하여 침략적군사뿔럭에 끌어넣었다.

그러나 실생활을 통하여 미제의 《동맹국》들은 《공동번영》과 《자유세계의 수호》라는것이 미제의 대외팽창을 위한 수단이며 가맹국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더욱더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의 서구라파《동맹국》들과 기타 성원국들이 군사뿔럭을 위하여 지불하여온 막대한 재정적부담과 인적부담은 그 어떤 《공동번영》이 아니라 그들자신을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에 얽어매고 그 희생물로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구라파 일부 나라들과 기타 성원국들은 미제의 군사뿔럭정책에 추종한 결과 경제적으로 미국에 깊이 종속되였을뿐만아니라 군사, 정치적으로도 자주권을 심히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현재 이 나라들 속에서 미제의 군사뿔럭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그것을 재검토하려는 경향이 자라나고있는 조건에서 미제는 종전과 같은 낡은 구호로써는 더는 자기의 《동맹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곤난하게 되고있다.

오늘 미제의 《반공》군사뿔럭체계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성원국호상간의 심각한 충돌로 인한 분렬상태에서 볼수 있다. 이것은 특히 군사뿔럭체계에서 핵을 이루는 나로가 와해상태에 직면하여 그 기능이 마비되여가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나로의 분렬상태는 이 기구에 대한 령도권문제와 나로의 공동핵무력창설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프랑스의 정면충돌과 결렬에 의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구라파인의 구라파》, 《위대한 프랑스의 부활》을 표방하면서 미제의 서구라파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여나서고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주장하는 군사《통합기구》와 다각적핵무력안을 배격할뿐만아니라 나로최고사령부 및 기타 군사기구에 파견되여있은 자기의 군사요원들과 나토휘하의 자기무력을 철수하였다. 프랑스는 또한 자국령토내에 있는 나토최고사령부, 미군 및 카나다군과 그 사령부들을 프랑스의 경외에로 철수케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프랑스가 취한 나로와의 군사적절연조치는 미국—프랑스간의 군사, 정치, 경제 등 관계에서 새로운 충돌의 전제

로 되며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통제와 지배가 끝장이 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미국과 프랑스간의 이러한 전면적대결은 나토내부에서 그렇지않아도 심각화되고있는 모순과 알륵을 더욱 첨예화시키고있으며 나토자체의 와해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키고있다.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정면충돌을 계기로 나토내에서는 프랑스의 독자적립장을 지지하며 그의 전례를 따르려는 기운이 더욱더 커가고있다.

현재 미제의 군사쁠럭체계의 위기는 《동맹국》들이 자기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외면하고있는데서 명백히 볼수 있다. 그것은 특히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웰남전쟁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오늘 프랑스를 비롯한 적지않은 나토성원국들은 미제가 웰남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여 나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나토내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있는 프랑스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도 그를 지지하지 않고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자국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비난과 국제적고립을 두려워 공공연히 미제에 가담하여나서는것을 꺼려 하고 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은 세아로, 쎈토의 성원국들로부터도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미제는 1966년 7월에 열렸던 세아로각료리사회를 계기로 세아로성원국들을 웰남침략전쟁에 끌어넣기 위하여 공동군사계획을 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기도는 프랑스, 파키스탄 등 세아로성원국들의 반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현재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하더라도 남조선의 박정희도당, 대만의 장개석도당, 남부웰남의 카오 키도당, 타이의 타놈도당과 같은 미제의 보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연명할수 없는 괴뢰들과 일부 추종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미제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끌려들어가는것을 원치 않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반공》군사쁠럭체계가 겪고있는 위기와 혼란상태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침략적군사쁠럭체계의 위기는 현시기 미제의 대외군사정책전반을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미제가 대전이후 저들의 운명을 걸고 추진시켜온 군사쁠럭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들이 한때 요란스럽게 떠들던 《협동전략》이란 사실상 맥빠진것으로 되였다. 이것은 그들이 《동맹국》들을 마음대로 다룰수 없게 되였으며 모험적인 침략전쟁수행에 손쉽게 동원하기 곤난하게 되였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이른바 《협동전략》에 기초하였던 미제의 군사쁠럭정책이 돌이킬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음을 말해주는것이다.

* *

현시기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체계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불균등적발전에 기초한 제국주의렬강간의 력량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산생되였으며 촉진되고있다.

제국주의국가들의 현존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2차대전직후에 조성된 제국주

의세계의 력량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나 대전이후 서구라파와 《동맹국》들의 지위는 점차 높아지고 그와 반면에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였다.

제국주의세계에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우선 그들의 경제적력량호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제력의 상대적약화는 《동맹국》들에 대한 그의 지휘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자기의 지위를 회복한 서구라파나라들은 자체의 경제적 및 군사, 정치적 력량에 상응한 발언권을 요구하게 되였으며 점차 미국에 대한 종속적상태에서 벗어날것을 요구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프랑스는 경제면에서 제2차대전시기의 상처를 이미 오래전에 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그의 경제적지위는 현저히 강화되였다. 프랑스는 자기의 군사경제력에 기초하여 이미 자체의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서방세계에서 프랑스의 발언권은 더욱 커졌다.

기타 일부 나라들 례컨대 서부독일은 경제적면에서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바 공업생산, 수출무역, 외화보유량에서 기타 서구라파 《동맹국》들을 릉가하고있다. 기타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류사한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제국주의세계에서의 력량호상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미제의 지배적지위를 약화시키며 대전직후에 맺어졌거나 허울뿐이였던 동맹관계를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정책의 위기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정치적 취약성이 날로 발로되고있는것과도 결부하여 매우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2차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며 저들의 《동맹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딸라외교》와 《핵공갈정책》을 주되는 전략의 기초로 삼아왔다. 그러나 미제의 《핵공갈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의 군사기술적위력의 급격한 장성에 의하여 완전히 파탄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군사경제적위력의 증대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반제반미투쟁으로 말미암아 미제의 취약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있으며 그들의 쇠퇴와 몰락 과정은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세계력량관계에서의 이러한 변화, 미제의 급속한 쇠퇴와 몰락 과정은 그의 침략적군사동맹체계에서도 심각히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세계혁명력량의 급속한 장성앞에서 서방국가들과 기타 미제의 《동맹》국가들은 미제의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정책을 따름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정치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지고있는 저들의 처지를 파국적상태에 밀어넣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 미제의 지위가 약화되고 그들이 세계인민들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아 철저히 고립되면될수록 더욱더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미제의 《반공》군사쁠럭체계의 위기는 또한 최근년간 세아토, 쎈또 등의 군소성원국들의 독자적발전의 추세에 의해서도 심화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세계적으로 반제투쟁이 앙양되고있으며 독자적발전의

저항이 강화되고있는 시대적추세와 미제에 대한 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자국인민들의 압력으로 하여 점차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떨어져 독자적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기운이 커지고있다. 그들 속에서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에 대한 위구가 점차 커가고있다. 현실은 미제의 《원조》정책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며 한 그들의 타산이 얼마나 허무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제의 《반공》군사블럭정책을 접수하고 그들의 《원조》에 의거한 나라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제의 예속물로 떨어져 독립국가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군소성원국들은 새삼스럽게 미제의 침략적군사블럭정책이 자국의 민족적리익과 합치될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은 독자적발전의 시대적추세를 더욱더 따르면서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정책에 대하여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지않은 경우에 미제에게 등을 돌리고 엇나가고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필연적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무력한 존재로 되고있는 세아토와 쎈토의 기능을 더욱더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사회주의진영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침략적군사동맹체계가 동맹국호상간의 극복할수 없는 리해관계의 갈등으로 하여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전이후 그들이 대외군사정책에서 주요하게 의거하여왔던 침략적군사블럭체계가 마비상태에 처하여 분렬의 위기를 겪고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해서나 그것을 재수습하여 보다 《활력》있는것으로 만들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것은 최근 아세아—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포괄적인 《반공》군사동맹체제를 형성하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그들의 이른바 《태평양시대》구상이라는 악랄한 침략계획에서 출발하고있다. 《태평양시대》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봉쇄》하고 말살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전면적인 붕괴상태에 이르고있는 식민지통치체계를 수습하며 나아가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아세아에서 새로운 포괄적인 침략적《반공》동맹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지역에서 무능력하여진 군사블럭들과 《동맹》들을 추켜세우며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강화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면서 포괄적인 《반공》동맹체계를 형성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그들이 윁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심각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전쟁확대책동에 매달리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모험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이것은 아세아에서 침략적군사블럭들과 《동맹》을 보강하며 보다 포괄적인 《반공》군사동맹체를 형

성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보다 크게는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면서도 현재 윁남침략전쟁의 《승리적》인 수습과 남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와도 관련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현재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시키며고 의제하면서 저들의 식민지체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되고있는 아세아지역 특히 아세아의 극동과 동남지역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아세아에서 포괄적인 《반공》군사동맹체를 형성하는데서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담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그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리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침략적야욕을 손쉽게 실현하려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 단일한 《반공》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미제의 침략계획을 정치, 경제적으로 적극 안받침해주고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저들의 대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태평양시대》구상의 일환으로 되는 나토형의 군사동맹체를 조작하려는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군사쁠럭들과 《동맹》들을 재수습하고 보강하기 위한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그들의 대외군사정책의 위기를 반영하는것이다. 미제의 침략적군사쁠럭체계의 붕괴과정은 피할수 없는 필연적인것이다.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중병에 걸린 저들의 군사동맹체계의 파산을 만회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강한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9페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세력의 쇠퇴와 몰락을 촉진시키며 그들의 침략적 군사동맹체계를 파국에로 이끌어가는 제반 요인들은 날이 가면갈수록 더욱더 커지고있다. 아세아와 세계에서의 력량관계는 제국주의, 미제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아세아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은 불패의 힘으로 자라났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종국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인민들의 반제, 반식민주의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와 전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세력은 그들의 반인민적정책과 모험적인 침략정책으로 하여 조만간에 멸망할 운명을 지니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책동으로도 피할수 없는 필연적인것이다.

《수탈자는 수탈된다》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발간 100주년—

편 경 식

1867년에 맑스의 불후의 저작 《자본론》 제1권이 출판되였다.

《자본론》은 《과학적사회주의를 설명한 주요하고 기본적인 저작》(레닌전집 제1권 1분책, 288페지)이며 맑스주의의 기본문헌의 하나로서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자본론》은 자본주의적착취의 본질을 폭로하여놓았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에게 자본주의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길을 가르쳐주었다.

맑스는 《자본론》을 저작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자본론》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확고한 기초를 이루고있다.

《자본론》은 당성, 혁명성과 과학성의 훌륭한 체현이다.

맑스는 무엇보다도 열렬한 혁명가였다. 맑스는 로동계급의 해방과 그들의 세계사적사명의 실현에 이바지한 위대한 사상가이며 혁명가였다. 엥겔스가 지적한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와 그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구의 전복에 이러저러하게 참가하는것, 현대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사업에 참가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의 일평생의 사명이였다. 현대프로레타리아트에게 처음으로 그들자신의 처지와 그들의 요구를 자각하게 하고 그들의 해방조건을 자각하게 한것이 바로 그였었다. 투쟁은 그의 본령(本領)이였다》(맑스엥겔스선집 제2권, 185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맑스의 무한한 충실성과 확고한 당적립장은 《자본론》을 철저한 과학적로작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는 《자본론》에서 열렬한 로동계급의 당성과 철두철미 과학적인 리론적분석의 결부를 볼수 있다. 《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부르는 맑스의 힘찬 호소가 울려나오고있으며 열렬한 혁명정신이 넘쳐흐르고있다.

《자본론》은 맑스주의의 확립, 발전에서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본론》은 정치경제학에서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맑스는 력사적으로 규정된 자본주의적생산관계의 발생, 발전 및 멸망의 합법칙성을 해명하였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불상용적대립의 경제적기초를 해명하였으며 자본주의가 자체멸망의 필연적운명을 가지고있음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맑스는 사회의 물질적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생산관계 또는 그것의 법률적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모순되게 되며 이 소유관계는 생산력의 발전형식으로부터 그것의 질곡으로 전화되는바 그때에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며 자본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

의 불길속에서 멸망하고 새로운 보다 고급한 생산방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자리를 내놓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것을 자본주의사회의 해부를 통하여 움직일수 없는 론리로써 증명하였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매장자로서의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사명을 론증하였다. 자본주의발전에 따라 로동계급은 자기 당의 령도하에 광범한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켜 자본주의제도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자본론》은 국제로동운동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본론》은 로동계급에게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주었으며 각국 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과학적사회주의의 기초우에 더욱 확고히 서게 하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었다. 로동계급은 《자본론》에 천명된 맑스의 사상과 리론에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

자본주의적생산방식에 대한 《자본론》에서의 맑스의 론박할 여지없는 천재적 해명은 자본가계급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론고장이였으며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맑스는 《자본론》 제1권을 념두에 두면서 1867년 4월 17일부 벡켈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은 의심할바 없이 부르죠아(로지소유자도 포함하여)의 머리우에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포탄이다》(《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로문판, 111페지)라고 썼다.

《자본론》은 그것이 세상에 출현하자부터 오늘까지 100년을 두고 온갖 부르죠아반동정부, 부르죠아대변가들, 기회주의자들의 계속 부절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본론》에 대하여 처음에는 침묵으로 무시해버리려 하였고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강화되자부터는 비방, 중상, 외곡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자본론》에 대하여 천백번 《반박》도 해보았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어보기도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과 그 멸망의 필연적합법칙성에 관한 진리를 가릴수 없었으며 그들의 기도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자본론》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그 거대한 혁명적영향력을 제지하거나 사회발전의 수레바퀴를 역전시킬수 있는 힘이 없었으며 또 있을수 없다. 맑스의 학설은 그 혁명적사상과 철저한 과학성으로 하여 부르죠아지들과 그 대변자들, 변절자들의 발악적공격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오늘도 계속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 *

《자본론》에서 전개된 맑스의 경제리론의 초석은 잉여가치에 관한 리론이다.

잉여가치에 관한 자기의 리론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적착취의 본질을 들추어냈으며 자본주의멸망의 합법칙성을 해명하였다.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에서 기초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상품가치에 관한 유일하게 과학적인 리론인 로동가치학설이다.

맑스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가치법칙이 착취의 법칙으로 되며 자본주의하에서 상품의 제 관계의 배후에는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적대관계가 숨어있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로동가치학설에 기초하여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특수한 상품으로서의 로동력과 그 소비과정인 로동과의 차이를 해명하였으며 로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판매하는것은 로동이 아니라 로동력이라는것, 로동력의 구입에 지출되는 가치와 로동력의 소비과정에서 창조되는 가치와의 차이가 바로 자본가에

게 무상으로 점유되는 잉여가치를 이룬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더 많은 잉여가치를 짜내는것, 더 많이 착취하는것이 자본주의적생산의 유일한 동기이며 목적이라는것을 증시하였다.

맑스는 《잉여가치의 생산 또는 돈벌이가 이 생산방식의 절대적법칙》(맑스엥겔스전집 제23권 2분책, 275페지)이라고 규정하였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가들이 로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잉여가치를 짜내기 위하여 로동일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연장하며, 로동강도를 살인적으로 높이는가를 사실적자료들을 들어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자본의 야수성을 백일하에 들추어냈다.

맑스는 잉여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자본의 본질을 폭로하였다.

맑스는 자본이란 임금로동자들에게서 혹독하게 짜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잉여가치가 착취의 수단으로 전화된것에 불과하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자본은 부르조아대변가들이 말하는것처럼 자본가들의 조상이나 그들자신의 근면과 절제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시초축적》 즉 생산자들로부터 폭력적으로, 류혈적으로 수탈한 《재부》, 로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를 착취의 수단으로 전화시킨것에 불과하다.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맑스엥겔스전집 제23권 2분책, 429페지) 이 세상에 나왔으며 자본주의는 임금로동의 착취에 기초한 최대의 착취제도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잉여가치의 구체적형태들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불로소득의 원천을 해명하였으며, 로동자들은 비단 자기를 고용하고있는 자본가에게뿐만아니라 자본가계급 전체에게 착취당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맑스는 《자본론》에서 로동계급에게 그들의 빈궁과 무권리의 근원을 밝혀주었으며 전체 로동자들이 계급으로서 단결하여 전체 자본가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론》에서는 자본주의국가가 자본주의제도의 발생, 발전 및 유지에서 노는 역할이 낱낱이 폭로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투쟁은 반드시 착취자들의 주권을 전복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론증되였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진행되는 자본축적의 사회적결과를 계급적견지에서 명백히 해명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자본가들간의 경쟁은 자본축적을 필연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자본축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모순,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간의 모순을 격화시킨다.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산수단과 로동력 그리고 생산된 물질적부는 더욱더 개별적인 자본가들의 수중에 집중된다. 그러나 《…한 극(極)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대극(對極)에서의 즉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계급측에서의 빈궁, 로동의 고통, 노예상태》(맑스엥겔스전집 제23권 2분책, 304페지) 등의 축적이다.

생산과 기술이 발전하여 사회적부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로동자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질적향리품을 구입할수 없다. 수많은 량곡과 생활필수품들이 바다에 내던져질지언정 굶주리고 헐벗은 로동대중에게는 그것이 결코 차례질수 없는 사회—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맑스는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함이 없이는 착취와 억압에서 결코 해방될수 없다는것을 론증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은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착취의 수단으로서의 《재부》, 자본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며 따라서 계속 임금로동자로 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있다. 자본주의적생산은 비단

생산력을 재생산할뿐만아니라 자본주의적생산관계, 착취관계도 재생산한다.

맑스는 자본주의하에서 실업의 진정한 원인을 해명하였으며 인구증가가 생산장성보다 빠르기때문에 실업과 빈궁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말사스도배들의 허위날조를 폭로분쇄하고 유일하게 과학적인 자본주의에 고유한 인구법칙을 발전하였다.

자본주의인구법칙을 해명하면서 맑스는 과잉인구와 자본축적간의 호상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실업자들의 존재가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존재조건이라는것을 론증하였다. 실업자의 존재는 자본주의적생산확대와 자본가들의 착취증대의 조건으로 된다. 산업예비군, 실업자들이 없이는 생산을 종전보다 큰 규모로 확대할수 없다. 즉 축적을 실현할수 없다. 실업자들의 존재는 또한 취업하고있는 로동자들에게 부단히 압력을 가하며 자본가들로 하여금 로임을 로동력의가치보다 더 낮출수 있게 한다. 자본축적은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실업을 증대시키며 그들을 더욱 혹심한 빈궁속에 몰아넣는다.

맑스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과 축적의 증대에 따라 자본주의제도의 매장자로서의 로동계급의 힘이 증대한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자본의 축적과정에 소상품생산자들과 소경영주들은 점차 몰락하여 로동계급의 대열속에 휩쓸려들어간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은 수적으로 장성한다. 로동계급은 비단 수적으로 장성할뿐만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업중심지들과 대기업소들에 집중되며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높은 조직성과 의식성을 가지게 되며 단련되고 세련된다.

로동계급은 부르죠아국가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자본가계급이 제아무리 저들의 지배와 착취제도를 보존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한다고하더라도 광범한 근로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킨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자본주의를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것이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대자본가의 수가 부단히 줄어가는 동시에 빈궁, 압박, 예속, 타락, 착취의 정도도 증대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수가 부단히 증가하며 또 자본주의적생산과정자체의 기구에 의하여 훈련되며 단결되며 조직되는 계급인 로동계급의 반항도 또한 증대한다. 자본의 독점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밑에서 자라나온 그 생산방식의 질곡으로 된다. 생산수단의 집중과 로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외피와 량립할수 없는 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외피는 파멸한다. 자본주의적사적소유의 조종(弔鐘)이 울린다. 수탈자는 수탈된다》(맑스 엥겔스전집 제23권 2분책, 431~432페지).

《자본론》에서 천명된 맑스의 사상과 리론은 그후 레닌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으며 더욱 풍부화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발전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적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본질과 력사적지위를 해명하였으며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새로운 혁명적결론들을 도출하였으며 맑스주의를 더욱 발전, 풍부화시켰다.

맑스—레닌주의는 전 세계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필승불패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 *

맑스의 혁명적사상과 리론은 《자본론》 제1권이 출판되여 만 1세기가 되는 오늘의 시대에도 의연히 타당성을 가지고있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르죠아대변가들이 제아무리 현대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그것의 《변화》된 성격을 지껄인다고하더라도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본질을 가릴수는

없다. 맑스가 발견한 잉여가치법칙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기본경제법칙이다. 잉여가치의 착취를 떠난 자본주의란 있을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본질은 변화될수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로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는 교활성을 띠면서 더욱 강화되며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적모순,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된다. 착취가 강화되면 빈궁과 반항도 강화되고 혁명이 일어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합법칙성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의 불길속에서 자본주의제도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만다.

력사는 자본주의멸망이 필연적임을 잘 보여주고있다.

《자본론》 제1권이 출판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의 100년은 과학적사회주의의 승리의 로정이였으며 자본주의의 멸망과정이였다.

《자본론》이 출현됨으로써 로동운동은 맑스의 혁명적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더욱 강화발전하였으며 자본가계급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레닌을 수위로 하는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이 수행한 10월사회주의혁명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10월사회주의혁명의 승리후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더욱 급속히 발전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변되였으며 강력한 사회주의진영이 형성되였다. 사회주의진영이 부단히 강화되고있는동시에 국제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계속 장성하고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 세계를 짓부시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혁명위업에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2~3페지).

사회주의진영의 형성과 세계혁명력량의 장성 그리고 식민지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제국주의내부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간의 갈등이 격화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멸망을 모면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아직도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우와 같은 문헌, 3페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는 오늘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다. 웰남인민을 반대하여 수십만에 달하는 자기의 침략군대와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이고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으며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침략자들은 특히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전쟁준비를 서두르고있으며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멸망을 침략전쟁으로써 모면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반도에 멸망하고야 만다. 그리하여 인민을 수탈하여 배를 불린 수탈자들은 수탈되고야 말것이다.

* *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자본주의적착취제도가 끝장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1930년대에 맑스—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혁명적실천과 결부시켰다. 김일성동지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과학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의 선두에 서시여 우리 나라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정책에서 언제나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82페지).

우리 인민은 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지난날 빈궁과 무권리, 천대와 압족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행복에 찬 생활을 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구나가 다 일자리를 가지고 힘과 재능껏 일하고있으며 누구나가 다 공부하고 무상치료의 혜택을 입을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며욱더 큰 신심과 보람찬 희망을 안고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2중3중의 억압, 착취를 받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폭압과 착취밑에 그대로 둘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달성하고 남조선인민들도 4천만조선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하여야 하며 그들에게도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 앞에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제기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현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잡고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며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력량의 장성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우리에게는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이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있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결속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된 힘이 있는한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 인민이 지난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와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이라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 인민들앞에 오직 승리가 있을뿐이다.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며 조선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할 그날은 멀지않아 오고야 말것이다.

근로자 제 7 호 (루계 805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8월 5일 발 행 • 1967년 8월 10일

7—73267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 (306)

차 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김 일 성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3대륙인민단결기구가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탄생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이 기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리념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사람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수세기동안 서방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용감히 일며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민족해방의 세찬 조류가 막을수 없는 힘으로 밀려오고있다. 3대륙의 수억만사람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 앞에는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며 아직도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할 매우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의 파괴활동을 분쇄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제국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지구륙지면적의 71%를 차지하고있다. 거기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살고있으며 무진장한 부원이 있다. 제국주의

는이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긁어내면서 성장해왔으며 살쪄왔다. 오늘도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해마다 수백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다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서방세계가 3대륙인민들의 독립과 진보를 도와줄수 있으며 자유롭고 독립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공존할수 있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선언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을 폭로하며 그들이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내주리라는 환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것이 필요하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 세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는 로선이 그의 침략책동을 조장하며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노예적굴종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로선을 반대하는 동시에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큰 소리만 치면서 실지행동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것을 또한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뒤집어놓은 타협로선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진정한 반제투쟁과는 인연이 없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도움을 줄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 지구상에는 미

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있거나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략행위와 파괴활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무력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이 20여년동안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란 하루도 없다. 미제국주의야말로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략탈자이다.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세아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 미제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그만큼 약화시키게 되여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촉진할것이다. 세계 어느곳에서 미제침략세력을 소멸하든지간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련합하여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0년이상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조선을 정복하려는 침략기도를 의연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식민지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조선인민이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세개방면에서 력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조선에서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축적하여야 하며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조선은 조선혁명의 기지이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해방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반미통일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며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이 전략을 철저히 파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사회제도를 달리하며 또한 이 나라들에는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당파들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나라들과 당파들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데서 일치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사회제도의 차이와 정치적리념의 차이는 힘을 합쳐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자기의 특수한 국가적리익과 당파적리익을 앞에 내세우면서 반미통일전선을 분렬시키거나 공동행동을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동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에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꾸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그 존재자체로써 이 대륙인민들의 해방운동을 고무하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가 반드시 패망하고 민족해방혁명과 인민혁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뚜렷한 증거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작은 섬나라를 그처럼 미워하고 무서워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봉쇄정책을 파탄시키며 꾸바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침공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오늘 미국원정군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이 웰남에서 대결하고있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결의를 가지고있으며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인민은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윁남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추종국가군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며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대대적인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윁남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거하여 싸우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있다. 윁남인민은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 투쟁하고있다. 윁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파탄시키게 될 때 미제국주의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는 더욱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것이다.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윁남인민에게 온갖 형태의 원조를 줄 의무가 있으며 윁남인민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주의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반미통일전선을 확대하고 윁남인민의 구국항전을 지원하며 일치한 보조로 미제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 누구도 윁남인민에게 그들의 내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미국침략군대는 윁남에서 물러가야 하며 윁남문제는 윁남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하여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아직도 많은 죄행을 저지를수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횡포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가 어떤것인가를 알고 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싸워보았으며 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조국을 수호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우리와는 다른 조건에서 이 진리를 다시금 증명하였다. 윁남인민의 구국항전도 역시 이 진리를 명백히 증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패망은 불가피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것이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해방에 위대한 기여를 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 교양을 강화하자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첫째가는 과업이다.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항상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을 꾸준히 강화하여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중요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비롯하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모든 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와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할수 있으며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게 할수 있다.

* *

오늘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들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원들 속에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켜 모든 당원들이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학습을 잘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적용된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매단계, 매시기에 항상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혁명발전의 구체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가장 옳바른 길로 이끌어왔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준다. 조선혁명의 승리,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오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실현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맑스—레닌주의이며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다. 우리에게는 이밖에 다른 지도사상이 있을수 없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0페지).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사상, 그것은 바로 조선혁명에 적용된 창조적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달성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며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수행할데 대한 사상이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민족적 비운이 서리웠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선두에 서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로 영도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일관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천과의 확고한 결합을 보장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주체적립장에서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오직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매단계, 매시기에 제기되였던 모든 근본적문제들이 가장 훌륭히 해결될수 있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작성되고 제시된것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것이다. 우리 당정책에는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철저한 계급적원칙성,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완강한 계속혁명의 사상,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견결한 주체적립장, 인민에게 철저히 복무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푸는 혁명적군중로선 등 김일성동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사상과 립장, 높은 덕성이 반영되여있다.

따라서 당정책교양은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유일한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시키며 우리 혁명의 전 로정에서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인식시킨다. 이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 어떤 정황속에서도 항상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가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나아갈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소유하게 하며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충성을 다하도록 한다.

이리하여 당정책교양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킨다.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당정책의 내용과 그 수행방도들을 깊이 파악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

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은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정책에는 모든것이 다 있다. 사상사업을 하는 방법, 군중과의 사업방법, 반혁명과의 투쟁방법도 있으며 공산주의교양에 대한 문제, 공업정책, 농업정책, 문예정책, 교육정책, 대외정책 등 없는것이 없다. 여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우리 당정책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완성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매개단계에 제기되는 모든 근본적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준다. 그것은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같이 꾸리며 남조선혁명을 더욱 촉진하며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리론실천적으로 해명하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문제,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와 사회발전의 추동력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를 관리운영하는 방도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고있다. 실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장성시키는 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침,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결합하는 방침,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전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 남조선혁명수행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강화하며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촉진시킬데 대한 방침 등은 우리 혁명의 강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로 된다. 동시에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그것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 혁명적진수를 체득시키고 그들의 세계관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우리의 혁명실천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의식성과 능동성을 제고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연구하여야만 조선혁명의 정확한 전략전술을 체득할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을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소유하여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2페지).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만 조선혁명에 충실한 의식적인 혁명가, 공

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모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정책에 대한 진지하고 꾸준한 학습,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떠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수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실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그가 아무리 맑스—레닌주의서적을 많이 읽어도 우리 당정책을 잘 모른다면 조선의 맑스—레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조선혁명에 복무할수 없다. 따라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조선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단련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정책을 한시도 떨어져 살수 없는 혁명적량식으로 삼아야 하며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당정책은 마치 캄캄한 밤에 길을 비쳐주는 등불과 같으며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하는 자막대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소유하였을 때에는 어느 부문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항상 당적주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당의 의도대로 처리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당정책에 비추어보면 그것을 풀수 있는 정확한 방도를 찾아낼수 있으며 자기앞에 부과된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 때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2배, 3배의 일을 하여야 하며 보수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불사르고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심오히 연구하여 그 혁명적본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당의 의도대로 혁명적으로 살고 일한다면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은 산산이 부서질것이며 도처에서 예비가 탐구동원되고 새 기준, 새 기적이 창조될것이며 천리마운동은 더욱 세차게 전개될것이다.

당정책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 동시에 당의 사상, 당정책에 어긋나는 온갖 사상경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당적원칙,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고수할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반동사상을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좌우경기회주의로 말미암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은 의연히 복잡하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당의 자주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수정주의, 교조주의가 들어오는것도 막을수 있고 자본주의사상, 봉건적유교사상의 침습도 다 막아낼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될 때라야만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에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학습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되며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은 당사상사업에서 첫자리에 나서는 과업으로 된다. 당정책학습은 조선혁명에 이바지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인것이며 당정책교양은 간부양성사업과 학교교육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학습하며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하며 맑스—레닌주의원리학습도 우리 당정책을 더욱 심오히 인식하며 그 정당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라야만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다.

* *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그들의 무궁무진한 력량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당정책교양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매시기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 김일성동지의 교시내용을 철저히 침투시키는것이다.

혁명발전의 매시기 우리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은 해당 시기에 당앞에 나선 중심적과업들과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명시한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매시기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똑똑히 파악시키고 그것을 관철하는데로 그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앞에 나선 긴절한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풀어나가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진다.

오늘 당정책교양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것이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현정세에 대처한 당의 대내외정책을 전면적으로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다. 보고는 현시기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당과 인민의 전투적과업을 제시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보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모든 방침들, 특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로선의 혁명적본질과 그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들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보고의 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사상을 더욱 깊이 파악하며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하여 최근시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들과 김일성동지의 교시, 그리고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청산리 및 대안 교시 등을 이와 밀접히 결부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매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침투관철

하는 사업과 함께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기 부문에 대한 당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들에 정통하도록 하는것이 당정책교양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에 대한 당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환히 꿰뚫고있어야만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당의 요구와 방침을 정확히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사업에서 능동성과 적극성을 발양할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결정들 중에서 자기 부문에 해당한 문제들, 그리고 자기 단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들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자기 사업앞에 당이 제기한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 실행여부를 따져보며 미진된것들을 해결하고 부족점들을 보충할 대책과 방도들을 세워 자기 부문 당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빠짐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우리 당 결정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 그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파악하며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과 방침들을 폭넓게 체득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을 실속있게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우리 당 결정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정책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교시, 당결정원문에 튼튼히 의거하여 당정책학습을 조직하여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담겨져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의도가 그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달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당의 의도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그들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할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결정들의 매구절을 따져가면서 깊이 학습함으로써 당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체득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정책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당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것을 대중에게 해설침투시켜 대중이 당정책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김일성선집 제5권, 408페지).

우리 당정책에는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전략전술적내용이 담겨져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가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매 문구와 구절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진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

더우기 우리는 당정책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학습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가 예외없이 당정책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인내성있게 학습하여야 하며 당의 사상을 거울로 자기의 사상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학습하는것은 결국 그것을 자기의 혁명실천에 정확히 구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당정책학습은 반드시 실제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정책학습은 실지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습과정에서 당정책이 집행되지 않는것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데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토론도 하고 자기 검토도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학습을 통하여 당성이 단련되고 당정책을 더잘 관철할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는 당정책을 실지사업에 적용할수있게 학습하여야 하며 당정책을 자로 삼아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당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행동할수 있도록 그것을 실속있게 학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이 제기한 방침을 자기 단위에서 철저히 집행할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당정책집행과정에는 난관과 애로들이 제기될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부족점들도 나타날수 있다. 특히 낡은 사상요소들이 우리의 전진운동에 저애를 줄수 있다.

당정책교양은 한두번의 침투나 학습으로써 끝날수 없다. 그것은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때까지 부단히 반복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자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업과 당정책교양을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정책이 철저히 집행되지 않는 원인이 당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잘 알지 못한데 있다면 그들에게 당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및 그 수행방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을 반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당정책집행에서 기술문제가 걸려있다면 그것을 푸는 방향에서 당정책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특히 당정책교양을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는 일체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은 곧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투쟁이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간의 투쟁인것만큼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업도 낡은것과의 투쟁이 없이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의 의도, 김일성동지의 교시정신과 어긋나는 현상들과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수주의, 소극성, 난관 앞에서의 동요, 안일과 해이 등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이 준 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과 결합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정책관철에서 형식주의를 뿌리뽑고 모든 사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실속있게 끝까지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는 실제적힘으로 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이 가르치는대로 조직사업과 생산보장사업을 더욱 면밀히 짜고듦으로써 당정책교양의 성과가 커다란 물질적열매로써 나타나게 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각급 당조직들 앞에 나선 제1차적과업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선전력량을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데 돌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당정책교양을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우선 지도일군들과 사상부

유일군들로부터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을 해석선전하며 그 집행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을 실속있게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워나가는 당과 수령의 충실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당정책을 해석선전하는 글을 많이 쓰고 출판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 그 정당성과 수행방도들을 깊이있게 전개한 글들은 당정책교양에 도움을 준다. 사회과학일군들과 리론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당정책을 리론적으로 해석선전하는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할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자기 앞에 부과된 모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현상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항상 원칙성을 견지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누구나가 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당정책을 심오히 학습하여야 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당정책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 역량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켜야 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

진 근 필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질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에 비추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김일성동지는 얼마전에 있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와 함흥지구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킬것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킴으로써 어떠한 사태하에서도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이 현명한 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고 오늘 정세하에서 계속 확고히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어떠한 환경에서나 오직 혁명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끝까지 충실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반영하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분렬된 조국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통일하고야 말겠다는 견결한 반제투쟁의 립장을 표현하고있다. 그것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끝끝내 해결하고야마는 우리 당의 불굴의 강의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로선에는 조선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주체적립장—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성된 정세와 사태발전에 대한 명확한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시한 새로운 로선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정확히 인도하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

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확고한 신심과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 떨쳐 나서게 한다.

＊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국방건설의 비중을 경제건설의 비중에 못지않게 설정하고 이 두 분야에 거의 같은 힘을 넣으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 같이 강력히 추진시키는 로선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로선은 제국주의와 대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현시기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성된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정확히 결합시키는것은 제국주의와 대치하여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다》(우와 같은 책, 48페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위험이 남아있는한 주권을 쥔 로동계급은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다.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건설을 소홀히 한다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더욱 오만하게 하여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도 수호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도 보위할수 없게 될것이다.

국방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국제혁명운동앞에 지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방건설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분쇄할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것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다.

현시기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에게 국방건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전쟁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 있다.

카리브해위기와 최근의 웰남사태가 보여주듯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무장간섭을 진행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전쟁도발과 공공연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작은 나라, 분렬된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허용될수 없다.

더우기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반부에서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있으며 부단히 전쟁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분초를 다투어 국방건설을 다그치고 적들의 침략을 일거에 분쇄할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우리가 준비된 태세에 있을때에만 원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며 설사 그들이 분별없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재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침략자들을 격파할수 있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9페지).

우리는 국방력의 만전을 기함으로써만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확고히 보위할수 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국방건설을 백방으로 추진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사활적리익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방력의 완벽을 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며 국제혁명운동앞에 지닌 자기 의무를 다하려는 확고한 립장에서 출발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국방건설을 당면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는것이다.

국방력강화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의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며 자위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자체의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고 어떠한 정황에서나 자체의 힘에 의하여 원쑤들의 침략을 분쇄할수 있도록 준비함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성을 튼튼히 보장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진영전체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성과적으로 기여할수 없다.

이러한데로부터 우리 당은 어떠한 조건에서나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는 동시에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있는것이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당의 자위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미제의 격화된 전쟁책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체의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력으로 원쑤들을 격멸할수 있는 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오늘 국방건설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것이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하더라도 사회주의건설에서 국방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이며 철벽의 자위력을 다지는 일에 모든 힘을 다그쳐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국방건설에 특별한 힘을 돌려야 하는 현시기 조건에서도 경제건설의 과업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뒤로 미룰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건설을 추진시키는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이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망각할수 없는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과업이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달성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여야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자면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 근로자들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야 할뿐만아니라 경제건설을 추진시켜 생산력의 높

은 발전수준을 달성하고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기술혁명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헐하게 일하면서 많은 생산을 내고 보다 잘 살도록 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다. 그래야만 과거의 중산계층까지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조국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게 한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쥔 로동계급의 민족적의무인 동시에 국제주의적의무이다.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비방을 분쇄하고 이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며 공산주의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제대로 발양시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계속 추진시킬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국주의가 멸망하기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게 될것이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중단시킬수 있으며 많은것이 파괴될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설사 전쟁이 일어나 혹심한 파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은 또다시 새생활을 건설할수 있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9페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고하더라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부단한 전쟁책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며 고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며,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쟁의 위험이 크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하더라도 국방건설과 함께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해나가는것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명확한 전망을 안겨줄수 있게 하며 더욱 큰 신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동원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가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래일 전쟁이 일어난다하더라도 오늘밤까지 국방건설과 함께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할수 있으며 그들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한 긴장된 투쟁에 더 잘 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책동이 격화된 오늘의 조건에서도 국방건설에 충분한 력량을 돌리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주택을 더 많이 짓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장성시키며 그 질을

높여야 한다.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국방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경제건설을 추진시켜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계속 장성시키는 것은 국방력을 부단히 강화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국방건설은 나라의 경제토대의 강화에 기초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경제력이 장성하면할수록 국방건설을 더 빨리, 더 잘할수 있다.

오늘의 긴장된 정세하에서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서로 분리될수 없는 통일된 과업이다. 국방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할수 없으며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진도, 국방력의 강화도 실현될수 없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위하여 다 같이 중요하며 그 어느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다. 우리는 오늘 조성된 정세하에서 반드시 국방력의 강화를 기하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정확히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적요구와 최근년간에 조성된 긴장된 정세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한것이다.

우리 당은 해방후 매시기 정세발전의 추이에 상응하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정확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왔다.

정전직후에 소집되었던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는 정전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하여 경제건설에 소극적으로 대하려는 경향과 반대로 정전이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것처럼 생각하고 국방건설의 과업을 소홀히 하려는 경향을 다 같이 배격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적극 진행할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자체의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였다.

최근년간에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에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카리브해의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도전하여나섰으며 그후 아세아에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웰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동남아세아와 극동 및 기타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일층 격화시켰다.

이러한 정세에 대비하여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고 경제건설을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다.

우리는 이 방침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국방력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의 안전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에 소집되였던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것을 제기하시였다.

*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과 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

킬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 주고있다.

이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어떠한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하여서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대처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적들이 아무리 전쟁도발에 광분한다하더라도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추진시켜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에서나 필승불패의 태세를 갖추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추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해나갈수 있게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길이다. 이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파탄시킬수 있는 동시에 그들이 부단한 전쟁위협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려는 흉계도 철저히 파탄시킬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북반부혁명기지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어떤 조건에서나 조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우리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줌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고무하고 그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에 보다 힘차게 나설수 있게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국방건설을 적극 다그치는 동시에 경제건설도 계속 높은 속도로 추진시키려는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로선이다.

우리는 국방건설에 특별한 힘을 돌려야 하는 조건에서도 경제건설의 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다. 국방건설을 다그치는것도,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것도 다같이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긴장된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의 근본적리익이 그것을 절실히 요구하는것만큼 국방건설에 특별히 주력하면서 동시에 경제건설에서도 계속 천리마의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할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현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다같이 인민들자신의 혈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생산의 더욱 높은 속도를 달성할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도 국방건설도 동시에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선두에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서계시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로선, 정책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쳐주고있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언제나 과학적예견성과 확고한 원칙성,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불굴의 강의성으로 우리 인민을 혁명의 승리에로 이끌고있다.

우리에게는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또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전체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있으며 온갖 난관을 뚫고 자력갱생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킨 풍부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항일빨찌산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과업을 능히 완수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이다.

이 로선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으로서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로선은 현시기 전쟁과 평화문제, 정치경제군사적과업들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 조성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수립된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며 제기되는 과업을 모든 난관을 뚫고 주동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불굴의 강의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과시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전도에 난관이 가로놓일때마다 그것을 타개하고 계속 승리적으로전진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앞에 새로운 절실한 과업이 제기될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신 우리 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오늘 긴장된 정세에서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현명한 로선은 우리 인민에게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이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한다.

*　　*

오늘 우리 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켜야 할 실로 방대한 과업들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과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에 대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계속 향상시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단 유사시에 전시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우리 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한 과업들은 오직 대중의 위대한 창조력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국방건설을 백방으로 다그치면서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달성하자면 모든 부문에서 배가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2배 3배의 일을 해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소극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이 요구된다.

혁명과 건설은 언제나 심각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전진할수도, 승리할수도 없다.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는 항상 낡고 보수적인것과의 투쟁속에서 일어났으며 승리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락후한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락후한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이다. 락후한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김일성선집 제6권, 109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은 새로운 로선이며 방대한 과업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보수주의, 소극성 등 낡고 침체한것들과의 강한 투쟁이 없이는 철저히 관철될수 없다.

우리 당은 언제나 어려운 혁명투쟁이 제기될 때마다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굵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보수주의, 소극성 등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가 전후 재더미우에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한것도, 1956～1957년의 어려운 시기에 내외의 원쑤들의 책동을 격파하고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일으킨것도 교조주의, 사대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신비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과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관철하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결정, 수령의 교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기백이 차 넘치도록 하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용감히 싸워나갈수 있는 사상적 준비를 튼튼히 하게 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선행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잘하여야 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위하여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개조와 집단적혁신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이 넘치게 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면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천리마진군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하수홍, 최원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이것은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에서 간난을 극복타개하고 영웅적으로 싸워이긴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 정신적 풍모이다.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류례없는 간고한 싸움이였다.

항일유격대는 《정예》를 자랑하던 일본침략군을 상대로 하여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을 다시 찾고 민족을 해방하고야 말겠다는 높은 혁명적각오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주권도 없고 후방도 없는 조건하에서 오직 혁명적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맨주먹으로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무기와 탄약, 피복과 식량 등 필요한 모든것을 원쑤와 싸워 자체로 해결하면서 끝까지 투쟁하였다.

그들은 적들의 사면포위속에서 항상 수십배에 달하는 적과 싸워야 하였으며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며칠씩 굶으면서 밀림을 헤치고 설령을 넘으며 하루에도 여러차례의 전투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모든 난관과 시련은 투쟁의 선두에 서계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사조와도 같이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극복되고 타개되였다. 그 어떤 악조건과 역경도, 내외의 원쑤들의 발악적책동도 항일유격대원들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하였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험난한 길에서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굴함없이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의 가르침과 명령지시를 끝까지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우리 당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유격투쟁의 좋은 전통의 하나는 곤난을 극복하는 투쟁정신이다. 항일빨찌산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간고한 투쟁을 하였다.

낡은 사회제도를 전복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이것은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될수 있다. 빨찌산투쟁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형용할수 없다.

…빨찌산들은 온갖 곤난을 극복하면서 1~2년도 아니고 15여성상에 걸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314~315페지).

오늘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것을 우리의 사업

과 생활에서 구현하는것은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높이 발양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우리자신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박차고 김일성동지가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 *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끝까지 관철한데서 발현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참을수 없는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신음하던 암담한 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이 나아갈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고 몸소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함으로써만 수령의 가르침을 관철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싸우고 전진하였던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이 그러하였지만 그중에서도 1938년말～1939년초의 《고난의 행군》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허리를 치는 생눈길을 헤가르며 험산준령을 넘어야 하였다. 수천수만의 병력과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앞뒤좌우로 집요하게 달려드는 원쑤들과 하루에도 10여차례씩의 전투를 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식량이 떨어져 눈녹인물로 《요기》를 하여야 하였으며 혹시 짐승을 잡았을 때에도 부대의 위치와 행동방향을 적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날것으로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천고비, 만고비의 시련을 용감히 뚫고나아갔다. 그들은 《고난의 행군》이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로정임을 확신하였기때문에 《한발을 뒤지면 조국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더디여진다!》, 《동포들이 우리를 하늘같이 믿고 기다리고있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조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였다.

우리는 이밖에도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의 모범을 77일간이나 돈화의 밀림속에 홀로 남아 풀과 나무뿌리로 연명하면서 환자를 간호한 녀성대원의 투쟁, 적들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 속에서도 굴함없이 광범한 대중을 조국광복회에 결속시키기 위하여 싸운 항일유격대정치공작원들의 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사실들에서 감명깊게 보고 배운다.

《불사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일성동지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완강한 혁명정신을 발휘하였던가를 보여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무

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으로 일관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투쟁에 요구되는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야 마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한데서 나타났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주체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함으로써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들은 물과 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데서나 살고 싸울수 있다는 혁명적기백을 가지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이 요구하는 모든것을 자체의 힘, 자체의 투쟁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는 《무장을 위하여》, 《동지들! 이 총을 받아 주!》 등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떻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는가를 본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장투쟁의 초시기 무기를 생산할 공장도 없고 사들일수도, 지원받을수도 없는 조건에서 맨주먹으로 적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였으며 동지들이 피로써 바꾼 무기를 가지고 점차 많은 적을 쳐서 자체의 무장을 계속 강화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힘과 지혜를 합치고 혁명적창의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무기뿐만아니라 식량, 피복을 비롯하여 혁명에 요구되는것이라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는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일이 없다》, 《혁명적출판물에 대한 그이의 지도》, 《연길폭탄》을 비롯한 여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도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의 모범을 배우게 된다.

1936년겨울 홍두산밀영에 있던 후방성원들의 투쟁사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인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였는가를 우리에게 감명깊게 보여준다.

그때 몇명 안되는 후방성원들 앞에는 1주일동안에 수백켤레의 버선을 만들어 전방에 보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제기되였다. 그런데 이 임무를 절반도 수행하지 못한 때 하나밖에 없던 재봉기바늘이 부러졌다. 손으로 해서는 기일을 보장할수 없었고 적후에 나가서 재봉기바늘을 구해올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머리를 짜고 무진 애를 쓴 끝에 마침내 돗바늘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 혁명임무를 기일내에 완수하고야 말았다.

돗바늘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은 혁명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이 낳은것으로서 혁명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일하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또한 수십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담배줄기, 호박덩굴, 부엌의 흙 등으로 화약을 만들고 깨여진 쇠붙이로 유명한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사실, 관솔그을음으로 등사잉크를 만들어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한 사실, 밀영병원에서 의료기구와 의약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부상자를 치료한 사실들은 모두 이러한 모범으로 된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어떤 곤난에 부닥칠 때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을 발휘하여 더욱 용기를 내였으며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방도를 찾아내고 필요한것을 자체로 해결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또한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투쟁하며 꿰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고결한 혁명적지조를 끝끝내 지킨데서 발현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해방된 조국땅우에 반드시 이루어질 광명하고 행복한 앞날을 끝없이 동경하였다. 누구보다도 미래를 사랑한 그들은 조국의 해방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혁명가답게 살고 싸우려는 일념으로 충만되여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혁명적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가의 고결한 절개를 지켰다.

《혁명을 위해 나선 몸이니 혁명대오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 살아도 혁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혁명을 위해 죽어야 한다》—이것은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의 굳은 결심이였으며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직의 비밀을 혁명운동의 생명으로 여기였다.

권영벽동지가 전우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들이 어떻게 혁명조직의 비밀을 귀중히 여겼는가를 잘 보여준다.

《혁명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것 없소, 만일 우리가 적들에게 체포되면 적들은 모진 고문과 갖은 흉계를 다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것이요, 우리는 혁명의 투지로, 사장동지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오, 적들은 우리를 죽일수도 있소, 만일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업을 검토해야 하오, 내가 혁명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바로 이것이 혁명가인 우리의 임무요》.

이처럼 자신은 죽어도 조직이 살아있는한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혁명은 승리할것이라는것을 굳게 믿은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에게 체포되여도 혁명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하여 놈들의 야수적고문을 끝까지 견디여냈다.

마동희동지나 리순철동지들이 비밀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혀를 끊은 사실들은 바로 이러한 실례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높은 신임을 받은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역경에서도 그이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1935년가을 적들과의 싸움에서 중상을 당하여 불가피하게 놈들에게 체포되게 된 리순희동지는 죽음을 앞둔 준엄한 순간에 《백번 죽여봐라, 나는 김일성장군의 사랑과 저 인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너같은 개가 될수는 없다!》고 원쑤들에게 떳떳이 맞섰으며 군중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김장군이 령도하시는 빨찌산이 있습니다. 조선은 반드시 독립되고야 맙니다…》라고 열화같이 웨쳤다.

우리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그는 견결한 공산주의자였다》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투쟁의 길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것을 서슴지않은 숭고한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고결한 혁명절개를 끝까지 지켜낸 모범을 배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수령과 혁명조직에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끝까지 고결한 혁명적절개를 지키였다.

* *

항일유격대원들이 형언할수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할수 있었

던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가 준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그이가 계신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며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항일무장대오내에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철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모두가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쳐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어떤 역경에서나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전도에 난국이 조성될 때마다 그것을 타개하고 승리할수 있는 정확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투쟁의 선두에 서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가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 전략전술에서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을 확고히 내다보았으며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 싸웠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15성상의 간고한 무장투쟁에서 그들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뚫고 싸워 승리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빨찌산들이 무엇을 믿고 간고한 투쟁을 하였는가? 믿은것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하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사회발전법칙에 의해서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에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싸웠다. 맑스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싸운 우리는 결국 승리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505～506페지).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있었다.

그들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갖은 억압과 착취를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던만큼 그 누구보다도 원쑤를 증오하는 마음이 강하였다.

한 신입대원이 첫전투부터 잔인무도한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는 총알도 아깝다고 하면서 놈들을 총탁과 총창으로 무자비하게 무찔렀으며 원쑤를 증오하는 나머지 두눈을 다 뜨고 묘준하였다는 이야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보여준다.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양과 실지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자각적인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육성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높은 혁명적자각성으로 하여 혁명승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

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잃었던 조국을 찾으며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일념으로 싸운 열렬한 애국자,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였다.

그들은 조국땅에 진군하면 크나큰 감격에 못이겨 한그루의 나무를 그러안고 돌아가기도 하고 풀우에 막 딩굴기도 하였으며 한줌의 흙을 움켜쥐고 그윽한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뺨에 비비기도 하면서 조국을 기어이 해방시키고야 말리라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바로 이렇게 누구보다도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위한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였기때문에 《여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구호밑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김일성동지의 일상적인 교양에 의하여 공고화되였으며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고비를 넘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튼튼히 다져졌다.

김일성동지는 항상 유격대원들에게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소유하여야 진정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들의 두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있소. 하루속히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킬 숭고한 혁명임무가 우리들에게 맡겨져있는것이요. 이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앉을 권리가 없는것이요. 난관을 뚫고나갈 때만이 승리가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심장에 아로새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지어 적들의 포위속에 있거나 천고밀림속에 홀로 남는 역경에 처하더라도 털끝만큼도 주저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끝까지 싸웠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은 난관과 시련의 계속이였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자신을 더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무장하면서 불사조와도 같이 백번 넘어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참다운 혁명투사로 육성되였다.

*　　*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해방후 우리 인민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전후 혹심하게 파괴된 폐허우에서 복구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내에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인민은 지난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길을 따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앞에 나선 이 위대한 과업은 우리 인민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기백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고 우리 인민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 어렵고 간고한것이다.

우리는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관철하고야만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음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의지로 뭉쳐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긴장하게 살고 투쟁하여야 하며 그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그것을 대담하게 뚫고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투쟁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을 2배. 3배로 장성시키며 도처에서 혁명적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보다 훌륭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배우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은 자신의 당성을 단련하며 혁명적수양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보다 훌륭히 체득함으로써만 모든것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오직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끝까지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특히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배우고 본받는것은 지난날 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당성을 단련하고 자신을 혁명화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된다.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음으로써 자체의 혁명성을 더욱 높이고 혁명가적풍모를 부단히 완성하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을 거울로 삼아 그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체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것을 견지하고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난관과 애로를 대담하게 뚫고 전진할 때 우리는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당원은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리 성 근

김일성동지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제시하셨다.

김일성동지는 또한 최근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론과 함흥지구에서 하신 일련의 교시들에서 당대표자회가 규정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것을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셨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제기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 불굴의 공산주의자, 견결한 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고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이 모든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의 성과적해결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의 높은 당성에 크게 의존된다. 모든 당원들이 높은 당성을 소유하는것, 이것은 당의 전투력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

1

김일성동지는 당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으며 그의 기본방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당성을 단련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계속 심오히 연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29페지).

당성이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의미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당원의 혁명활동과 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성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각성이다.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위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혁명적당의 당원은 응당 공산주의적혁명사상에 기초한 높

은 계급적각성의 소유자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숭고한 혁명정신의 소유자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높은 계급적각성, 숭고한 혁명정신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구현한 당원만이 높은 당성을 가진 당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원의 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되여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전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력의 기본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튼튼히 보장함으로써만 당은 강유력한것이며 그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은 강화된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전진도,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도, 우리 나라의 장래발전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항상 우리 인민과 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이며 참모부인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는것은 당원의 최고영예이며 가장 귀중한 품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당원들이 당의 통일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그것을 해치려는 그 어떠한 사소한 경향과도 견결히 투쟁하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당에 대한 충실성, 즉 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철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보위하기 위하여 항상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당의 통일이 없으면 그 당은 무력하여 마침내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몰락할것이기때문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141페지).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해치며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며 이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당성은 또한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며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불굴의 투쟁정신에서 표현된다.

《당성이란것은 결국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하고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울수 있는 품성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장 높은 당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김일성).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곧 우리 당정책이며 당정책은 전체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다.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나침판이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어떠한 정황에서도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며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것을 자기의 제일차적임무로 간주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그 투쟁과정에는 애로와 난관도 있을수 있고 뜻하지 않았던 일에 부닥칠수도 있다.

문제는 당원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높은 당성을 발휘함으로써 부닥친 난관과 애로를 극복타개하고 당정책의 성과적관철을 보장하는데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여야 할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어렵고 긴장된 투쟁에서 당원들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어코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높은 당성으로 충만되여있어야만 언제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일당백의 혁명적기백으로 당이 제시한 새 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2배, 3배의 로력적앙양을 일으키며 날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성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며 또 그 자체가 높은 당성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당원의 당성은 또한 당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일체 부정적현상들과 내외의 원쑤들의 적대적행동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당적원칙성과 비타협성에서 표현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당성의 중요한 특성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하는 원칙성이며 사업에서의 결함과 온갖 비당적 또는 적대적 경향에 대한 비타협성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 및 국가 기관의 매 지도일군들과 군사지도자들의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에게 이와 같은 혁명가적원칙성, 결함에 대한 비타협성, 높은 당적자각성과 혁명적경각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게 보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80~381페지).

당의 발전, 혁명의 전진은 일체 낡고 부정적인것을 극복하는 계급투쟁, 사상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혁명은 투쟁에서 시작되며 투쟁으로 끝난다.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투쟁은 당내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하며 혁명의 전진운동도 그것에 항거하는 온갖 세력들과 낡은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당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온갖 부정적현상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언제 어데서나 당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것은 당원의 필수적인 품성이며 당성의 중요한 징표로 된다. 당원은 항상 당적립장과 혁명적경각성을 확고히 견지하여 모든 실천활동에서 온갖 부정적현상들과 적대적경향들을 제때에 정확히 식별하고 그와 견결히 투쟁할줄 알아야 한다. 결함들에 대하여 융화묵과하며 부정적현상들과 적대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당적안목이 예리하지 못한 당원은 결코 당성이 강한 당원이라고 볼수 없다.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 자기의 당성을 고수할수 있는 유일한 지침은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정책이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계급적관점이 확고해지며 이것을 자로 삼아 당적원칙에 부합되는가 어긋나는가를 똑똑히 가려볼수 있다.

당원은 당정책을 자로 삼아 견결한 사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과 혁명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당성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다.

당원의 당성은 또한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당은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인만큼 매 당원들의 당성은 군중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하는것으로써 표현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520페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당의 위력의 원천이다. 혁명과 건설은 대중을 발동시켜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만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워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군중속에서의 당원들의 활동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따라서 당원들이 군중관점과 인민적작풍을 소유하고 군중과의 연계를 능숙하게 맺는것은 당성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사업하고 생활하며 그들을 가르칠뿐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그런 사람만이 당성이 강한 당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천성적으로 타고난 품성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목적의식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고 수양함으로써만 이루어지며 충분히 발현될수 있다.

강철은 두들길수록 강해진다. 당성도 부단히 수양하고 혁명적단련을 거침으로써만 강해지고 높아진다. 우리 당원들은 자기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강철의 혁명투사로 준비되기 위하여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단련은 어느 누구에게나 례외로 될수 없으며 모든 당원에게 다 필요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당원은 누구든지 항상 당성단련에 노력함으로써 당의 사상, 당적원칙과 위반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하겠다》(김일성선집 제6권, 433~434페지).

당성단련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당원들에게 의무적이다.

당성단련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생의 과업이며 생활의 법칙이다. 매일 랭수마찰을 하고,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당원은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해야 사상이 건전하고 실천투쟁에서 견결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성단련은 혁명적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당원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당원에게 혁명가의 품성을 배양하며 혁명가의 기개와 강인성을 체득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혁명화하며 당성을 단련하는것이다.

혁명가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하며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항상 충만되여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결한 혁명사상과 불굴의 투쟁정신은 오직 당성단련, 당적훈련을 통하여서만 배양될수 있다.

당성단련은 당의 공고화와 혁명의 심화발전에 따라 보다 높은 요구성을 가지고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이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당창건의 첫시기부터 당원들의 당성단련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왔으며 혁명정세의 변화와 당사업의 요구에 상응하게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줄기차게 전개된 당성단련을 위한 전당적인 투쟁은 당원들의 혁명가적품성을 배양하며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담보로 되였다.

오늘 우리들 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원들이 지난기간 당성단련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앞으로도 자기의.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는 무엇인가?

김일성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교시하셨다:

《우리는 오직 당생활에서만 항상 회의하고 서로 검토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교양하면서 옳지 못한것은 씻어버리고 옳은것은 자꾸 배양장성시키면서 계속 발전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성단련, 당성제고도 오직 당생활에서만 가능하며 당생활을 잘하는데서만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하신바와 같이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는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조직생활은 당원의 혁명적수양과 당성단련을 위한 용광로이며 당생활규범과 당규약상 요구를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의 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하며 당이 주는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만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당원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가의 숭고한 사상과 견결한 혁명정신을 배양하게 되며 당조직에서 분공받은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게 된다.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함으로써만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칠수 있고 당성을 부단히 단련할수 있다. 당원은 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항상 서로 교양하고 깨우쳐주며 탁후하고 보수적인것은 씻어버리고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요소들을 키워가면서 부단히 발전할수 있다.

당조직생활이 당성단련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또한 당회의들에서 당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이 강하게 진행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상단련의 용광로는 당원들과 대중의 강한 비판이다. 간부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간성은 우선 당세포회의와 초급당회의들에서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서 부단히 검열되고 단련되여야 한다. 용광로속에서는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 거기에서는 강이 되든가 떡쇠가 되든가 두가지중의 하나밖에 없다. 대중적비판의 용광로속에 들어가면 낡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견디여낼수 없다.

당회의는 당원의 당성을 단련하는 중요한 집체적교양의 학교로 된다. 당회의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자로 삼아 실천활동에서 그것과 어긋나는 현상들을 엄격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한다.

당원들은 당생활에서 이런 당적훈련을 부단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고 당성이 높아진다.

당원은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당원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거나 남을 비판하기 꺼려 하는것은 당성이 약한 표현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발전의 추동력이며 당원들을 교양하고 당성을 단련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사업과 생활에서 온갖 오유와 부족점들을 적시에 극복하고 동지호상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당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당규약상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비판과 자기비판, 당내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군중은 당원들에게 세계관을 확립하며 당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원소를 공급해준다.

당원은 항상 혁명적열정으로 들끓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함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으며 그들의 혁명성을 부단히 흡수하며 체득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과 농촌은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그들 속에서는 결코 안일성과 해이성,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이 용납되지 않는다.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성에서 허심하게 배움으로써 자신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할수 있다. 당과 대중의 련계를 강화하며 당원들이 군중속에 들어감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당적원칙과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군중속에서 발현되는 혁명적인것, 긍정적인것을 적극 지지하고 조장발전시키는 동시에 락후하고 보수적인것을 대담하게 극복해나가야 한다.

군중속에서 발로될수 있는 일부 부정적인 현상들에 눈을 감거나 락후하고 보수적인것에 뒤따르는것은 당성의 원칙과 하등의 인연도 없다.

당원의 사상수양, 당성단련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적학풍을 세우고 자신의 사상정치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당원들의 사상정치적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성단련이란 생각할수도 없다. 매개 당원들이 사회발전법칙을 옳게 인식하게 하며 모든 사물과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만한 지식을 가지도록 그들 속에서 사상정치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김일성선집 제5권, 98페지).

당원들의 사상정치적수준을 높이며 사상단련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혁명적인 량식은 당정책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다.

당성단련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상수양과정인것만큼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뿌리인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것이 그 기본으로 된다. 당성단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당원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도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 그리고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이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당성단련의 기본요구이며 당생활의 주되는 내용으로 된다.

당원들은 항상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고 단련하여야 한다.

학습과 실천을 결부시키며 책에서 배운것을 실천투쟁에 적극 구현하는것은 당성단련의 절실한 요구로 된다. 학습은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부됨으로써만 배운것이 산지식으로 될수 있고 또 배운것을 혁명실천에 제때에 구현하여야 그것은 물질적인 력량으로 전환될수 있다. 이것은 또한 매개 당원들의 당성을 뚜렷이 재볼수 있게 한다.

* *

당이 제시한 당성단련의 방도들을 철저히 실천하는 문제는 당원들의 자각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당원들은 당성단련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당성이 강한 당원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피 창 린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킬것을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과수부문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과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되였으며 당면한 생산과 과수원건설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문제의 하나는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이다.

전원회의에서는 1961년에 있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북청)결정실행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과수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과수업의 역할을 더한층 높일것이 중요하게 지적되였다.

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과수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발전전망, 인민생활향상에서 과수업이 노는 커다란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교시하시였으며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과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실나무를 더잘 가꾸고 더많은 과실을 따며 우리 나라 과수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

⁂ ⁂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각지에서 맛 좋고 다종다양한 과실들이 매우 잘된다—

모든 야산들과 마을들을 과실나무로 뒤덮으며 도로에도 과실나무를 심어야 하겠다. 이리하여 과실을 더 많이 생산할뿐만아니라 우리의 강토를 더욱 아름답게 하여야 할것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204페지).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과실은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과실을 많이 먹으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면서 더많은 영양을 섭취할수 있다. 과실에는 사람들의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당분,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지금 날로 향상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맛 좋고 다양한 과실들과

식료가공품들을 더많이 요구하고있다. 보다 많은 과실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다양한 과실을 공급하며 식료가공공업에 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다.

과수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산을 잘 리용하여 나라의 재부를 증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반면에 산이 국토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을 잘 리용하는것은 국토의 종합적리용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재부를 더많이 증대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 서해안지대에는 야산들이 많고 동해안과 내륙지대 산들에도 과실나무를 심을수 있는 땅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땅들을 잘 리용하여 과일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을 리용한다는것을 단순히 산열매를 따고 산나물을 뜯어먹는것으로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산을 일구어 과수원을 만들고 또 원료림도 조성하여 많은 과실과 공업원료를 얻어내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산을 잘 리용한다면 산은 평야보다 못지않게 리로운것으로 될수 있다》.

과수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외화획득원천을 증대시킴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과수원을 잘 가꾸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에게 과실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더많은 외화를 얻을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추가적인 알곡기지와 고기생산기지를 조성할수도 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과수업이 노는 중요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그 발전에 시종일관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는 경제발전의 매시기마다 과수업발전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놀 국영과수농장의 터전을 친히 잡아주시였으며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전쟁승리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시면서 평양과 송화과수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영과수농장들을 신설확장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수많은 과수기술자들을 양성하며 과수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놓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 과수업은 특히 1957년 3월 함경남도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전국의 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꾸릴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북청)결정이 있은이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당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도처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야산을 개간하고 공한지를 일구어 과실나무를 심음으로써 과수면적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과실나무가 없던 자강도와 함경북도에도 과수원들이 생겨났으며 쓸모없이 버려두었던 동해안기슭의 모래불에도 포도나무, 배나무들이 우거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과수총면적은 해방전 1944년에 비하여 5.5배로 늘어났으며 과수업은 농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과수원의 지역적분포와 경리형태별 소유규모, 과일나무의 종

류와 품종배치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수면적의 확장에 따라 열매가 달리는 면적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있으며 과실생산량이 계속 장성하고있다.

우리 나라 과수업에서 달성된 모든 성과는 자연을 개조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며 전국의 모든 야산을 과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더욱 살기 좋고 부강한 사회주의락원으로 만들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는가.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과학적이기때문에 그것은 기필코 현실화되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구상은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 현실로 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한그루의 과실나무를 보시고도 우리 인민들의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시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생각하시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깊은 배려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당의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그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우리 인민의 애국적로력투쟁의 빛나는 열매이다.

* *

오늘 우리 앞에는 과수업발전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금번 전원회의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현시기 과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이미 심어놓은 과수나무의 기술관리와 과수원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보다 많은 과실을 생산하며 생산된 과실의 저장과 가공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지대들에서 과수원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과수를 심어놓는데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잘 가꾸도록 하여야 하며 있는 과수들을 잘 관리하여 모든 지방에서 철을 따라 각가지 과실이 풍부하게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무엇보다도 이미 꾸며놓은 과수원들을 알뜰히 가꾸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정연한 기술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기술지도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과실나무들을 병들지 않게 하고 잘 키울수 있으며 해마다 많은 과실을 딸수 있다.

현존과수원들을 알뜰히 가꾸며 전망성있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실나무의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를 잘하는것이다. 과실나무의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는 과실나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부단히 제고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과수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현재까지 달성한 과학기술의 성과와 북청지방의 우수한 경험에 토대하여 그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과실나무들이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생산조건에 알맞게 자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과작업과 빈그루 메우기를 잘하며 늙은나무들을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질 좋은 자급비료와 화학비료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는것은 과실나무를 튼튼히 하며 과실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결정적담보이다.

과실나무를 잘 키우자면 땅을 걸게 하여야 한다. 과수원에 거름을 많이 내고 화학비료를 제때에 잘 주어야 과실나무들이 잘 자랄수 있으며 열매도 많이 열릴수 있다.

과수원의 땅을 걸게 하자면 땅의 성질에 맞게 비료의 종류와 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알맞게 주며 특히 집짐승들을 길러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한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과수업과 축산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과수업에 축산을 배합하는것은 질 좋은 유기질비료의 원천을 튼튼히 마련하여 과실생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추가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조성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과수원들에서는 화학비료의 성분별 시비량을 정확히 보장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실나무를 각종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것은 현존과수원들을 알뜰히 가꾸어 과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과수원에 많은 비료를 준다고 하여도 벌레가 성하면 과실나무들이 맥을 출수 없다. 또한 과실나무의 열매에 벌레가 생기면 일년내내 애써 가꾼 보람이 없게 된다.

모든 과수농장들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병해충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것들을 발생되는 즉시에 박멸할수 있도록 화학적투쟁방법과 생물학적 및 농업기술적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것이다.

현존과수원들을 잘 가꾸는데 있어서 밤나무관리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밤에는 전분, 당분, 비타민 등을 비롯한 영양물질과 약효성분이 많으며 밤나무는 관리하기 쉽고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과수의 일종이다. 밤나무는 심어서 5~6년이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여 100년이상 계속 두고 수확을 낼수 있다.

우리는 현재 있는 밤나무들을 잘 다루기만 하여도 많은 밤을 인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으며 협동농장들의 현금수입을 증대시킬수 있다.

모든 지방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밤나무밭의 규모에 상응하게 해당한 관리체계를 세우고 일반과수원들처럼 알뜰히 가꿈으로써 밤의 단위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과수원들을 규모있고 아담하게 꾸리며 국토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수원건설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과수원건설대상을 정확히 조사하고 년차별 건설계획을 작성하며 설계를 선행하여 계단만들기, 둑쌓기, 돌쌓기, 풀떼조성, 사방야계공사, 하천정리, 배수로치기, 도로만들기, 울타리와 방풍림조성 등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토사류실을 방지하고 과수원토지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심어놓은 과수나무들을 알뜰히 가꾸는 동시에 새로운 과수원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계속 추진시키는것은 현

시기 파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는 서해안의 야산들과 동해안연선의 모래땅을 비롯하여 아직도 과실나무를 심을수 있는 땅이 많다. 우리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북청)결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도처에서 과실나무를 더많이 심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수가 잘되는 지대에 있으면서 과수원이 없거나 그 규모가 작은 협동농장들에서는 나무없는 산,송충피해지, 다복솔밭, 방목지, 휴경지, 하천부지중에서 토심이 깊고 과실나무가 잘 자라는 지대를 골라 과수원을 조성하며 이미 과수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협동농장들에서는 기존과수원관리에 기본을 두면서 자기 힘에 알맞게 과수원을 확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과 각급 학교들에서도 과수원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시키며 매 농가들에서도 여러가지 정원과수를 심어 가정과 마을을 알뜰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는데서는 나라의 경제적요구와 인민들의 수요를 타산하여 수종구성과 품종배치를 잘하여야 한다.

과수원을 단시일내에 많이 조성하여 과실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실정에서 과실의 저장과 가공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것은 현시기 과수부문앞에 나서는 매우 절실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과실의 저장과 가공 사업을 잘해야만 과실에 대한 주민들의 계절적수요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고 과실의 부패, 변질을 방지할수 있으며 식료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

과수농장 및 협동농장들에서는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비교적 투자가 적게 드는 반지상식저장고와 여름철까지 저장할수 있는 랭동식저장고를 배합하여 생산한 과실을 자체로 저장하는 문제를 최단기간내에 해결하며 부패변질하기 쉬운 과실로써 1차가공을 할수 있는 시설을 속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식료공업부문에서는 과실생산이 집중된 지대들에 년차별로 과실가공기지를 꾸리고 가공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현시기 과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들의 실현은 과수업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리운영사업전반을 가일층 개선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이 부문의 기술일군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과수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로동조직을 일층 개선함으로써만 과수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 *

오늘 우리 당이 과수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고있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이 사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전개하며 과수부문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이룩해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수원의 대대적인 확장,이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이다. 이 사업은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만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수 없다》.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부를 증대시키며 후대들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보람찬 사업이며 이

사업에 참가하는것은 우리 전체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과수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결정과 이 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해석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당의 정책을 자기들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자연을 개조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이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과수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면서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였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보천보의 흙을 배낭속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일제를 무찔러 용감히 싸우던 그러한 고매한 혁명정신과 애국심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특히 이 사업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영예로운 대자연개조사업에 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열성을 가지고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그루의 과실나무를 심어도 정성들여 심고 더잘 가꾸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사업에서 형식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등을 극복하고 사업대상과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우에서 군중을 이 사업에 계획적으로 조직동원하며 과수부문에 파묻혀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과수원건설과 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민들속에서 과수에 대한 기술지식을 광범히 보급하여 소년학생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과수재배기술을 잘 알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국적열성을 바침으로써 전국의 야산들과 마을들에 과일나무가 더욱 우거지게 하고 여러가지 맛 좋은 과실이 더욱더 많이 쏟아져나오게 할것이다.

언제나 당과 수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금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과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일대 군중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할것이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

김 남 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광란속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장성강화되고있다. 어떠한 파쑈적탄압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이 반제반파쑈의 기치하에 결속되여가고있으며 반면에 극소수의 반혁명세력은 더욱더 고립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1~92페지).

최근 남조선에서는 《6.8부정선거》를 계기로 인민들의 완강한 정치투쟁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 투쟁은 4.19인민봉기후 남조선인민들이 줄기차게 전개하여온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연장이며 새로운 강력한 궐기이다.

1

최근에 벌어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규모와 범위에서 비교적 큰 정치적진출이다.

이 투쟁은 6월初에 《6.8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전라남북도 남원, 김제, 순천을 비롯한 각지 인민들의 시위와 서울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성토대회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의 시위투쟁 등을 계기로 급속히 대중적인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투쟁은 서울, 부산시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에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시시민들과 《4.19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이 참가하였다.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기간에 투쟁에 참가한 연 인원수는 23만 4,000여명에 달하였다.

이번 투쟁은 처음부터 적극성을 띠고 격렬하게 전개되였다. 항쟁자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여 시위, 농성, 단식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수십차에 걸쳐 완전무장한 괴뢰경찰과 류혈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서 3명의 괴뢰경찰서장을 포함한 256명의 괴뢰경찰을 까눕혔다. 이것은 군사파쑈도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진출에 극

도로 당황한 군사파쑈도당은 괴뢰경찰과 군대, 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적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놈들은 시위에 나선 연 3,200여명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체포투옥하였다.

정면탄압만으로는 학생들의 진출을 막을수 없게 되자 적들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남조선의 대학과 중고등학교들에 휴교조치를 취하였으며 하기방학을 앞당겨 《정치방학》을 단행하였다. 지어 원쑤놈들은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질겁하여 박정희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에 바리케트를 쌓았으며 《위수령》까지 발표할 태세를 갖추고있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앞에 원쑤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있는가를 실증하여준다.

이번 남조선인민들의 완강한 정치투쟁의 직접적계기로 된것은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도당이 감행한 부정선거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괴뢰대통령선거에서와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부터 부정득표할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사기, 협잡, 매수, 위협 등 갖은 방법을 다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는 비렬하게도 《시찰》이란 명목으로 각 도를 싸다니면서 직접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괴뢰각급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내몰았다. 한편 놈들은 《선거》기간에 허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야당계 인물들을 수많이 체포투옥하였으며 《선거》날에는 《비상경계》를 펴는 등 남조선전역을 살벌한 분위기속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의 한 야당이 폭로한데 의하더라도 박정희도당은 《6.8부정선거》에서만도 인민들로부터 략탈하고 부정행위로써 획득한 100여원의 《선거자금》을 뿌리면서 야당소속 《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에 대한 매수공작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박정희도당은 저들을 반대할수 있다고 보거나 기권할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투표통지서》를 주지않고 반면에 유령유권자들을 무수히 만들어 졸개들을 시켜 대리로 투표케 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실밑에 《개표소》들에 수많은 정사복경찰들을 배치하여 야당소속 참관인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하고 저들끼리 표바꿔치기와 투표함바꿔치기 등 조직적인 협잡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투표》후 여러곳에서 봉하지 않은 투표함과 위조투표지가 나타나거나 유권자수보다 더많은 《투표지》가 나오게 되였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주장한것처럼 《6.8선거가 우발적, 국부적이 아닌 전반적,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부정선거》였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이러한 《선거》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격발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선거》는 그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며 괴뢰정권에 소위《민주주의》적외피를 씌우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 미제는 자기의 앞잡이들을 기만적인 《선거》놀음을 통하여 괴뢰정권에 들여앉히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기본권리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5.10단선》, 《3.15부정선거》를

반대하여 대중적정치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번에도 《6.8부정선거》를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6.8부정선거》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심각한 반감을 조성하게 된것은 인민들의 《선거권》을 침범했다는 점에서뿐아니라 그것이 군사파쑈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감행되였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박정희도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재집권만 노린것이 아니다. 놈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군사깡패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되게 함으로써 군사테로독재의 지반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 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이 여러차례 《정치적안정을 이룩하려면 어느 당이건간에 장기집권을 해야 한다》고 떠벌인것은 놈들의 검은 배속을 드러내놓은 구체적레이다.

박정희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은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와 배치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선거》놀음을 반대하여 분연 궐기한것이다.

그러나 《6.8부정선거》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계기에 불과하였다.

이번 투쟁의 근본적요인은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독재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 있다. 즉 이번의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책동에 대한 쌓이고 쌓인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군사파쑈독재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감은 매우 높다. 이것은 박정희도당의 집권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들이 더욱더 유린말살된 사정과 관련된다.

원래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정책집행의 도구로 등장하였다.

장면괴뢰정권의 마지막시기에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인민생활은 참을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심하여졌다.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기세는 날로 높아갔다.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파국에 처한 저들의 식민지제도를 유지하여보려고 파쑈적군사독재를 수립하는 모험의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1961년 5.16《군사정변》을 조작하여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괴뢰정권에 들여앉히고 반동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의 조종하에 박정희도당은 괴뢰정권에 들어앉자마자 《반공》의 구실밑에 애국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놈들은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군사정변》직후에만도 무려 12만명의 애국적인민들을 검거투옥학살하였다. 최근에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수많은 정기간행물들을 폐간시켰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남조선에서 괴뢰군의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는 등 새 전쟁준비책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한편 미제의 사촉하에 박정희도당은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과 결탁하였으며 미제의 《아세아반공군사동맹》조작책동에 앞장서고있으며 남부웰남 전쟁터에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내몰고있다.

실로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정권과
고의 반동공세는 남조선사회의 모든 부
문에서 더욱 심각한 모순을 조성하였으
며 남조선인민의 불만을 일층 증대시켰
다. 이것은 《군사정변》후 남조선인민들
의 혁명적진출이 부단히 장성하고있는
데서 표현되고있다. 반제, 반독재의
기치하에 전개된 3.24, 6.3항쟁, 8월투
쟁 등이 그 구체적실례로 된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이러
한 반제, 반독재 감정을 배경으로 자체
의 력량을 수습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꾸준히 준비하여왔다. 특히 청년학생들
은 8월투쟁이후 파괴된 조직을 수습하
며 운동의 타개책을 부단히 모색하여
왔다. 《6.8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이번의 대중투쟁은 이러한 준비에 기초
한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진출은 단
순히 《6.8부정선거》에 대한 불만뿐아니
라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도당
의 매국배족정책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
로 한 뿌리 깊은 투쟁이다. 이에 대하여
《워싱톤포스트》지까지도 남조선 《학생
운동들이 선거에서의 협잡에 대한 항
의보다 더 심각한 원인으로부터 출발
하고있다》고 쓰지 않을수 없었다.

2

《6.8부정선거》를 계기로 전개된 남조
선인민들의 대중투쟁의 성격은 박정희
도당의 매국배족정책과 파쑈통치를 반
대하는 반파쑈민주주의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운동이 류례없는 파쑈테로
통치와 관련하여 미제의 주구 군사파쑈
도당과 남조선인민들간에 얽힌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투쟁과업으로 제기하고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구호에서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남조선청년학생
들과 인민들은 이번 투쟁의 초기에 《6.8
부정선거의 무효화》, 《전면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주로 들었다면 운동발전과
정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민
권유린과 학원탄압을 결사반대한다》,
《민족반역자를 국민의 심판에 넘기라》
등 반파쑈민주주의구호를 더욱 빈번히
들고나왔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투쟁에 앞서 이미 반파쑈적성격을 띤
《민권수호투쟁위원회》, 《민주주의수호
투쟁위원회》들을 조직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이번 투쟁이 《6.8부
정선거》를 낳게 한 박정희군사파쑈독재
세력에 타격을 주고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는것을 당면투쟁목표로 하고있
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 투쟁은 남조선에서 대중적반파
쑈민주화투쟁을 전개할 당면과업에 부
합되게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
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 앞에 나서고있
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
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
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94페지).

오늘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전쟁정책
과 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
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으며 정치
적무권리를 강요하고있다. 인민들의 정
치적자유가 짓밟히는 조건에서는 어떠
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

인민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번 투쟁은 비교적 조직적으로 전개되였다.

투쟁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합법적인 투쟁지도기관을 내오고 운동에서 련대성과 행동통일을 보장하였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일련의 대학교들에서는 합법적인 투쟁조직의 지도하에 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학생들은 투쟁이 확대됨에 따라 투쟁조직을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점차 확대하면서 학교와 학교간의 행동통일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서울과 지방간의 련계하에 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시내 종합대학교 학생대표들은 투쟁기간에 수차에 걸쳐 모임을 가지고 공동행동방침을 협의하였다.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표현은 서울과 지방에서 들고나온 구호와 요구조건이 동일하며 운동의 시작과 결속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였다는데서도 볼수 있다. 6월 13일부터 대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이번 투쟁은 15일에 이르러 8개의 지역에서 대학 및 중고등학교 5만 4,800명의 학생들이 거의 동시에 시위에 나섰다. 그후 놈들이 전면탄압의 일환으로 휴교조치를 취하게 되자 6월 17일부터 학생들은 일제히 시위투쟁을 중지하였다. 놈들이 휴교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7월 3일부터 개교한 서울시내 대학 학생들은 모두 동시에 가두시위에 떨쳐나섰다.

이번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비교적 능란한 전술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지난기간의 투쟁경험을 살려 교내투쟁과 교외투쟁, 시위와 롱성, 단식 투쟁, 주간투쟁과 야간투쟁을 잘 결합하면서 신축성있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난 7월 3일 시위에 나선 서울고려대학교 2,000명 학생들은 우세한 경찰저지선에 부딪치게 되자 주동적으로 학교까지 후퇴하여 대오를 재편성한 다음 세차례나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밤에는 학교내에서 홰불시위를 진행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서울과 지방간, 대학과 중고등학교간의 투쟁력량을 잘 배합함으로써 적들의 폭압력량을 분산시킬수 있었다. 례하면 6월 13일과 14일에는 주로 서울시주변에 자리잡고있는 대학들에서 대중적시위에 돌입하였으며 14일과 15일에는 탄압력량이 도시주변으로 분산된것을 리용하여 도시중심에 자리잡고있는 중고등학교 수만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시위에 떨쳐나서 적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적들이 력량을 수습하여 전면탄압으로 나오자 6월 17일부터는 서울에서의 투쟁을 일제히 중지하고 운동의 중심을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옮겼다.

특히 시위에 나선 청년학생들은 부정선거반대에 관한 구호를 들면서 군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반파쑈민주주의구호를 제기함으로써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자체의 투쟁대오를 확대하고 단련시킬수 있었다.

3

이번 투쟁은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박정희군사파쑈독재의 정체를 내외에 폭로하고 그를 더욱 고립시켰으며 군사파쑈도당에 의거하여 식민지통치지반을 강화하려면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저들의 재집권으로써 마치도 남조선에 《정치적안정》이 이루어진듯이 떠벌이면서 대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 하였고 미제는 군사파쑈도당의 재집권을 리용하여 남조선에서 더욱 심각화되고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가려 보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기만책동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워싱톤포스트》지까지도 이번 투쟁이 바로 《민주주의적안정에 대한 서울당국의 희망이 얼마나 세기상조한것인가를 보여주었다》고 썼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너져가고있는 군사파쑈테로통치를 결코 구출할수 없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타격을 받고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투쟁은 어떠한 파쑈적탄압도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사실로써 증명하였다.

투쟁은 청년학생운동을 어용화하려던 적들의 책동에도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군사파쑈도당은 8월투쟁이후 남조선인민운동, 특히 청년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적들은 첩보모략기구와 경찰력량을 학원에 잠입시켜 선진적인 학생들을 검거하기에 발광하였으며 학생준칙과 학칙을 개악하고 《상주장학관제도》의 실시 등 각종 파쑈적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생운동을 어용화하기 위하여 《학원정화운동》을 조작하는 등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은 학생운동을 약화시킬수 없었으며 그들속에서 반파쑈민주주의적지향이 더욱 자라나는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번 투쟁의 의의는 그것이 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한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유리한 계기를 조성한데 있다.

청년학생들은 당면투쟁을 부정선거반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심화시키면서 장기적인 투쟁으로 끌고가려 하고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지향을 반영하여 이번 투쟁기간에 조직된 《부정부패일소 학생투쟁위원회》는 《탄압과 부정부패를 반대하여 범학생운동》을 전개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은 로동3권(단결권, 파업권, 단체교섭권)의 보장, 8시간로동제의 실시 등 민주주의적로동정책의 실시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투쟁의 예봉을 괴뢰정권의 농촌수탈을 반대하는데 돌리고 있다.

도시빈민, 언론인, 문화인 등 각계각

층군중이 각종 형태와 방법으로 반독재,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주의투쟁에 편승하여 재야 정치세력들도 박정희도당을 반대하여 진출하고있다. 그들은 제6대 괴뢰대통령취임식과 제7대 괴뢰국회 개원을 거부하면서 《6.8총선거무효화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재선거》를 요구하여나서고있다.

제반 사실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금후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것을 보여준다.

* *

남조선에서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세는 더욱더 반혁명에 불리하게,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남조선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우와 같은 책, 91페지).

미제와 그 주구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것이다.

지금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진출을 가로막으려고 새로운 《반공》소동을 일으키며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한편 그들은 남부윁남에 대한 남조선괴뢰군의 새로운 증파를 추진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들여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결탁을 일층 강화하고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인민들이 더욱 과감히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끝까지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과 전횡을 파탄시키며 식민지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이며 가장 반동적인 군사특무테로집단인 현군사파쑈정권을 타도하는데로 발전시켜야 한다.

승리는 싸우는 남조선인민의 편에 있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

김 경

1959년말부터 시작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통하여 이미 근 8만 8천명의 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재일 조선공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가 계시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온것은 그들의 생활과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온 그들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밑에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고있다.

귀국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충만되여있으며 그들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있는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그러나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촉을 받고있는 일본사또정부의 범죄적인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고있다.

지금 일본반동지배층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여보려고 모략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귀국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저들의 비법적인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려고 책동하면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신청을 공공연히 거부하여나서고있다. 일본당국은 귀국협정을 무수정연장하기 위한 조일적십자회담을 지연시켰을뿐만아니라 현재 모스크바에서 진행중인 실무회담에서도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범죄적인 파괴책동을 합리화하려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조일적십자간에 체결된 현행귀국협정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법적인 행동이며 협정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제멋대로 파기하려는 배신행위이며 공인된 인도주의적원칙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귀국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책동도 이미 열린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길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1

재일 조선공민들이 살길을 찾아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그들이 항상 흠모하고있는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안으로 돌아오려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김일성동지는 이미 1958년 9월 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권리와 민족적차별과 생활고에 신음하는 재일동포들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올것을 희망하여왔다—재일동포들은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 국내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42~43페지).

한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이 자기 조국에로 돌아오는것은 공인된 현대국제법과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당당한 권리이다.

공인된 국제법의 제 규정들은 거주지선택의 자유와 자기 조국에 돌아오는 권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모든 나라들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오늘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은 이 원칙들을 인정하고있다.

바로 조일 두나라 적십자간에 체결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은 《거주지선택의 자유와 적십자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 체결되였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자기 조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의 귀국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되는것이며 일본당국이 재일 조선공민들중 귀국희망자들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귀국시키는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을 국제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본에 있는 60만의 조선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이다. 재일 조선공민들이 우리 당과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로 귀국하려는 념원에 불타고있으며 조국과 수령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재일 조선공민들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해서뿐만아니라 그들의 력사적지위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조국에 귀국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늘 일본에 있는 60만의 조선공민들은 그곳으로 가고싶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시기에 일제의 극악무도한 략탈과 침략전쟁의 희생자들로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거나 류랑하여간 사람들이다. 이러한 조선사람들의 총수는 실로 500여만명을 헤아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을 탄광, 광산, 토목공사장, 군사시설건설장 등 가장 고된 로동부문에 투입하고 하루 12~15시간씩 마소와 같이 혹사하면서 그들의 고혈을 최대한으로 짜냈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을 극악하게 혹사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저생활비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가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에서 수십년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조선사람들이 빈궁과 고역에 지치고 기한에 떨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아무 리유없이 검거투옥학살하였으며 지어는 비밀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저들의 군사기지건설에 동원한 조선사람들을 공사가 끝나면 집단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관동대지진 때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6,6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것을 비롯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전 기간에 걸쳐 여러차례의 집단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한 사실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패망한이후에도 미제의 사촉밑에 귀국을 요구하여나선 재일동포들을 검거투옥하고 무참히 살해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귀국의 길을 가로막아나섰다.

1945년 8월 24일 홋까이도에서 귀국하기 위하여 수많은 재일 조선공민들이 탄 《우끼지마마루》를 폭파시킨 사건은 바로 그에 대한 명백한 례증으로 된

다. 이 폭파사건으로 3,700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바로 오늘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은 일제의 이러한 살인적폭압과 박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그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일본당국은 일본군국주의가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저지른 력사적인 죄악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비추어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을 끝까지 보장할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지니고있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은 지난날에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본당국이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2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계속 악랄한 범죄적책동을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을 극력 사촉하였을뿐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를 파괴하기 위한 범죄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1959년 12월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이 개시되자 자기의 특무들과 수십명의 남조선 첩보장교들을 저들의 군용기와 함선으로 일본에 끌어들여 니이가다에서 귀국선과 귀국자집결쎈터를 폭파하고 귀국자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며 조선적십자회대표들과 총련간부들을 모해하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소위 《행동대》를 동원하여 귀국자들을 태운 렬차의 운행을 방해하여나섰으며 공화국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비방을 일삼으면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어떻게나 파괴하여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책동은 절대로 용서못할 범죄행위로서 전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은 조일량국인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 세계 인민들과 공정한 사회여론의 한결같은 지지속에서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귀국협정의 기한연장문제를 토의하는 기회마다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귀국사업을 파탄시켜보려고 책동하여 왔다.

1960년 일본당국은 호상전보교환의 방법으로 현행귀국협정의 무수정연장을 능히 해결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촉진》이라는 구실하에 니이가다에서 쌍방회담을 제기하고 회담과정에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로부터 일본당국은 회담과정에서 우리가 접수할수 없는 부당한 조건들을 교활하게 제기하고 그것을 회담결렬의 구실로 삼으려 하였다. 일본당국은 조일적십자회담을 요구하고는 공인된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대표단과 동행하는 우리측 기자의 입국을 가로막으려 하였으며 그후에는 우리 기자들이 신문전보를 치고 통신활동을 전개할 자유마저 억제하려고 책동하였다.

더우기 일본당국은 회담에서 귀국신청등록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귀국희망자들을 일제히 등록하며 또한 협정기간을 6개월만 연장하고 그후에는 귀국희망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부담에 의하여》 귀국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나섰다. 이러한 일본측의 부당한 주장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력사적처지와 그들의 생활형편을 무시하고 귀국희망자들의 수를 격감시키며 결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귀국사업에 혼란과 난관을

조성하고 단시일내에 귀국사업을 걷어치우려는것이였다.

그뿐아니라 일본반동정부는 회담밖에서도 귀국사업을 파괴해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다.

바로 귀국협정의 무수정연장문제를 토의하는 시기에 당시 일본외상 고사까는 남조선을 방문하고 귀국사업의 중지를 위하여 《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에 뒤이어 워싱톤을 방문하여 《일한회담》의 《가시》인 귀국사업을 파탄시키겠다고 꺼리낌없이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실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얼마나 파렴치하게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일본당국은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귀국사업을 파괴할수 없었으며 그때에 우리측이 주장하는대로 귀국협정을 무수정연장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당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다시는 그러한 파괴적책동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1962년의 협정연장시기에도 일본반동지배층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귀국사업에 대한 파괴책동을 또다시 악랄하게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귀국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느니, 《협정을 갱신할 근거가 없어졌다》느니 하면서 귀국사업을 1962년내로 끝마치고 그후는 소위 《개별귀국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주장하여나섰다.

이리하여 일본당국은 정상적궤도에 올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는 귀국사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현행협정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일본당국은 파렴치하게도 귀국사업이 완료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게 엄연히 규정되여있는 협정 제9조까지도 부정하고 이 합리적인 조항을 제거하려고 책동하면서 《귀국희망자가 있는한 협정의 유효기간을 응당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없다》고까지 뻔뻔스럽게 주장하여나섰다.

그러나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시책과 그를 받들고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들과 재일 조선공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일본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귀국사업파괴책동은 분쇄되고 말았으며 1962년에도 귀국협정은 무수정 연장되였다.

현행귀국협정을 파괴하려는 일본당국의 음모가 로골화되자 재일 조선공민들은 일본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5차에 걸치는 완강한 통일행동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자기들의 행복의 길인 조국에로의 귀국의 길을 수호하였던것이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책동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은 그후 귀국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였고 오늘도 수많은 귀국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는 사실로써 뚜렷이 실증된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괴뢰도당의 책동은 범죄적인 《한일조약》이 체결된이후에 있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바로 《한일조약》은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군사적으로 결탁시키기 위하여 조작된것이며 그를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침략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것이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되고 재무장된 일

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조약》후 남조선괴뢰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화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반동적인 사또정부는 1966년 8월 23일 내각각의에서 부당하게도 귀국협정의 연장을 《1966년에 한한다》는 소위 《합의사항》을 공포하였으며 지난 4월 21일에는 또다시 각의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협정을 금년 11월로써 폐기할데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채택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후 일본반동지배층은 저들의 비법적인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귀국희망자들의 귀국신청을 공공연히 거부하고있으며 귀국협정의 무수정연장을 요구하여나서는 재일동포들에게 무장한 경찰까지 동원하여 폭행을 가하며 위협공갈함으로써 그들의 귀국운동을 막아보려 하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귀국신청을 억제하는 일본당국의 비법행위는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본당국은 귀국신청을 8월 12일로 마감하고 일본각지의 시, 정, 촌당국에 있는 귀국신청접수구를 일제히 페쇄하는 악랄한 책동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일본사또정부의 이러한 범죄적파괴책동이 미제가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더욱 뻗치고있는 시기에 감행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더욱 손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로골적으로 파괴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탄압하려고 획책하고있으며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면서 테로와 박해를 강화하고있다.

얼마전에 일본수상 사또는 남조선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기에 앞서 《귀국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그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박정희괴뢰도당과 밀담을 하고 돌아간 바로 직후에 일본당국이 현행귀국협정을 무수정연장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의 정당한 제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서한을 보내온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또한 지난 8월 11일 발표된 소위 《한일각료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사또반동정부는 《현행귀국협정을 11월 12일로 페기한다》고 거듭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약속하였다.

일본사또반동정부의 이러한 파렴치한 책동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충실히 복무하며 《한일협정》체결후 남조선괴뢰들과 진행하고있는 정치적흥정에서 또하나의 미끼를 마련하며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의 길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하고 불순한 정치적모략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이것은 또한 일본반동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을 더욱 밀접히 결탁시키며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3

미제의 사촉하에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당국의 법

죄적책동은 반드시 분쇄되여야 하며 현행귀국협정은 무수정연장되여야 한다.

지금 일본반동지배층은 귀국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였다》느니, 다른 《귀국방도》가 있다느니, 《치안상》 좋지 못하다느니 하는따위의 부당한 구실을 붙여 사회여론을 기만하며 하고있다.

일본당국이 제아무리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현행귀국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 하여도 결코 그 배신적이며 범죄적인 본질을 가릴수는 없는것이다.

현행귀국협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 조선공민들을 모두 귀국시키려는것이다. 이것은 협정에도 명백히 지적되여있다. 협정의 서문에는 《재일 조선공민들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따라 그들의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현행귀국협정을 체결한다는것을 똑똑히 규정하고있다. 또한 협정 제1조에는 《귀국자의 범위는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 조선공민들과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자녀들, 기타 그들의 부양을 받고있는자로서 함께 귀국을 희망하는자로 한다》고 지적하고있으며 협정 제9조는 현행협정의 기간내에 귀국사업이 끝날수 없을 경우에는 협정을 다시 연장할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이 협정은 설움많던 이국살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그리운 자기 조국에로 돌아갈것을 바라는 재일 조선공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60만의 재일 조선공민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일본반동정부의 민족적차별과 탄압정책으로 말미암아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오늘도 일본에는 귀국희망자가 수많이 있으며 그의 수는 계속 증가되고있다. 지금 일본당국에 정식 귀국신청을 낸 사람들만 하여도 1만 7천여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들은 귀국희망자가 《감소》되였기때문에 귀국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며 현재 귀국협정의 《목적이 달성되였다》고 하는 일본당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다른 귀국방도》를 운운하는 일본당국의 주장도 또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당국이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에서 지니고있는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책동이며 자기의 비법적인 파괴행위의 정체를 다소나마 합리화하여 사회여론을 오도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망상이다.

현재 재일 조선공민들이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귀국함에 있어서 이미 열려져있는 가장 합리적인 귀국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다른 어떤 《귀국방도》를 말하는 그자체가 사리에 맞지않는 교활한 간계라는것은 아주 명백하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은 보통려행자들의 려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일 조선공민들은 수십년간 생활하던 살림들을 정리하여가지고 가족과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귀국을 희망한 재일 조선공민들은 일본반동정부의 민족적박해와 차별정책으로 생활이 곤난한 사람들이다. 생활처지가 이러한 재일 조선공민들이 자체부담으로 귀국하기는 매우 어려운것이다.

일본당국이 《개별출국》을 주장하는것은 사실상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책동이다.

일본당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개별출국》이란 이미 8년동안 실시하여온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적합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길을 가로막자는것이며 결국은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그들이 자기 조국에 귀국할수 없게 하려는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한편 귀국사업이 《치안상》 좋지 못하다는 일본당국의 주장도 전혀 무근

거하다.

이것은 귀국사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일부러 조작된 중상비방이며 허무니없는 주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악의에 찬 적대행위의 표현이다.

사실이 증명하고있는바와 같이 지난 8년간의 귀국사업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말하는 《치안상》 문제는 한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 일본관계당국자들도 작년 7월 일본국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히려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에서 《치안상》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미제의 사촉을 받고있는 일본반동들과 리승만,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귀국사업방해책동이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치안상》문제를 운운하는것은 사회여론의 의혹을 야기하여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순전히 꾸며낸 악랄한 책동이라는것이 아주 명백하다.

조선인민은 물론 일본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음모를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다.

일본당국은 조일 두 나라 적십자간에 체결된 국제적인 쌍무협정인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을 결코 일방적으로 폐기할수 없다.

현행귀국협정은 지난 8년간의 실제 귀국사업과정을 통하여 재일 조선공민들이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귀국함에 있어서 그들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길이라는것이 실증되였다.

현행귀국협정은 응당 무조건, 무수정 연장되여야 한다.

지금 일본에 있는 60만의 재일 조선공민들은 자기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함께 조국에로의 귀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현행귀국협정의 무수정연장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재일 조선공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은 일본인민을 포함한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오늘 일본의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인민들은 귀국협정을 일방적으로 페기하려는 일본사또정부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있으며 현행귀국협정의 무수정연장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금후에도 재일 조선공민들이 자기들의 념원대로 경애하는 수령이 계시는 사회주의조국에 돌아와 행복한 새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모든 동포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귀국협정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보나 과거 일제가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저지른 죄과에 비추어보나 일본당국은 재일 조선공민들을 안전하게 자기 조국에 돌려보내는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일본당국은 귀국협정을 페기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귀국신청을 억제하는 범죄적인 책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현행귀국협정을 무수정연장할데 대한 우리측의 정당한 제의에 무조건 동의하고 귀국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인민은 귀국협정의 무수정연장을 실현함으로써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조국에로의 귀국을 보장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분쇄하고야 말것이다.

조선로동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가 계시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품안으로 돌아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불같은 념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책동으로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제국주의의 반동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현대부르죠아철학사조

안 덕 룡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는 날로 장성강화되는 혁명력량에 도전하면서 저들의 불가피한 멸망으로부터의 출로를 더욱 집요하게 침략과 전쟁 책동에서 찾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무대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아직도 위험한 세력으로 남아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3페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혁명력량을 반대하는데 온갖 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가리고 근로자들의 계급의식과 정치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각종 사상선전 수단들을 리용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선전수단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도발책동에 백방으로 복무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반동성과 그것이 제국주의침략에 어떻게 복무하는가를 폭로비판하는것은 제국주의와 부르죠아 사상의 잔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사회주의진영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장성강화로 말미암아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는 세계의 모든 곳에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 고립되여가고있다.

제국주의의 《영원성》에 대한 신화는 산산이 분쇄되고 자신을 자본의 철쇄와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혁명투쟁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수백수천만 근로자들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인식하면할수록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은 더욱더

격화되며 이리하여 제국주의의 멸망은 촉진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근로대중이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세계발전의 혁명적추세로부터 그들을 떼여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들은 모든 선전선동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몽매화하고 그들을 타락시켜 혁명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고있는 불가지론은 바로 제국주의반동의 이와 같은 요구의 반영이다. 그것은 객관적물질세계의 발전법칙이란 있을수 없으며 리성의 힘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설교하면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저애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 불가지론은 비합리주의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부르죠아지가 력사발전에서 일정하게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있었을 때의 부르죠아철학은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나 리성의 힘과 합리적인식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모든 분야에서 로골적인 반동에로 전환된 제국주의시기에 와서 그들의 철학은 종래의 모든 합리적인것들을 집어던지고 가장 몽매적이고 부패한것, 보수적인것들을 들추어내여 그것에 매달리고있다.

오늘 부르죠아철학은 객관적물질세계인식의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데 머물지 않고 객관적물질세계자체가 혼란된 존재이며 그것을 인식하려는 시도자체가 허황한 노릇이라는 극단한 비합리주의를 들고나오고있다.

사회주의가 현실로 되고 세계발전의 결정적력량으로 되고있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앞에서 현대부르죠아철학가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필연적인 승리에 대한 객관적진리를 인식할수 없는것이라고만 우길수 없게 되였다. 때문에 그들은 신앙, 자연적인 본능, 맹목적인 의지, 비판적인 체험 등 비합리적인것에서 세계의 《본질》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최후발악하는 행정에서 산생된 전횡, 자본주의세계의 혼란 등이 마치 세계의 본질적인 상태이며 세계자체가 하나의 혼란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듯이 꾸며대고있다.

미제국주의의 《고전철학가》라고 하는 악명높은 쨈머야나는 객관적물질세계를 《광란의 세계》로 묘사하면서 인간의 리성은 그것을 도저히 파악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골적으로 전쟁, 사회적부정의 등이 《물질적실체》의 《자연적흐름》의 발현이라고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반동정책과 침략전쟁의 본질을 은페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결국 제국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려는 근로대중의 투쟁이 무모하다는것을 설교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 비합리주의의 한 형태는 론리적실증주의이다.

론리적실증주의는 교활하게도 《과학》의 탈을 쓰고 객관적물질세계의 존재를 공개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의 합리적인식을 부인한다. 론리적실증주의자들은 마치도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철학이 수행하던 과업을 이제는 과학이 직접 담당하게 되였으므로 철학은 필요없게 되였다는듯이 주장하며 과학자체도 객관적물질세계의 내적련관과 발전법칙을 연구할것이 아니라 《순수경험》에 의한 론리적개념을 분석하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교한다.

철학을 청산하려는 론리적실증주의자들의 론의는 피착취대중을 맑스—레닌주의의 영향에서 떼여내며 그들로 하여

금 모순에 찬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 불가지론은 비론리주의 특히 신앙주의, 신비주의를 고취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신앙주의와 신비주의는 종교—관념론적세계관의 한 형태로서 현실세계의 본질을 리해하는것이 필요없을뿐아니라 도리여 해로우며 다만 죽어서 영원히 향락을 누릴 래세의 《진실》을 파악하는것이 문제로 된다고 설교한다.

종교적신앙주의와 신비주의는 노예적굴종과 중세기적몽매주의를 고취하며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제국주의침략과 전쟁 정책을 불평없이 받아들이도록 설복하려 한다.

신앙주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반동적본질을 가리는 외피를 교묘하게 바꾸어왔다. 최근에 보급되고있는 《데이야르주의》는 그 실례의 하나이다.

프랑스의 반동철학가 데이야르는 자연과학의 성과들을 신앙주의에 외곡리용한 《자연철학체계》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것은 《신》이 진화의 최고결정이고 《의식의 집중적집결체》로서 자연, 사회, 인간의 머리우에 군림하여있다는 신비설이며 세계의 모든 사물의 진화는 《신에로의 상승》이라고 하는 중세기적신앙주의의 재판이다.

《데이야르주의》의 계급적내용은, 인간은 객관적물질세계의 본질과 사회발전법칙을 리해할 능력이 없으며 그 합리적인식은 오직 《조물주》만이 할수 있다고 꾸며댐으로써 근로대중을 몽매화하고 그들에게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하며 제국주의의 략탈적본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 인간리성의 힘과 객관적물질세계인식의 가능성을 거부하고 인간의 맹목적의지, 본능, 무의식적힘 등의 우월성을 설교하는 불가지론은 제국주의시기의 부르죠아철학의 타락과 부패를 아주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리성적사유의 힘, 진리를 인식할수 있는 과학의 능력을 거부함으로써 객관적법칙에 대한 인간의 인식능력을 부정하려는 불가지론자들의 론의는 근로대중이 사회주의승리와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계급의식과 정치적각성을 거세하려는 책동이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피착취대중이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날로 의식화되여가는 필연적과정을 가로막지 못한다.

제국주의멸망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진리는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수백만대중의 심장을 더욱더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며 제국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 *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기본생존방식이며 그의 본성의 발현이다. 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은 독점자본주의가 존재하는한 변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제국주의의 야수적본성은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이 체제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되면될수록 더 명백히

드러나며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은 보다 더 란폭해진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정당화하는데 복무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 지배적인 주의설적경향에서 볼수 있다. 주의설적경향에서 전형적인것은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는 인간의 맹목적인 의지를 절대화하고 객관적물질세계를 그의 산물로 묘사하며 사물발전의 내적련관과 합법칙성을 부정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합리화한다. 그것은 객관적물질세계가 《의식의 흐름》즉 맹목적인 의지의 산물로서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강요할수 있는 대상인듯이 묘사한다. 말하자면 자연 및 사회는 석공이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구현할수 있는 대리석과 같은 것이고 사상이나 관념 등은 석공이 쓰는 《도구》이며 인간의 뇌수는 《도구함》이며 사상, 관념의 진실성은 그것이 객관적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였는가 못하였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못가져오는가에 따라 규정된다는것이다.

실용주의에 있어서 진리란 자기에게 《유익한것》, 《리익》을 주는것이다. 이것은 사상이나 관념, 행동이 략탈자들에게 《유익》하고 《리익》을 가져다주면 《진리》로 된다는것을 주장하려는것이다.

이것저것 생각할것없이 행동하며 설정된 목표, 바라는 대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은 곧 《선한》 행위이며 《진리》이다—이것이 실용주의의 강도적교리이다.

물질세계를 인간의 의지 및 의식의 산물로 묘사하며 관념, 개념은 세계를 《질서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실용주의의 《리론》은 략탈자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한 순수한 관념론이다.

자연 및 사회의 법칙은 객관성을 가지며 물질세계는 인간의 의지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그자체의 법칙을 가진다. 세계는 물질의 합법칙적운동이며 우리의 의식은 자연의 최고 소산으로서 이 합법칙성을 반영할따름이다. 따라서 이 객관적법칙을 정확히 반영한 진리는 결코 실용주의자들이 떠벌이는것처럼 인간의 주관적산물이 아니다.

객관세계의 합법칙성과 진리에 대한 실용주의《리론》은 미국전쟁상인들의 침략과 전쟁을 포함한 임의의 모험주의적 략탈행위를 정당화하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반대하고 피착취근로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실용주의의 반동성과 그 계급적내용은 이 교리에 의하여 교양된 미제약수들의 행동에서 그리고 전쟁을 로골적으로 변호하는 실용주의자들자신의 론거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과 정책작성자들, 살인장군들과 고용병들이 실용주의의 강도적교리에 의하여 교양되고 훈련되고있다. 그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며 생활양식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이것으로써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정당화되며 힘이 진리와 선의 《원천》이라는 강도적론리가 조작된다.

실용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을 공공연히 찬양하면서 미제가 감행하는 침략전쟁을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으로 추켜올리고있다. 그들에 의하면 인민들과 국가들 사이의 가장 《전면적》이고 《불가피한》 상태가 전쟁상태이

며 그것은 인류의 《실용》적인 《행동방식》이라는것이다.

실용주의철학의 괴수 듀이가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조선전쟁을 그들의 《신적인 적극성》으로 찬양하였다면 오늘 실용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며 웰남에서 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날뛰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실용주의정신의 《구현자》로 떠받들고있다.

실용주의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에 적극 복무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실용주의를 극력 퍼뜨리면서 남조선인민대중속에 인간증오와 극단적인 개인주의사상을 주입하고 그들을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려고 획책하고있다. 최근에는 현대실용주의의 대표자로서 악명높은 후크가 남조선에 기여들어 괴뢰들에게 실용주의《사고방식》을 고취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실용주의사상을 보다 본격적으로 주입할것을 권고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고무추동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실용주의는 침략과 략탈, 끊임없는 전쟁에 의하여 비대해진 제국주의자들의 피묻은 범죄행위를 철학적으로 분장하고있으며 그들의 끝없는 치부욕과 추악한 본심을 반영한 강도적철학이다.

실용주의자들은 그 략탈적론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며 《미국풍토에서 자란》 가장 합리적인 《현대인의 세계관》인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미국풍토에서 자란》 실용주의는 인류 일반의 《세계관》이 아니라 바로 미제국주의의 공식철학이며 현대관념론철학의 미국식변종일뿐이다. 이른바 《현대인의 세계관》이란 세계지배를 참망하는 미제국주의의 야망을 반영한것이며 그 략탈적본성을 가리는 병풍에 불과한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야망의 《정당성》을 《론증》하기 위하여 신앙주의철학까지 동원하고있다.

신토마스주의자들, 인격주의자들은 단일한 세계기독교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미제가 지배하는 《세계정부》가 수립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신적《인격》이 세계적인데 반하여 민족적인것은 협소하고 조잡하며 따라서 민족적자주권이라든가, 민족적독립이라든가 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주의, 민족허무주의 사상을 고취한다.

신토마스주의자들은 미제와 카톨릭교회와의 련합으로써만 미제의 세계지배가 가능하다고 떠들면서 미제의 사상적전초병으로 적극 나서고있다. 그들은 카톨릭교 신자들이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옹호하며 《성직자》들이 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는데 복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있다. 이미 수많은 《성직자》들이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위한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또 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피착취대중의 투쟁의식을 거세하며 제국주의략탈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로골적으로 변호해 나서는것—이것이 《자선》, 《평화》, 《박애》의 탈을 쓰고 인류 일반의 《리익》을 옹호한다는 신앙주의자들의 진짜면모이며 현대종교철학의 계급적내용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근로대중속에 비관주의와 부패타락한 사상을 류포시키

고 그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용이하게 실현할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 비관주의는 과거의 부르죠아철학사상에서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부르죠아지가 로동계급의 첫 혁명적진출에 직접하였을 때의 비관주의는 염세주의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산물로 되는 현대부르죠아철학에서의 비관주의는 비단 염세주의를 고창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죽음의 마당》에로 끌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상적준비를 갖추게 하려 한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을 더욱 횡포하고 큰 규모로 벌려놓게 되였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상전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은 《죽음》의 설교로써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관심을 마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에서 목숨을 버리도록 추동하고있다.

실존주의를 비롯한 현대부르죠아철학은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오늘날 인류가 처하고있는 혁명적변혁의 시대적내용을 볼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관을 그들의 의식속에 불어넣으려 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각종 류파들은 큰 발명이나 한것처럼 《인류의 위기》, 《시대의 위기의식》을 부르짖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세계는 공포와 파멸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실존주의를 비롯한 비관주의설교자들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심각화를 마치 《시대의 위기》, 《인류의 멸망》인듯이 꾸며댐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포기하고 불안과 절망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에 순종하게 하려는것이다.

남조선에서도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사회적바탕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비관주의를 널리 류포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존주의를 비롯한 비관주의는 대중을 더욱 집요하게 부패타락의 길로 유인하면서 《죽음》을 신성화하고 그것을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바쳐야 한다고 파렴치하게 설교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미제의 값싼 대포밥을 마련하는데 적극 복무하고있다.

비관주의는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제국주의위기는 날로 더 심화되고있다. 력사발전의 행정은 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책동으로도 인민들의 앙양되는 해방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산 낡은 력량이며 공산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력량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4페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은 독점부르죠아지의 정신상태는 공포와 불안감에 차있으며 날로 타락되여가고있다.

실존주의를 비롯한 비관주의의 고취자들은 제국주의의 위기, 죽음을 예감한 독점부르죠아지의 가련한 정신상태를 인간의 《본성》으로 외곡함으로써 근로대중을 부패타락시키고 사회정치적문제에 무관심하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에 공손히 《죽음》을 바치도록 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러나 객관적정세는 제국주의자들과 비판주의자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발전하고있다. 사회주의진영의 장성강화와 민족해방투쟁의 전례없는 앙양, 제국주의내부모순의 격화 등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공포와 절망, 비관과 타락의 진창속에 몰아넣고있으나 근로인민들에게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멸망의 필연성을 더욱 똑똑히 인식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있다.

＊ ＊

제국주의자들은 반동과 침략전쟁을 포함한 모든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하여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반공산주의는 온갖 반동정치세력과 반동사상조류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본특성의 하나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은 사회주의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며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려는 책동으로부터 침략과 전쟁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반동세력을 규합하여 《반공》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광분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떠들면서 《반공》선전에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에 《리론적근거》를 부여하는데 복무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의 전 내용을 관통하고있는 반공산주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학설을 왜곡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한 나라에서 승리하였을 때 부르죠아사상가들은 사회주의를 인류력사발전의 《병적상태》이며 《우연적현상》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세계적규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있는 현시대의 객관적 사실앞에서 그것은 낡은 《교리》로 되고 말았다. 현대부르죠아철학은 이러한 사태에 순응하여 더 교활한 수법으로 자신을 위장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왜곡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철학가들은 제멋대로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대립시키면서 맑스주의가 산업자본주의시기에는 합리적이였으나 고도로 발전된 제국주의시기에는 불합리한 《낡은》 리론으로 되였으며 레닌주의는 로씨야와 같이 공업이 뒤떨어진 나라에 국한되는 학설이므로 오늘의 독점자본주의나라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떠벌이고있다.

이리하여 현대부르죠아철학가들은 《낡은》 맑스주의학설을 인간의 사상, 의식을 《풍부》화한 현대부르죠아철학 례컨대 실용주의, 실존주의 등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현대부르죠아철학사상에 용해시키려는 희극을 꾸미고있다.

공산주의사상은 인류해방의 길을 밝혀주었고 세계의 여러 대륙에서 이미 구현되였으며 또 구현되고있는 불멸의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공산주의사상은 지구상 모든 대륙의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쥐고있으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고무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108페지).

제국주의자들과 온 세계 반동들의 요란한 《반공》소동은 그들이 본의 아니게도 공산주의사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며 그에 대한 그들의 숨길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표시하는것이다.

현대부르죠아철학가들은 《반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일삼고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날조된 간판밑에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을 가리려고 애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위협》이란 실제에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제도자체의 사회계급적모순에 기인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적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은 불가피하게 계급투쟁과 혁명을 초래한다. 혁명은 수출도, 수입도 할수 없다는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부르죠아철학가들은 나날이 격화되는 제국주의위기의 근원을 은폐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본의 착취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나서지 못하게 하며 그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영향력을 거세해보려고 《반공》소동에 날뛰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도당은 《반공》을 인민들을 탄압하고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며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동족상쟁을 고취하는 저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사상적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날조된 《반공》의 간판밑에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감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으며 일제의 남조선재침략을 허용하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남부윁남의 죽음터로 끌어내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발맞추어 반공산주의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력을 가로막으며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각성되여가는 인민대중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거세하고 그들을 반미구국투쟁대오에서 떼여내기 위하여 모든 《반공》선전수단들을 집중하고있다. 남조선의 부르죠아어용사상가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편견에 기대를 걸고 허황한 거짓말을 늘어놓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에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떤 《반공》나발도, 어용학자들의 《반공》선전도 결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파산을 구원하지 못할것이다.

김일성동지가 교시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항거가 있는 법이다. 그 어떤 기만과 폭압으로도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근로대중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진출을 막아낼수는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밑에서 겪은 20여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4.19, 6.3봉기 등 과감한 투쟁을 통하여 원쑤들의 소위 《반공》이 결국 동족상쟁에로 자기들을 내몰며 조국의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방패에 불과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통치의 위기를 가리는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깨닫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장성하는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그들을 더욱더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9 호 (307)

차 례

당대표자회의 위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 당대표자회 1주년에 즈음하여 —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우리 당과 인민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는 높은 긍지와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당대표자회이후 1년간의 장엄한 투쟁과정을 돌이켜보게 된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은 현시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제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보장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현시기 조성된 국제국내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국제혁명의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우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킬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또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격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된 현정세하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실로 당대표자회는 맑스—레닌주의 혁명적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견결히 투쟁하는 우리 당의 확고한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립장과 불굴의 의지를 천명한 회의로서 우리 나라 혁명위업과 국제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당대표자회는 조성된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전당과 전체 인민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을 주동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당대표자회는 또한 당을 더한층 공고히 하며 당과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결속되고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인층 공고화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원칙적방침들은 많은 형제당들과 세계의 공산주의자들, 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

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당대표자회의 위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

*

당대표자회의 기본사상은 혁명의 기지인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래하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자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력량의 장성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북반부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기본방침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당대표자회는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는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62페지).

오늘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이 긴절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혁명대오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을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다.

혁명대오를 꾸리는데 있어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것 즉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상의지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키기 위하여 전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며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싸우자는것이다.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만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관철하는 당과 수령의 붉은 전사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가로 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데 있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66~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새롭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로선으로서 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대한 새로운 탁월한 기여로 된다.

이것은 현시기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는 낡은 사상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있게 추진시켜나아갈수 있다. 특히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앞두고 전체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울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이 전사회의 혁명화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꾸리는 사업이 얼마나 깊이있게, 폭넓게 전개되고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당대표자회의 방침은 이미 생활에서 그 정당성이 명백히 실증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내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일층 강화되였으며 전당, 전체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오직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전진하려는 확고부동한 각오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전개됨으로써 혁명의 시대에 부합되게 살며 투쟁하려는 혁명적정신, 전투적기백이 전사회에 흘러넘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대 혁명적앙양을 계속 발전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있다.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의 혁명기지는 필승불패의 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질것이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더 앞당겨질것이다.

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물질적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방침으로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제국주의와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세계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이다. 이 로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나아갈수 있게 하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48페지).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오늘과 같이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한 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며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기여로 된다.

우리는 오직 이 로선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전쟁의 위험에 대처하여 나라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새로선이며 혁명적로선이다.

이 로선의 혁명적본질은 국방건설의 비중을 경제건설의 비중에 못지 않게 설정하고 이 두 분야에 거의 같은 힘을 넣음으로써 국방의 완벽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건설도 천리마의 속도로 다그쳐 국방력의 강화와 경제토대의 튼튼한 축성,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다같이 해결하여나아가는데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은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킬것을 요구하며 모든 부문에서 배가의 노력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더잘 생산할것을 요구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이 로선에 담겨져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정확히 체득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 천리마의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2배, 3배의 능률을 내는 대중적혁신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있으며 전국각지의 로동계급속에서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기 위한 로력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여 대풍작을 마련하였다. 새로운《평양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돌격전을 전개하고있는 수도건설자들, 기타 인민경제 각분야의 근로자들도 충천한 기세로 매일과 같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이 성과있게 해결되여가고있으며 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침의 정당성을 말하여주는것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과업을 명시하시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책, 9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인민들 앞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여야 할 당면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할 혁명정세는 점차 성숙되여가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백방으로 촉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기지인 북반부에서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긴절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현시기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할데 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우와 같은 책, 97페지).

오늘 북반부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동지의 보고에서 명시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고 그 주위에 기본군중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지금 원쑤들의 파쑈적폭압과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기본군중들인 로동자, 농민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제고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들을 대중조직들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로농동맹을 공고히 하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오직 전투적이고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가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테리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것은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문제로, 절박한 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당을 꾸리고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모든 사업은 오직 투쟁을 통하여서만 해결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97페지).

혁명이 간고하다 하여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기만 기다리는 우경적편향과 내외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타산함이 없이 모험주의적으로 투쟁을 벌리는 좌경적편향을 다 경계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원칙에 따라 각종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혁명가들이 육성될수 있고 당대렬이 확대강화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각성되여 당의 주위에, 대중조직들에 굳게 결속될수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의 혁명정세의 발전은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단계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여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방침에서 자기들의 투쟁방도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바로 거기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고있다. 그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방의 등대로 우러러보고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령도하에 통일된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는 로동계급의 투쟁이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그들은 점차 뚜렷한 정치적요구를 제기하고있다. 농민들도 괴뢰정부의 농촌수탈과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금년에 들어와 남조선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은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 부정《선거》를 계기로 하여 대중적인 반미반파쑈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 모든것은 원쑤들의 폭압과 《반공》선전이 극심하면할수록 인민대중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일떠서게 되며 그 어떤 힘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농민들, 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인테리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형태의 투쟁을 강화하고있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자기들의 력량을 강화발전시키고있다.

남조선혁명은 실로 간고하고도 중첩된 시련에 부딪쳐왔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꾸리는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여왔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언제나 옳은 투쟁의 길을 찾을수 있었으며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과 파괴 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면서 혁명력량을 꾸준히 장성시켜왔다.

남조선인민들은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계속 투쟁함으로써 믿음직한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꾸려질것이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　　*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장성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는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하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세계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혁명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효과적으로 저지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에서 바로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인민들의 주되는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차적인 과업이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주로 웰남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면서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며 세계도처에서 혁명적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압살하려고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응당 힘을 합하여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려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웰남침략과 이것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현시기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투쟁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 투쟁에서 력량을 단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 및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근본적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힘을 합쳐 투쟁함으로써만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결정적타격을 줄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적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반제반미투쟁에서 힘을 단합하고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환경은 지나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김일성동지는 조성된 환경에서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반제반미투쟁을 전면에 내세우고 력량을 단합하여 투쟁하면서 이를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회복할데 대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침을 제기하시였다.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으로 된다》(우와 같은 책, 35페지).

미제를 반대하고 싸우는 월남인민을 지원하는 초미의 문제에서 공동행동을 이룩하고 통일전선을 전개하면서 기회주의적요소들을 비판하고 극복하며 반제적측면은 지지하고 조장하여나아간다면 사회주의나라들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미제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는 동시에 좌우경기회주의도 성과적으로 극복하여나갈수 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을 단합하는것을 통하여 기회주의를 극복하며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세계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새롭게 조성된 구체적정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과 국제혁명발전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에 힘을 단합하여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리익과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있는 수억만인민들의 사활적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전세계 공산주의자들, 혁명적인민들과 그 지도자들 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러러보면서 무한히 존경하고있으며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하신 그이의 보고를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될 위대한 문헌》으로 높이 평가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민족해방운동조직들은 이 보고를 《혁명을 하자고 하는 혁명가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또 어느길로 나가야 하는가를 명석하게 가르치고있는》 위대한 문헌으로 간주하면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더 높이고있다.

최근 3대륙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 꼰띠넨딸》창간호에 발표된 김일성동지의 론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 대한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반향이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는 사실은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로선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다시금 확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언제나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복잡한 환경에서도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우리 혁명수행에서나 국제혁명문제에 대하여서나 일관하게 자주로선을 견지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거둔 모든 성과는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결부되여있다. 자주로선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내외활동에서 로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과오를 피할수 있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더욱더 많은 형제당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우와 같은 책, 46페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혁명적인민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현실은 맑스—레닌주의당들, 근로인민

의 민족적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혁명력량이 자주성을 견지하는 조건에서만 혁명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실로 우리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보고는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근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명백한 리론적해명을 주었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혁명적인민들은 이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기여로 된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시종일관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립장을 견지하고 국제혁명의 발전에 거대한 리론실천적기여를 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는 전세계에서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제적벗들은 점점더 많아지고있으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은 더욱더 공고화되고있다.

*

당대표자회가 있은후 지난 1년간에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실로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오직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다.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에로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를 받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그이께 충실하며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오늘 전체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충천하는 기세로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빛나는 혁신적성과를 올리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길을 따라 계속 확신성있게 전진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의 혁명화를 부단히 촉진함으로써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나아갈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성과있게 점령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맞이할것이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보위를 위한 투쟁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일제의 전면적인 봉쇄와 대규모 《토벌》속에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보위하는 간고한 투쟁을 4년간이나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고 고귀한 투쟁경험을 쌓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동만에서 일본놈들이 만주를 점령한 다음 1932년에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투쟁하였는데 1935년도에 와서야 유격근거지를 해산하였다…4년이라는 오랜기간 한 지역에서 적들과 직접 맞서서 투쟁한 이 경험은 아주 귀중한것이다》.

이 경험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그 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할 때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격멸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능히 극복타개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이룩한 이 고귀한 경험을 체득하는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의 전진도상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더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극복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촉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준다.

* *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그를 튼튼히 보위함으로써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주동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그를 튼튼히 보위하는 문제는 항일무장투쟁의 성과적추진과 조선혁명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적들의 야만적인 백색테로에 대처하여 우리는 정의로운 무장투쟁으로 적들을 박멸하여야 하며, 놈들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우리는 정의의 전쟁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할뿐만아니라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는 혁명근거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항일유격대는 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자기 대오를 보충 정비하고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었다.

무장투쟁이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주되는 형태로 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근거지는 전반적인 혁명운동발전의 책원지로서 더욱 필요하였다. 근거지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야 혁명력량을 보존, 육성, 단련할수 있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적영향을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 군중은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1932년 여름부터 혁명근거지 창설사업에 착수하였다.

일제의 야수적탄압이 극심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전복하고 일정한 지역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유격근거지창설은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1932년 가을에 있은 왕청현 남하마탕 마록구전투, 훈춘시가공격전투, 1932년 9월의 연길현 태양모전투를 비롯한 대소 수백차례의 간고한 전투속에서 우리 나라 북부국경대안인 두만강류역의 넓은 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유격근거지는 그후 1935년까지 그가 존재한 전기간에 걸쳐 거대한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는 1936년 5월 동강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날 동만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고 반일군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약한 무장을 가지고도 자기의 근거지를 보위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적들이 현대적무장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하기 어려운 지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으로 유격근거지와 혁명군중을 보위하며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원쑤들이 도처에서 대중적학살을 감행하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전멸하려고 발광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방어하기 유리한 산림지대에 고정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여' 혁명력량을 보존, 장성시키고 인민을 보호한것은 아주 정당하였고 혁명발전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유격근거지는 우선 항일유격대를 확대강화하는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갓 조직된 항일유격대는 근거지에 의거하여 자기대오를 확대하고 전투정치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면서 전투력을 급속히 제고하였다. 이리하여 1934년 3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편성되였으며 적의 대부대도 능히 소멸할수 있는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유격근거지는 혁명력량을 보존, 장성시키고 인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대중적 학살만행은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인성과 야만성을 띠였다. 놈들은 수만명의 무고한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수천호의 가옥을 불사르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유격근거지는 바로 이러한 적들의 대중적학살만행으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였으며 수많은 군중을 결속하여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하는 혁명기지로 되였다.

유격근거지는 또한 인민혁명정부의 수립과 그의 제반시책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전망을 전체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장투쟁의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통일전선운동을 급속히 확대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혁명운동전반을 통일적으로 힘차게 전진시키는 혁명의 책원지로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격근거지의 거대한 혁명적역할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는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함과 동시에 원쑤들에게 커다란 정치군사적타격을 주면서 무장투쟁을 급속히 발전시켜나아갔다. 이것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간악한 일제는 유격근거지를 창설초기에 말살하고 항일유격대를 《소멸》하려고 발악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발악적책동에 대처하여 근거지를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시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였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용감하게 극복타개하고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확고히 보위함으로써 조선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아갔다.

* *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오직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있음으로 하여 4년간의 가렬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보위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친히 지도하시였을 뿐만아니라 유격근거지를 공고히 하며 그를 보위하기 위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이미 유격근거지창설초기에 적들의 발악적인 《토벌》공세를 예견하시고 인민들을 단일한 혁명력량으로 결속시키는 동시에 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그를 보위할데 대한 명철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유일하게 정당한 전략적방침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유격근거지를 말살하려던 적들의 발악적책동을 물리치고 조선혁명전반을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유격근거지내에서 정권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인민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결속시켜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당시 좌경모험분자들은 혁명의 성격과 임무, 인민들의 준비정도와는 관계없이 교조적으로 《쏘베트정권》형태를 고집함으로써 대중을 혁명투쟁에서 리탈시키려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1933년봄 항일유격대창건이후 1년간 사업을 총화하는 회의에서 좌경모험분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엄격히 폭로비판하시고 유격근거지에서의 혁명정권은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하며 당면하게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철하게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정권문제에서의 좌경모험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고 근거지인민들을 혁명의 편에 굳게 결속시켜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였다.

김일성동지는 대국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가장 현명하고 원칙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였다.

대국주의자들은 일제의 간계에 기만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모해하려 하였다. 또한 종파분자들은 고질적인 종파습성을 버리지 않고 반《민생단》투쟁을 저들의 종파적목적달성에 리용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 속에서는 동지호상간에 불신임이 생기고 대국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책동에 대하여 말도 하지 못하고 공포속에서 떠는 참을수 없는 사태까지 조성되였다. 반《민생단》투쟁이 그릇되게 진행된 결과 조선혁명앞에는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다.

반《민생단》투쟁을 옳바른 궤도에 올려세움으로써 혁명을 난국으로부터 건져내는 문제는 심각하고도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그 누구도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였다. 오직 김일성동지만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제의 간교하고 음흉한 책동을 폭로하고 대국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준렬하게 비판하시였으며 사람들을 우선 믿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는 원칙에서 혁명력량을 부단히 장성강화할데 대하여 단호히 주장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나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들에서 반《민생단》투쟁을 그릇되게 이끌던 대국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을 반대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견결히 투쟁하시여 반《민생단》투쟁을 옳은 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구국군과의 통일전선형성사업도 가장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반일력량을 강화하고 유격근거지보위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실로 혁명의 앞길에 난국이 조성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타개함으로써 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더욱 힘차게 전진시켰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근거지인민들 속에서만 아니라 각지방인민들 속에 널리 퍼지였다.

김일성동지는 가장 현명한 혁명로선과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근거지인민들을 어버이심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시였다.

일제의 대중적학살만행에서 구원되여 근거지에 집결된 인민들은 누구나 생활적기초가 극히 빈약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경제봉쇄속에서 옷과 신발하나 구하는데도 피를 흘려야 하였으며 식량이 부족하여 풀과 나무뿌리로 연명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인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유격근거지에서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조직지도하시였으며 적을 치고 식량과 피복을 로획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신은 홑옷으로 겨울을 지내시면서도 로인들과 아동들에게는 솜옷을 입히고 뜨뜻이 지내게 하시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공청원 리순희동무》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령의 어버이심정에 깊이 감동된 아동단원들이 솜옷과 가죽신을 김일성동지께 선물하였을 때 그이는 아동들의 기특한 행동을 치하하시면서도 그것을 근거지에서 년령이 제일 많은 로인에게 드리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배려, 그이의 높은 덕성은 일제와 그 주구들의 학대와 착취 속에서 신음하다가 근거지에 들어와 수령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사는 전체 근거지인민들을 무한히 감동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게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이렇듯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친히 령도하시였을뿐만아니라 가장 높은 공산주의적품성을 지니심으로써 근거지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신임을 받으셨다.

김일성동지는 또한 신출귀몰하는 명활한 전술로 근거지에 기여드는 적들을 매번 타격소멸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시였으며 항일유격대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게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매일같이 근거지를 헤치려고 덤벼드는 적들과 간고한 전투를 거듭하였다. 갓 조직된 항일유격대는 무장장비에서나 수량상으로 압도적우세를 차지한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하였으나 김일성동지의 명활한 전술에 의하여 그때마다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하였다.

1933년 4월, 40여일이나 계속된 소왕청방어전투는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당시 일제는 유격근거지를 《일거에 소탕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동만각지의 일본군은 물론 지어 조선주둔 19사단의 일부 병력까지 발동시켜 보병, 기병, 포병, 항공대 등 5,000여명의 《최정예》부대를 소왕청근거지에 투입하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남아있던 불과 50여명의 청소한 유격대원들은 첫날부터 불면불휴의 전투를 거듭하여 3일만에 적 400여명을 살상하고 놈들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어떤 손실을 당하더라도 유격근거지 《소탕전》을 끝장내고야 말 심산으로 련일 집요하게 덤벼들었다.

가렬한 전투가 20일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소왕청유격근거지는 하나의 불바다로 되여 집도, 식량도, 나무도, 풀도 모든것이 다 불에 타버렸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실로 어려운 고비를 겪었다.

이 준엄한 시각에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유격근거지에 닥쳐온 위기를 몸소 타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적후방교란작전을 적극적인 방어와 배합하는 명활한 전술로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당시 일부 군사교조주의자들은 방어전투에만 매여달리면서 후방교란전술의 진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항일유격대가 적통치구역에 진출하는데 대하여 유격근거지의 수많은 군중을 버리고 전투를 회피한다고까지 비방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이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반대하고 후방교란전술을 적극적인 방어와 배합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십배나 되는 적의 정예부대와 정면충돌하는것은 적아간의 력량대비로 보아서나 유격전술상 승산이 없는 모험행동인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공격태세로 달려드는 적들에 대하여 좁은 지역에 앉아서 방어전으로만 대하는것은 도리여 적의 기대에 맞추어주는것으로서 적에게는 유리하고 아군에게는 극히 불리한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아군의 력량을 두대로 나누어 행동해야 하겠다.

한대는 이 곳에 남아서 활동하고 다른 한대는 적들의 통치구역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지금 적들은 동만 각현의 유격근거지를 동시적으로 대거침공하기 위하여 심지어 경찰과 자위단까지도 대부분 유격근거지 《로벌》작전에 동원시켰으므로 사실상 적들의 후방은 텅빈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적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유격대가 근거지를 떠나서 적들의 후방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할것이다.

이러한 때에 대담하고 민첩하게 적군후방에서 적들의 병실과 자위단, 경찰서 등을 습격하여 놈들에게 불의타격을 주며 놈들의 군수품창고와 공급기관 등을 공격하거나 군수물자수송차를 매복습격함으로써 놈들에게 먹을것과 입을것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아군의 군수품을 보충하며 적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주국》괴뢰군과 일본군에게 선전삐라를 광범히 살포하여 적군병사대중을 동요시키며 계속 부단한 배후공격전으로 적들로 하여금 유격근거지를 공격하고있는 자기병력을 부득불 철수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유격근거지내에 남아있는 부대들도 대량적으로 공격해오는 적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여러개의 소부대를 편성하여 낮에는 유격근거지내의 인민들을 각처에 분산은신시켜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적들의 숙영지 등을 부단히 기습공격하여 적을 섬멸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명활성있는 전술과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써 적들에게 계속 패배와 죽음을 주고 아군주력과 유격근거지인민들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유격근거지를 보위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어와 후방교란작전을 배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명활한 전술의 정당성은 전투의 승리적종결로 실증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일부 력량을 친솔하시고 적통치구역에 진출하시여 적의 《로벌》중심지였던 왕청시가와 그 외에 량수천자, 북봉오동 등 여러 지역을 습격함으로써 적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었다.

대병력으로 유격근거지를 중중첩첩히 포위하였던 적들은 배후에서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당황망조하게 되였으며 마침내 포위진을 풀고 도망치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는 소왕청근거지 《로벌》작전에서 대실패를 맛본이후에도 끊임없이 덤벼들었으며 1933년말～1934년초, 1934년말～1935년초, 1935년가을～겨울에 또다시 대규모《로벌》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그때마다 원쑤들을 맞받아 영용하게 싸워 놈들에게 백배천배의 복수를 하면서 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하였다.

가렬한 유격근거지보위투쟁의 행정에

서 김일성동지는 독창적인 유격전술을 창조하시였으며 그이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여 백전백승하는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강대한 적과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군사지식을 배웠고 유격전쟁의 전략전술을 습득하였으며 또한 항일전쟁에 필요한 전략전술을 창조하였다.

아군은 이 시기에 강한 적들을 약자로 만들며 약한 아군을 강자로 만드는 주요한 전략전술적방법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령군술, 그이의 높은 덕성은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수령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절대적인것으로 되게 하였으며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나아갈 때 어떤 난관과 시련도 능히 극복타개하고 반드시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실제생활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가 제시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을 체험함으로써 그이의 전사로 된 무한한 긍지를 가지였으며 한결같이 수령의 주위에 결속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확고히 옹호하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이 당시를 회상하여 쓴것처럼 그때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유격근거지는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학살을 당하였을 것이며 항일유격대는 지리멸렬되였을 것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필승불패의 힘을 얻은 유격근거지인민들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온갖 간난신고를 용감하게 극복타개하고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았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을 도와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는 투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이 겪은 난관과 시련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처창즈유격근거지인민들이 겪은 난관과 시련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그들은 단벌 토스레옷으로 령하 40도의 혹한을 견디여내야 하였으며 식량한톨을 구하는데도 피를 흘려야 하였다. 식량이 부족하여 풀과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웠으나 나중에는 그것마저 떨어졌다. 겨울에 한길씩 되는 눈속에서 마른풀이며 다래덩굴 등을 뜯어다 소금도 없이 삶아먹어야 하는 곤난은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것이였다.

그들은 이러한 곤난과 함께 혁명정부내에 잠입한 암해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면서 매일같이 덤벼드는 적들을 물리쳐야 하였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이처럼 어려운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느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혁명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았으며 혁명의 요람, 유격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투쟁하였다.

원래 근거지인민들은 그 대부분이 일제와 그 주구들의 억압과 착취를 뼈에 사무치도록 받았으며 원쑤들의 대중적학살만행을 목격한 사람들, 의병운동이나 독립군운동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공산주의운동을 하던 사람들, 항일유격대의 유가족과 후방가족들로서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적을 반대하는 투쟁의식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자기의 주권,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고 처음으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게 되였다. 근거지에서는 일제와 악질지주들의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되여 근거지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으며 녀성들

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사람들이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게 되였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근거지인민들은 원쑤들이 청산된 새제도하에서 새생활을 창조해나갔으며 수많은 간난신고속에서도 보람찬 나날을 보내면서 혁명적락관주의로 충만되여 힘있게 싸워나아갔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인 교양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근거지인민들은 자신들에게 새제도와 보람찬 생활을 안겨주었을뿐만아니라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 계시며 인민혁명정부가 있는 유격근거지에서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는 투쟁속에서 조국의 광명한 앞날을 내다보았으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우선 김일성동지께서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근거지를 요새화하여 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할데 대하여 제시한 근거지보위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근거지보위방침은 무장투쟁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는 전략적방침이였다.

유격근거지에서는 이 방침에 따라 반일자위대, 청년의용군, 소년선봉대, 돌격대 등의 반(半)군사조직이 형성되고 그를 통하여 전체 군중을 무장시키는 혁명적조치가 취해졌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근거지의 혁명조직과의 련계하에 반군사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장성시키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였으며 그 주위에 인민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무장시켰다.

무기를 손쉽게 생산할수도 사올수도 없었던 조건에서 반군사조직성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은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결사적인 투쟁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였다. 그들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유격대원들을 도와 《고추가루폭탄》으로부터 위력한 《연길폭탄》까지 만들었으며 적을 와해시켜 무기를 얻기도 하면서 도창무기, 폭탄, 보총 등 각종 무기로 무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반군사조직성원들에 대한 군사정치훈련을 직접 지도하여 그들과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다 무기를 다루고 언제나 적과 싸울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업에 전력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의 후비력량을 마련하며 일단유사시에는 배합작전으로 무장투쟁을 더욱 광범한 규모에서 전개할수 있게 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은 근거지를 요새화하는 사업에도 전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유리한 지형지물을 리용하여 차단물을 설치하고 전호, 사격호들을 만들며 지혜를 모아 창을 세워놓은 함정을 만들고 먼거리에서 작탄을 폭발시키는 장치들도 설치하였다.

근거지에서는 중앙초로부터 문전초에 이르는 경비체계가 수립되였으며 경계근무를 수행한 반군사조직성원들은 각종 신호기재로 적정을 유격대지휘부에 통보함으로써 유격대로 하여금 기동성있는 전투대책을 강구할수 있게 하였다.

유격근거지에서는 식량, 피복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군수물자생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식량이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식량생산을 위하여 한손에 무기를, 다른 한손에 낫과 괭이를 들고 집단적으로 전야작업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심어놓은 곡식밭을 뒤져놓으며 다 익은 곡식밭에 불을 지르는 적들과 결사적인 전투를 거듭하면서 식량생산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은 항일유격대의 병기창과 피복대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곳곳

에 방어시설과 군수물자생산시설을 갖춤으로써 항일유격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여 유격근거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적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근거지에 덤벼드는 놈들을 소멸격퇴하였다.

《하나로 뭉친 힘》, 《우복동의 불길》, 《내두산에서》, 《죽음을 이겨낸 처창즈》, 《혁명의 꽃봉오리들》, 《붉은꽃》들을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여러 회상기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적들이 기여들면 남녀로소할것없이 모두 떨쳐나서 유격대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원쑤들을 족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탄알을 나르고 바위돌을 굴리여 원쑤를 쓸어눕히였으며 유격대원들과 함께 무너진 전호와 사격호를 손질하였다. 60이 넘은 로인이 유격대원들과 한전호속에서 백발백중의 명사격으로 원쑤를 쓸어눕혔으며 부녀자들이 김일성동지가 계신 지휘부와 유격대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적을 유인하였으며 적탄속을 뚫고 싸우는 유격대원들에게 더운 음식을 공급하였다.

아동단원들도 과감한 전투구호와 혁명가요를 불러 적들을 공포속에 몰아넣고 유격대원들의 전투사기를 고무하였으며 또한 연막을 피워 유격대의 전투활동을 보장하는 등 슬기롭고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인민들은 10여일 또는 수십일씩이나 산속에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유격대원들의 피복을 마련하는 등으로 그들을 도와나섰다.

유격근거지에서는 실로 남녀로소할것없이 모두가 운반대, 작식대, 간호대, 피복대들에 망라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적들을 격퇴하고 근거지에 돌아온 인민들은 원쑤들의 혹심한 파괴로 인한 피해앞에서 조금도 락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한 다시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복구사업에 떨쳐나섰으며 인민혁명정부의 시책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적들이 불사른 집터에 수십번이나 다시 집을 지었으며 파헤쳐놓은 곡식밭에 또다시 씨를 뿌리면서 불사조처럼 살고 싸웠다.

유격근거지인민들은 이처럼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극복타개하였으며 근거지를 해치려는 원쑤들과는 백번 넘어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며 사지가 떨어지면 가슴과 이발로라도 끝까지 싸우는 완강한 혁명적의지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보위전투에서는 적통치구역인민들의 지성어린 원호와 전투적련대성이 또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적통치구역내에서 혁명조직들의 교양을 받은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근거지에서 실시된 재반 민주주의적시책들을 통하여 조국의 광명한 앞날을 내다보았다.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매번 원쑤를 소멸한 빛나는 전투성과를 보면서 그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항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을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적통치구역인민들은 항일유격대의 귀와 눈이 되여 적정을 통보하였으며 유격대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무산광산, 유선광산, 청진제강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지구의 로동자들은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옹호하자!》, 《해방지구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라!》는 혁명적구호하에 파업, 시위, 태업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왕우구인민들》, 《공청원 〈강차위〉》들은 적통

치구역인민들이 어떻게 희생적으로 항일유격대를 지지성원하였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준다.

4년이라는 오랜기간 하루에도 십여차례씩 덤벼드는 원쑤들과 맞받아 싸워야 하였던 유격근거지—해방지구보위투쟁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인민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 *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빨찌산들이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간악한 일제와 맞서 싸운 투쟁경험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고귀한 투쟁경험을 체득하는것은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투쟁하는 길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극복타개하고 최후승리를 달성케 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간고한 투쟁속에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고 그를 고수한 경험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내의 전체 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투쟁에 한결같이 동원된 혁명정신과 투쟁경험을 본받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전체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강유력한 전투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발휘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본받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줄기차게 견지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유격근거지내에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적과 맞서 장기적으로 투쟁한 경험을 본받아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하며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우리 당 군사로선의 기본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근거지보위전투를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의 경험과 조국해방전쟁의 경험들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어떤 정황에 부닥쳐도 능히 원쑤와 맞받아 싸울수 있는 긴장되고 동원된 전투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항일유격대원들과 유격근거지인민들과는 비할바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살며 투쟁하고있다.

우리에게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강력한 혁명기지와 수령의 주위에 한결같이 결속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그 어떤 적도 물리칠수 있는 강철의 군대 조선인민군이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경험들을 체득하고 일편단심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께서 제시한 혁명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빛나는 승리가 있을뿐이다.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김 종 성

김일성동지는 지난 6월에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공장이 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금번 현지교시에서 수상동지께서는 우리 룡성의 로동계급에게 당대표자회가 규정한 이 새로운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다시한번 로동계급의 영웅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이로써 우리 룡성기계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를 아홉차례나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실로 우리 공장이 걸어온 길, 그것은 전후 김일성동지의 거듭된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의 로정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를 떠나서는 우리 공장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공장이 하나의 작은 부속품공장으로 있었던 전후초기부터 강력한 기계제작공장으로 확대발전된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우리 사업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우리 룡성의 로동계급은 김일성동지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고 그이가 제시한 과업을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정당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였으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는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우리들이 지난날 당과 수령이 준 혁명과업을 기본상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은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그대로 실천해나간데 있다. 오늘도 우리 룡성의 로동계급은 수령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기대와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나섰으며 혁명적열정으로 온 공장이 들끓고있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초기부터 우리 공장을 기계를 낳는《어머니공장》으로 꾸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가지시고 체계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륭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의 창설을 구상하시고 그 기지의 하나를 꾸릴데 대한 과업을 우리 룡성의 로동계급에게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수령의 높은 기대와 신임의 표시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장의 전망적인 목표를 제시하셨을뿐만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사업, 행정사업, 기술사업 등 공장의 전반적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수령의 웅심깊은 구상대로 우리 공장을《어머니공장》으로 꾸리는가 못꾸리는가 하는것은 공장의 참모부인 공장당위원회가 수령의 교시관철에로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었다.

그러므로 지난기간 공장당위원회는 수령의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간주하고 그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선것은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

으로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자면 그이가 주신 교시에 정통하는것이 첫출발점으로 되지않을수 없다. 수령의 교시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 이것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교시관철에서 혁명적자각성과 창발성을 발휘케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공장당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수령의 교시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시의 매구절을 깊이 파악할 때까지 교시학습을 부단히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이것은 매개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교시에 정통하고 누구나 다 꼭같이 리해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되였다. 이렇게 될 때만이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수령의 현지교시관철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현지교시를 년도별, 문제별로 묶어서 전달침투시키고 매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절구절 새겨가면서 깊이 연구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한편 공장당위원회는 현지교시 및 그와 관련된 사적물들을 잘 수록하여 진시하여놓고 그것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사상으로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철저히 교양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여기에는 수상동지의 교시내용을 년도별로 수록해놓고 그와 관련된 직관자료들을 갖추어놓음으로써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알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상동지께서 교시한 개별적인 기대, 부속품들의 실물들과 모형들도 전시하였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현지교시를 더욱 깊이 연구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교시학습이 생활화되여가자 교시를《자》로 하여 사업과 생활을 조직하고 결속하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매개 일군들은 교시에 립각하여 월, 주 계획을 세우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으며 사업총화도 이에 립각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이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수령의 교시를 정확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공장로동자들을 수령의 교시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신입로동자들에 대한 교양이였다. 공장이 부단히 확대발전함에 따라 기대공들의 대렬이 더욱더 늘어나며 또 교체되고 보충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신입로동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집중학습시키는 체계를 세웠다. 이들을 직장과 작업반에 배치하기전에 현지교시를 년도별로 체계적으로 해설해주는 사업을 책임일군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동시에 이미 꾸려놓은 현지교시와 관련된 사적물들을 통하여 공장이 수상동지의 현지지도에 의하여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잘 알도록 해설해주었다. 또한 수상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을 때 그이를 직접 만나뵈온 로동자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하였으며 현지교시 기대들에 대한 참관과 해설사업을 조직함으로써 새로 배치된 동무들로 하여금 수상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배려하에 공장이 발전해온 과정을 깊이 깨닫을수 있게 하였다.

공장당위원회가 조직진행한 이러한 사업은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수상동지의 현지지도의 현명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수상동지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된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게 하였다.

교시학습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선행시키고 실생활과 결부시킴으로써 사람들은 교시내용에 정통할뿐아니라 자기들이 하여야 할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활동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관철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선것은 그이가 가르친대로 모든 사람들이 혁명성과 대담성

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려나가는것이였다.

수상동지께서는 대담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큰 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대형공작기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후 불과 몇대의 낡은 선반과 모루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우리 공장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발전하자면 수많은 대형기계설비들이 요구되였다. 그런데 당시의 형편에서 그 많은것을 국가에만 의존할수는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나라의 경제적밑천은 아직 튼튼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내외의 원쑤들의 준동이 심하였고 종파분자들은 철과 기계의 생산을 반대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수상동지께서는 대내외원쑤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하여 단호한 타격을 가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으로 기계제작공업을 꾸려나갈것을 제시하셨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수상동지의 교시대로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혁명성과 대담성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대담성을 발휘하여 대형기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라고 하신 교시를 당시의 혁명정세와 결부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 깊이 침투시켰다. 또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항일빨찌산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배우도록 노력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믿고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들을 족치며 돗바늘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 동지들의 군복을 보장해내는 항일빨찌산들의 불요불굴의 강의한 투쟁정신을 배웠다.

또한 공장당위원회는 실천투쟁에서 단련된 오랜 핵심로동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투쟁의 선두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난관과의 투쟁에로 이끌고나가도록 고무하였다.

이러한 정치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그이의 가르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충만되였다.

대중의 대담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동반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기대들의 공칭능력을 초과하여 큰 설비들을 생산하는것을 꺼려 하였으며 국가의 방조와 외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다.

공장당위원회는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혁명적인 선진로동자들의 대담한 발기와 창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었으며 한편 모든 일군들이 로동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일부 일군들의 소극성과 보수성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일군들 속에서는 점차 로동자들의 창조적투쟁에서 허심하게 배우며 군중들과 토의하고 거기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얻으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일에 달라붙는 혁명적기풍이 발양되였다.

전체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발기와 투쟁을 적극 지지하게 되자 허다한 문제들이 풀려나갔으며 침체와 보수는 로동계급이 창조하는 혁명적기세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종전에 생각도 못했던 대형압연기들을 세개의 단능설비로써 마치 개미가 뼈다귀를 갉아먹는 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이것을 통하여 혁명적대담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다면 작은 기계로도 능히 대형기계와

설비들을 만들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국적인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앙양속에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경험과 지혜를 최대한 짜냄으로써 자체의 설계,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공장에서 혁명적대담성이 발양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전례없이 발휘되게 된것은 1959년 3월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받은 때부터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고 우리들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혁명성과 대담성의 요소들을 치하하시고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8메터타닝반과 같은 대형공작기계를 제작할 과업을 주시면서 혁명을 하자면 대담해야 한다. 룡성기계공장은 기계를 낳는 《어머니공장》이다. 대담하게 달라붙어 만들어보라고 우리를 고무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신임과 그이께서 키워주신 혁명적기백과 대담성으로 하여 우리들은 이 어려운 혁명과업수행에서도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발휘할수 있었다. 그이의 교시라면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무한한 충직성으로 가득찬 우리의 로동계급은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8메터타닝반을 완성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8메터타닝반제작이 성공되자 우리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에서 이러한 기계를 짧은 기간내에 자체의 힘으로 제작함으로써 기계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분쇄하였으며 현대적대형기계들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수 있다는 굳은 자신심을 가지게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다 위력한 3천톤수압프레스를 생산하여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라고 교시하시었다. 우리 공장의 로동계급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사상으로 수령의 교시관철에 달라붙어 3천톤프레스를 불과 1년동안에 생산함으로써 그이의 신임에 보답할수 있었다.

8메터타닝반과 3천톤프레스 등 각종 대형, 중형 공작기계의 성과적인 제작은 일부 사람들 속에 남아있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공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관철에서 또한 중요하게 나선것은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는 여러차례의 현지교시에서 공장앞에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교양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한결같이 움직이여 당정책관철에 열성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수령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우리는 수상동지께서 제시하신대로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움직이는》 원칙에 따라 당핵심들이 당원들을, 당원들이 군중을 교양하여 이끌고나가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핵심들과 모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였다.

정치활동가로서, 군중의 교양자로서의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당위원회는 그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돌렸으며 매개 당원들에게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대한 분공을 주어 그들이 일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였다.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의 혁명과업수행정형뿐만아니라 그들이 비당원군중을 어떻게 교양했으며 나타난 부족점과 제기되는 애로를 어떻게 해결해주었는가를 정상적으로 종합하여 총화케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 속에서는

당적분공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져갔으며 그것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여러번 생각하고 방법을 탐구하여 위임된 분공을 수행해나가는 진지한 기풍이 확립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교양과 실천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매사람들에게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옳게 이끌어나가는데 주의를 돌렸다.

특히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에게 사업을 맡기면서 그 집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것이 중요하였다. 당위원회는 당핵심들이 그들을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교양하도록 하면서 주요한 생산투쟁에 적극 인입하였으며 그들 속에서의 긍정적인 싹을 지지하여주었다. 이러한 당조직정치사업은 그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으며 수령의 교시관철에 적극 나서게 하였다.

모든 기업소가 그러하지만 특히 기계공장에서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공장당위원회는 매개 기술일군들에게 당과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일하는 기술자로서 현지교시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그들을 교양하였다. 동시에 기술일군들이 로동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대담성을 배우며 자신들의 실천투쟁에서 이러한 혁명성이 표현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렸다.

공장당위원회는 당과 수령께 충실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는 기술자들에게는 대담하게 공장적으로 중요한 기술문제들을 맡기고 그 실현과정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로동계급에게 복무하는 붉은 인테리로 준비되여갔으며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공장을 꾸려나가는데 적극 나섰다.

오늘 우리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전사로 자라났으며 집단내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이 배양되고 당과 수령의 요구라면 무조건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관철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당 및 행정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가일층 높이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장에 대한 현지교시에서 공장일이 잘되려면 공장의 참모부인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집체적협의제와 개별적책임제의 강화—이것은 공장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혁명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이러한 요구가 옳게 실현될 때에만 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고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는것이다.

공장당위원회는 수령의 교시대로 공장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례외없이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에서 매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당일군들은 행정일군, 기술일군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행정기술일군들 속에서는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는 기풍이 확립되여갔다.

이리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당일군은 정치적측면에서, 행정기술일군들은 행정기술적측면에서 분석판단하고 종합된 의견에 기초하여 집행대책을 강구하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도에서 형식주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과학적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매개 일군들의 당적책임성을 높여주었다.

행정일군들은 자기가 담당한 일을 당

조직앞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로동자들 속에 들어가 의논하며 자신이 확고하게 결심을 가지지 못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조직과 군중들의 토의에 제기하여 거기서 해결방도를 찾아 실천에 옮기군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군들의 사업작풍이 더욱 개선되여갔고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그들에 의거하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행정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이 책임성을 다하여 자기앞에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발동되고 군중들 속에 들어감으로써 로동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발기들이 더욱 조장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이런 짝들을 제때에 종합하여 당위원회에서 토의함으로써 현지교시관철에서 긴요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이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강화되고 일군들의 역할이 제고되자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은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되여갔다.

오늘 우리 공장은 현대적인 기계제작공업의 기지로, 기계를 낳는 《어머니공장》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공장은 결심만 하면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대형기계와 설비도 능히 만들어낼수 있는 공장으로 자라났다. 우리 공장은 1966년에는 1956년에 비하여 생산능력이 20배로 장성하였다.

우리 공장이 현대적기계제작공장으로 발전한것은 전적으로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천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똑똑히 알고있다.

2

김일성동지는 금번 현지교시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죽임이 없이 량자를 튼튼히 틀어쥐고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공장이 하여야 할 일련의 정치경제적과업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수상동지께서는 우리 룡성기계공장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매시기 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왔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도 앞장에 서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라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룡성의 전체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의 더없는 신임으로 된다. 우리들은 수령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아로새기고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하려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일을 다그치고있다.

지금 우리 공장앞에는 작년도보다 115%로 높은 금년도생산계획을 당창건 22주년 기념일전으로 완수하며 당의 년간계획외에 황해제철소와 강선제강소에 보낼 아연 및 석도금판 생산설비와 흥남종합비료공장 가스화직장확장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비롯하여 흑색금속공업과 채취공업, 화학공업과 전력공업을 위한 설비 등 일련의 중요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추가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할 무거운 경제과업이 제기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우리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당의 새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정책과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그리고 동요분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또한 수상동지께서는 우리들이 혁명의 시대에 사는니만큼 혁명가답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면서 성과

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며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 떨어져도 만난을 극복하고 그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금번 현지교시에서 우리 공장앞에 제시된 혁명과업은 어렵고 아름차다.

수령께서 주신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가 우리 공장에 주신 현지교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가 할 일과 나아갈 길은 명백하다. 또한 수령의 교시라면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관철에 달라붙는 우리의 혁명적로동계급이 있고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새 로선관철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여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우선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이 가지는 의의와 그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며 그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금번 현지교시를 심오히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전 집단에 혁명적기백이 넘쳐흐르고 긴장된 전투적분위기가 지배하도록 하는것이다.

지금 공장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당정책학습과 교시학습이 생활화되도록 하고있으며 금번교시에서 제시된 제반 과업을 철저히 침투시키면서 모든것을 교시관철에 복종시키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공장당위원회는 금번현지교시를 구절구절 해석침투시키면서 선행한 현지교시내용들을 그와 련관시켜 연구하게 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정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공장당위원회는 한편 교시학습과 동시에 소극성, 보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이 그에 동반되게 함으로써 적지않은 예비들이 탐구동원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배합하여 교시관철대책안을 작성케 하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사업을 보다 심화시켰다.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공장당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동시에 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일빨찌산들의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강의한 혁명적지조, 혁명적동지애 등을 본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항일빨찌산들처럼 혁명과 수령께 충실하며 혁명가답게 일하며 행동하도록 할것을 요구한다.

공장당위원회는 혁명전통학습을 더 심화하고 생활화하도록 하는 한편 우등불모임, 회상기연구모임 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항일투사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일편단심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서 교시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공장내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공장당위원회는 낡은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사상의 잔재를 뿌리빼고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혁명성, 전투성, 조직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주요한 관심을 돌렸다.

공장당위원회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전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으며 특히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단련을 강화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의 여부는 공장당위원회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옳게 하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공장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면서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드는

동시에 기업관리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공장당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집행계획과 조직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선후차를 가려 제기된 과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있다. 생산조직사업에서 설비리용률을 가일층 높이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480분 로동시간을 충분히 리용하는 사업과 함께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참모부에서는 당면하게 아연 및 석도금판 생산설비와 비료공장 가스화설비, 압축기와 권양기를 비롯한 채취공업설비, 수력 및 화력 타빙설비 등 긴급하고 중요한 생산지표에 힘을 넣으면서 기타의 제품생산을 그에 배합하는 방향에서 주간 섬멸대상을 정하고 생산과제를 한고리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정치사업을 선행하면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생산활동을 전투적으로 조직전개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장당위원회는 년간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수하기 위한 《80일전투》를 조직함에 있어서 참모성원들을 기본으로 하여 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경쟁조직과 총화사업을 기동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정이 비상히 제고되였고 직장과 직장간, 작업반과 작업반간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으며 이미 년간계획과제를 완수한 작업반과 직장들이 련이어 나타나고있다. 특히 설비리용률을 높여 있는 설비로 최대한의 생산을 보장하며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는바 현지교시를 접한 이후 이미 수백건의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으며 중요생산지표들의 월생산수준은 2~3배로 올라가고있다. 그리하여 황해제철소에 모별 40톤장입기, 박판레볼, 과형기 등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이러한 당면한 전투를 조직진행하는 한편 전망적인 사업을 예견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위원회는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이 일시적깜빠니야가 아니라 항구적인 대고조로 되게 하며 일군들이 금년도계획수행만 아니라 명년도생산준비도 예견성있게 선행시켜나가도록 하였으며 특히 설비의 점검보수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현지지도에서 **당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며 모든 사람을 교양하여 천리마기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의 교시에 근거하여 공장당위원회는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당대표자회결정과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에로 조직동원하고 그 기세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개별적작업반이나 직장이 아니라 온 공장이 천리마를 타고나아가며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두다 천리마기수로 되도록 대중을 교양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아직 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지 못한 작업반은 천리마작업반으로, 천리마작업반은 2중천리마작업반으로 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2중천리마작업반이 앞장서서 전체 공장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대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명년도까지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할 결의밑에 이 운동을 강력히 내밀고있다.

오늘 우리 룡성기계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심장에 아로새기고 일편단심 그이의 교시를 충실히 관철하려는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되여있다. 우리는 이 보람찬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수령의 높은 기대와 신임에 기어이 보답하겠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

윤 치 호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이 위대한 혁명적운동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경제로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14년전, 1953년 8월에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우리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 로선이 가지는 위대한 생활력이 더욱더 뚜렷이 발휘되고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당 경제건설로선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우리 나라 내부원천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당 경제건설로선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로선이다. 이 로선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전후시기의 조건에 부합되게 구체화한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당대표자회결정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일떠서고있는 오늘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깊이 리해하며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을 견결히 관철시키는 기초우에서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전략적로선을 더욱 성과적으로 집행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빛나는 성과를 쟁취할수 있다.

1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는 유일하게 정당한 경제건설로선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제1권, 401페지).

우리 나라에서 전쟁피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심한것이였다.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우리 인민경제는 한톤의 강재도, 한개의 벽돌도 생산

할수 없었다. 인민들은 집과 가재도구마저 거의다 잃어버렸고 먹을것과 입을것이 심히 부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을 위한 경제건설을 잠시 늦출수도 없었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뒤로 미룰수도 없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련의 사정들로 말미암아 경공업, 농업의 복구발전이 중공업의 지원을 긴절하게 요구하였다.

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농업에서는 집약농법이 널리 실시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농업생산의 증대는 중공업이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와 관개시설을 더 많이 공급해주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및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만 달성될수 있다.

경공업의 발전도 중공업의 복구발전에 크게 의존되여있었다. 농업이 경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지 못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경공업은 기계설비뿐만아니라 원료까지도 중공업이 대주어야만 발전할수 있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복구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자체의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비록 편파적이고 락후하고 혹심하게 파괴된것이기는하나 중공업의 일정한 토대가 있었다. 그것을 복구건설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인것이였다.

다른 한편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만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전체 인민들의 생활을 해결할수 없고 유기적으로 련관된 다방면적경제구조를 창설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립경제도 건설할수 없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일련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보나 정전후 우리앞에 나섰던 현실적과업의 요구로 보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절박한 요구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을 전후시기의 조건에 맞게 구체화한것이다.

정전후 우리앞에는 우리 혁명의 총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후복구건설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전쟁의 페허우에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단시일에 회복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경제건설에서 기본로선으로 제시하였다》(《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5페지).

현대적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경제토대를 마련하여야만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다. 더우기 미제가 조국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혁명을 말살하기 위해 날뛰고있는 실정에서 이것은 특히 긴절한 요구로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당면한 인민생활향상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우리 당 경제건설로선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으며 자체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꾸리는 기초우에서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예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가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은 우리 당이 조선혁명수행에서 일관하여 견지하고있는 자주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였어서 시종일관 주체사상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정세발전의 어떠한 추이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도록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실현하는것이다. 이것은 세계혁명에서 민족적의무와 국제적의무를 통일시켜 수행하는 가장 정당한 립장이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은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우리 당이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견결히 관철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것이다.

우리의 경제건설로선은 자기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적락후성과 전쟁피해를 시급히 극복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최단시일내에 건설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그 집행에서는 처음부터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예견되였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여 혁명의 요구를 저버릴수는 없는것이며 일시적인 안일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의 근본적리익을 희생시킬수는 없는것이다. 우리 당은 이 길로 나아가야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해결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경제건설로선을 대담하게 채택하였고 그것을 관철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들을 주동적으로 찾아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실지로 전후복구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우리자체의 힘이였다. 그 이후시기의 우리 나라의 경제성과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38페지).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 힘으로 모든것을 타개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이는 나올수 없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려는 혁명적립장이 없이는 제기할수 없는것이다.

중공업의 우선적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발전로선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천명된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인민경제가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하에서 중공업을 복구하면서 동시에 경공업을 발전시킨 실례는 다른 나라의 력사에는 없었다.

다른 나라들의 공업발전력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는 우선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킨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켰으며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돈을 모아가지고 중공업을 건설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280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이것은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독창적인 로선이다.

정전후 우리 나라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후복구건설의 방향과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는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어떤 공식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는 나라의 구체적실정—일정한 기간 중공업만 발전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경공업과 농촌경리만 발전시킬수 없는 실정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시였다.

이 로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전쟁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한 일관한 방침에 기초하여 전후경제건설로선을 구상하시고 더욱 무르익히셨으며 정전직후에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비쳐주는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실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은 전후복구건설의 당면과업뿐만아니라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나라의 만년대계를 실현하는 전망과업까지도 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로선이다.

2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친히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기본로선은 그이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도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에 의해서만 빛나게 관철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다.

모든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전후의 어려운 형편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려면 복구건설의 선후차와 중심고리를 명확히 제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로선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 및 농촌경리의 발전을 옳게 련결시키는것이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20페지).

김일성동지가 제시하신 이 방침은 제한된 물자와 자금과 로력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과 인민생활향상의 두가지 과업을 다같이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것이였다.

당은 이 방침에 따라 전후복구건설에서 중공업건설을 당면 소비품생산확대와 밀접히 결부시켰으며 낡은 기업소들과 설비들을 복구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그 기업소들을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복구개건하며 일부 공장들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공업공장을 하나 지어도 급한것과 급하지 않은것을 가려서 지었고 또 그것이 가장 짧은 시일내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과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할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건설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의 원칙을 일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전후시기 당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발전을 앞세우면서도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속도를 최대로 접근시키는 방침을 실시하였다.

전후시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로선의 관철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매시기의 중심과업에 따라 정확히 구체화되였다.

우리 당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3개년계획,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을 위한 5개년계획, 그리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한 7개년계획을 세우고 매 계획기간에 해결해야 할 중심과업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로 인도하였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3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 및 농업 생산을 전쟁전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인민경제의 각 부문과 과학, 문화, 예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견고한 경제

적기초를 닦는데 있었다. 당은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파괴된 기업소들을 복구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동시에 그 기업소들을 새 기술에 기초하여 복구개건하였으며 자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돌림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도록 하였다.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하는 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은 새로운 의의와 내용을 가지고 실시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당은 주로 우리 나라자체의 축적과 자원에 의거하여 파괴된 기업소들과 설비들을 복구하면서 새로운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을 신설확장하였으며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기술혁명의 촉진에 기초하여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것이다. 당은 7개년계획기간에 이미 구며진 인민경제의 토대를 보충완비하고 이에 새 건설을 광범히 배합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체계를 칠저히 확립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계획기간들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집중하는 방침을 취하였으며 매시기 달성된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화한 기초우에서 새로운 과업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과 수령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도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킨데 있다.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은 그 어떠한 난관도 능히 뚫고나갈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은 보통으로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명도를 보장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물질적조건과 가능성을 엄격히 타산하는 동시에 간고한 투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믿고 항상 적극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중을 그 수행에로 동원하였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2페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3개년계획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내부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한 결과에 자금이 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도 상당한 축적을 실현할수 있었고 중공업부문들을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본투자를 성과있게 보장할수 있었다.

5개년계획의 첫시기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렸고 반당종파분자들이 당에 도전하여나섰으며 거기에다 자금과 자재가 부족하여 경제건설이 커다란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도 당은 대중의 열성과 창조적힘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타개하였다.

력사적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에게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하시고 친히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대중에게 우리 나라가 처한 형편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당은 5개년계획수행에서 소비품생산을 급속히 확대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을 때 전인민적운동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내에 국가투자없이 1,000여개의 지

광산업기업소들을 건설할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이 추진됨에 따라 도처에서 각종 기계설비들을 더많이 요구하게 되였을 때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전국에 호소함으로써 불과 1년동안에 1만 3천여대의 공작기계를 계획외로 생산케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앙양기에 들어섰을 때 당은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대중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그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계속 혁신하고 계속 전진하도록 하였다.

당의 부단한 조직정치사업 특히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강화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짐으로써 도처에서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가 마사지고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하여 5개년계획은 기한전에 완수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중첩된 난관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자기의 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불굴의 강의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발휘하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단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는 그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은 이로부터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불굴의 강의성을 가지고 제기한 정책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말았다…**

정책수립에서의 우리 당의 과학적예견성과 그 집행에서의 강의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였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로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였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6~47페지).

우리 당의 령도에서 발휘된 불굴의 강의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이것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시키는 결정적담보였다.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당적령도를 받았기때문에 지난기간 중첩된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던것이다. 전후복구건설기간에 온 나라가 재더미로 화한 페허속에서 극히 짧은 기간내에 전쟁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까지 마련할수 있은것도 그리고 사회주의기초건설기간에 내외의 원쑤들과 투쟁하면서 자기 힘으로 기술적개건의 과업을 수행하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수 있은것도, 오늘 국제정세가 복잡한 환경속에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웅대한 7개년계획을 수행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 로선을 성과있게 관철하고있는것도 모두다 경제건설로선을 집행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발휘된 불굴의 강의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들이다.

3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훌륭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훌륭히 집행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당의 경제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쟁취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전후시기와 같은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

도에 의하여 전후시기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1954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기간에 매년 평균 28.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3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은 약 4.1배, 경공업은 약 2.1배, 농업은 1.4배로, 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은 약 3.6배, 3.3배, 1.4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도 계속 빠른 장성속도를 견지하였으며 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높이 오르고있다.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정전직후에 원쑤들은 우리 나라가 100년 걸려도 다시 일며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악의에 찬 저들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벽돌한장 성한것이 없던 폐허우에서 경제를 복구하였을뿐만아니라 력사적으로 넘겨받은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활짝 꽃피울수 있는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여 주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은 부단한 기술적진보에 의한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계통적으로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자기의 재능과 희망에 알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보람차게 일하고있으며 무료로 마음껏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희망에 넘친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또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할수 있게 함으로써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하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며 세계혁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믿음직한 물질적힘을 마련할수 있게하였다.

오늘 우리는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자기 힘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제기하고 그것을 확고히 관철시킬수 있는것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간,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는 과업을 해결해나갈수 있는것도,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강화할수 있는것도 다 자체의 강력한 경제토대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기에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준비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있는것이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자체의 경제토대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대외활동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우리 당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자주적으로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성과있게 지원하고있으며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또한 우리가 자립적민족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인민군대를 최신기술로 장비하며 전국을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는 방대한 과업을 자기 힘으로 추진시키면서도 싸우는 웰남인민을 비롯한 혁명적인민들에게 원조를 줄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안겨준 가장 큰 승리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힘을 구며놓은것이다.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나라의 경제적락후성과 전쟁의 피해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남과 같이 선진국가의 대렬에서 떳떳이 살아갈것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그런데 모든것이 재더미로 화한 페허속에서 이 로선을 집행해나가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다. 특히 계급적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교조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은 이 로선의 관철을 방해하여나섰다.

전체 우리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을 전개함으로써 중첩된 난관들과 어려운 국면들을 헤쳐나가면서 자기들의 절실한 념원을 담은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옹호하고 그것을 견결히 집행해나갔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해나가는 승리적인 로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체험하게 된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게 되였고 그 주위에 더욱 칠석같이 뭉치게 되였다.

위대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우리 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의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4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 로선은 현시대의 정세에 부합되게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완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세계혁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발전로선을 계속 성과적으로 집행해나가는것이다.

경제건설을 크게 확장하면서 동시에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국방에 돌릴것을 요구하는 병진로선은 아무리 정세가 요구한다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수 있는 경제적힘이 마련되지 않고

제는 제기될수 없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 로선은 지난기간 우리 당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 마련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할것이다.

우리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발전로선을 계속 철저히 집행해나감으로써만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오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가지는것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할데 대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것이다.

이 방향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에서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를 실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기존경제토대의 일부 부족점을 고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제품의 질을 높인다면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위력한것으로 만들수 있고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시킬수 있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향을 관철함으로써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를 실현할 때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더욱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승리적으로 집행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로선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시켜 자체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리 종 환

김일성동지는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당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고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로력과 물자, 자금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여 7개년계획의 총적과업과 함께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며 부문별 과제들을 수행할것을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강력히 촉진하며 혁명적고조를 더욱 앙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제도를 일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고 쓸모있게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엄격한 절약제도의 실시이다》 (김일성선집 제4권, 122페지).

절약제도의 강화는 생산의 장성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제로 된다. 그것은 주어진 물자, 로력, 자금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며 원가를 저하시키고 국민소득을 더 빨리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생산자원에 대한 리용과 그것의 절약정도는 생산 및 로동 조직과 경제관리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오직 생산의 제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만 생산의 장성과 경제발전을 촉진할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더욱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절약제도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전 사회적규모에서 의식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절약과 증산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나라의 모든 물적, 인적 및 재정적 자원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밑에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정치경제적과업과 해당시기 경제발전의 구체적조건에 상응하게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시기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고 푼전을 아껴서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현존하는 기계설비, 자재, 원료들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인민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은 어데까지나 우리 인민의 힘과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데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였다.

1956~1957년에 우리 나라 경제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위하여 많은 자재, 자금이 요구되였으나 당시 형편에서는 이 방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원천이 충분히 조성되여있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성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이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전당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도처에서 낡은 기준, 낡은 기록을 타파하고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였다.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드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당은 또한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경제부문들간의 련계가 밀접해진 인민경제발전의 새로운 조건에 상응하게 경제관리운영수준을 높이고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절약과 증산의 거대한 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수 있게 하였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서 계속 높은 발전속도를 견지할수 있는것은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 인민의 헌신적노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킬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다.

절약제도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4페지).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절약제도의 강화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써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는 절약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난기간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마련한 경제적밑천이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물자자원들의 가장 합리적인 리용이 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수준이 현저히 높아진 관계로 지금 생산과 건설에서 각종 원료, 자재의 수요량은 방대하여졌으며 생산물의 원가구성에서 원료자재비의 비중은 더욱 장성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1%의 원료, 자재를 절약하여 동원하는것이 생산장성과 원가저하에서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각종 물자 그중에서도 특히 석탄, 세멘트, 강재, 목재 등 인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료, 자재, 연료, 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경험은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생산조직사업을 잘하고 근로자들속에서 절약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을 발동시킨다면 물자자원의 절약예비를 얼마든지 동원리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평양전기기관차공장에서는 지난해에 국가에서 받기로 된 원자재들을 다 받지 않고도 부과된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초과수행하였을뿐아니라 한달분이상의 물자예비를 조성하여 살림살이창고에 보관하고 효과적으로 쓰고있다. 이 공장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년초현지교시에 무한히 고무되여 금년도에도 이미 국가에서 받은 자재만을 가지고 국가계획과제는 물론 그 외에 전기기관차 4대를 비롯한 많은 제품생산을 당창건 22주년기념일전으로 수행할것을 결의하고 눈부신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결의실천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물자자원의 합리적인 리용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이다. 물자소비기준의 저하는 같은 량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도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할수 있게 하며 생산물의 원가와 건설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반드시 계획년도에 이루어질 기술발전, 선진적인 생산조직 및 일군들의 기술수준의 제고 등 기술경제적조건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전면적으로 타산한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물자소비기준을 재정등록하며 재정등록된 기준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도록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잘하고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공정을 개선하고 선진작업방법을 부단히 도입하여 생산자들자신이 그것을 계통적으로 갱신하도록 적극 도와주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출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 현시기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미 가지고있는 물자들중 자기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쓸수 있는것은 지체없이 생산에 리용하며 당장 쓸 필요가 없거나 절실히 필요치 않은것들은 필요한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넘겨줌으로써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지금 인민경제 각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는 리용되지 않고있는 물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 예비들을 옳게 동원리용한다면 국가로부터 물자를 더 받지 않고도 생산과 건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수 있다. 여기에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는 실천적방도의 하나가 있다. 그러므로 각급 경제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물자재산의 실사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진행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물자의 보관관리사업과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창고를 비롯한 물자보관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물자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며 특히 물자취급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물자들의 류실을 적극 방지하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이와 함께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우로부터 아래에 날라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자재공급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보다 높임으로써 자재공급의 민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재를 제때에 정확히 공급하여주어야만 생산과 건설을 정상화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를 북돋아줄수 있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용도별로 제때에 공급하는 동시에 자재리용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설비리용률의 제고는 현시기 절약제도의 강화에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수리공장, 공무직장을 튼튼히 꾸리고 부속품생산을 강화하며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설비리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예비부속품생산을 3개월분이상 선행하고 보수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있는 설비들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현시기 인민경제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로력을 절약하는 사람이 곧 당성이 강한 사람이며 국가사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37페지).

오늘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로동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있으나 로력원천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아주 절실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로력절약의 예비는 도처에 있다.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에 돌리며 보조생산부문과 간접부문의 로력을 줄여 기본생산부문의 로력과 직접공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로력배치를 개선하는 동시에 녀성들을 그들의 체질과 년령 등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입한다면 많은 로력예비가 나올수 있다. 또한 로력조직을 잘하고 작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로동정량사업을 개선하며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하여 480분 로동시간을 충분히 리용한다면 1인당생산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는 우에서 로력을 증가시켜줄것만을 바랄것이 아니라 로동행정부문앞에 제시된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조직을 개선하는 방도로써 생산장성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같으며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가 제품의 질을 한계단 더 높인다고만하여도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잘 충족시킬수 있다.

제품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자대중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생산자대중이 자기들의 하나하나의 제품이 나라의 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이바지한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성, 애국심을 가지고 일할 때 제품의 질은 더욱 높아질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생산자들의 정치적열성과 자각성,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미비한 생산공정을 계속 완성하고 선진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그들의 열성이 제품생산에서 실현될수 있도록 기술경제적조건도 개선해주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생산물의 질에 대한 검사사업과 사회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합격품 특히 1등품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낮추며 로동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이며 로력을 절약하는 등 절약과 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기술혁신을 강화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기술혁신은 오늘 절약과 증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로동자들과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우리 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이다.

현시기 기술혁명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에서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이 제시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공업부문의 기계화에서 프레스화에 힘을 집중하며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관리운영의 개선은 절약제도를 강화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관리운영사업을 잘한다고 하면 더할수 있는 일이 많다. 기계와 공장면적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로동생산능률도 더 높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더 빨리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더한층 높일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오늘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생산의 앙양을 위한 커다란 예비를 보고있다》(《모든 힘을 여섯개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16페지).

이에 있어서 청산리방법대로 사업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이 창조한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훌륭한 형태이며 그 기본요구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이다.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운영에서 항상 군중을 발동하고 생산자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만 로력과 자재, 자금을 더 많이 절약할수 있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할수 있다.

경제관리의 과학성, 합리성 보장에서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절약제도의 실시는 사회주의적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직접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이 절약제도를 강화하는데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계획화사업을 잘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만일 조금이라도 계획사업이 잘못되면 막대한 설비와 자재가 랑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고생을 하며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주게 된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의 계획화사업의 부단한 개선은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를 동원리용하며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만 전 사회적범위에서는 물론 기업소적범위에서도 모든 물자자원과 로력자원을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랑비를 방지할수 있다.

계획화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당이 규정한 경제발전의 총적방향에 의거하여 종합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동시에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구체적실정에 기초하여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잘 맞물리도록 하는것이다. 인민경제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계획화함으로써만 대안체계의 요구를 더잘 관철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계획화사업에서 경제발전의 량적지표와 함께 질적지표를 개선완성하며 그 동원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절약제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질적지표를 개선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만 기업관리의 모든 단위들에서 있는 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실질적인 자극을 줄수 있으며 특히 품종, 규격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들을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여기에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대하고 세분하며 모든 질적지표들을 과학적인 기술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정확히 설정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있어서 공장, 기업소들의 재정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들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인민경제의 기층단위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재정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물자자원의 합리적리용을 보장하며 국민소득의 장성속도를 높이게 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의 전반에 긍정적영향을 준다.

공장, 기업소들의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재정계획을 생산계획과 맞물려 동시에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며 매달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월전투계획에 상응한 월재정계획을 세우고 매월 현물지표와 함께 재정지표를 해당 단위에 시달하여야 하며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맞물려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기업관리운영전반에서 현물지표와 가치지표를 더욱 밀접히 결합시키고 생산에 대한 재정의 반작용을 강화할수 있으며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생산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할수 있다. 기업소의 월재정계획화체계의 확립은 타산과 분석을 더욱 강화하고 절약투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원가를 저하하고 수익성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류동자금의 보유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필요이상의 자재와 설비들을 사들여 사장시키거나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을 체화시키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정확한 계산사업의 조직은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경영활동전반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계산체계

를 수립하여야만 경영활동상 업무를 확신성있게 진행할수 있으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할수 있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기계산체계를 세우고 경상계산과 결산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원가계산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그것이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　　*

절약제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기본은 생산자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며 절약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는것이다. 모든 혁신운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절약투쟁의 성과도 결국은 이 사업에 생산자대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동원되는가에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 관철에서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 헌신성을 적극 발양하도록 하는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것이 대중의 절약투쟁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수를 증오하는데서 표현될뿐아니라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잘 관리하며 그것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절약하고 아껴쓰는데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로동 과정에서 애국주의가 발현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철저히 수호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및 물질적 준비를 원만히 갖추도록 할뿐아니라 국가, 사회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한알의 쌀, 한치의 천, 한그람의 쇠, 한개의 벽돌, 한푼의 돈이라도 극력 절약하여 모든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상개조와 생산장성을 통일적으로 실현케 하는 위력한 군중적혁신운동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력사적과업들을 훌륭히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혁명의 선차적인 요구는 혁명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이다

리 일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을 반대하는 거세찬 혁명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투쟁의 시련속에서 남조선혁명력량은 더욱더 장성강화되고 있다.

반동통치배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착취가 있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인민들의 반항과 투쟁이 일어나기마련이며 기아와 빈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인민들의 반항이 커지는것은 법칙이다.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추세에 따라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계속 전진할것이며 투쟁과정에서 혁명력량은 더욱더 장성장대될것이다.

1

당대표자회에서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적극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6페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부단히 전진시키고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왔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가 불패의 력량으로 전변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강화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있는것도 남조선인민들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부단히 타격을 가할 주동적인 력량도 남조선인민들이다.

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할수는 있으나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수는 없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실정을 잘 알고 그 혁명에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남조선사람들이 더 잘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남조선혁명이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급속히 발전되고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것은 남조선혁명자체발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혁명적대사변을 영접할수 없으며 적들의 일상적인 반혁명공세에도 대처할수 없다》(우와 같은 책, 96～97페지).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혁명력량이 강할 때에만이 반혁명을 타승할수 있으며 반혁명을 타승해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리치이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다른편으로 하는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은 남조선정세발전을 조건짓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을 괴수로 하는 반혁명세력은 남조선에서 악랄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침략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심화시킬뿐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이미 뒤흔들리고있으며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는 혁명의 편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은 민족적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고 식민지통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포악해지고있으며 발악하고있다. 반혁명세력은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더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으며 남조선을 항시적인 계엄상태에 두지 않으면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해나갈수 없게 되였다.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와 그의 주구박정희도당은 오늘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띤 군사파쑈폭압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마저도 허용되지 않고있으며 생활개선과 권리옹호를 위한 그들의 정당한 투쟁은 무장한 반혁명에 의하여 류혈적탄압을 받고있다. 반혁명이 폭력으로 혁명력량을 억누르고있는 조건하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반혁명의 폭력에 대항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의 준비는 성숙되여가는 객관적정세의 요구로부터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의 객관적정세는 점차 성숙되여가고있으며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적요인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첨예화되고있는 사회정치적모순을 능히 해결할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있다. 혁명력량이 충분히 준비되여있지 않고서는 비록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다하더라도 그것을 놓쳐버릴수 있으며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영접할수 없다. 남조선혁명은 지난시기 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져있지 못한데로부터 여러차례의 유리한 정세를 혁명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다.

조성된 정세에 따라 남조선혁명이 어떤 방도에 의하여 수행되든지간에 튼튼한 혁명력량의 준비가 없이는 혁명의 결정적시기에 대처할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축적, 장성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오늘 남조선혁명발전의 제반요구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남조선

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것이 혁시기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2

오늘 남조선에서는 원쑤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발전해가고있으며 이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이 부단히 장성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점차 강화되고있으며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은 더욱 각성되며 단련되고 있다》(우와 같은 책, 91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오늘 원쑤들의 발악적인 반혁명공세와 전쟁정책이 가져오는 무거운 군사비부담으로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 속에 신음하고있다. 더우기 일제의 재침과 웰남파병으로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 이러한 민족적계급적 모순의 첨예화는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불만과 항거를 더욱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파쑈폭압과 빈궁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왜정때나 자유당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놈의 세상 확 뒤집혀야 살지 이대로는 못살겠다》라는 사회적여론이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동향에는 사회의 혁명적변혁을 목마르게 바라는 각계층인민들의 심정이 반영되여있다.

남조선에서는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빈궁속에서 살아나가고있다. 헐벗고 굶주리며 정처없이 방황하는 수백만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되고 마음놓고 살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고있다. 수많은 피살자, 월북자 가족들이 빈궁과 박해 속에 살고있으며 정의와 민족적량심을 지닌 수백만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이 썩어빠진 남조선사회를 저주하고있다. 또한 수십만의 《국군》도주병과 징병기피자들이 웰남파병을 거부해나서고있으며 영세상공업자들이 괴뢰정부의 세금수탈을 반대하여 항거해나서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반항하는 인민들을 억누르려고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망으로 뒤덮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송두리채 말살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원쑤들의 발악적인 반혁명공세와 강요된 빈궁과 무권리는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과감한 투쟁에로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원쑤들의 공세가 가중될수록 남조선인민들은 무장투쟁을 포함한 적극적인 투쟁에로 점차 나서고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남조선에서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처지의 개선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1961년도에 19만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면 1965년도에는 25만 5,000명, 작년도에는 40여만명이나 참가하였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임금인상투쟁을 비롯하여 로동운동은 계속 장성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로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경제투쟁의 령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나 그들은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경제적요구를 정치적요구와 점차 결합시켜나가고

있으며 그의 투쟁범위는 미군부대 로무자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부문과 광범한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그들의 투쟁은 점차 쟁의에서 실력투쟁에로 이행하고있다.

남조선농민은 로동자와 함께 남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이다. 농민은 남조선인구의 거의 70%를 차지한다. 박정희도당의 가혹한 농촌수탈과 파쑈폭압을 반대하는 남조선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은 점차 강화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농민투쟁의 예봉은 괴뢰정권의 각종수탈을 반대하는데 집중되고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지난해 총투쟁건수의 73%를 차지하였다면 금년 1.4분기에는 90%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괴뢰도당에 대한 광범한 농민대중의 울분과 반항기세를 보여준다.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남조선 각계급계층의 투쟁에서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1960년도에 남조선 로동자, 농민 투쟁이 남조선인민투쟁에서 차지한 비중이 25.1%에 달하였다면 작년도에는 그것이 49.1%에 달하였다.

남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남조선인민운동에서 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있을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날로 각성되고 조직화되여가고있다.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며 민족적각성이 빠른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남조선혁명에서 교량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청년학생들은 반파쑈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정치투쟁에서와 일제의 재침을 반대하는 정의의 애국투쟁을 통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박정희도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금년도 6.8부정《선거》를 계기로 전개된 투쟁에는 20만명 이상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미제와 박정희도당에게 새로운 타격을 가하였다.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도시빈민들과 세금수탈을 반대하는 영세상공업자들의 투쟁도 부단히 장성하고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미군의 만행을 반대하는 집단적인 항거도 장성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거듭되는 투쟁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있으며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반동세력을 부단히 고립약화시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남조선사회에서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민족적계급적모순에 의하여 산생되고 발전되여가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북반부혁명기지의 거대한 영향력과 그 위력의 장성에 의하여 고무추동되고있다.

조선혁명의 기지인 북반부는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희망과 등대로 되고있으며 혁명기지에서 달성한 성과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더욱 큰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혁명가들은 간고하고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건설의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고있으며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사는 북반부인민들의 생활을 동경하면서 《지금은 고생하고 살지만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것》이라고 통일의 전도를 그려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우러러보면서

그이를 무한히 흠모하고있으며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을 더욱더 두터이하고있다.

오늘 남조선혁명력량은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남북인민이 함께 살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을 맞받아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고있으며 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들은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원쑤들을 공포와 전률속에 떨게 하고있으며 극도의 혼란속에 몰아넣고있다.

오늘 투쟁속에서 남조선혁명의 지도적핵심들이 자라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조만간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결속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지도력량으로 등장할것이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34페지).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의 대렬이 자라나고있으며 남조선혁명가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인민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앞으로도 남조선혁명력량은 간고한 시련을 뚫고 부단히 확대강화될것이며 남조선혁명가들은 반혁명세력을 격파하고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갈것이다.

3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에 질겁한 원쑤들은 발악적인 반혁명공세를 취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전역에서 《전시태세》를 강화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군사비지출을 2배이상으로 확장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발악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위기를 날로 심화시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식민지통치의 위기에서 일시나마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파쑈화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최근 놈들은 새로운 《반공》소동을 벌리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파쑈폭압의 구실을 마련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공산주의위협》이니, 《북으로부터의 침투》니 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는 도발을 일삼고 안으로는 긴장상태를 고취하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혁명력량은 언제나 자기의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적대적계급의 반항과 박해에 부딪친다. 적대적계급으로부터의 반항이 없는 혁명운동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력량은 오직 간고한 시련속에서만 장성한다.

조성된 정세는 반혁명을 타승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축적, 장성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7페지).

김일성동지의 당대표자회보고에 망

시되여있는바와 같이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로동자, 농민을 튼튼히 결속함으로써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이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전위이며 참모부로서의 당은 오직 준비된 지도적골간의 목적의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공고발전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망라하여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을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혁명세력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됨으로써만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혁명력량의 보존, 축적, 장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대중적투쟁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혁명적당을 꾸리며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데서나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나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사실상 혁명력량의 장성강화,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과 공고화는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전개되는 조건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군중조직사업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을 조직에 결속하여야 그들을 투쟁에 조직적으로 광범히 동원할수 있으며 사상교양사업도 더 잘할수 있다.

김일성동지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의 준비는 원쑤들의 반혁명공세하에서 간고한 시련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으며 오직 투쟁속에서만 혁명력량을 장성시킬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이란 우여곡절과 시련을 동반하는것이며 결코 저절로 순탄하게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남조선혁명에 대한 당의 기본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에 립각하여 당면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는것이 요구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응당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는 동시에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기 위하여 사상적 및 조직적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며 폭력적 및 비폭력적인 모든 형태의 투쟁에 혁명군중을 준비시키는것이 현시기 긴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적의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대항하는것이 필요하며 정당하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적응하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등 각종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백방으

로 대중투쟁을 발전시키면서 투쟁을 통하여 부단히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대중투쟁을 조직지도함에 있어서 좌우경적편향을 경계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만약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를 신중히 평가함이 없이 모험주의적투쟁을 벌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명력량의 보존, 축적, 장성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이와 반면에 투쟁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당을 꾸릴수 없고 당이 대중속에 뿌리박을수도 없으며 정세를 호전시킬수도 없다.

혁명은 복잡하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혁명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결정적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정확히 정세를 판단하고 혁명의 전략전술을 옳게 세움으로써 대중운동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여야 하며 미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을 장성시키는 모든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라고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을 《반공》사상의 영향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의 침략적본성과 남조선사회의 식민지적성격을 발가놓으며 외세의존사상을 반대하고 자주자립사상을 선전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주체의식을 높여야 한다.

적들이 공산주의사상을 왜곡비방하는 조건에서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사상을 선전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배양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북반부의 사회제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으로 남조선인민들을 교양하며 그이의 덕성과 풍모를 그들에게 선전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남조선인민들을 무장시키는것은 현시기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정력적인 정치사상사업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높아질것이며 남조선혁명운동은 빠른 속도로 장성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는 날로 륭성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전체 북반부인민들은 우리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심각한 민족적계급적모순을 배태하고 날로 첨예화되여가는 식민지통치위기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세계의 모든곳에서 배격당하고 고립되여가고있으며 아세아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쳐 더욱 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자기의 축적된 힘과 대중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뒤집어엎고야 말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을 내몰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미제는 현대식민주의의 아성

류 시 호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민족해방운동이 세차게 전개되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거대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있다.

2차대전후 민족해방운동의 전례없는 앙양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고 적지않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한 사회경제적개혁들이 급속히 진행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전면적으로 붕괴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신구식민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진하여 물러가려 하지 않으며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기 위한 파괴활동을 감행하고 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8페지).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지지배를 확립하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반제전선에서 떼여내기 위하여 로골적인 폭력정책과 함께 음흉한 신식민주의정책에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는 현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말살하는 가장 악랄한 원쑤이며 이 지역 인민들에 대한 최대의 착취자이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철저히 분쇄함으로써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자기의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고수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민족해방혁명의 성스러운 과업을 완수할수 있다.

* *

신식민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장성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붕괴의 위기에 처한 시기에 나온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위기의 직접적산물이다.

2차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전후 세계사회주의력량이 급속히 장성강화되고 민주주의운동이 급격히 앙양되는 환경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비상히 높아졌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민족해방투쟁

의 불길은 제국주의의 모든 식민지를 휩쓸었다.

이와 함께 대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전변되고 전쟁에서 식민지소유렬강들이 패하였거나 혹은 심히 약화된 결과 전반적으로 제국주의세력이 현저히 약화된 사정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새로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국주의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으며 그들의 침략적지반은 급속히 축소되였다.

《수세기동안 서방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용감히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민족해방의 세찬 조류가 막을수 없는 힘으로 밀려오고있다. 3대륙의 수억만 사람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고수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있다》(김일성,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혁명적변화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만일 앞으로 더욱 많은 나라들이 독립과 해방의 길을 따라 나간다면 아무리 많은 유도탄과 원자비행기와 원자잠수함을 가지고있어도 우리를 구원할수 없다》고 비명을 올린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정면으로 막아낼수 없게 된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고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교활하고 은페된 신식민주의적수법을 추구해나섰다.

신식민주의는 대전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나온 식민주의의 변종으로서 침략적본질에 있어서 구식민주의와 아무러한 차이도 없다. 구식민주의가 주로 로골적인 탄압과 예속에 의한 직접적통치를 중요한 특징으로 하였다면 신식민주의는 형식상 독립을 인정하면서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간접적통치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것이 그 특징이다.

미제국주의는 2차대전후 제국주의세계에서 그가 차지한 정치, 경제 및 군사적지위를 리용하여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으로 등장하였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구식민주의세력을 대신하여 세계최대의 식민지수탈자로 되었을뿐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가장 흉악한 교살자로 대두하였다. 대전의 결과 제국주의의 모든 교전국들이 약화되었으며 식민지들에서 독립에 대한 지향이 강화되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미제는 《원조》의 간판하에 구식민주의자들의 《세력권》에 침투하여 그것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었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에스빠냐와 영국세력을, 인도지나반도에서는 프랑스를 대신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오늘 아프리카의 광대한 지역에서 점차 자기의 《세력권》을 확장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와 같이 대전후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구식민주의자들이 쫓겨나는 기회를 리용하여 뒤로부터 이 나라들에 기여들어갔다.

미제는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 자기의 신식민주의적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막대한 리윤을 짜냄으로써 세계최대의 착취자로 되고있으며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세계반동세력의 흉악한 괴수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날로 강화발전되

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무장간섭과 함께 더욱 악랄한 신식민주의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 *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이 지역에서 식민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신식민주의정책에서 미제가 주요하게 의거하는 수법의 하나는 괴뢰정권을 조작하여 실시하는 간접통치이다. 그것은 구식민주의자들처럼 총독을 두고 직접 통치할수 없는 실정에서 형식상 《독립》을 인정하고 괴뢰정권을 통하여 지배하는것이 보다 유리하기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저들의 식민주의적정책의 본질을 엄폐하고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무마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조작한 괴뢰정권이 무능력하다고 인정되였을 때에는 한 괴뢰를 다른 괴뢰로 교체하는 연극을 꾸며내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괴뢰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눅러보려 한다. 그들은 비위에 거슬리면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파쑈정권을 수립하는것을 상투적수법으로 삼고 있는바 이것은 저들의 여명을 부지하려는 가장 파렴치한 식민지통치수법이다.

남조선에서 장면대신에 칼부림밖에 모르는 박정희도당을 내세운 사실은 그 전형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미제는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리용하면서 남조선을 자기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완전한 부속물로 전변시키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9페지).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1963년에 느고딘 디엠정권을 뒤집어놓은후 불과 2년도 못되는 사이에 11회의 정변을 조작하고 아홉번이나 《수상》을 교체하였던것이다.

이와 함께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출현하여 이 나라들에서 진보적력량이 장성하고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제는 진보적정권을 전복하고 반동괴뢰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는 더욱 격화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들을 매수하고 규합하여 진보적력량을 반대하게 하며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려 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반제력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데로 그들을 돌려세우며 하고있으며 반제력량을 파괴와해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제는 1966년에 가나에서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1964년에 브라질에서 굴라르트정부를 전복하는 군사정변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꾸며낸 진보적정부

에 대한 전복음모의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미제는 브라질의 굴라르트정부가 미국회사를 국유화하고 꾸바에 대한 미제의 《제재조치》를 반대하면서 꾸바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자 1963년초부터 굴라르트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에 달라붙었다. 미제는 《외교관》의 탈을 쓴 음모《전문가》들과 미중앙정보국의 《경험많은 장군》을 파견하여 반란도당들을 비밀리에 훈련시켰으며 마침내 굴라르트정부를 전복하고 불방코군사파쑈독재정권을 만들어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정변이나 파쑈독재로써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에는 괴뢰를 내세워 《특수전쟁》을 벌리며 로골적인 무장간섭까지 서슴없이 감행한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처음에 주로 《원조》와 친미반동괴뢰들에 의거하여 식민지지배를 실현해보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남부웰남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하고 혁명력량의 타격으로 반동세력이 심히 약화됨에 따라 미제는 배후로부터 전면에 나섰을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력을 직접 투입하여 류혈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강도적인 전쟁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저들의 침략전쟁을 더욱 엄중한 단계에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신식민주의 정책에서 미제는 《원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는 동시에 〈원조〉를 미끼로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내부를 와해시키려 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미제의 《원조》는 독점자본의 치부의 주요한 수단이며 침략과 략탈을 은폐하는 위장물이다. 그들은 《원조》를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으며 이 지역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제를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자주권을 유린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대전후 20년동안 남조선에 38억딸라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신 105억딸라의 재부를 략탈해갔으며 동남아세아에서 1963년에 3억 7천만달라의 《원조》를 제공하고 그 7배나 되는 22억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지금 2,000여개의 미국독점회사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침투하여 매년 수백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칠광석의 거의 전부, 동광의 90%, 아연광의 3분의 2, 석유생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자기의 경제적지배하에 넣으려 하고있다.

오늘 미제의 《원조》정책의 올가미에 걸린 나라들에서 경제가 파산되고 식민지적예속성이 심화되고있는데 그것은 미제의 이러한 침략적 및 략탈적 《원조》정책에 의하여 빚어진것이다.

미제의 《원조》는 경제적략탈의 도구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정치적예속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리용되고있다.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이 나라들의 정치적자주권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에 각종 정치적부대조건을 붙임으로써 신생독립국가들에 압력을 가하며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제의 《원조》정책의 침략적성격은 정치경제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 그의

군사적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각종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군사원조》를 리용하여 침략적군사동맹에 가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이것은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정치군사적부대조건이 붙은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경제를 군사화하며 그 나라들을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변시키기 위한것이다.

소위 《후진국개발》이라는 간판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추진시키고있는 《개발계획》역시 례외없이 군사정치적목적과 결부되여있다. 일례로 《동남아세아개발계획》을 들수 있다. 이 《계획》은 명색은 《개발》이라는 간판을 걸고있으나 그 리면을 들추어보면 군사적시설을 강화함으로써 동남아세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려는 정치군사적목적이 주되는것으로 되여있는것이다. 미제는 이 《개발계획》을 통하여 우선 동남아세아 해저케블선건설, 항만정비 및 해상수송로 개발을 추진시킴으로써 웰남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군사적시설물들을 축성하려 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원조》를 경제적략탈을 위한 수단으로써뿐만아니라 정치적예속과 군사적지배를 안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사상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적각성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해보려 하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략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있는것은 《반공》, 《숭미》사상의 선전이다.

오늘 적지않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고 진보적사상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에서 《반공》선전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온갖 선전기구들을 동원하여 맑스—레닌주의학설에 대하여 악의에 찬 비방과 중상을 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허위선전을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강대성》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숭미》, 《공미》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인민들의 투쟁의지를 꺾어보려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제는 방송, 출판,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등 선전수단들을 광범히 동원하고있으며 《평화군》, 《공보원》 등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광범히 침투시키고있다. 미국《공보원》은 이 지역에 침투하여 도서관과 기타 문화기관들을 운영하면서 낡고 썩은 《미국식문화》와 《생활양식》을 류포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 하고있다. 《평화군》은 외면상 교원, 의사, 기술자 등으로 가장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정부전복음모를 조작하는 파괴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사상문화적침투는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데서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고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군사조약과 군사블럭을 리용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및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려 하고있으며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가 현대식민

주의의 아성으로서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며 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말살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 *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해방과 독립, 그들의 새 생활창조의 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원쑤는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다.

나라의 완전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현대식민주의를 분쇄하여야 하며 그 주되는 지주로 되고있는 미제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착취와 예속의 마수가 의연히 깊이 뻗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많은 나라들과 광범한 지역에 침투하여 그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있으며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를 분쇄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 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은 우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낡은 기구를 철저히 파괴해버려야 한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철저한 민주주의적사회개혁을 수행할수 없으며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국가관리기관에서 식민주의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며 진보적인 사회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지반을 제거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성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의 《원조》를 배격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경제명맥이 외래독점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경제적압력을 면할수 없으며 정치적자주권도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철저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여 제국주의독점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며 그들과 결탁하고있는 국내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박

할하여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경제를 넘겨받은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은 경제의 식민지적락후성과 예속성을 급속히 퇴치하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여나아감으로써만 나라의 경제를 자립적토대우에서 발전시킬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자체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자체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와 사상적침투를 물리칠수 있다.

이와 같이 신생독립국가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인 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으며 그들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므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굳게 단합하여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과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하에 있었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오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호상협조와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언제나 피압박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해방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왔으며 그들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그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그들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 말것이며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사환군

현 진 철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되살아나 또다시 침략과 예속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접조가담하여나서고있으며 상전을 등에 업고 조선과 다른 아세아나라들에 기여들어 저들의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사촉하에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군사계획까지 짜놓고있다.

현시기 일본군국주의의 급속한 부활과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반동들의 결탁은 아세아와 세계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모든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를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미제의 침략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 *

김일성동지는 미일간의 기본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일제는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 얽혀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다》(《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페지).

일본군국주의는 종속적동맹관계하에서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일익을 담당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인민탄압과 대외침략을 위한 무기로서 일본독점자본에게 복무할뿐아니라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일본군국주의의 특성이 있으며 그 주되는 위험성이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2차대전후 미제의 일본강점, 미제의 대일정책, 일본반동세력의 리해관계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제는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자기들의 침략정책의 《돌격대》로 리용하는것을 아세아전략의 중요한 방침으로 내세웠다. 미제는 이 방침에 따라 일본을 강점한 첫날부터 일본군국주의세력과 전쟁잔세력을 청산하고 민주화할데 대한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본반동세력을 보존하고 그들을 손아래《동맹군》으로 육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본은 미제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되게 되었고 일본에 대한 미제의 통제체계가 확립되였다.

미일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고있는것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예속적관계를 합법화하고있으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협력체계를 규정하고있다.

패전의 결과 급격히 약화되였고 거기에다 일본인민의 대중적진출 등으로 하여 궁지에 빠진 일본반동세력은 종속적

관계하에서 재생의 길을 찾으려 하였고 미제의 침략정책에서 그와의 리해관계의 일치점을 발견하였다.

종속적관계하에서의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책동은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력량에 대한 공포, 일본반동세력의 골수에 사무친 《반공산주의》로 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현시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적결탁은 웰남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거듭되는 심각한 군사정치적패배, 아세아에서 침략적지반의 전면적붕괴와 관련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그들의 무모한 침략정책은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련이어 파탄되고있다.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50만명의 미군과 기타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수많은 추종국가군대를 끌어들였고 야만적인 전쟁수단들을 비롯한 막대한 수량의 군사장비를 투입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웰남전쟁에서 당하고있는 미제의 군사정치적패배는 그들이 아세아에서 겪고있는 위기를 보여주는 집중적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통치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지고있는 참을수 없는 재난과 고통은 인민들 속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더욱 큰 불만을 자아내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은 급속히 장성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뒤흔들리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력량을 말살하며 그들이 겪고있는 군사정치적위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저들의 침략정책에 전면적으로 리용하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약점을 보충하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을 적극 협조하고 그에 가담하는것이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하며 침략적야욕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기본방침에 따라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을 협조하여나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대외팽창에 대한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제와의 종속적동맹관계하에서 침략적야욕을 실현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세력의 급속한 부활과 강화, 그에 기초한 일본반동세력의 《세력권》형성의 갈망과 관련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를 이루는 독점자본은 미제의 《원조》, 조선전쟁에서의 《횡재》,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의하여 전예없이 살이 쪘으며 일본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일본의 공업생산수준은 1966년 6월말현재 전전(1936년)의 6배에 달하였다. 특히 군수산업의 토대를 이루는 중공업 및 화학공업 비중이 현저히 높아짐으로써 전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잠세력은 크게 증대되였다.

군국주의의 기본으로 되는 일본의 군사력도 침략전쟁에 대비하여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현재 일본은 현대적무기로 장비한 근 30만명의 륙해공군병력을 가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의 중요한 하나는 경제의 군사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는것과 함께 일본의 정규무력인 《자위대》가 골간부대화하고있으며 군대의 간부구성에서 절대주의적천황제의 직업군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데도 있다.

이것은 가장 야수적이며 강도적인 구일본군부의 전통이 그대로 《자위대》에 계승되고있으며 전시동원체제하에서 일본《자위대》가 급속히 늘어날수 있게 되여있다는것을 말한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국력에 상응한 자위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침략무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방위력정비계획》(1967~1971년)을 추진시키고있다.

그들은 《자위대》를 침략전쟁수행에 적응하게 편성하고 무장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고있으며 해외파병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있다.

대외침략을 위한 일본반동지배층의 이러한 책동은 국내체제의 반동화와 파쑈화를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현행헌법의 개악, 징병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전시총동원체제의 실시를 위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경찰, 우익폭력단체들이 일본반동정부의 사촉하에 군국주의부활과 인민탄압을 위한 도구로서 리용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일본군국주의가 종속적동맹관계하에서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중요한 일익으로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대두하였음을 보여준다.

❀ ❀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충실한 사환군으로서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는 미제의 전략방침을 적극 따르며 그 집행을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라파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시키려고 획책하면서 아세아에 힘을 집중하고있으며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작은 나라, 분렬되여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각개격파전략방침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세아전략의 일익으로 육성하여온 일본군국주의를 각 방면에 걸쳐 리용하고있으며 일본지배층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협력하고 가담함으로써 대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으며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반동지배층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며 남조선을 전 조선과 대륙침략의 군사적발판으로 전변시키며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를 직접 협조할뿐만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조선과 아세아에서 또다시 옛지위를 회복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일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투는 더욱 적극화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기초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음모도 더욱 로골화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8~89페지).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산물로서 그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이루어지고있으며 그것은 《한일조약》체결후 본격화되고있다.

《한일조약》을 통하여 미제와 일본사또정부와 남조선박정희도당사이에는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고 《동북아세아군사동맹》의 조작을 위한 실제적인 조건들이 마련되였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의 박정희도당과 군사정치적으로 결탁시켰고 그들을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저들의 침략정책에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하에 남조선과 동남아세아나라들에 본격적으로 침투하여 저들의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자위대》를 남조선에 출동시킬것을 획책하고있는바 그것은 이미 세상에 폭로된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계획들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고있다. 그들은 이 계획들에서 전쟁의 구체적정황에 따르는 일본군대의 협동작전내용과 행동절차를 밝히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짜놓은 침략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종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고있다. 일본《자위대》는 조선전쟁을 예상한 상륙작전, 공중작전, 반잠수함작전연습을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자주 진행하고있

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에 의한 조선에서의 새전쟁도발에 대비하여 저들의 무력을 조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쥬고꾸, 북부규슈 지방에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지배층들은 이전 《황군》의 잔당들을 비롯한 방위청의 주요인물들을 《사절단》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분계선일대를 시찰케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막대한 군수기재들을 공급함으로써 남조선괴뢰군을 무장시키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박정희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품속에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전쟁정책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길에 나서기 위해 얼마나 광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동작전》하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으며 재일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페기하고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로 귀국하는것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재일 조선공민들이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자기의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돌아오는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수 없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이며 합법적인 권리이다.

미제의 각개격파전략과 아세아침략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협력과 가담은 현시기 웰남전쟁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의 적극적인 가담자로 되고있으며 미국의 주문에 의하여 남부웰남에 각종 무기를 비롯한 많은 군수기자재를 공급하고있다. 일본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페지).

일본지배층들은 일본전령토를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기지로 내맡기고있으며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웰남의 도시와 마을들을 폭격하고 포격하는 미국비행기들과 군함들이 일본에 있는 기지를 리용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이와 같이 웰남전쟁에 출동하는 미해공군의 기지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이 전쟁에서 소모되는 방대한 량의 전쟁물자를 보급하는 보급기지, 수리기지, 수송기지로 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미제의 침략전쟁을 협력하기 위하여 각종 무기와 탄약, 포탄을 비롯하여 군용차, 군수용건축자재, 군복, 군화, 식료품, 의약품 기타 기계류 등에 이르는 물자들을 미군에게 직접 공급해주고있다.

웰남침략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나팜탄의 92%, 독가스와 기타 많은 유독성물질들은 일본에서 공급된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사실상 무고한 웰남인민들을 대량학살하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의 공범자로 되고있다.

그들은 또한 웰남전쟁에서 마사진 미국비행기, 함선, 땅크 등의 대부분을 수리해주고있는데 그 량은 미제가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함에 따라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그들은 웰남전쟁에 투입되는 미군사인원들과 작전물자들을 수송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민간항공기와 비행사들이 미군수송작전에 동원되고있을뿐만아니라 수많은 청년들과 선원들이 상륙용선박, 유조선 등에 동원되고있으며 그밖에 의료인군, 기술자들이 웰남에 파견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침략전쟁에서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일본이 없이는 웰남전쟁을 할수 없다》고 말하

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저들의 치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리용하고있는데 일례로 그들은 1966년에만도 웰남전쟁과 관련한 군수품조달에서 얻은 직접 및 간접《특수》수입총액은 실로 16억~17억딸라에 이르고있다.

일본지배층들은 외교적으로도 미제의 소위《평화협상》기만극에서 중요배역을 맡아나서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이 기만극에 중립국가들과 기타 나라들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면서 웰남전쟁의 계단식확대의 책임을 웰남인민에게 들씌우고 미제의 침략적본질을 감싸주려 하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수 없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대한 협력과 가담을《안보조약》상 의무이며 일본정부의 기본정책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떠벌이고있다. 일본지배층들은 심지어 미제에게 협력이상의것을 주어야 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이것은 이 전쟁의 확대를 계기로 일본군대의 해외파병을 실현해보려는 그들의 야심을 드러내놓은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제의 침략정책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가담은 미국지배층들이 내놓은 이른바《태평양시대》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책동에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의《태평양시대》구상은《원조》,《개발》등을 미끼로 아세아에서 친미추종국가들과 기타 나라들을 끌어넣어 단일한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저들의 력량을 재편성하며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 침략적지반을 강화하려는것이다.

미제는 현재 아세아에서 기존군사쁠럭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적지않은 나라들이 미제의 침략적군사정책에 끌려들어가는것을 꺼려하고있는 실정에서《령찬성》있는 새로운 포괄적인 반공군사동맹을 만들어내려 하고있다. 이를 추진시킴에 있어서 미제침략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반공군사동맹의 재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미제의《태평양시대》의 구상은 사실상 일본 반동지배층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것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아세아태평양권》구상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드는것은 미제의《태평양시대》구상을 그대로 받아물고 실천에 옮기려는것으로서 아무런 새로운것이 아니다.

일본지배층들은 일본이 미국과 아세아를 련결시키는《교량적역할》을 놀며 일본의 지도밑에 아세아에서《빈곤을 몰아내고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그들은《아세아태평양권》구상의 추진책으로서《개발계획》,《지역적협력》등의《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려 하고있는데 이것은 미제의 반공군사동맹재편성책동을 정치경제적으로 뒤받침해주면서 그것을 리용하여 동남아세아나라들과 기타 나라들에 침투하여 또다시 저들의《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이다.《동남아세아개발각료회의》,《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소집,《아세아개발은행》창립 등에서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경제외교》는 아세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하고 진보적나라들을 반제전선에서 떼여내기 위한 음흉한 모략책동과 결합되여있다. 일본독점자본의 5개 대표기관의 공동명의로 발표한《저개발국경제협력에 관한 제안》에서는《일본은 아세아자유진영의 기둥으로서 저개발국가들을 자유진영에 포섭할것을 원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아세아자유진영의 기둥》이란 일본군국주의가 아세아《반공》세력의 지주이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수급사환군이라는것을 말하는것이며《저개발국들의 자유진영포섭》운운은 아세아에서 신생독립국가들을 자주적발전의 길과 반제전선에서 떼여내여 반공동맹에 끌어넣으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은것이다.

일본반동지배층과 독점자본이《공동

개발》, 《경제기술협력》, 《원조》 등을 표방하는 그 리면에는 아세아인민들을 략탈하며 아세아의 진보적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악랄한 기도가 숨어있다.

* *

현시기 일본군국주의의 대미추종정책과 대외팽창책동을 반대하고 그를 분쇄하는것은 아세아에서 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 대표자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파탄시켜야 할것이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페지).

모든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그것을 분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독점자본이 이미 제국주의적징표를 구비하였고 일본과 미국간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결탁하고있다. 현단계에서 미일간의 모순은 어디까지나 차요적인것이며 주되는것은 종속적동맹관계이다. 그러므로 미일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피코 그들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과소평가하게 되며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자체를 보지 못하게 될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서부독일군국주의세력과 마찬가지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재생되였고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일본과 서부독일은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나고있다.

모든 반제력량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는 동시에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성을 보아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미제를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성을 과소평가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더욱 조장하여주며 전반적인 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진보적력량은 일본지배층에 대하여 사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그들에 대하여 아무러한 기대도 걸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과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나 일본지배층과 정치적문제를 가지고는 어떠한 흥정도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사또정부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본인민의 리익과 전반적인 반제투쟁의 리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페지).

우리는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단결에 쐐기를 박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파괴하려는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심지어 사회주의나라들에까지 추파를 던지면서 《관계발전》을 내걸고 기여들어 그 나라들의 반제적립장을 약화시키려 하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분쇄함에 있어서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의 투쟁을 단호히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본공산당은 미일반동들의 공세가 강화되는 어려운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있으며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고있다. 일본공산당은 미일반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

으며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일미《안보조약》과 《한일조약》의 페기, 미군사기지철폐, 군국주의부활의 저지 등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있다.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의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며 그 대렬을 분렬시키는 책동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결코 허용될수 없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공산당과 일본인민이 거두고있는 투쟁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들의 영웅적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외에 팽창하여 《횡재》하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미제에게 추종하면서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나가는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망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력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아세아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은 전례없이 장성하였고 이 지역에서 민족해방력량의 진출이 급격히 강화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략책동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불길속에서 영영 타버리고 말것이다.

근 로 자 제 9 호 (루계 30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9월 25일 발 행 • 1967년 9월 30일

ㄱ—73322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67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第 10 호 (308)

차 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는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대오로 장성하였다

—당창건 2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22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우리 당은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실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난관이 중첩된 험난한 길이였으며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이였다.

우리 당은 국내외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며 공산주의운동내부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튼튼하여졌으며 혁명과 건설의 간고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리익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획득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을 믿고 당주위에 단결되여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않고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이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강유력한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서 조선혁명을 계속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며 당이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났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당건설의 원칙과 방도들을 명시하고 그 실현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길,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한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혁명임무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는것, 이것은 그이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온 전행정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그 어떤 폭풍에도 드놀리지않게 깊이깊이 뿌리박힌 신념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오직 김일성동지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그이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하며 투쟁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그 어떠한 힘도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

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기하고 이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닦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과적추진을 위하여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1920년대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그러나 로동자, 농민들은 일제의 폭압이 심할수록 그에 항거하여 폭력적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였다. 부단히 앙양되는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공산당의 해산에서 심중한 교훈을 찾을 대신 의연히 파쟁을 일삼으면서 당창건준비에서 극심한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그들은 저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자파중심의 《당재건》을 성취해보려고 획책하였다.

당재건문제를 둘러싸고 공산주의대렬내에 조성된 사태와 앙양된 혁명정세는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명확한 방도를 시급히 제시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조선혁명앞에는 세련되고 단련된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의 출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바로 이러한때 어린시절부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으로 확고히 무장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혁명의 선두에 나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름은 이때부터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해방의 등대로 빛났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동원하는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복잡하게 조성된 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당창건을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당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이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 할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하여 우선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을 육성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조선혁명의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적결속을

실현하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유력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명시하시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는 당창건준비에서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내재하고있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하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항일무장투쟁 및 반일민족통일전선과 당창건준비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당창건을 위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는 공산주의자들로써 당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는 로동자, 농민 출신의 공산주의자들로 당의 조직적골간을 꾸릴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계급적립장이 견결하며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향하고 혁명성이 높은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항일유격대에 받아들여 맑스—레닌주의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수립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은 광범한 혁명군중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실지투쟁에 인입함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공산주의대렬을 결속함에 있어서 선차적인 문제는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의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함으로써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적결속을 보장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당시 우리나라 사회경제형편과 계급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시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의 확립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당창건준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우선 조선혁명앞에 처음으로 명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결속을 급속히 추진시켰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그것은 또한 공산주의운동대렬의 분렬을 획책하던 종파분자들, 기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으로 되였으며 반종파투쟁, 반기회주의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이리하여 공산주의대렬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로선에 기초하여 확고한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혁명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되였다.

대중적지반을 축성하는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구체적실정에서 당창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192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창건될 당은 반드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되여야만 하였다. 또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는 사업도 대중속에 깊이 침투함으로써만 실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공산주의운동의 대중적지반을 구축하며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혁명군중을 집결시키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

리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없다》**는 구호밑에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과의 혈연적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모든 애국적력량을 단결시켰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운동은 처음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다. 일제의 갖은 책동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혁명군중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서만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였으며 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 혁명력량이 믿음직하게 준비되여갔다.

이렇게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진정한 공산주의 투사들이 육성되고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당창건의 대중적 지반이 마련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다.

간고한 유격투쟁의 시련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자라났으며 혁명대오의 확고한 통일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결합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을 획득하였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7~8페지).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였으며 그 력사적뿌리에서 자랐기때문에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견고한 토대우에서 급속히 창건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하나의 사상, 의지로 통일단결된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대중적 정당으로 급속히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해방후 곧 우리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해방후 국내외정세는 우리 인민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나 혁명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내국외에 있던 반동들이 그곳에 집결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여나섰다.

조선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 장기성을 띠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운동은 부득이 당분간 남북으로 갈라져 각이하게 전개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공산주의자들앞에 자기 대오를 급속히 정비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튼튼히 결속할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지체없이 창건하는것은 혁명정세의 가장 절박한 요구였다.

그러나 당창건을 위한 사업에는 헤아

될수 없는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시켰으며 이 엄중한 사태에 편승하여 종파분자들이 공산주의운동과 근로대중을 4분5렬케 하려고 날뛰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당을 창건하고 대중을 전취하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혁명에 대하여,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 당의 창건을 절박하게 기다렸다.

조선혁명의 이 절실한 요구는 오직 다년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서 허물수 없는 높은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계시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지니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각지에 조직되였던 지방의 당단체들을 결속하여 당을 창건하며 모든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있는 북반부에 당중앙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각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망라하여,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원칙에 엄격히 립각하여 당을 재건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0페지).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육성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고 지방당조직들을 묶어세워 당을 창건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공산주의대렬을 급속히 집결시키며 우리 당을 처음부터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가장 옳은 길이였다.

또한 당중앙지도기관을 북반부에 두는것은 북조선에서 혁명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혁명을 성과있게 지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였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혁명의 전위부대인 우리 당의 창건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은 강력한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투쟁의 앞길에 그 어떤 난국이 가로놓여도 그것을 능히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후 즉시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꾸려놓았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되고 대중속에서 당의 신망이 높아졌으며 광범한 군중이 당주위에 결속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이 공고화되고 근로대중이 당을 열렬히 지지하게 됨에 따라 적시에 근로대중에 대한 혁명적지도를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시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객관적요구와 조선의 근로대중의 특성, 해방후 그들의 처지에서 일어난 근본적변화를 면밀히 타산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뿐만아니라 근로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도 망라한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당대렬을 확대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한층 높이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게 되였다.

그것은 근로인민의 혁명력량을 분렬

시킬 위험성을 방지하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전체 근로대중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발전시키면서 당대렬의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며, 모든 당원들을 빠른 시일내에 공산주의적혁명투사로 키우기 위한 창조적인 방침들을 제시하고 관철시키셨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핵심을 육성확대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와 같이 제때에 당을 창건하고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갓 창건된 우리 당은 자기에게 부과된 어렵고 복잡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거대한 지도적력량으로 성장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기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굳게 결속함으로써 해방후 짧은 기간에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고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것, 이것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을 건설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혁명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특히 당대렬의 구성이 복잡하고 당에 부과된 임무가 지극히 어렵고 방대한 우리의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렬을 불패의 통일체로 결속시키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시종일관 최대의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선결문제로 나선것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강철같은 통일을 보장하는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는 해방전후를 통하여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원쑤들과 결탁하여 혁명위업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될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에 도전하여 나섰다.

경험은 적대세력과의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만일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내부에서 종파가 제때에 제거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우리와 대치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혁명력량을 파괴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은 극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실로 종파와 그 여독을 청산하고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사활적문제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반종파투쟁이 우리 당건설에서와 당의 조직사상적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우리 나라 로동운동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조직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오늘 우리 세대의 당원들에게 부과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247～248페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기의 혁명대오를 철석같이 꾸리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으며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종파주의의 발현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당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을 이끌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 이것은 모든 당원들이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일편단심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심화시키며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당의 이러한 방침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전사로,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그이가 제시한 혁명임무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수령의 붉은 전사로 자랐으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 의지로 통일된 불패의 대오로 강화되였다.

실로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투쟁에서 달성한 력사적승리로 된다. 반당종파분자들을 제거하며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과 거기에서 달성된 거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고 우리 인민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끌수 있었던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종파주의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통일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지난기간 국제국내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이 시련을 겪고 있던 때에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이 국제종파와 결탁하여 당을 공격하여나섰던 사실을 언제나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 당원들은 어떠한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대렬내에 종파주의와 기타 기회주의의 영향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방침에 따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당적사상체계를 수립하며 당의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며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0페지).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이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를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아가는 혁명적이고 창조

적인 립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여나아가는 자주적 립장이다.

맑스—레닌주의당들에 있어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며 그 승리를 추진하는데서 관건적문제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매우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내에서 나타난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교조주의, 사대주의자들이였으며 따라서 반종파투쟁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였다.

종파분자들,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남만 쳐다보고 남이 하는대로 맹종맹동하며 우리 인민의 힘을 믿지않고 모든것을 남에게 의존하면서 당정책의 관철을 장애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함이 없이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수 없었으며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관철시켜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는 주체를 확립하는것을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기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해결하도록 지도하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는 1955년 12월에 하신 력사적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주체확립을 위한 명확한 방침을 제기하고 그의 관철에로 전당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립장이며 방침이다》(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1페지).

우리 당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위험성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상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이고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하는 기풍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 이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하는 강유력한 당으로 되였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도의 혁명적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령도해나가는 주체성있는 당으로 된것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도 모두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달성된것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서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헤아릴수 없이 큰 의의를 가지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 발생한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자기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였으며 좌우경기회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자주적으로 강력히 전개하면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하여나아갔으며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켰다. 이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더 똑똑히 체득하게 되였으며 현명한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국내외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였을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발생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승리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을 가진 세련되고 단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하여 당대렬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우선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간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의 령도적기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간부들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제1차적과업으로 제기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계급성과 혁명성이 높은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은 계속 자기의 당성을 단련하여야 한다. 당성을 단련한다는것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 당과 당중앙위원회를 어떤 환경에서도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선집》, 제6권, 433페지).

당성단련은 매개 당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배양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매개 당원들로하여금 당생활을 강화하고 현실에 깊이 침투하며 혁명적학풍을 수립함으로써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도록 하였다.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구현됨으로써 당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무조건 관철하며 일체 부정적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당과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되였다. 이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그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하여 또한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각급당조직들이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원만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당위원회들이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게 하였으며 당사

업이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당이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결속되고 모든 당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조직으로,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모든 군중을 당주위에 결속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당의 불패의 위력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대중을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그들의 창조력을 옳게 동원하는데 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려면 한편으로는 군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여야 하며 다른편으로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완성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도록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자각성과 혁명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또한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일반화는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청산리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의 사업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났으며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되였다. 또한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됨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이리하여 청산리방법의 일반화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당의 령도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킬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며, 또한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일관하게 추진시켜왔다.

우리 당이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며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온 결과 우리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진 위력한 부대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혁명가의 대부대를 꾸려놓았다. 우리 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결속되고 혁명의 위업을 계승할 수많은 혁명가들이 새로 자랐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칠석같이 단결되여있는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이며 우리는 바로 이 힘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 ⁂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에서는 세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결속된 강유력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된것도, 우리 인민을 계속 위대한 승리의 길로 향도할수 있은것도 오직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현시기 조성된 복잡한 국제국내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혁명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전국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다.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혁명을 튼튼히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복잡한 국제국내정세하에서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이 일하여야 하며 더 빨리 전진하여야 한다. 긴장된 투쟁을 통하여 방대한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하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오직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며 그이가 제시한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의 혁명성과 창발성을 발동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모든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당은 필승불패이다.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할것이다.

인민정권의 불패의 위력

금번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이 달성한 빛나는 업적을 총화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선거는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힘있게 보여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직성, 혁명위업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을 명백히 표시하는 일대 시위로 된다. 그것은 인민정권의 위대한 생활력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훌륭히 보여주게 된다.

또한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혁명적기백과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완수하고야 말 그들의 굳은 신념과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

금번 선거는 인민정권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사업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정권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실제 사업과 투쟁 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일군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이게 될것이며 전반적인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는 영예도 드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황철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지금 전국의 인민들은 금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한층 강화하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우리 인민정권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쟁취되고 공고화된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오래동안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말할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15개성상이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

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외래침략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자기 수중에 주권을 튼튼히 장악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이다. 우리의 정권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정권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1～2페지).

우리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가장 혁명적인 정권이며 진정으로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실현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이다. 그것은 그 어떠한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정권이다.

지난날 나라와 주권이 없어 억눌리고 짓밟히던 조선인민이 오늘 불패의 위력을 가진 진정한 자기의 혁명적인 정권을 가질수 있은것은 오직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로부터 시종일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여주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4천만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는 정권이다.

김일성동지는 일제의 식민지적폭압이 절정에 달하고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처하여있던 시기에 오직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진정한 인민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령도하여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조선혁명실천간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명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투쟁의 선두에 서시여 어려운 고비를 타개하시면서 혁명을 위기에서 구출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 발전에서 새시기를 열어놓은 이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인 불멸의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인민정권을 창설할데 대한 로선은 벌써 이 시기에 확고히 수립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정세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시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립각한 인민정부를 창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은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명확히 정식화되였다.

해방후 창건된 우리 인민정권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제시하신 인민정부로선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혁명정권의 실천

적경험에 그 뿌리를 박고있으며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 싸운 항일유격대의 고귀한 사상을 체현하고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는 공고한 정권으로 될수 있은것이다.

해방후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투쟁도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내외의 반혁명세력을 규합하여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백방으로 반대하여나섰으며 우리 대렬내의 원쑤들이 또한 각종 좌우경적구호를 들고 대중의 투쟁을 방해하였다. 실로 정권을 세우고 고수하는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내외의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오직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제기되였던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짧은 기간내에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었으며 그것을 부단히 공고발전시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과 반혁명, 민주와 반동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였던 해방직후의 내외정세와 제반 현실을 옳게 분석하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히셨으며 북조선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인민정부로선을 변천된 새로운 혁명정세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킴으로써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할데 대한 명확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당과 대중을 그 실현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첫인민주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에 창립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정권은 북조선에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조국통일의 강력한 물질적력량으로 전변시켰다.

김일성동지는 북조선에서 혁명이 전진하여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섬에 따라 우리 혁명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게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근거하여 력사적인 첫민주선거를 통하여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으며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과도기임무를 수행하며 전국적으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더욱 로골화됨에 따라 민족분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적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자신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55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데 대한 우리 민족

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의 기치이다. 그것은 새사회건설과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정권의 성격과 임무, 그 형태를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게 독창적으로 규정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의 매단계, 매시기에 인민정권이 나아갈 방향과 그 구체적임무와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이는 인민정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항상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진압하며 새로운 사회제도를 창설하고 발전시키며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또한 이 실천적인 투쟁행정에서 그것은 더욱 더 강화발전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에 의하여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기초가 더욱 공고히 되였으며 특히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하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시켜온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정권의 정치적지반이 더욱더 튼튼하여졌다.

이와 함께 당과 김일성동지는 매시기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왔으며 특히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 확고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인민정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정권과 인민대중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정권은 그 어떤 복잡하고 간고한 정세하에서도 자기앞에 부과되는 모든 임무와 과업을 능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공고하고 위력있는 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정권이 창설되고 공고발전하여온 전로정은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실현되여온 행정이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여 혁명에서의 주권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여오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과 같은 강력한 주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쥘수 있었고 혁명위업의 완수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　　　　*

우리 인민정권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획득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에 의하여 그리고 인민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에 의거함으로써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고 짧은 력사적기간에 위대한 혁명과업과 위대한 건설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훌륭한 새사회제도와 새생활을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자신의 사활적인 투쟁경험으로부터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인민정권의 생활력을 확신하고있다.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서 자기들의 승리의 앞길을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쟁취한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보고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3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은 복잡한 환경속에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하면서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이 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새생활을 창조하였다.

인민정권은 무엇보다도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능숙하게 결합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정확히 행사하여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있는 조건에서 매우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감행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인민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여 계급적원쑤들과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은 우리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체의 국방력을 창설하고 그것을 철벽같이 강화하는데 시종일관 주요한 력량을 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1948년 2월에 이미 항일무장투쟁에서 육성된 혁명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되였으며 짧은 기간내에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하여왔다.

북반부에 혁명기지를 창설하며 강철같은 인민무력을 단시일내에 창건하고 공고화한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방침의 정당성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이미 축성된 강력한 혁명기지와 국방력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할수 있었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심대한 군사적, 정치도덕적 참패를 줄수 있었다.

우리 인민정권은 적들의 반항과 원쑤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철저히 보위하였을뿐아니라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라의 새생활을 창조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전후 우리 인민은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인민정권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창조적인 로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의 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고조를 이룩함으로써 단시일내에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튼튼히 축성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과거로부터 탁후한 식민지경제를 물려받은데다가 3년간의 전쟁으로 그것마저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으로 전변시켰으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경제력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위력한 공업이다. 금년에 우리 공업은 1948년에 비하여 21배로 장성할것이다. 이것은 1948년 한해동안에 생산한 공업제품을 금년에는 단 보름동안에 생산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협동화된 대규모사회주의농촌경리도 그 우월성을 더욱더 발휘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농촌의 면모는 모든면에서 더욱 빨리 변화되고있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우에서 교육과 문화가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더욱 향상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다 같이 일하며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편히 살수 있게 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며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으며 병이 나면 언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

과거 오래동안 천대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이 오늘 어떠한 압박과 착취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즐겁고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거대한 전변이다》(《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후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불과 10년사이에 초등의무교육제, 중등의무교육제, 기술의무교육제가 련이어 실시됨으로써 만 일곱살부터 만 열여섯살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이 누구나 다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받게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항상 깊은 배려를 돌려주는 당과 수령의 방침에 의하여 최근시기에만도 농촌에서 현물세제가 폐지되고 3명이상의 어린 자녀들을 가진 모성로동자들에 대한 6시간로동제가 새로 실시되게 되였으며 보통교육부문 교원들의 로임을 대폭인상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로동자, 사무원, 농민 할것 없이 누구나가 다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그리고 유급휴가제와 휴양,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이 보람찬 생활은 오직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이 주권의 주인으로 된 조건하에서만,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번영하는 새생활이 창조되였을뿐아니라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그것을 보위할수 있는 철벽의 국방력이 축성되였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온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강력한 전투적대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되였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과 인민정권이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시면서 그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달성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항상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나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시고 제시하신 창조적인 사회주의적개조방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결합시키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 등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떠나서는 우리가 달성한 모든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하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주동적으로, 혁명적으로 해결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 견지하신 이와 같은 원칙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앞길에 가로놓여있던 수다한 난관들이 타개되고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생발전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나아갈 때 항상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당과 인민정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행복과 희망과 광명한 앞날을 가져다주는가를 잘 알고있다. 오늘 전체 북반부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그 어느때보다도 칠석같이 단결되여있으며 우리의 혁명적전취물인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굳건히 보위하며 더욱 공고발전시킬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미제의 식민지파쑈테로통치하에서 암담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도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보며 그이가 령도하는 공화국을 자기들의 진정한 정권으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다.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의 넓고 따사로운 품안에서 살게 될 행복한 앞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이국살이의 쓰라린 생활을 겪어온 재일 동포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조국과 수령의

품으로 계속 돌아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반제반미로선과 확고한 자주로선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전선에 서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부단히 강화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로선의 정당성과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실로 조선인민은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당과 인민정권, 그의 창건자이시며 조직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다지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밑에 살고있는것을 세상에 더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조선인민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기 수중에 장악한 혁명의 무기, 인민정권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 ⁂

오늘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은 혁명의 강유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앞에 무거운 임무를 제기하고있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잡고 새생활을 창조하고있는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며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우리는 아직 인민정권을 북반부에서만 실현하였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우리앞에는 이미 달성한 혁명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정권을 일층 강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을 통일하고 공화국의 기치하에 전국의 혁명을 완성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혁명대오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함이 없이 일편단심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들의 붉은 대오로, 그이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강력한 전투부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국방력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쟁취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물질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원쑤들이 그 어떠한 발악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한다할지라도 그것을 일격에 격파할수 있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수 있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오늘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민정권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이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이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46페지).

인민정권을 튼튼히 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인민정권은 당과 전체 인민을 련결시키는 가장 위력한 인전대로서 인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며 국가수중에 장악된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각방면에 걸쳐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방침들을 철저히 집행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할 때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고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우수한 일군들로 인민정권기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정권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으로 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전사, 인민대중의 참다운 충복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항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인민정권의 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정권은 김일성동지의 교시, 그이께서 제시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속에 철저히 침투하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배치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도입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고, 자기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계획화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지키며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역할은 더욱 제고될것이며 우리의 인민정권은 자기에게 부과된 영예롭고도 무거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 *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다. 인민정권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그 시책을 받들고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사업에서 모든 사람들의 애국적헌신성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금번 선거를 계기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금년도인민경제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있는 설비, 있는 로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생산하며 건설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맡겨진 혁명과업들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어김없이 실천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오늘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혁명을 하는 과업만이 있다. 혁명을 하자고 하면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함으로써 그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오직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지키며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끝까지 견결히 투쟁할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깊은 뿌리인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항일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을 배워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혁명의 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는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더욱 단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함으로써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성취하여야 하며 또한 세계혁명에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인테리혁명화

장 원 성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테리혁명화문제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중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인테리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과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조선혁명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교양개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의 인테리혁명화방침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며 인테리들을 끝까지 믿고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려는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원대한 구상에서 출발한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것이다.

인테리혁명화에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과업이며 인테리들자신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

1

사회주의건설에서 인테리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인테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요구는 부단히 강화된다. 과학문화의 발전과 교육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추진을 위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과거 낡은 사회의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과학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되여있는 낡은 사회에서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을 옳게 습득할수 없었으며 부르죠아세계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그들의 머리속에는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게 된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해방후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의 적극적인 교양과 새사회를 건설하는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자기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적지않게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는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들은 오직 꾸준하고 장기적인 교양사업을 통해서만 완전히 극복될수 있다.

낡은 사상잔재는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인테리들의 의식속에도 남아있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가정생활에서나 또는 이러저러한 사회적련계를 통하여 낡은 사상잔재의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은 매우 보수적이다.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들이 변화하여도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들은 오래동안 남아있으며 한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며 계승된다》(《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2페지).

낡은 사상잔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전진시키고 사회생활의 전령역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인테리혁명화문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국내외적으로 계급투쟁이 첨예화되는 때 더욱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서 부르죠아적착취관계를 청산하고 경제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의 중산계층도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의 혁명적앙양에 발맞추어 혁명에서 열성을 발휘할수 있었다.

그러나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로써 혁명은 끝나지 않는다. 혁명은 계속되여야 한다.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는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사상, 도덕,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생활령역에 걸쳐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온갖 낡은것이 더는 배겨날수 없게 된다. 아직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지 못한 낡은 사상, 도덕, 인습의 잔재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런 때 인테리들을 계속 교양하지 않으면 인테리들 속에 남아있는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로 하여 권태증과 해이성이 생길수도 있고 낡은 습관이 되살아날수도 있다.

특히 인테리들은 그들의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생산자대중보다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는 기회가 적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는 앞으로 전진할수 없다.

더우기 우리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내외의 원쑤들과의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고 그들을 혁명화하는것은 반동적부르죠아사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대두한 좌우경기회주의의 사상독소들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것을 결정적으로 방지하고 우리 혁명의 건전한 전진운동을 담보하는 긴절한 요구로 된다.

우리는 모든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함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밑에 오직 혁명의 한길을 따라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줄 아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인테리혁명화를 촉진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날로

증대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오늘 우리의 인테리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앙양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관철을 위하여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상문화혁명수행에서도 자못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한다.

인테리들에게 부과된 혁명과업은 그들을 혁명화함으로써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그들의 모든 지혜와 열성을 다 동원하여야만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다.

인테리혁명화문제는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려는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의 인테리들에 대한 두터운 배려와 신임에서 출발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야 하며 또 갈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인테리들을 적극 포섭하시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당창건초기에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이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새사회건설에 적극 인입하며 당의 구성성분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창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새인테리나 오랜 인테리나 할것없이 전체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할것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72페지).

인테리혁명화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에게 비록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하더라도 그들의 혁명성을 대담하게 믿고 부단히 교양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확고한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와 신임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나라 인테리들은 해방후 20년동안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그들은 당의 꾸준한 교양과 혁명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당의 붉은 인테리로 자라났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관철에서 거둔 성과들은 인테리들의 혁명성을 믿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인내성있는 교양사업을 진행할 때 그들을 당에 무한히 충직한 인테리로 교양개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은 인테리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보지 않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소홀히 하는것과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하는것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은 또한 인테리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여 그들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배척하는것과도 하등의 인연이 없다.

우리 당은 이러한 좌우경적편향을 다같이 철저히 경계하면서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의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

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2

인테리혁명화는 그 본질에 있어서 모든 인테리들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진정한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과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우와 같은 책, 70페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당은 지난기간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요소를 청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이것은 우리 당 인테리정책의 기본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인테리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근본문제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여야만 진정으로 로동계급에게,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테리로, 자기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실한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바칠것을 각오하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 한길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자면 조선혁명을 항상 승리의 길로 정확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지체없이 무조건 집행하며 그이가 구상하고 계시는 일들을 더 빨리,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인테리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을 모르는 그러한 인테리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였을 때에만 인테리들은 비로소 자신을 혁명화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우리 인테리들은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이의 높은 덕성을 따라 배우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수 있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테리들이 혁명을 위하여 참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모두를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고계신다. 우리 인테리들이 수령의 이와 같은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할수 있다는것보다 더 행복스러운 일은 없다. 우리들이 전진하는 앞길은 언제나 환히 밝혀져있다. 우리는 오직 수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동요없이 전진함으로써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승리의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인테리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견결히 고수할줄 아는 인테리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확립문제를 인테리혁명화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시였다. 어느때, 어디서나 당의 주체성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인테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주체가 확고히 서있어야 인테리들은 자신의 재능을 혁명에 유익하게 바칠수 있다.

주체확립문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하는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가장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주체가 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된 사람만이 어떠한 사대주의도, 교조주의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혁명을 더잘 수행하기 위한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자기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좌우경적기회주의를 다 범할수 있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사업을 망쳐버릴수 있는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34페지).

인테리들의 혁명화에서 주체확립문제는 그들이 주로 과학교육사업에 종사하며 사상혁명수행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주체가 확고히 서있어야 조선혁명수행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과학을 발전시키며 후대들을 교육교양하는데 자기의 온갖 정력을 다 쏟아부을수 있다. 주체가 서있지 못하면 아무리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있어도 혁명실천에는 쓸모없는 존재로 되고만다.

바로 이러한데로부터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테리들속에서 주체확립문제를 사상개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심중한 관심을 돌려왔다.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테리들자신이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상투쟁을 통해서 사대주의적 및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뿌리뽑아버리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은 자신이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할 때에만 공산주의자로서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할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립장을 견지하여야만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해나가며 우리 나라 현실과 우리의 인민경제발전이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를 자각적으로, 책임적으로 해결하는 높은 당성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

인테리혁명화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요구는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을 확고히 소유하는것이다.

계급적관점을 확고히 소유하고 온갖 비계급적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줄 아는것은 로동계급인테리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진실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되기 위해서는 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적관점에 서서 정확히 고찰하며 계급적원칙,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킬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로동계급의 인테리로서 계급적원쑤들을 예리하게 적발폭로하고 그들을 더없이 증오하며 자기 계급, 자기 제도를 열렬히 사랑할수 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계급적원칙을 위해서

라면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사업에서의 엄격한 원칙성—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품성이다.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사업을 혁명의 관점에서, 당과 인민의 리익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김일성선집》, 제4권, 251페지).

우리 인테리들은 당과 혁명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서슴없이 희생시킬 각오와 열정으로 충만되여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땅우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번영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겠는가—우리 인테리들의 심장은 오로지 이 한가지 생각으로 불타야 한다.

착취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이 착취계급을 위해서, 사리와 공명출세를 위해서 일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바친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이 지배한다. 우리 제도하에서 혁명가로 된다는 것, 혁명을 위한 길에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바친다는것은 인테리들의 최대의 영예이다. 이것은 물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인테리들이 진실로 이렇게 되자면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그들의 계급적관점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들처럼 자기 계급과 자기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 륭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리도, 공명출세도 모르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헌신복무할줄 알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로동계급의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배워야 한다. 생활에서 겸손하고 소박하며 혁명동지를 사랑하고 그들을 적극 도우며 모든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는 고상한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이 로동계급의 이러한 사상, 이러한 품성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낡은 사상잔재는 뿌리빠질수 있다. 낡은 사상을 청산하는 과정은 동시에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 과정이다. 이 두 측면은 서로 분리할수 없는 통일된 과정을 이룬다.

우리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로서의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은 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따라서 인테리의 혁명화과정이란 실제에 있어서 두 대립되는 사상간의 첨예한 투쟁과정이다. 사상투쟁이 없이 낡은 사상잔재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진실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할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당과 수령을 따라 배우고 로동계급을 따라 배움으로써 어떠한 풍파도, 가시덤불도 헤치고 혁명가로서의 지조를 끝까지 고수할줄아는 당과 수령의 충직한 전사, 로동계급의 혁명전사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3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 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지 않고서는 당과 혁명에 실제로 충실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

장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다.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범접할수 없다. 이런 사람이래야 당적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은 모든 당원들과 인테리들의 사업과 활동의 라침판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다. 또한 그것으로 확고히 무장하여야만 언제 어디서나 당적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고 사업과 생활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혁명적학풍을 철저히 세우고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결정을 깊이있게 연구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모든것을 당정책을 자로 삼아 재보고 거기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행동할줄 알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래야 인테리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과학을 연구할수 있고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할수 있다.

당정책학습과 더불어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전통학습은 인테리들의 혁명적수양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학습을 통하여 인테리들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인식할수 있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숭고한 혁명정신, 그들의 강의한 투지를 본받을수 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대부분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고 혁명적풍파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혁명전통학습은 그들의 사상과 의지를 단련하는데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혁명적량식을 제공해준다.

우리 인테리들은 혁명전통학습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15성상 갖은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일제와 싸워이긴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거기에서 이룩된 귀중하고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여 언제나 그들처럼 일하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에 대한 학습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인테리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된다. 우리는 그속에 담겨져있는 혁명정신을 배우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부단히 돌이켜보며 부족점을 스스로 찾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인테리혁명화에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 속에서 당조직생활을 비롯한 모든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규률을 지키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받는것을 곁에서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사상이 단련되여나가는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누구든지 조직생활을 싫어하고 거기에서 리탈하면 안일해이해지고 불건전한 사상에 쉽게 물젖을수 있다.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만 조직과 대중의 일상적인 통제를 받을수 있고

동지들의 충고와 비판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면서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적응하게 발전할수 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자신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단련되기 위해서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회의와 당생활총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기 당생활을 스스로 총화하고 항상 자기에게 높은 요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은 자체수양과 함께 비판과 자기비판을 일상적으로 진행할 때에 더 효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그러므로 인테리들은 누구나 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함을 당조직에 내놓고 동지들의 비판을 받으며 그것을 귀중한 방조로 삼아 자신의 결함을 고쳐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이래야 진정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단련될수 있다.

인테리들의 사상수양에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부단히 현실과 접촉하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생산현장에 들어가야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더잘 배울수 있다. 인테리들은 거기에서 당이 준 과업을 기어코 수행해내고야마는 로동계급의 투쟁모습과 근면하고 소박한 생활태도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비판적으로 검토할수 있다.

인테리들은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많은 경우에 생산자대중과 떨어져있는것만큼 계획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서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배워야 한다. 또한 거기에서 자기들의 과학, 문화 지식을 생산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줌으로써 당정책이 더 훌륭히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테리혁명화에서 당조직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테리들의 의식속에 뿌리박혀온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사상잔재와 생활습성을 청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복잡하고 심각한 사상혁명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이다. 이 사업은 세계관을 개조하는 장기간에 걸치는 어려운 사업인것만큼 결코 일시적깜빠니야나 단순한 행정실무적조치로써는 해결될수 없다. 여기에는 당조직들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과 책임적인 지도, 목적의식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당조직들은 우리 당과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한 인테리혁명화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인테리들을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와 천리마작업반운동

백 재 욱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날로 더욱 확대발전되고있다.

함남도 및 함흥시에 대한 현지지도에서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세차게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을 천리마의 대진군에 더욱 힘차게 일떠서게 하였다. 지금 온 나라는 당과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앙양된 로력투쟁으로 들끓고있다.

근로자들의 장엄한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이미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전국도처에서 날마다 새기준, 새기록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의 농촌에서도 풍작이 이룩되였다. 생산과 건설에서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생활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추진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어떠한 곤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칠 결의를 더욱 굳게 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휩쓸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더욱 앙양되고있으며 그것은 또다시 우리 인민의 천리마대고조의 세찬 불길을 높이 타오르게 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있다.

지금 전국의 각부문, 각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새로 궐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있으며 우리의 붉은 천리마기수들은 더욱 높은 결의와 목표를 내걸고 전인민적천리마진군의 앞장에 서나아가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각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기적들은 모두 당과 수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우리의 자랑찬 천리마기수들의 눈부신 투쟁의 열매들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새로운 천리마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더욱 큰 힘을 나타내게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근로자들의 의식성과 혁명임무에 대한 자각성을 더욱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비상히 앙양시킴으로써 현시기 우리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서 집단적인 혁신을 이룩하게 한다.

이리하여 그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 *

새로운 혁명적고조는 우리 혁명의 매시기, 매계단마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확고한 원칙성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힘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위업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긴절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것을 요구한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혁명발전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우리 나라 혁명이 처한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로선이며 따라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을 주동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룡성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의 수많은 근로자들을 친히 찾으시고 그들에게 당의 의도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서 몸소 새로운 혁명적고조의 불을 지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0년전 1957년에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장성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관철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을 지펴주시였다면 오늘은 또다시 룡성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관철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이룩하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부름에 따라 그이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전체 근로자들의 비등된 열의와 자각적열성은 금번의 새로운 혁명적고조에서 강력한 정치사상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이라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보여주는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하루속히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꺾을수 없는 투지를 보여준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의식성과 고상한 혁명적자각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새로운 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되는것은 그것이 새로운 고조의 정치사상적요인을 공고히 하고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

새로운 혁명적고조는 무엇보다도 우

리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수령이 제시한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높은 자각에 기초한 것이다.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자각성을 높이고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실천에 훌륭히 발양되도록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철저하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기본으로 하여 일어난 대중운동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땅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을 반영하는것이며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당의 기치밑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하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이 창조한 우리 시대의 훌륭하고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이다》(《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발생발전하는 전 행정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장 신지하고 적극적이며 눈부신 투쟁과정이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성을 배양시키는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행정을 통해서 부단히 발전하였다.

당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항상 전체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성과 창조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은 시종일관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제고하는데 일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이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여왔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충직성—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같은 위대한 대중운동을 발생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킬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확대발전은 오늘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이 제시하는 새로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시키는 커다란 힘을 마련하여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 운동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그의 자각적열성을 발동시키는데서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의 결정적고리를 찾고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60페지).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의식을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돌리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가르침이라면 불붙을 헤아리지 않고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혁명전통학습을 생활화하며 특히 항일유격대원들 속에서 발현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등을 본받아 제기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며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오늘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훌륭히 완수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은 모두 우리 천리마기수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려는 그들의 열렬한 지향의 발현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김일성동지는 현시기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있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것은 이 운동이 사상교양을 실천과 결부시켜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집단의 힘으로, 군중적투쟁으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해나가는데 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기수들의 안중에는 자기 개인의 향락도, 개인의 공명도 없으며 그들은 항상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것은 고상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 도덕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며 진실한 인민의 충복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대발전시키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감으로써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자유주의, 개인리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을 철저히 근절하고 그들 속에 공산주의적사상과 혁명정신, 고상한 도덕과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은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는 립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그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혁명적고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보수주의, 소극성 등을 불사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는 항상 낡고 보수적인것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일어나며 발전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락후한것이 반드시 방해한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락후한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이다. 락후한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
(《김일성선집》, 제6권, 109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은 새로운 로선이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의 수행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보수주의, 소극성 등 낡고 침체하고 안일해이한것과의 사상투쟁이 없이는 철저히 관철될수 없다.

오늘 룡성기계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들 속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고조 역시 온갖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과정에서 이룩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바로 대중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을 대중자신이 그리고 가장 대담하게 짓부시고 나아가는 혁명적전진운동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과 기술분야에서 보수주의와 신비주의, 온갖 소극적이고 침체한것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일대 혁신을 일으킨 운동이며 사상과 도덕 분야에서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 온갖 부패하고 락후한것을 결정적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는 력사적운동이다》(《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낡은 사상과의 투쟁의 불길속에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여왔다. 또한 여기에 이 운동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것을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리유가 있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전개되고있는 그 모든곳에서는 영웅적 우리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믿지 않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의 발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신비주의가 견디여낼수 없으며 생산과 기술에서 부단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지난날 강선의 천리마기수들은 6만톤 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을 생산했고 룡성의 천리마기수들은 3,000톤 프레스와 8메터타닝반을 제힘으로 만들어내였으며 최근에는 한해를 걸린다고 하던 랭간압연기를 불과 4개월동안에 2개나 만들어내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보는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보수와 소극, 안일과 침체를 반대하는 강력한 대중운동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관철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힘있게 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논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의 집단주의와 집체성을 가장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선행하는 기초우에서 생산혁신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당대표자회가 제시한바와 같이 국방건설을 백방으로 다그치면서 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자면 모든 부문에서 례외없이 배가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전체 집단이 2배, 3배의 일을 해내야 한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지혜와 집단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항상 집단주의정신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선진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집단을 튼튼히 꾸리고 작업반의 전체 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단합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혼자서 안되는 어려운 과업도 집단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기술혁명을 추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여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천리마기수들은 기술혁명이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가장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두 자기 부문에서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또한 나라의 살림살이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면서 개인의 향락과 공명,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로동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고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양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라살림살이와 기업관리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것은 경재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논다.

매개 근로자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작업반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 때 모든 생산요소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결합시키고 계획작성을 비롯한 기업관리의 제반요구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자대중을 경영활동과 생산조직의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함으로써 있는 예비

를 남김없이 찾아내게 한다.

이리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당이 제시한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일층 강력히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성과 자각성을 더욱 높임으로써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 *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고조를 계속 견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조건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다.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범접할수 없다. 이런 사람이래야 당적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은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행동의 지침이다. 우리 당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킨것으로서 그것은 우리 혁명을 가장 빠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우리 혁명의 목적과 과업, 혁명투쟁의 방도와 전망을 똑똑히 알고 모든 문제를 당적주견을 가지고 정확히 해결할수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투쟁할수 있다.

천리마기수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가 전면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항일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은 근로자들을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지로 교양하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그러므로 전체 근로자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당정책과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리마기수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도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세우며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타협없이 투쟁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증산하고 절약하며 국가사회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로동에서 자각적열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적극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확립하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커다란 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전체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영예로운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있는 밑천을 가지고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하여야 한다.

생산과 기술에서 침체와 답보를 허용하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중요한 요구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전인민적천리마진군의 선두에 서야 하며 부단히 새기준, 새기록을 창조하고 전진속도를 높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이 운동의 부단한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지도를 주는것이다. 특히 작업반장을 비롯한 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고착시키며 체계적으로 교양육성할 때 그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계속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천리마작업반 및 천리마학급 운동을 직접 담당지도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단체들은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작업반을 거점으로 생산활동과 결부시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은 이 운동을 틀어쥐고 옳게 조직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근로단체들은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일체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이 운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하며 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발기와 우수한 경험들을 제때에 지지해주고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단결하여 천리마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의 불길을 높이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짐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기어코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와 사회주의애국주의

편 성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국가재산과 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애쓰도록 할것을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우리에게 거대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된 오늘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되며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의 구체적표현이다. 근로자들과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나감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근로자들이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자기의 공장과 마을을 사랑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표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중히 다루도록 교양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대로 자기가 해놓은 일이 전체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 다 자기에게 한몫 차례진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 속에서 인민의 모든 재산을 자기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 공산주의사상이 나올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하여야 한다는것을 쉬운말로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자기의 공장과 마을을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표현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려는 계급적원쑤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데서 표현되는 동시에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하고 그것을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없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표현되여야 한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80페지).

사회주의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되고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인류력사상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 국가의 리익은 근본적으로 일치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은 사회를 위한것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가 다

근로자들의 소유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것이요, 국가와 사회의 번영을 위한것인 동시에 근로자들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것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지배한다.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보람있는 일터에서 서로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조국과 전체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배우고있으며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곧 근로자들에게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안겨준 당과 수령에게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은 나라의 모든 재부와 부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리용하는가에 중요하게 의존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증대시키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애호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것을 건설하였으며 조국의 강토를 더욱 아름답게, 풍요하게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모두다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것이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 철도, 차량, 항만, 선박, 관개시설들과 학교, 병원, 구락부, 공공건물, 주택 그리고 또한 농경지, 산림, 하천, 도로 등 모든것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47페지).

물질적부의 생산은 그에 소요되는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장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조건에서만 국가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실재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또한 생산된 재부를 가지고 축적과 소비, 국방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에 정확히 분배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모든 곳, 모든 주민들에게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며 물자들을 극력 절약하고 잘 보관하는것은 국가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뿐아니라 학교, 병원, 탁아소, 극장, 영화관, 구락부, 유원지 등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직접 이바지하는 공공건물과 시설 그리고 산림, 하천, 도로 등 모든것을 애호관리하며 더잘 꾸리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인민생활은 더욱 윤택하여지고 나라도 부강하여질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이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된다.

오늘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잡고있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로부터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

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의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그에 립각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나감으로써만 즉 이미 창조하여놓은 나라의 모든 재부와 자원,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함으로써만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거대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된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는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들의 헌신적로동에 의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농촌경리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가지게 되였다. 이미 마련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과거와는 비할바 없이 많은 공업제품과 농산물이 생산되고있다. 인구 1인당생산량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만일 우리가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도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로부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마련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을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오늘 생산장성과 인민생활의 향상에서 결정적예비가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문제에 의존되게 되였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와 나라의 모든 부원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력의 강화에 더 큰 힘을 돌리면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유지하여 7개년계획의 총적과업과 함께 중요고지들을 점령할수 있으며 부문별과제들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이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도 더욱 향상되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렬한 사랑의 표현으로 되는것이다.

* *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표현으로 되는만큼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진실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터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며 나무 한그루, 나사못 한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자원과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일이란 모든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한알의 쌀, 한그람의 칠을 아껴쓰는 평범하고도 단순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사업의 모든 단위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조사장악하고 타산하고 궁리하며 생산의 장성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가능성과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모든 사업을 다 포괄한다. 이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사업은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요구한다.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할수록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과 로동 과정에서 모든 물자들과 설비들을 극력 절약하여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많이, 더 값싸고 질기고 맵시있게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라면 힘든 일,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달라붙으며 헌신성과 창발력을 발휘하여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훌륭하게 수행해나갈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로동자들은 자기의 공장을 잘 꾸리며 거기에 있는 기계, 설비들을 잘 다루고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 애쓸것이며, 농민들은 농촌집도 깨끗이 짓고 지은 집을 잘 거두며 마을 뒤동산에 과실나무같은것도 많이 심고 물도랑도 째고 동둑도 쌓아 밭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등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알뜰히 거두고 더 잘 건설하겠는가 궁리하면서 일을 착실하게 해나갈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려는 사상을 가질 때야만 일군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헌신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오리의 실,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허실되는데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사소한 랑비현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투쟁할수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사업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근로자들과 일군들을 추동한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제기되는 중심문제들과 교양방도에 대하여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이 제시한 방침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실천적활동에 더욱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케 하며 바로 여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계획화수준을 높이고 자재, 설비,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생산보장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등 경제관리의 모든 측면들을 다 잘 풀어나가야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수 있다.

사실상 오늘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우리의 조건에서 생산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실속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방도는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관리운영사업을 잘한다고 하면 더 할수 있는 일이 많다. 기계와 공장면적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로동생산능률도 더 높일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더 빨리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더한층 높일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오늘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생산의 앙양을 위한 커다란 예비를 보고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일군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내고야마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방향, 해결하여야 할 과업,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명시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인 담보이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곧 우리 당의 정책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본질,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중을 그것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경제관리에서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고조를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또한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파악할 때야만 그 집행에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으며 모든 고리들을 다 풀어나갈수 있다.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조건과 온갖 예비와 가능성이 충분히 타산되고 현실적이고도 동원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것을 수행해나가는데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로 삼는것이 선차적의의를 가진다.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해나가며 무엇보다도 매개 사업단위의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제시된 과업들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필요하다. 오직 만난을 무릅쓰고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강한 혁명적기백, 혁명적기풍을 가질 때야만 일군들은 해당 사업단위의 살림살이를 더잘 실속있게 꾸려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에 실제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대안체계의 기본요구이다. 경제관리에서 항상 군중을 발동하고 군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며 객관적인 경제법칙들에 립각하여 생산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강화하고 설비, 자재, 로력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만 로동생산능률을 급속히 높이고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이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오늘 경제관리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발동시켜 경제관리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혁신이 일어날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현시기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첫시기부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로력과 물자, 자금을 극력 절약하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할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여왔으며 오늘 여기에 각별히 큰 주의를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돌린다면 물자, 로력, 자금을 절약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줄수 있는 예비

가 도처에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물자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강한 규률을 세우는 동시에 기술공정을 부단히 개선하고 새 기술과 선진작업방법을 널리 일반화하며 원료, 연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물자의 보관관리, 자재공급, 물자재산의 실사등록사업을 더 실속있게 하여야 하며 독립채산제와 내부채산제를 강화하고 경제적타산을 바로 하여 하나의 제품, 한채의 집이라도 더 많이, 똑똑하게, 쓸모있게 만들고 건설해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있는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로력을 절약하는 사람이 곧 당성이 강한 사람이며 국가사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37페지).

인민경제 각부문들에서 로력배치와 로력조직을 잘하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생산능률과 종업원 1인당생산액을 높이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것이 요구된다. 비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여 생산부문에 돌리며 보조생산부문의 로력을 줄여 기본생산부문의 로력과 직접공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그리고 체질, 년령 등에 알맞게 로력배치를 개선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480분로동시간을 충분히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촌로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있는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만 로동에서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일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술혁명—이것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4페지).

오늘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지금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원단위물자소비기준을 낮추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관리를 개선하며 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기술문제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특히 오늘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것이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이후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마지막 혁명임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로동자와 농민을 자

본가와 지주의 착취에서 해방할뿐아니라 힘든 로동에서도 해방하여야 한다. 우리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 정신로동과 육체로동,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기술혁명이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렇기때문에 일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이 로동자와 농민을 사랑하고 그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로동생산능률을 더 높이고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겠는가에 일상적인 주의를 돌리고 깊이 연구하며 당이 제시한 기술혁명의 구체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다.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현존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농촌에서 특히 화학화,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기술혁명의 모든 고리들을 틀어쥐고나가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대담하게 생산에 도입일반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재정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재정은 경제생활의 전반적형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따라서 그것은 나라살림살이의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제생활의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강한 재정적통제를 실시함으로써만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째여지게 할수 있다.

재정적통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데서 재정이 노는 역할을 옳게 인식하고 재정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재정통제에 철저히 복종하여야 한다.

* *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표시로 되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된다. 모든 근로자들과 일군들은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가및 사회 재산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며 도시와 농촌을 규모있게 건설하고 깨끗이 거두는 동시에 국가와 인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것이라면 크고 작은것을 가리지 말고 모두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쌀, 한치의 천, 한그람의 쇠, 한개의 벽돌,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매개 가정, 개인들이 조성된 정세와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의 요구에 맞게 검박하게 생활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자기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더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김 기 홍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조선문제》를 유엔에 비법적으로 상정시켜 토의케 한 협잡놀음을 벌리였다.

이것은 미제가 유엔의 간판밑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다.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는 책동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지난 8월 21일에 발표한 자기의 성명과 여러 문건들에서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끌고가는 비법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유엔을 계속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하려는 그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미제가 유엔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끌고가는 범죄행위를 치솟는 분노로 견결히 반대배격한다.

미제의 강요밑에 유엔에서 채택되는 어떠한 《결의》도 무효이며 조선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 *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마다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의정에 포함시켜 비법적인 토의를 거듭해왔다.

이것은 미제가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면서 저들의 범죄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음흉한 책동의 일환이다.

미제는 유엔을 조선침략의 도구로, 엄페물로 악용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유엔감시하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06페지).

미제는 지난 20년간 《조선문제》를 《년례행사》와 같이 유엔총회의정에 상정시키고 비법적인 토의를 거듭하였으며 저들이 꾸며낸 《결의》를 제멋대로 강제채택케 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유엔의 이름으로 가리여보려는 술책이다.

《조선문제》의 유엔상정놀음은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직접적산물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점차 재고됨에 따라 총칼의 위협으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는 한편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갖은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뿐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을 중요한 도구로, 엄폐물로 리용하였다.

지난 20년간 유엔이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여온 전과정은 이를 웅변적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초기부터 벌써 저들의 침략적범죄행위를 유엔의 간판으로 은폐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8.15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첫날부터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기지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미제는 우리 조국의 림시적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자주적통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지향을 란폭하게 유린하여나섰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지배의 도구로서 괴뢰정권을 총검으로 조작해냈다. 이에 앞서 미제는 1947년 9월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 벌써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시키고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침략도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였으며 그의 《감시》밑에 조선에서 이른바 《통일정부》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엔에서 미제가 제멋대로 꾸며낸 조선에 관한 유엔의 《결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응당한 배격을 받았다.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속에서는 거족적인 항거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났다.

《유엔조선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여 대규모적으로 완강하게 전개된 1948년 2.7구국투쟁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조선인민의 견결한 반대에 직면하여 조선에서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할수 없게 되자 미제는 황급히 1948년 2월 소위 《유엔소총회》라는것을 날조하고 남조선에서만이라도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할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할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를 발판으로 삼아 장차 전조선을 삼켜보려는 음흉한 책동이였다.

미국신문 《뉴욕 저널 앤드 아메리칸》지까지도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고 그의 감시밑에 《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목적이 《38도선이북에 놓여있는 절반을 될수있는대로 빨리 획득하려는 기도에 있어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될 남조선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썼다.

미제는 1948년 12월 유엔제3차총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승만괴뢰집단을 《정부》인듯이 묘사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총칼을 휘두르며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날조된 미제의 괴뢰정권을 《인정》한다는것은 천만부당한 노릇이다.

조선인민에게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수립한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해관계를 대표하는 진정한 합법적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는 여러 사회주의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적위신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으로 하여 비상히 제고되였다.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있는 미제의 주구집단인 남조선괴뢰정권을 유엔에서 《정부》인듯이

묘사케 한 미제의 책동은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전조선에 확대할 목적밑에 유엔의 간판을 들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1949년에 있은 제4차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의 토의를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38연선에서의 저들의 무장침공을 은폐하며 장차 전쟁확대를 위한 허위적인 구실을 마련하는데 리용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교활하고 음흉한 속심은 그들의 강요밑에 유엔에 제출된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보고》는 마치 남조선에서 《유엔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미군이 《철거》한듯이 묘사하였으며 38연선무장충돌이 공화국에 의하여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군사적충돌이 야기될 념려》가 있는듯이 사실을 전도하였다.

1950년 6월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저들의 죄행을 유엔의 간판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전쟁을 도발한 당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케 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정》을 강압통과시켰다. 뒤이어 6월 27일에는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이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할데 대한 《결정》을 비법적으로 《통과》시켰다.

미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불의의 침공을 감행케 한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1951년 6월 미상원세출위원회에서 있은 국무성예산에 관한 토의행정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이 일어나기전부터 유엔에 제출할 조선전쟁에 관한 《결의안》을 준비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으로 행세한 악명높은 살인두목 맥아더 역시 《미국군대는 유엔결정이 있기 12시간전에 행동하고있었다》고 실토한 사실은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꾸며낸 《결정》이 허위날조이라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조선에서 정전이 성립된이후에도 미제는 유엔의 간판을 방패로 삼아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유엔《결정》에 빙자하고있다.

원래 유엔이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관한 《결정》을 조작해낸 사실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오늘 남조선강점 소위 《유엔군》은 실제상 유엔의 탈을 쓴 미제침략군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관한 유엔《결의》를 구실로 삼아 조선의 통일을 방해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술책도 파산된지 오래다. 남조선에서 실시된 소위 《유엔감시하의 선거》라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책동에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미화분식하는것을 전업으로 삼고있다. 그것은 조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미제의 주구들을 극력 비호해줌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의 침략정책을 유엔의 보자기로 가리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조선과 아세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데 박차를 가해온 침략도구에 불과하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허위적정체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그가 《대의제정치》라고 극구 찬양하던 리승만괴뢰정권은 1960년 4월 남조선인

민들의 대중적봉기에 의하여 타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유엔《결정》에 빙자하여 장면《정권》을 조작해내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그를 《대의제정부》라고 찬양하였으며 군사정변으로 조작된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정권에 대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현》인듯이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지난 5월과 6월에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이 총칼을 휘두르며 류례없는 사기와 협잡으로 감행한 괴뢰대통령선거 및 괴뢰국회의원선거를 《유엔감시》하에 《평온》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선거》인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이 《부정선거의 무효화》를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항쟁에 궐기한 사실만 들어도 놈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가를 알수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유엔의 간판을 들고 떠들어대는 소위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한 통일》이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며 남조선에서의 저들의 침략정책을 은폐하려는 위선적구호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 국제적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해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유엔에서도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유엔을 통하여 감행하려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음모를 견결히 규탄하여 나서고있다.

이번 유엔총회 제22차회의에서 사회주의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대표들은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과 기타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회의에 무조건 초청할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처럼 궁지에 빠져들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제22차회의에서 온갖 비법적인 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이 남조선에서 허물어져가는 식민지통치를 수습하며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는 새전쟁도발책동과 군사파쑈통치를 어떻게 해서나 은폐하려는 음흉한 시도이다.

* *

조선문제는 그 누구의 간섭없이 응당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으며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이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져다 줄수 없다**》(우와 같은 책, 106폐지).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당당한 민족적권리이다.

어떠한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내부문제는 응당 자신의 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이에 간섭할수 없다. 민족자결권은 모든 민족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오늘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우리 나라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통일하는 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분쟁이나 다른 민족간의 관계문제가 아니라 이 강토에서 살고있는 주인이며 단일한 민족인 우리 조선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조선인민이 자기 민족내부의 문제를 자기자신의 의사대로 해결하는것은 응당한 일로서 이에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간섭할수 없다.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는 유엔헌장에 비추어보아도 비법적이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임의의 나라, 임의의 민족내정문제에 유엔이 간섭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할것을 강조하고있다. 나라들간의 호상평등, 존중, 내정불간섭 등은 공인된 국제법의 일반적규범과 국제관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유엔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끌고가는것은 조선인민의 자주권에 대한 강도적침해행위이며 유엔헌장을 공공연히 짓밟는 엄중한 범죄적책동이다.

더우기 미제에 의하여 유엔은 조선전쟁에서 교전일방으로 전락됨으로써 조선문제에 관여할 도의적권위마저 상실하였다.

조선인민은 처음부터 《조선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것을 견결히 반대규탄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국가인민들도 유엔에서의 비법적인 《조선문제》토의를 반대하였다.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의 비법성은 미제가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를 방해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일단 토의되는이상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가 참가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많은 유엔성원국들도 이것을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미제가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참가를 방해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저지르고있는 저들의 침략적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여 보려는것이다.

조국의 통일문제를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통일문제를 가장 옳게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족적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어떤 민족의 내부문제도 공명정대하게 해결할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도 례외로 될수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의 정당한 해결여부는 전적으로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와 민족적리익에 부합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성을 떠난 통일문제의 정당한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부합되게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원칙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의 원칙이 준수되여야만 통일문제는 정당하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더구나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미제에 의하여 강점된 남조선을 해방하고 일시적으로 분렬된 국토와 민족을 다시 통일하는 정의의 위업인것만큼 응당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모든 사실은 문제의 성격 그리고 국제법의 규범에 비추어 유엔이나 그 어떠한 외부세력도 조선문제에 간섭할수

없으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만 해결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속히 몰아내며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는것이다.

미군은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없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계속 침략무력을 강화하면서 전쟁준비와 군사적도발행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력사상 타국령토를 강점한 침략군대가 억압과 략탈, 도발과 분규의 화근으로 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미제침략군은 온갖 죄악의 보따리를 걸머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유엔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는 《조선문제》토의를 걷어치우며 비법적으로 조작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함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중요한 장애의 하나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매년 흑백을 뒤집어놓은 《년례보고》를 유엔총회에 내놓으며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은폐하고있는 침략도구이다.

《유엔군》의 간판을 단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 동시에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지체없이 해체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능히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께서 지도하는 불패의 맑스-레닌주의당이 있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통일단결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강철의 혁명적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가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이 있다.

남조선에서도 혁명력량은 장성강화되고있다.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들이 자라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적영향과 미제강점하 20여년간에 걸친 생활체험에 의하여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주통일만이 진정한 출로임을 깨닫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 속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이 단합하여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청산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능히 달성할수 있다.

나라의 자주적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결의는 확고부동하며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기어코 우리 세대에 미제를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며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주제

장 형 준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사상을 구현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문학예술앞에 제기되고있는 가장 중요한 당적요구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은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다. 이것은 당규약에 명백히 씌여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의 이 혁명임무에서 결코 물러설수 없다》(《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임무》, 44페지).

오늘 전체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물질적 준비를 더욱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적작품, 혁명적대작의 창작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의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며 그들이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숭고한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에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는 혁명사상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의 주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이 참가한 문자 그대로 전인민적전쟁이였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다. 문학예술인들은 이런 투쟁을 그린 작품들을 내놓아야 한다》 (우와 같은 책, 39~40페지).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는 투쟁이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고 공화국의 기치밑에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승리는 우리 인민이 장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주체적립장으로 무장된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쟁취한 빛나는 승리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표현한 문학예술작품은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근로자들을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준엄한 전쟁시기에 오직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용감하게 싸워이긴 우리 인민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본받게 하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한다.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또한 근로자들에게 전쟁의 경험을 체득시키고 그들을 계급적원쑤에 대한 증오와 반제반미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기여한다.

지난 3년간의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원쑤들을 타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쟁의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전쟁승리의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로정을 반영하면서 우리 인민이 쌓은 전쟁의 경험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당과 수령의 령도하에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경험을 형상화한 문학예술작품은 남조선인민들을 위해서도 거대한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작품은 남조선인민들에게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무한한 긍지와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전체 조선인민이 통일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한다.

* *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전쟁의 력사적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 우리 인민의 힘의 원천을 예술적으로 천명하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은것은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전과정에 걸쳐 우리 인민에게 정확한 투쟁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심오하게 형상화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주제분야에서 그러한바와 같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적과정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전쟁승리의 조직자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우선 중요한것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 그의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을 우리 인민의 결정적인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일층 강화하고 당주위에 전체 인민을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온나라를 급속히 전시태세로 개편하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으로 확고히 무장하게 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령의 부름을 따라 침략자를 격멸하는 영웅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에서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적을 타승하기 위한 천재적인 전략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인민군대의 전투승리를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반공격에로 넘어간지 불과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2개월동안에 남조선전역의 90% 이상을 해방하였다. 전략적후퇴시기에는 그이의 정확한 방침에 따라 침입해오는 적의 주력을 완강하게 견제하는 한편 대부대에 의한 적후투쟁을 전개하여 적의 기도를 완전히 분쇄하였으며 재진공후에는 적극적인 진지방어로 이전한데 대한 그이의 현명한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대대적으로 증강한 무력으로 계속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확한 전략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시는것과 함께 인민군대로 하여금 새롭고 독창적인 전투형식과 방법들을 발기하여 능숙하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항상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게 하시였다.

실로 3년간의 전쟁행정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이룩한 모든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탁월한 군사작전과 령군술을 떠나서는 생

각할수 없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침략자를 무찌르는 성전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변혁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은 담보로 되였다.

그러므로 전쟁승리를 위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깊이있게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민주기지로선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옳게 반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이미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침략기도를 간파하시고 조선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예견하시였으며 그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에 혁명의 주체적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축성하도록 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육성하시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였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원쑤들의 불의의 침공에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즉시 항전에 궐기하였고 3년간의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줄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그리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주기지로선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은 생활의 응당한 요구이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풍모를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간고한 전시환경에서도 인민들과 인민군대들의 생활을 극진히 돌보아주신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그이의 고매한 덕성을 심오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를 조직지도하시는 그 분망하신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 속에 계시였으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다. 그이는 인민들의 살림과 전사들의 잠자리에 대해서까지 세심한 배려를 돌리시였으며 포화속에서 전후의 복구건설을 설계하심으로써 인민들과 전사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고무하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배려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하게 실시된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들로 구현되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심오하게 형상화하면서 그이의 인민적인 령도작풍과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속에 깃들어있는 그이의 어버이심정을 그려야 한다.

오직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풍모를 심오히 형상화할 때만이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발휘한 애국적헌신성과 영웅성의 원천을 옳게 밝힐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강대한 적을 반대하는 힘겨운 전쟁에서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을 원쑤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3페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발휘한 숭고한 애국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는 당과 수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무한한 충성에 기초한것이였으며 해방후 당과 수령께서 마련해주신 새로운 제도하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확고히 형성된 계급적 및 민족적 자각에 의한것이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가장 엄혹한 순간에도 수령의 영상을 가슴에 지니고 그이께 맹세를 다지면서 돌격전에 나아갔으며, 승리한 고지마다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퍼지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그이의 전사된 드높은 긍지를 자랑차게 묘사하고 노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진격에 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기반에서 새로 해방된 남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정권을 복구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새제도, 새생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수령의 따뜻한 손길에 접할수 있었던 남조선인민들은 수령을 무한히 흠모하고 그이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으며 그리하여 더 큰 힘과 신심을 가지고 반미구국투쟁의 길에 떨쳐나섰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의 지향은 우리 당과 수령에 대한 깊은 존경과 흠모, 그이의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과 련결되여있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해방되였던 남반부지역의 새생활과 그곳에 뿌려진 혁명의 씨앗, 그곳 인민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에 퍼진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해방전쟁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전쟁승리의 조직자이시며 지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한 풍모와 탁월한 령도를 훌륭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무한한 충성심으로 그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의 전체 인민은 당과 수령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한사람같이 궐기하여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영웅적성격의 창조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바쳐싸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과 그들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마련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위업을 이어받고 그들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싸움으로써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요구의 하나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으로 옳게 형상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바로 이 항일무장투쟁의 애국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 혁명적애국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군은 항일유격투쟁의 계승자이다》(《김일성선집》, 제5권, 309페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혁명투사들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하에 우리 인민군대가 창건되고 강화발전되는데서 골간으로 되였으며 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작전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에서 핵심적역할을 놀았다.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해방전쟁을 그리는 작품들에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투사들의 이와 같은 투쟁과 견결한 혁명정신,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훌륭히 형상화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를 항일유격투쟁의 계승자라고 하는 리유는 비단 항일유격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규군을 조직하던 그 당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항일유격대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일제를 반대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을 인민군대가 계승하였다는데 있다》(《김일성선집》, 제5권, 309～310페지).

그러므로 인민군대를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 옳게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그가 계승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잘 묘사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3년간의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우리의 혁명대오는 비상히 확대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선두에 모신 우리의 혁명대오에는 항일유격투쟁에서 단련된 로혁명간부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수천수만의 새로운 투사들이 서있다.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은 로혁명투사들과 함께 전쟁과정에서 새로 자라난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계승한 혁명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계승자로 형상화하며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현실을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사실과 결부시켜 묘사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인민군대의 뿌리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로서의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군대를 항일유격대의 계승자로 형상화하는것은 혁명군대로서의 그의 특성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형상화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 등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의 특성이며 우월성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57페지).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그처럼 영웅적으로 싸워이길수 있은것은 그들이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품성을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보위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대중적영웅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조국보위와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에 대한 인민군대의 자각과 영웅적투쟁을 훌륭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극적인 투쟁정황과 계기에서 형상화하는것이 필요하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전투의 주도권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과 령도로 하여 항시 우리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으며 인민군대는 언제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전투로 적을 족쳤다. 완강한 진지방어전도 적들에게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적극적인 투쟁형태였다. 그러므로 인민군대의 전투적특질은 적극적인 정황에서 보다 뚜렷하게 밝혀질수 있는것이다.

전쟁의 간고성을 보여주면서도 투쟁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어야만 조국해방전쟁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계속혁명의 사상과 반미투쟁의 혁명적기백으로 교양하는데 훌륭히 기여하게 된다.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인민군대의 고상한 풍모와 일당백의 투지는 전투행동이나 전투정황에서 주로 발현되는 것만큼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전투에 대한 묘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전투를 그리되 중요한것은 영웅적행동을 통해서 발현되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주인공의 생활을 전투일면만으로 묘사하거나 전투행동을 외형적으로 묘사하는것으로써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잘 이바지할수 없다. 왜냐 하면 형상의 교양적의의는 무엇보다도 그의 사상적특질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인민군대의 무비의 영웅주의는 당과 수령의 령도하에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새로운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것이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높은 계급적자각에 기초한것이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영웅—전사들의 계급적바탕, 해방후의 행복한 생활체험에 기초한 계급적지향과 감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영웅—전사의 형상에서 인민군대로서의 특징이 로동자 혹은 농민으로서의 계급적특질과 유기적으로 결합될것을 요구한다. 사회계급적바탕이 진실하게 밝히지지 않을때 영웅적성격은 추상성, 우연성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영웅적성격의 사회계급적본질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밀접히 결부하여 묘사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성격에 비추어 특히 절실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투쟁은 한편으로는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반제국주의적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다른편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로, 그의 주구로 되여있는 민족반역자들,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도당인 리승만역도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호하며 그 기치밑에 국토를 완정할 임무를 가진 전인민적민주주의혁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68페지).

우리 문학예술은 영웅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자기 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결합시키고 계급적원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민족의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밀접히 결부시켜 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문학예술은 민족적, 계급적 원쑤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에서 미증유의 영웅주의를 발휘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의 확고한 계급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옳게 보여줄수 있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사수하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가 이룩한 전투위훈을 후방인민들의 투쟁과의 련관속에서 묘사하여야 하며 후방인민들의 투쟁도 더 많이 형상화하여야 한다.

전선에서의 인민군대의 승리는 후방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전시생산에서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한 로동자와 농민들,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들을 대신하여 일터에 나선 녀성들과 로인들—그야말로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섰다.

후방인민들은 일시적후퇴의 간고한 시기에도 항일유격대의 전통을 본받아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도처에서 적을 무찔렀다.

인민군대의 투쟁을 그리는데 있어서나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그리는데 있어서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혈연적련계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군대의 사명과 혁명정신, 군대를 자기의 아들딸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지성과 적

극적인 지원을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인민군대와 근로자들을 군민일치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군대와 인민이 혁명동지로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는데 훌륭히 기여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형상을 창조하는것과 함께 적의 추악한 계급적본성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교활할뿐아니라 가장 포악하고 가장 추악한 침대의 야만으로 행동한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놈들의 정체를 전세계 인민들앞에 철저히 폭로하며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본성, 20세기의 야만으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였다.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그 계급적바탕을 까밝히면서 그들의 야수성,포악성과 교활성,부패성과 취약성을 날날이 폭로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해방전쟁을 그리면서 또한 그 국제적의의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미제를 타승하는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무적이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확신시겼으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줄기찬 앙양에 기여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그 력사상 처음으로 당한 참패는 그의 내리막길의 시초로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은 미제를 타승한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세계혁명의 발전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국제적련대성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혁명력량과 단결하여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는것은 조국통일의 실현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의 국제적의의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근로자들을 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은 그 위대한 승리와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주제를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에서 항구적이며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아직도 미제가 우리의 코앞에 있고 조국통일의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조건하에서 조국해방전쟁주제의 현실적의의는 매우 크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주제가 가지는 력사적 및 현실적 의의를 옳게 인식함으로써 이 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들을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필승불패이다

리 을

오늘 세계인민들의 이목이 웰남에 집중되고있다. 바로 여기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이 대결하고있다. 이 치렬한 투쟁속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영웅적웰남인민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안겨주고있다. 웰남인민은 온갖 희생과 난관을 무릅쓰고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자기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한 위업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결의를 가지고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인민은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과 그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승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인민들을 고무하고있다.

＊　　＊

웰남인민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은 여러해 동안 계속되고있다.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의 전과정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련속적인 패배의 과정이였으며 웰남인민의 빛나는 승리의 나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우와 같은 문헌).

웰남인민은 자기의 피어린 투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패배를 줌으로써 그들을 군사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웰남인민은 미제의 《특수전쟁》전략을 완전히 분쇄하였으며 지금 미제의 《국부전쟁》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있다.

1954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쫓겨난 후 그들을 대신하여 남부웰남에 기여든 미제는 《특수전쟁》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급격히 장성강화된 혁명력량을 말살하고 남부웰남을 저들의 《안정된》 식민지로 만들려 하였으며 동남아세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막으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특수전쟁》전략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주위에 튼튼히 뭉쳐 일떠선 남부웰남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원쑤들의 전례없는 공포정책과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이 감행되는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부웰남인민들의 투쟁은 물론 간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영웅적남부웰남인민과 무장력은 적들의 악랄한 공세에 대처하여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능숙하게 결합함으로써 무장장비에

서 우세한 적들을 항상 피동에 빠지게 하였고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게 하였다. 인민무장력은 적들에게서 각종 무기들을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고 적들의 약점, 모든 자연지리적조건과 풍토조건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군사작전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지도하에 남부웰남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적들의 온갖 전략과 전술을 좌절시킴으로써 마침내 미제의 《특수전쟁》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특수전쟁》을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인민들의 각성은 비상히 높아지고 인민무장력량은 급속히 장성강화되였다. 남부웰남인민과 무장력량은 고도의 애국주의와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전투에서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원쑤들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걸음마다 파탄시켰다. 미제의 《특수전쟁》전략을 분쇄하는 투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전략촌》은 그들을 반대하는 전투촌으로 전변되였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이 통제하는 해방지역은 더욱 확대되였다. 해방지역에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제반민주주의적시책들이 실시되여 인민들은 새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미제의 《특수전쟁》의 파탄은 영웅적 남부웰남인민들이 원쑤들의 어떤 책동도 능히 격파하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으며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은 패배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특수전쟁》을 완전히 파탄시킨 남부웰남인민은 그후 두차례의 《건조기공세》를 분쇄함으로써 미제의 《국부전쟁》에서의 첫기도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특수전쟁》에서 패배한 미제는 남부웰남에 자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파하는 한편 추종국가무력을 더 많이 끌어들이면서 전쟁을 가일층 확대하는데로 나아갔다. 이렇게 하여 미제는 《특수전쟁》에서 당한 패배를 《계단식확대전략》으로 만회하며 웰남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는 사태를 전변시켜보려고 타산하였다. 1965~1966년 《제1차건조기공세》와 1966~1967년 《제2차건조기공세》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제의 제1차 및 제2차 《건조기공세》는 그 병력수와 군사장비, 작전의 규모에 있어서 실로 웰남전쟁이래의 가장 큰 두차례의 《공세》였다. 미제는 《제1차건조기공세》에 20만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괴뢰군 및 추종국가군대 병력까지 70만의 병력과 방대한 군사기재를 동원하였으며 《제2차건조기공세》에는 그 보다 2배이상이나 되는 41만명의 미군을 포함한 무려 100여만의 병력과 군사기재를 동원하여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파괴하는》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자기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남쪽과 메콩강 3각주 및 그 중간지역에서 남부웰남인민해방군에 대한 《탐색소탕작전》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평정계획》을 발광적으로 진행하였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남부웰남인민해방군의 보급원천을 끊으며 그들을 《봉쇄》하여 인민해방군의 주력을 소멸하고 저들의 강점지역을 확대하려고 획책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남부웰남인민과 인민해방군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강력한 반공격을 가하여 미제의 《공세》를 분쇄하고 그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패배를 주었다.

남부웰남인민과 인민해방군은 《제1차건조기공세》에서 4만 3,000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11만 4,000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1,440대의 적비행기를 격추 및 파괴하였으며 《제2차건조기공세》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8만 5,000명의 미군

을 포함한 17만 5,000여명의 적군을 소멸하고 1,800여대의 적비행기를 격추 및 파괴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부웰남인민해방군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장성하였다. 오늘 인민해방군대렬은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강력한 무장력량으로 장성하였고 마음만 먹으면 적들의 어떤 지점과 군사기지도 임의의 순간에 타격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 미국 부르죠아출판물까지 남부웰남인민해방군의 무력은 《남부웰남에 있는 모든 미군사시설들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부웰남무장력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령도하에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에 적응한 창조적인 전략전술에 확고히 기초하여 정규군과 유격대 및 지방군의 협동작전을 능숙하게 배합하고 다양한 투쟁형태와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적들을 항상 수세에 몰아넣고있다.

남부웰남인민해방군은 지금 모든 전선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있으며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의 거의 모든 지역에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남부웰남령토의 5분의 4와 1천만의 인구를 포괄한 해방지역을 확고히 고수하고있으며 그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와 반대로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남부웰남에서 일부 해안선과 도시에 집중되고있으며 남부웰남인민해방군의 부단한 기습작전으로 하여 마음대로 기동하지 못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두차례의 《건조기공세》의 파탄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와 군대를 웰남에 끌어들이고 그 어떤 전략과 전술을 적용한다 하여도 웰남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웰남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 웰남에서 발광적으로 진행하고있는 《국부전쟁》이 완전히 파탄되는것은 시간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부웰남인민들과 함께 북부웰남인민들도 미제의 파괴전쟁을 분쇄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있다.

남부웰남에서 거듭 패배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미제는 민주웰남에 대하여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을 감행함으로써 웰남인민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항전을 좌절시켜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야수적만행으로써도 결코 웰남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는것이다.

《웰남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분쇄하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줌으로써 미제를 곤궁에 몰아넣고있다》(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1페지).

호지명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웰남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친 민주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분쇄하는 싸움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웰남인민군대와 인민은 2,500여대의 미국비행기를 쏘아 떨굼으로써 미제의 《공중우세》의 신화를 산산이 깨여버리고있다. 그리하여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하늘과 바다의 그 어느곳으로 기여들어도 웰남인민군대와 인민의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고있다.

웰남인민은 전쟁마당에서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미제의 음흉한 《평화협상》의 기만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있다. 웰남인민은 전쟁

확대의 책임을 웰남인민에게 들씌우려는 미제의 《평화협상》의 기만적본질을 세계 인민들 앞에 철저히 폭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사기적방법으로도 웰남인민의 견결한 투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웰남전쟁의 진행정은 웰남인민은 싸우면싸울수록 강해지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싸우면싸울수록 약화되고있으며 그 어떤 책동으로도 정의의 위업에 한사람같이 궐기하여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웰남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 *

웰남전쟁은 조선전쟁이후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가장 야만적이며 횡포한 침략전쟁이다.

웰남인민이 세계반동의 지주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는것은 웰남인민의 높은 애국주의정신과 영웅주의, 통일단결된 힘에 있다.

웰남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나라에 대한 부정의의 침략전쟁이며 웰남인민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해방전쟁이다. 전쟁의 이러한 성격으로 하여 이 전쟁에는 전체 웰남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고있으며 그들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과 지난 모든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는 결국 전쟁마당에서 피흘려 싸우는 인민대중들의 정신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민대중이 자기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 나선다면 어떠한 침략세력도 격파할수 있는 무비의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웰남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온갖 곤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고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구한 기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였으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패배시킨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 웰남인민은 반미구국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적인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을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장간섭의 초기까지만 하여도 남부웰남인민에게는 실로 빈주먹밖에 없었다. 남부웰남인민은 오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였으며 다종다양한 투쟁형태를 창조하면서 싸워나갔다.

자기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투쟁결의, 이것으로 하여 웰남인민은 온갖 희생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반미구국투쟁에서 웰남인민이 달성하고있는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자기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정의의 위업의 실현에 한사람같이 궐기한 이러한 인민을 굴복시킬수 있는 힘은 없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확한 방침과 지도는 남부웰남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로 된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확한 방침과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부웰남인

민은 미제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우선 남부웰남인민에게 정확한 투쟁강령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남부웰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켰으며 그들을 반미구국항전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지배를 타도하고 남부웰남에서 독립, 민주주의, 평화 및 중립을 실현하며 나라의 종국적인 평화통일을 자기의 투쟁목표로 제시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이 강령의 기치하에 남부웰남의 각계각층인민들과 진보적 정당 및 사회단체 등 광범한 애국력량들과의 민족적동맹을 이룩하고 그들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전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은 오늘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게 더욱 풍부화시킨 새 강령에 기초하여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이며 평화롭고 중립적이며 번영하는 남부웰남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부웰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자기의 주위에 더욱 집결시키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고있다.

또한 웰남민주공화국인민들은 호지명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웰남로동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미제의 폭격과 포격이 부단히 강화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과 전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제의 파괴전쟁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있다.

웰남로동당은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생산과 전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북부웰남을 보위하고 남부웰남동포들의 해방투쟁을 전심전력으로 지지원조하자》는 구호를 제기하고 민주웰남의 모든 활동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인민들을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로 조직동원하고있다.

오늘 북부웰남 전체 인민은 《세가지 태세 갖추기 운동》, 《한사람이 두사람몫 담당수행하기 운동》, 《한손에는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한손에는 보습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쥐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면서 언제어디서나 원쑤들을 쳐물리칠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다. 민주웰남인민들은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모든 단위, 모든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증산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민주웰남을 자기 조국의 통일을 위한 튼튼한 혁명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

웰남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웰남인민은 자기위업의 정당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시위와 집회, 의연금모집, 호소문과 성명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고있다. 웰남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원조는 미제의 고립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고있다.

* *

오늘 웰남인민은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반미구국투쟁에 나선 웰남인민의 투쟁결의는 확고하며 전반적인 정세도 웰남인민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영웅적웰남인민은 비록 10년이건 20년이건 그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린다해도,

또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친다하더라도 미제침략자들을 웰남땅에서 몰아낼 때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고있다.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의연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웰남에서 거듭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추악한 목적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전쟁의 계단식확대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방대한 병력과 수많은 비행기, 군함을 비롯한 잔인한 전쟁수단을 동원하여 남부웰남에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계속 발광적으로 확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제3차건조기공세》를 벌릴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17도선부근에 미군보병과 기갑부대및해병대를 대량 집결시키면서 북부웰남에 진격해들어갈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하여 웰남전쟁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으며 웰남의 정세는 더욱더 긴장되고있다.

웰남에 조성된 정세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이 싸우는 웰남인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응당 힘을 합쳐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여야 할것이며 공동으로 미제의 웰남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이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비단 웰남인민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사회주의국가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반제력량은 힘을 합쳐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결된 힘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전쟁의 요구에 상응하게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확대하여나간다면 웰남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가일층 촉진될것이며 웰남인민은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조선인민은 항상 웰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왔으며 또 지지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공동의 적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자기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이 미제침략자를 완전히 타승할 때까지 그와 굳게 손잡고 견결히 싸울것이며 모든 힘을 다하여 형제적웰남인민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이다.

웰남문제의 유일하게 정당한 해결방도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4개항목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5개항목성명이다.

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

과 포격을 무조건 즉시 영원히 중지하며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침략군과 고용병 및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웰남에서 직면하고있는 저들의 위기를 모면할수 없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면서 더욱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강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취약성을 말해준다. 미제는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 조선전쟁의 과정이 이것을 보여주었으며 꾸바혁명의 승리가 이것을 증명하였다. 오늘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도 이 진리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증해주고있다.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자기의 정당한 위업으로 하여 전세계인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있는 웰남인민은 반드시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며 자기의 범죄적인 침략행위로 하여 전세계인민들의 증오와 항의를 받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종국적으로 패배하고야 말것이다.

근 로 자 제 10 호 (루계 308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 소•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67년 10월 25일　　발 행•1967년 10월 30일

ㄱ—73373　　값 50전

Georgia workers

117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 (309)

차 례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갔다.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로씨야 로동계급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로동자, 농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은 인류해방의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근본적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전세계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멸망의 선고였다.

10월의 혁명적기치는 전세계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었으며 그들을 자유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때로부터 지난 50년간 자본주의억압을 반대하는 전세계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지구상에는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났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쏘련인민은 제국주의 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격파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쏘련인민은 자본주의포위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쏘련군대와 인민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독일과 군국주의일본을 격멸함으로써 자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쏘련인민은 혁명이후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뒤떨어졌던 자기 조국을 세계 1등급의 공업과 과학기술을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오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0월혁명의 기치는 오늘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높이 휘날리고있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강력한 세계적체계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기치는 아세아와 구라파의 여러나라에서뿐만아니라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바로 눈앞에 있는 꾸바에서도 휘날리고있다.

사회주의력량은 10월혁명후 전세계로동계급과 진보적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적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키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력량은 제국주의세력을 압도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사상과 사회

Digitized by Google

주의의 견인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10월혁명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였다.

10월혁명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을 각성시켰으며 그들을 세계혁명의 전반적흐름에 합류시켰다.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제국주의략탈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거대한 혁명적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며 세계평화의 강유력한 요인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7페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에 강력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그의 멸망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 어떠한 힘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각성된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사회주의력량의 장성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제국주의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자들의 혁명투쟁이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나라들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10월혁명후 지난 50년간의 전행정은 자본주의의 멸망은 불가피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 *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우리 나라의 혁명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씨아의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오래동안 봉건적압박과 일제의 강점을 반대하여 싸우던 우리 인민은 10월혁명의 승리에서 강력한 충격과 고무를 받았으며 비로소 정확한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3~4페지).

10월혁명의 영향하에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사상은 대중속에 급속히 전파되여 로동자, 농민, 선진적인테리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각성시켰으며 점차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의 기초로 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는 맑스-레닌주의를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현실과 결부시키셨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셨으며 위대한 혁명적 새시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이 땅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압박없고 착취없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15성상에 걸쳐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령도하심으로써 원쑤에게 짓밟혀 원한에 사무쳤던 이 땅에 해방의 서광을 비쳐주시였으며 조선인민이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반일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영예를 고수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온세상에 과시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우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닦아졌으며 인민정권과 혁명무력건설, 통일전선운동을 비롯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경험이 창조되고 귀중한 업적들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

조선혁명의 이 깊은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해방후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 땅우에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여놓았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자주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새사회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물리치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해방직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국이 량단되고 우리 혁명이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조건에서 조선혁명발전의 전망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가장 현명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그것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려는 철저한 반제반미로선이며 자기 조국의 운명과 그 장래를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타개하여나아가는 자주적인 혁명로선이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어려운 국면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설하시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극히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심으로써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려놓으시였다.

그후의 모든 사태발전은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을 제때에 제시하시고 관철시킨 김일성동지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

다. 우리 인민은 3년간의 가렬한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5년밖에 안되는 조선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전세계를 진감시킨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것은 오직 항일무장투쟁시기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일제의 대병력을 족치고 백전백승하신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능하였다.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 확고한 주체사상,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에 대한 우리의 불패의 혁명무력의 승리였다.

전후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결실이다.

김일성동지는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다 파괴된 페허우에서 가장 짧은 기간내에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고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공업과 농업을 가진 힘있는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제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면서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였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을 작성하고 관철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가장 훌륭한 길을 보여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해결하였다.

우리 인민은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나라의 독립과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어떤 사태하에서도 고뗘없이 제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여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만단의 준비를 가지고 대처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놓을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건을 진행할수 없었을것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계설비들과 인민생활필수품도 충족시킬수 없었을것이며 인민군대를 현대화하고 전국을 요새화하는 사업도 할수 없었을것이다.

오늘의 복잡한 내외정세는 우리 당과 인민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

한 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관철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이 얼마나 정당하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기초하여 전후 우리 농촌의 현실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수행할데 대한 창조적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불과 4～5년동안에 완성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현실이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숙된 요구로 제기하고 그것을 능히 담당할 혁명력량이 있는 조건에서는 기술개조에 앞서 협동화를 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행정에서 제기되는일련의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전진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후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게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강화하며 대중의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공업과 농업에 대한 관리에 적용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며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모두다 서로 돕고 힘을 합쳐 경제를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인민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공산주의적내용을 담은 선진적인 경제관리지도체계이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길을 처음으로 천재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에 끌어올릴것을 제시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농업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일신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를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사회 발전의 기본동력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원칙적인 문제와 그 구체적방도를 처음으로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면서 계급투쟁을 능숙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각계각층군중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극소수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면서 절대다수의 군중들을 당주위에 집결시키는 방침을 취하고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사회,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준 창조적인 사상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고 그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면서 농민과 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구현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은 더욱 높아지고 농민과 인테리들의 혁명적 사상의식이 더욱 제고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정치사상적으로 일층 강화되고있다.

또한 김일성동지는 제국주의와 대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현력사적환경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창조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4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로선은 제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현시대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은 매시기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적절히 배합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을 관철하여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설사 원쑤들이 덤비든다하더라도 그를 일격에 물리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놓았으며 또한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천명된 이 모든 문제들은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점차 공산주의에로 이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힌것으로서 우리 당과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무기로 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 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업적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구현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제시하고 모든 문제를 공산주의위업의 근본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동원하여 그를 철저히 관철시키시였다.

경험은 오직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가는 혁명적립장에 확고히 설 때에만 인민의 위대한 힘과 나라의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원쑤들의 이떠한 침략책동도 물리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조선혁명의 한부분으로 인정하고 북반부에서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여왔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부단히 전진시키고 혁명기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8～29페지).

김일성동지는 남조선혁명의 주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의 임무와 전략전술적방침, 매시기 투쟁과업을 명확히 제시하시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군사파쑈통치가 일층 강화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

하여 남조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길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방침은 남반부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에로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루어진 제반성과에서 자유와 행복과 새생활을 위한 투쟁의 신심을 얻고있으며 거기에서 광명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일제의 재침책동을 분쇄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으며 자기들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인 방법에로 발전시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는 김일성동지를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무한히 흠모하고있으며 오직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방침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조국통일의 위업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이며 남조선인민도 북반부인민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국제주의적의무라고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실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할데 대한 원칙적인 방침과 반제반미투쟁로선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과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리론적 및 실천적 활동에서의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기여와 높은 권위로 하여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그이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보면서 무한히 존경하고있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제반미투쟁방침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을 단호히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백방으로 지원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며 이 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

는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꾸바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않고있거나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지않고있는 나라가 없다》(《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힘을 합쳐 그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매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국제혁명운동발전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립장에서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진행하여왔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 ⁂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0월이 개척한 혁명의 길을 따라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며 이미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에게는 무거운 혁명임무가 부과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는 이러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전체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으며 전국이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니만큼 우리에게는 오직 혁명을 하는 과업만이 있다.

혁명을 하자고 하면 우선 우리들자신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또한 전체 인민들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단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혁명을 할수 없다》.

우리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욱 긴장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앞에 나선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함으로써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당과 수령의 가르침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할수 있으며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하고 령도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항일유격대의 투쟁정신과 방법과 작풍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며 당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더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사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모든 부문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도입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나아가야 한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관철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더욱 강화하며 전체 인민이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철저한 반제반미투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며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좌우경기회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혁명의 력사적위업은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며 맑스—레닌주의는 전조선땅에서 반드시 구현될것이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

최 원 근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유격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키우시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 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유격대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킴이 없이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항일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일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가 되여야 하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간부들은 전투도 잘 지휘하여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원들의 정치교양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하며 자신을 맑스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은 간고하고 복잡하다. 혁명투쟁에서는 원쑤들의 발악적책동과 준엄한 시련,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고귀한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혁명은 그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혁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각성과 의식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혁명대오는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만일 사람들의 혁명적각오가 부족하면 곤난앞에서 동요하고 주저할수 있으며 투쟁의 길에서 리탈할수도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각오—이것은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류례없이 간고하였던만큼 유격대원들을 높은 혁명의식과 자각성으로 무장시키는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정예》를 자랑한 일본침략군을 상대로 15성상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항일유격대는 혁명적인민의 지지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맨주먹으로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무기와 탄약, 피복과 식량 등 필요한 모든것을 원쑤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자체로 해결하면서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전투를 하여야 하였다.

대원들의 혁명적자오를 높이지 않고서는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할수 없었으며 혁명대오를 정치적으로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강화할수도 없었다.

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은 또한 항일유격대의 사명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유격대는 철저한 혁명군대로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달성할뿐아니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력으로 원쑤를 격멸할뿐아니라 근거지인민들과 적통치구역인민들 속에서 혁명조직을 꾸리고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조직, 진행하여야 하였다. 또한 적군와해사업을 능숙하게

수행하여야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 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그들을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은 물리칠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원으로, 일체 반일력량을 혁명투쟁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육성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의 내용과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정치교양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진행함으로써 대원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높은 계급의식, 철저한 반일혁명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열렬한 애국자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한 혁명가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무장한 국제주의전사로 육성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의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방후 우리 당은 이 전통을 계승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걸음마다 거대한 승리를 달성케 하였다.

오늘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며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은 대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의 명령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달성하며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히 이끄는,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의 주체적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수행할데 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인민정권수립의 로선, 맑스—레닌주의적 당창건을 준비하기 위한 방침, 인민무력건설과 근거지창설방침 등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바로 이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선과 방침들에서 조선혁명의 길을 명철하게 밝히시였으며 일체 반일력량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유일하게 옳은 방도를 가르치시였다. 조선혁명은 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함으로써만 승리할수 있었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대원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들이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생활과 투쟁의 천칙으로 삼았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항상 그것을 자로 삼아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대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그이의 로작들에 철저히 의거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선언》을 비롯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강도일제와 조선인민의 처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 혁명운동과 공산당의 임무》 등 수많은 로작을 《3.1월간》, 《서광》, 《종소리》 등의 혁명적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 로작들에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및 그것을 실현할데 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명철하게 밝혀져있었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자신이 우선 수령의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체득하였으며 그것을 대원들에게 해설하는데 온갖 열성을 다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 《어렵고 곤난할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여》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여러 회상기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떻게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수령의 로작을 진지하게 학습하였는가를 보여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가르침과 로작을 연구체득하여 오직 그이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 《오중흡동지를 회상하여》, 《오직 그이의 가르침대로》, 《리권해동지를 회상하여》, 《사령부를 보위하여》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여러 회상기들에서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전사된 긍지와 영예를 높이 간직하고 그이가 계신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한 모범을 보게 된다. 또한 그들이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합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않고 희생적으로 싸워나아간 고상한 정신적풍모를 본다.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것—바로 이것이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어떤 간고한 시련과 풍파도 이겨내고 장기간에 걸친 어려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혁명수행에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도록 교양하시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 사상으로 대원들을 부단히 교양하시였다.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는 마음에서》를 비롯한 수많은 회상기들은 바로 조선혁명수행에서의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혁명의 위대한 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방침들에는 혁명에서의 철저한 주체적립장이 관통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교조주의, 사대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시고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시였으며 자신의 실천적인 모범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교양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어디까지나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어려운 혁명의 길을 개척해나가

는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립장을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그와 배치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 좌경모험주의 등 온갖 반동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과 실천투쟁속에서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천신만고를 극복하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끝까지 투쟁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집게나 마치 하나를 가지고도 복잡한 무기부속품이나 《연길폭탄》을 만들어내고 돗바늘로 재봉기바늘을 만들어낸 기적적사실들은 모두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산물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대원들을 그 사상으로 교양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조선혁명전반을 가장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철저한 반일혁명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일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모든 대원들이 일제와 지주놈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였으며 친히 그 모범을 보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한시도 조국과 인민을 잊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와 행군을 직접 지휘하시며,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구상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바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억압과 착취에 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시였으며 그들을 철저한 반일혁명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기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계급의식으로의 교양은 반일혁명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근본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을 통하여 또한 친히 대원들에게 일제는 조선인민을 어떻게 억압착취하고있는가, 경제공황은 왜 일어나는가, 파쑈스트의 계급적본질은 무엇인가, 지주, 자본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계급이란 무엇이며 계급투쟁은 왜 일어나는가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셨다.

《잊지 못할 5.1절》, 《조국에로 진군하면 길에서》를 비롯한 여러 회상기들에서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유격대원들을 어떻게 계급의식으로 교양하시였는가를 감명깊게 보게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를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던만큼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략탈성, 특히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의 악랄성, 착취제도의 반동성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하고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들에게 고향산천과 조국, 부모형제들과 우리 인민들을 잠시도 잊지말며,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일제를 타도하고 반드시 조국을 해방하고야 말겠다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상 대원들에게 일제의 불가피한 멸망을 론증하시면서 조선인민이 단결하여 싸울 때 조국의 해방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을 달성할데 대하여서만아니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산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는가.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침을 받들고 대원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될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키웠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교양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세계혁명운동의 일환으로서 제국주의를 타격하고 약화시키는 투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된 모든 항일유격대원들은 자신이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열렬한 애국자이며 진정한 국제주의전사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만 아니라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하에 투쟁하였으며 또 당시 중국인민들과 손잡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전통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하고 끝까지 혁명에 충실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 육성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사회발전의 법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명백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질수 없으며 어떤 난관앞에서도 혁명의 전도를 락관하면서 굴함없이 끝까지 싸우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지닐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부대정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낡은것은 소멸되고 새것은 승리하며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고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조국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볼줄 알고 어떤 정세하에서든지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할 능력을 소유한다면 마치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앞을 내다보듯이 앞날을 환히 내다볼수 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동요하고 타락하게 되며 결국 혁명을 배반하는 길에 떨어지고마는것이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이 가르침을 받들고 일제가 일시 허장성세하면서 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광분하나 그것은 멸망에 직면한 놈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항일유격대는 비록 일제침략군에 비하여 수적으로 적으나 새로 자라나는 혁명세력이며 전체 인민대중과 전세계 로동계급의 지지를 받는만큼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대원들에게 해설하여 그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무장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혁명승리의 신심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을 어떤 난관도 극복타개하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이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이다. 혁명은 피와 땀을 흘리지않고 순조롭게 될수는 없다.

우리의 목적은 혁명을 하여 나라를 찾고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데 있다…혁명을 한다는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혁명의 길은 힘이 든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빼앗긴 조국, 놈들의 발밑에 짓밟힌 고향산천, 헐벗고 굶주리는 부모처자를 생각하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난관을 두려워할수 있겠는가…》.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항상 명심하고 일상생활과 행군, 그리고 전투의 어려운 고비마다 대원들에게 난관을 극복할데 대하여 해설하여주고 자신이 앞장서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 또한 대원들에게 어려운 임무를 주고 실천과정에서 그들을 어떤 난관도 뚫고 나아가는 공산주의자로 교양하였다.

《억천만번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교양되고 튼튼히 무장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간고한 무장투쟁의 나날에도 기어이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결국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과 내용에 따라 그리고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직진행된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은 그처럼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의 산모범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형식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군, 사단, 련대, 중대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정치교양사업의 체계가 수립되여있었으며 해당단위의 정치일군들이 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전투의 기본단위인 중대의 정치지도원은 대원들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조선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아가는 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 정치교양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였다.

중대내에서는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등의 군사지휘관들과 공청간사, 선동원들이 중대정치지도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지도원들에게 그들이 할바 사업에 대하여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항상 어느때나 굴하지 않고 싸우도록 대원들을 교양하며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원들을 보살펴주며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정치교양사업을 해설과 담화 등의 구두선동과 혁명적출판물을 위주로 하는 직관선전 그리고 혁명적문학예술활동과 기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강의, 선동, 강연 등의 해설과 개별적담화는 매일같이 전투와 행군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많이 적용된 정치교양사업의 중요한 형식이였다. 혁명적출판물을 위주로 하는 직관선전물은 대원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사상적무기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서광》, 《전투일보》, 《투쟁》, 《종소리》 등의 신문과 《3.1월간》, 《전기》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그외에 소책자, 포고문, 격문, 삐라, 선전포스터, 벽보, 전투속보들을 발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그 어떤 기존형식과 고식적인 《틀》에 구애됨이 없이 반드시 항일유격대의 특성과 대원들의 구체적실정에 알맞는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고 적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친히 그의 생동한 모범을 보이여주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해야 한다》, 《청년공작원들에게 주신 그이의 말씀》, 《그이는 우리를 당의

아들로 이렇게 키워주셨다》, 《북만원정의 길에서》, 《불무지보초》, 《총가목에 대한 이야기》, 《배움의 첫걸음》, 《한홉의 미시가루》를 비롯한 여러 회상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대원들을 어떻게 교양하시였는가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준다.

대원들을 교양하신 김일성동지의 모범에는 실로 그이만이 지닐수 있었던 독창적이고도 창조적이며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형식과 방법, 자애로운 어버이심정으로 대원들을 사랑하고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진지하고 따뜻한 보살핌, 대원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는 설득력과 위대한 감화력이 깃들어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에게 항상 어머니가 자식을 타이르듯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으로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대원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의 사면포위속에서 매일같이 가렬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상시적으로 적을 지척에 두고있는 환경에서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는 무장투쟁을 단 하루도 지탱할수 없었다. 항일무장투쟁의 특성은 대원들의 혁명적자각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을 설복하고 해설한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대원들을 설복하고 교양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빨찌산들에게는 사람들의 각오이외에는 아무런 통제수단도 없다. 그들에게는 감옥도 없고 류치장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해설과 교양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비할바 없이 크다. 밥먹을 때에도 교양이요, 행군중에도 교양이요, 전투중에도 교양이다》(《김일성선집》, 제6권, 285페지).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전술을 작성하시고 조선혁명을 전반적으로 령도하시는 바쁘신가운데서도 짬을 내여 항상 대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만경대와 평양에 대하여, 조국의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조국의 풀 한포기, 꽃 한송이, 담배 한대를 가지고도 거기에 선조들의 피가 스며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대원들을 열렬한 반일혁명사상과 높은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투시나, 행군시에도 대원들을 친히 교양하시였다. 그이는 힘겨운 행군길에서 대원들의 무기나 배낭을 벗겨메시고 신발신는 방법까지 바로잡아주시면서 그들을 백전불굴의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전투시에는 명확한 전술과 백발백중의 명사격으로 몸소 원쑤를 쓸어눕히시면서 대원들에게 멸적의 혁명정신을 안겨주시였다.

회상기 《한홉의 미시가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던 나날에 마지막 한홉의 미시가루를 대원들에게 조금씩 골고루 나누어주시고는 《이것을 한말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 받으라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되도록 교양하시였다.

수령께서 나누어주시는 미시가루를 받아든 대원들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어버이심정에 깊이 감동되고 그이의 높은 덕성에 감화되여 먹지 않고도 천리길을 단숨에 내달을 무궁무진한 힘을 얻었으며 이러한 위대한 수령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바쳐 싸울 결의를 굳게굳게 다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이 혹시 실수하여 규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친어버이정으로 진지하게 깨우쳐주시였다. 회상기 《총가목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이는 부주의로 총가목을 분질러놓은 녀대원에게 엄하게 타이르시는 한편 그가 잠자는 사이에 손수 그 총가목을 고쳐주심으로써 그가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도록 깨우쳐주시였다.

녀대원은 이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가 얼마나 엄중하며 혁명가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으며 수령의 덕성과 어버이사랑에 감동되여 그후 사소한 과오도 범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앞에 가로놓이는 모든 난국을 몸소 앞장에서 타개하시면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앞으로 힘있게 이끌어주시며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매사를 돌봐주시고 친절히 가르쳐주시는데 무한히 감동되고 감화되여 그이를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였던 것이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을 본받아 대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부대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률과 질서로부터 전투시의 동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군중속에서의 조직정치사업에 대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친절히 가르쳐주었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담겨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대원들을 무장시킨 과정은 항일유격대에서 설복과 교양을 어떻게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진지하게 진행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우선 강연이나 강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해설하였으며 출판물을 통하여 학습하게 하고 광범한 토론을 거쳐 더욱 깊이 료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를 만들어 한조항, 한조항빠짐없이 외우게 하면서 료해정도를 알아보고 모든 대원들이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 때까지 열번이고 백번이고 반복하여 설복교양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회의를 할 때에도 누구나가 다 회의의 목적과 앞으로 할 과업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할 때까지 그리고 그릇된 견해가 생겼을 때에는 진지한 토론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모든 대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합될 때까지 인내성있고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전투명령을 집행하는데서도 정치사업을 반드시 선행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론 빨찌산은 군대인것만큼 그 군사적활동은 명령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군사적명령은 당회의들에서 반드시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그것을 접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력을 다하여 투쟁할 결의를 다질 때까지 꾸준히 해설되여야 한다. 빨찌산들이 탄알이 부족하기때문에 그것을 절약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총창으로 적과 육박전을 감행하는것과 같은 용감한 투쟁은 설복과 교양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군사적명령만으로써는 생각할수 없다》(《김일성선집》, 제6권, 284~28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에서는 전투명령을 접수하면 모든 대원들이 전투의 목적과 의의, 전투가 린접부대와 부대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전투임무와 그 수행방도, 차후 임무들에 대하여 명백히 파악하며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다질 때까지 그것을 꾸준히 해설하였다.

해설과 설복은 실로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멸적의 기세와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간직하게 한 위력한 무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항상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진행하며 그것을 사상수양 및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그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억압, 착취를 직접 당해본 사람들이였던만큼 누구보다도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높고 투쟁열의가 강하였으며 조국광복을 위한 하나의 투쟁

목적으로 튼튼히 결속되여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한 경로는 각이하였으며 그들의 준비정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에서는 정치교양사업을 대원들의 준비정도와 구체적실정에 가장 알맞게 조직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을 어머니가 자식을 다이르는데 비기면서 청년공작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선전교양사업을 할 때도 대상을 고려함이 없이 아무데 가서나, 누구에게나 꼭 같은 방법으로 한가지 말로 사업하고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동무들이 어머니를 생각하여보라, 어머니는 같은 피줄을 타고난 자식들이라도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옳게 키워낼수 없다.

왜 그렇겠는가? 그것은 형제간에도 그의 의식정도가 다르고 그의 취미와 성격, 년령 같은것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그이는 계속하여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성격과 체질들을 고려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낡은 사상을 새것으로 고쳐주고 의식을 개변시키며 그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혁명전선의 선구자로 되도록 키우는 정치교양사업이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지 않는다면 결국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수령의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연설, 강의, 개별담화들을 언제나 대원들이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실례들과 결부시켜 알아듣기 쉽게 하였다.

이것은 대원들을 깊이 감동시켰으며 그들이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의 해설을 더욱 생동하고 인상깊게 리해하면서 혁명적의식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학습도 대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의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학습은 어디까지나 대원들의 정치사상의식 즉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각오를 높이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함없이 원쑤와 무자비하게 싸우는 투쟁의욕을 북돋아주며 그들을 혁명화하여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는 혁명가로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은 대원들의 사상수양을 위한 유일한 혁명적량식이였으며 조선혁명의 리론실천적문제를 체득하는 혁명과업의 한부분으로 간주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들의 두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있소. 하루속히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킬 숭고한 혁명임무가 우리에게 맡겨져있소. 만일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모르고 또 군중을 교양하고 발동시킬줄 모른다면 어떻게 이 혁명임무를 수행할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하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에서는 대원들의 지식정도를 고려하여 학습반을 식자반과 자습반으로 나누고 강의, 토론, 자습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배합하여 학습을 조직진행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대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의 실현방도, 부대앞에 제기된 당면한 혁명과업의 구체적해결방도를 찾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처럼 학습을 혁명하는 사람의 필수적요구로 간주하였기때문에 항상 사물과 현상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정확히 분석판단할줄 알았으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임무수행에서 서로 앞장서 나아갔으며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간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제기된 혁명임무와 변동되는 정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을 배합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이미 지적한바와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대상과 정황의 변동에 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

학습도 정황의 변동에 상응하게 조직진행하였다. 고정된 유격근거지에서나 후방밀영의 병원, 재봉소, 병기창들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동강, 마당거우, 백석단 등 밀영에서와 같이 진술적휴식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집중학습을 조직하였다. 그것도 적정의 변동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학습을 두기로 나누고 첫기에는 우선 기본적인 학습과제를 수행하고 둘째기에는 이미 진행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개별교양체계에 의한 학습과 자습을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혁명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상수양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모두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군중문화오락사업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지도하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군중문화오락이 매일의 일과로 진행되었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과정에서 전투와 행군의 피로를 풀며 상하간, 동지호상간의 단결을 일층 강화하고 락천적으로 살며 싸우도록 하였다.

혁명적문학예술활동은 유격대원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의 중요한 무기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말 한마디, 노래 한구절할것 없이 모두 일본제국주의타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목적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인식시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연극 《피바다》, 《경축대회》, 《성황당》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과 연기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정치일군들과 지휘관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침과 모범을 본받아 가렬한 전투의 불길속에서도 대원들과 지혜를 모아 노래를 짓고 연극각본을 썼다. 이들이 창작한 노래와 연극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방도들을 형상화한것으로서 높은 당성과 전투성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외에도 혁명적출판물과 적관선전물을 적극 리용하며 정황에 따라 변환대회, 열병식, 각종 행사 기타 모든 기회를 대원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는 계기로 되게 하도록 가르치시였으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정치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하여 모든 대원들을 오직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군사정치활동가로 육성함으로써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

* *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부단히 심화하여왔다. 특히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군대내 당정치교

양사업을 강화하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데서와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오늘 국제국내적으로 긴장된 정세하에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굳건히 꾸리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욱 촉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림선거구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결국 조선혁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체득하며 그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로 삼아 일할 때 주체적립장을 견지하고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좌우경기회주의, 사대주의, 자본주의, 봉건주의 사상 등 혁명을 좀먹는 온갖 반동사상독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여야만 그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특히 착취계급의 압박과 착취를 체험하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여 조선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육성하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것은 현시기 정치사상교양사업의 중심문제이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의 경험을 본받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더욱 강력히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이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할 때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더욱 앞당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

김 성 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대안전기공장에 나가시여 공장을 지도하시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6년이 가까와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단계에서 전개되던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제기된 절실한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한 새로운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었다.

지난 6년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 요구를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켰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집행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그이의 지도에 의하여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기본담보이다.

우리는 대안체계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답을 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경제의 지도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어느정도로 발휘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얼마나 빨리 추진시키는가 하는것이 달려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경제의 지도관리문제는 그 성과적추진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실지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현할것인가 하는것은 그 어떤 서적에도 해명되여있지않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매우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주체적립장, 혁명적인 군중적사업방법을 구현한 청산리방법에 기초하여 그리고 대안전기공장과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진행하신 과학적분석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창조된 대안체계의 혁명적본질은 경제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생산자대중을 기업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며 생산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확립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혁명적인 사업방법, 군중적사업방법의 전통은 해방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승리한 새로운 조건에 상응하게 이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구체화하시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위력한 무기로서의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조성된 현실적조건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심화발전시킨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능숙하게 구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안체계의 기본정신은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한덩어리가 되며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에 내려가서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데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안체계란 경제관리에서의 군중로선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일반화되도록 친히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체계도 강한 투쟁정신이 없이는 그 우월성을 발휘시킬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높은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연구하여 그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시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공장, 기업소에 나가시여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안전기공장에 나가시여 전국의 모든 부문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푸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그것을 전인민경제부문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각 산업부문에서 1~2개의 전형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자체의 특수한 기술경제적조건에서 대안전기공장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실천적모범을 창조하며 해당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이 모범을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공산주의적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체계를 운영할수도 없으며 더욱 발전시킬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것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관료주의적, 형식

주의적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을 견결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으며 행정실무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적방법으로 사업하도록 지도하시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구체적으로 당정책관철에서 발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업에서의 낡은 틀, 낡은 방법을 완전히 타파하고 모든 사업을 철저히 당적립장에서 당적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자대중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움직이는 높은 의식성과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의 복잡한 생산공정을 관리운영할수 있는 높은 기술지식을 가지는 조건에서만 우월성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사상적으로 동원되고 상하가 합심하여 일하며 살도록 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전당에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누구나 할것없이 높은 경제지식과 기술지식을 가지게 하며 그것을 실지 경제관리에 능숙히 적용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장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당위원회와 당세포를 강화하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현명하고도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도입일반화되였으며 자기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게 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과학적인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명백하고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실뿐아니라 그것을 완강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능숙하게 관철해나가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예술의 직접적인 결실이다.

대안체계의 확립,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의 혁명적전환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체계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과거의 사업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요소를 풍부하게 내포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업체계이다. 이 새로운 사업체계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공산주의적생활원칙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그이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관리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옳게 구현하고있으며 공산주의적기업관리의 요소를 풍부하게 내포하고있는 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시였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풍부화시키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생산관계의 본질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한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그이의 지도에 의하여 완성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리운영문제를 리론실천적

으로 해결하는 분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대한 고귀한 기여로 된다.

2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밑에 창조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국가, 경제기관 사업전반에 확고히 도입일반화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과 빛나는 승리는 대안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제발전에서의 확고한 균형의 보장, 인민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속도, 기술혁명의 급속한 추진과 로동생산능률의 부단한 장성,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공고화 등 경제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으며 국방건설이 급속히 추진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경제 각부문에서는 당의 령도적역할과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수준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당의 정책과 의도가 생산자대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였다.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정치사업이 일층 강화되여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되였으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하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더욱 높아졌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관철됨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관리, 생산지도, 자재 및 후방공급 등 기업관리의 모든 측면이 더욱 째여지게 되고 정신적 및 물질적 예비들이 전면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실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혁명적변혁을 일으킨 대안의 사업체계는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촉진시키는 추동력으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 먼저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있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사업체계의 첫째가는 우점은 그것이 공장관리운영에서 집체성을 잘 보장하는데 있다…당위원회가 집체적령도를 잘 보장하면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킬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이 발동되면 전체 근로대중을 움직일수 있게 된다. 당위원회의 령도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대중이 다 생산을 잘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이상 더 철저한 집체적령도는 없으며 이 이상 더 공장의 집체적력량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에서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제는 우선 당정책과 혁명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항상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찾을수 있게 하고있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고 모든 당원들과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참가하며 생산

에 대해서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책임지며 무엇보다도 먼저 집체적령도 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책임진다.

만일 지배인 혼자서 책임지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관리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생산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관료주의적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한개의 고용자로서 행동할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배치될뿐만아니라 이와 같이 하여서는 근로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킬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은 직접 기대를 다루는 생산자대중이며 생동하고 창조적인 제기는 항상 그들속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군중의 지혜는 물론 단편적이고 불충분한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당위원회의 집체적협의를 통하여 보충되고 체계화되면 그것은 경제관리의 개선을 위한 가장 가치있는것으로 된다. 복잡한 현대적사회주의생산을 옳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광범한 대중을 생산의 주인으로서 기업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하고 공장관리운영의 방향과 방법을 토의결정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공장을 관리운영하면 좋은 점이 많다…여기에는 당간부들, 행정간부들, 핵심적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다 망라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위원회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정신상태와 기술수준, 기술정비정형과 자재 및 후방 물자의 공급정형 등 공장내의 모든 사정을 다 참작한 기초우에서 정확한 방침과 대책을 수립할수 있다》.

당위원회가 집체적령도를 잘 보장하면 또한 당정책의 집행에서 전체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수 있다.

대안체계하에서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제기된 과업의 수행방향과 그 방도를 세우며 기업관리의 결과에 대하여 대중자신이 책임지게 되여있기때문에 생산자대중이 다 생산을 잘하기 위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여 전체 근로대중을 발동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공장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행정관리일군, 기술일군, 당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배합작전을 잘 진행할수 있게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공장의 전관리계통이 하나의 통일적인 의지에 복종하게 되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사업과 행정기술사업이 호상 밀접히 결합되고 당사업을 통하여 행정기술사업을 풀수 있는 조건이 전면적으로 지어져있다. 여기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방향과 분공에 따라 행정관리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의 주인이 되여 기업소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책임적으로 강력히 진행하며 기술일군들은 기술사업의 주인이 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하며 당일군들은 당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행정기술사업을 확고히 안받침해주고있다. 이렇게 새체계에서는 행정관리일군, 기술일군, 당일군들이 각각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그들간에 배합작전이 잘 진행됨으로써 수많은 생산공정들과 수백수천의 각이한 생산활동이 하나의 큰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며 공장의 전반적사업이 종합적으로 원

만히 집행되고있다.

특히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가 잘보장되고 행정, 기술 및 당 일군들간에 배합작전이 잘됨으로써 행정관리계통의 기능이 제고되고 결정된 과업의 집행이 강력히 추진되고있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선행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동원하는 위력한 방법이며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담보이다.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이다. 우리 당은 대안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인민경제의 지도관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당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대안체계하에서 당일군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하며 정치사업이 경제과업의 수행과 밀접히 결부되게 함으로써 모든 생산자들이 다 사상동원이 되여 언제나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의 의의와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알고 그 집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고있다.

대안전기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경험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가 강화되고 정치사업이 선행되는 곳에서는 례외없이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이 옳게 결합되고 대중이 사상적으로 동원되여 기업관리운영의 모든 문제들을 주인답게 해결하며 생산을 힘차게 밀고나가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의 하나는 생산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기업관리체계는 민주주의적이며 또 중앙집권적이다.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란 대중의 지혜를 발휘하여 계획을 작성하는데서도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기업소를 거쳐서 종합한 다음에는 중앙에서 다시 토론해가지고 아래에 내려보내는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적으로 아래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집권제를 실시한다》(김일성).

우리 당은 대안체계를 통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경제지도에서 중앙집권적지도와 대중의 민주주의,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호상관계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였으며 특히 계획화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체계와 그에 의거하여 실현되는 세부계획화는 바로 그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란 계획을 제마음대로 세우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나라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대로 세우는것이다》.

바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체계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계획기관을 지방에 주재시키고 기관, 기업소 계획부서들을 계획세포로서 움직이게 하며 중앙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그리하여 그것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당의 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전국가적립장에서 계획화사업

을 철저히 진행할수 있게 하며 국가적 요구와 성, 군을 비롯한 생산기관, 기업소의 요구를 가장 합리적으로 결합시킨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체계에 의거하여 실천되는 세부계획화는 당에 의하여 규정된 경제발전의 총적방향과 종합적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부문, 기업소들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세부계획을 작성시달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적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게 하여주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실현되고있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자신의것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계획화체계하에서 세부계획화를 실시하고있는 모든 단위들의 경험은 그것이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인민경제의 발전을 힘차게 추진시키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모범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계획화사업과 함께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을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게 하고있는데 커다란 우월성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과정이란 결국 기술공정이다. 기술을 알지 못하고는 생산을 지도할수 없다. 생산은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준비 사업, 생산과정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부문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지도하는것이 필요하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공장참모부와 직장참모부로서 구성된 참모체계를 내오고 기술을 아는 사람이 그에 의거하여 생산을 계획하며 준비하며 지도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계획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준비사업, 생산지도사업들이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향에서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우로부터의 지도가 아래에 잘 침투되게 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뿐만아니라 대안체계에서는 통일적인 참모체계와 함께 공장기술력량을 현장지도와 기술연구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전문화시킴으로써 기술준비를 선행시키고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개선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커다란 우월성은 또한 생산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한 공급사업을 잘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업체계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부서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과거에는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지 않았다. 우에서는 종이쪽지나 떼주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으며 자재를 보장하는것도 다 생산자들의 책임으로

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직장장들과 기타 책임적인 일군들이 생산을 지도한것이 아니라 자재를 얻으려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랑비하였다. 이것은 관료주의적사업방식이며 자본주의적사업방식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재를 우로부터 아래로 공급하여주는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직장장들은 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지않고 자기들의 본신사업에 열중할수 있게 되였다》.

우가 아래에 자재와 부속품을 책임지고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는 생산에 자재를 선행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일군들과 로동자들로 하여금 생산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자재소비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 그것을 절약적으로 리용하게 하며 공장, 기업소들간의 협동생산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는 또한 생산보장체계의 일환으로서 우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후방공급체계가 확립되여있다. 후방공급체계는 생산지도체계와 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을 안받침해주며 대안체계의 생활력을 튼튼히 담보해주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합되여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즉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게 하는 새로운 사업체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업체계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하는 사업체계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단결시키며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기때문에 생산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로 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낡은 사상의식을 개변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였고 그이에 의하여 공고발전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생산관계, 동지적협조와 호상방조의 관계를 가장 옳게 구현한것이며 사회 모든 성원들의 목적과 지향,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할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면될수록 자기의 위력을 더욱더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공고발전됨에 따라 생산력발전의 추동력이며 경제관리의 학교이며 대중적교양의 훌륭한 방법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더욱 힘차게 전개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촉진되여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가일층 강화되고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무궁무진하다.

3

현시기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들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는것을 현단계에서의 우리 당과 조선인민 앞에 나서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당은 이와 관련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 요구를 관철하는것은 당이 제시한 이 모든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결정적고리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도입하고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 우리 당 대표자회가 규정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대한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 대안체계를 관철하고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만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할수 있다.

이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그 요구를 실천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림선거구선거자들과의 상봉모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철저히 도입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이며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가장 적합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확고히 관철해야 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립각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대안체계의 위력과 생활력을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그리하여 매개 사람들이 사상동원이 되여 다 자각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며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의의와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똑똑히 알고 일에 달라붙을수록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과 지혜가 나온다. 우리 나라에서의 실천적경험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결정적담보가 인민대중을 발동시키고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현시키는데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고 그들이 경제과업수행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에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목적,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도가 명시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참가하는 매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하는것이 명백히 주어져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그리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생활과 근로

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정책을 자기들의 뼈와 살로 만들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자로 되여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계획화사업에서 이 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계획화하며 모든 공업부문에서 세부계획화를 실시하고 계획의 일원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대한 당의 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대중적인 계획토의를 거쳐 생산자들의 적극성과 지혜, 창발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 맞물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리익,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는 혁명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과 기술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더 잘 지도할수 있게 하는 대안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기술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원료, 자재와 후방물자들을 우에서 더 잘 내리 공급해줌으로써 기술발전과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로력배치와 로력조직을 잘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절약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각부문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와 내부채산제를 강화함으로써 있는 로력, 있는 자재, 있는 설비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할데 대한 당적요구를 더 잘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경영활동이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도록 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에 적응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상론하며 군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제기되는 과업을 해결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업관리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에 의거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더 잘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으며 천리마의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우리앞에 나서는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적고조의 불길을 더한층 높이며 제기된 혁명과업들을 더 잘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초급당조직의 전투적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 봉 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해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굳게 다지며 특히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으로 되는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이 모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의 성과적실현은 오직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특히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조직의 전투적역할을 제고함으로써만 달성된다.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제고, 이것은 전당을 강화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초급당단체는 우리 당의 세포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인체내의 매개 세포들이 건전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을 공고화하려면 그 세포조직인 초급당단체를 강화해야 한다. 초급당단체들이 모두 건전하게 되면 반드시 전당이 건전하게 되고 강화될것이다》(《김일성선집》, 제5권, 9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초급당조직의 강화가 전당을 강화하는 기본조건으로 되는것은 초급당조직이 매개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을 당주위에 집결시키면서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전투단위이라는데 있다.

초급당조직은 우리 당 활동의 전초선에 위치하고있는, 군중과 직접 련결된 당의 기층조직이다.

초급당조직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여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는 당조직생활의 거점이다.

모든 당원들은 례외없이 초급당조직에 소속되여 당생활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며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된다.

최근시기 김일성동지께서 함남도 및 함흥지구에서 하신 교시에 근거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특히 인테리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과업도 구경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적단련의 용광로인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되고 부단히 단련되며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될수 있다.

초급당조직은 또한 군중과의 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시켜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기본초소이다.

초급당조직이 직접 대중속에 뿌리박고있으며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단위에서 활동하는만큼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진압하고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모든 구체적인 사업이 바로 초급당조직들을 통하여 진행된다.

초급당조직은 또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대중속에 관철시키는 전투단위이며 해당단위에서의 혁명과업수행을 직접 책임지고있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성과적실현여부는 오직 초급당조직들이 군중을 옳게 발동하여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자기 초소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때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천명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철저히 관철될것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철의 당으로 공고발전시키시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당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 전투력을 높이는데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는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방침,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감당할수 있는 강력한 전투적조직으로 자라났다.

다른 모든 당조직들과 함께 혁명의 수도인 평양시의 당조직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상적인 두터운 배려를 받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상적인 현지지도와 교시를 통하여 우리 시당위원회와 산하당조직들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전투력제고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자기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당의 기층조직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우선 간부들과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확고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이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 이것은 당의 위력의 기본원천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결정하는 기본담보이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당건설의 기본문제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당내 철통같은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초급당조직들의 근본사명이다.

당내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다.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범접할수 없다. 이런 사람이래야 당적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당정책교양의 강화, 이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기본담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그것은 우리들의 행동의 지침이며 투쟁의 무기이다. 따라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실생활에 구현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져야 그들로 하여금 항상 수령과 한마음한뜻으로 생각하고 움직이여나갈수 있다.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이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져야 혁명실천에서 당적원칙과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와 배치되는 일체 불건전한 현상을 제때에 식별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이것은 당대렬내에 그 어떠한 적대사상의 침습도, 당내에서의 사소한 불건전한 사상의 반영도 제때에 극복하고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수호케함으로써 전당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기여로 된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 우리 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사기와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시킨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구현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 조선혁명승리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제고된다. 특히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기저에 흐르고있는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의 사상 그리고 혁명적군중로선으로 무장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비상히 제고시킨다.

이것은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의 난관과 시련앞에서 동요와 권태를 모르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나갈수 있는 정치사상적각오를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원문 그대로 정확히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세워 그것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침투되게 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구절구절 새겨가면서 진지하게 학습하고 그 진수를 깊이있게 파악하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고 옳고 그른것을 정확히 가려내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정책의 진수를

깊이있게 파악함으로써만 높은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당정책을 실천의 무기로 틀어쥘수 있으며 자기 단위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정확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이의 력사적인 연설들과 보고, 론문, 현지교시들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진수를 파악하며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수립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로선과 정책을 직접 작성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고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곧 우리 당정책이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파악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혁명실천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제고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을 혁명적당으로, 전투적당으로 부단히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어떠한 역경과 풍파속에서도 동요없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고수할수 있게 한다.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인식시켜야 그들이 자기 위업의 근본을 알고 우리 당의 심오한 혁명사상과 투쟁정신을 배우며 항일유격대의 고귀한 투쟁경험과 사업방법을 넘겨받고 그를 고수하여 대를 이어 투쟁해나갈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에 대한 책임성,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적동지애 등 혁명적인 사상과 풍모를 본받을 때 우리 당은 더욱 불패의 당으로 될것이며 당조직의 전투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될것이다.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혁명활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교양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덕성에서 배우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감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전통학습의 중요한 량식은 또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자료들이다.

초급당조직들에서는 항일유격대의 고매한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이 간부들과 당원들의 혁명적수양을 위한 산귀감으로 되도록 회상기학습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운영하며 독보, 연구발표모임, 주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답사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이다. 혁명사적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

는데서 매우 큰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수도 평양시와 그 부근에는 우리 혁명의 요람지인 만경대와 봉화리사적지가 있다. 시당위원회산하 초급당조직들에서 간부들과 시내 모든 근로자들을 만경대와 봉화리사적지를 참관케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 김형직선생과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과 높은 덕성을 심오히 연구하여 자체의 혁명적수양을 높이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간부들과 당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될것이며 이렇게 될때 당조직들은 어떤 정황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위반되는 온갖 부정적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전개해나갈수 있다.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하며 당성, 계급성을 부단히 높여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건전하게 하는것이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을 교양하고 결속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유일한 규률과 의지에 따라 일상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42～43페지).

당조직들의 전투성과 혁명성은 그 구성성원인 당원들의 당성정도에 달려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투지를 가진 혁명가로, 정치사상적으로 예리하고 계급적선이 명확한 공산주의자로 준비됨으로써만 당조직의 전투력은 강화된다. 이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부단히 수양되고 단련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당성, 혁명성을 배양하는 용광로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규약상 의무와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지키고 유일한 규률생활에 의해서 활동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단련된다.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회의들에서 서로 교양하고 비판하면서 옳은것은 배양하고 옳지 못한것은 씻어버리는 부단한 사상단련의 과정을 거쳐서만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화되여갈수 있다.

당조직생활은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케 함으로써 당조직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다.

당내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바로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우리 당의 사상, 혁명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부단히 수양되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당사업이 심화되고 당원들의 당생활이 강화될수록 당대렬의 통일은 강화되며 하나로 뭉쳐진 그 대오의 힘은 비할바 없는 위력한 전투력을 발휘한다.

당조직생활이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화하는 용광로로 되자면 그것의 정치사상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매개 당원들이 혁명사업을 위하여 항상 사고하고 움직일수 있게 분공을 주며 그것을 총화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당원들에게 정치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며 그들의 정치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당정책을 자로 하여 혁명과업수행정형을 통제하며 부족점들을 제때에 고쳐주어야 한다.

또한 당회의의 정치사상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당내민주주의를 발양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야 한

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내 전투적기풍을 높이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무기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과정을 통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은 자신도 혁명적으로 수양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점도 밝혀줌으로써 모두 혁명화되여갈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시대에 상응하게 투쟁하게 하며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케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초급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그 활동의 기본요구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초급당조직을 통하여 대중속에서 구현된다. 또한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며 집중적으로 표시된다. 초급당조직들이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 바로 여기에 그 전투성과 혁명성이 있는것이다.

초급당조직들이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해나가자면 당내 혁명적규률을 확립하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전투적기질을 배양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내에 강한 혁명적규률을 확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투적부대이다. 우리 당에는 강한 혁명적질서와 혁명적규률이 필요하다…

당내에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는 당이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없다》(《김일성선집》, 제6권, 343～344페지).

당조직들의 엄격한 혁명적규률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의 철저한 관철에서 집중적으로 표시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해나가는 혁명적규률과 당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 이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강화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은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유일한 활동의 지침이며 그것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한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그를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이것은 당조직들의 혁명성과 전투력의 중요한 징표로 된다.

초급당조직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끌고나감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업수행에서 지휘성원인 간부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견결한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의 혁명가적기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간부들은 당과 인민의 두터운 신임을 깊이 간직하고 항상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며 당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다》(《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43페지).

초급당조직들이 당정책관철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의 혁명가적기풍을 확립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

며 특히 모든 일군들이 사업에서 주인된 립장에 튼튼히 서서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극력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강한 혁명적규률을 확립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어느하나도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틀어쥐고 통일적으로 관철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이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와 당정책을 부문별, 단위별로 폭넓게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를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한것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옳게 하는것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에서는 방향적지도와 방법적지도를 옳게 결합함으로써 사업을 전반적으로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당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엄격히 근거하여 방향을 세우고 수행방도를 제시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그 실행정형을 검열통제하며 그 집행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반복조치하는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초급당조직들 앞에는 김일성동지께서 공업, 농업, 건설,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부문에 주신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책임이 부과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옳게 수행하며 항상 면밀한 조직정치사업을 따라세우고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짜고들 때에만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매 교시별로 되는 구체적인 조직정치사업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옳게 인식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열의와 생산의욕을 높여주며 당위원회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정확한 사업방향과 실천방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방향과 방도가 채택된 다음에는 구체적인 분공을 주어 매개 일군들과 당원들이 각기 자기 맡은 단위와 초소에서 혁명적책임성과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혁명임무를 실행해나가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위원회들이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정책관철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와 조직정치사업을 옳게 해나감으로써만 해당단위에 제기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할제고는 결국 집행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달려있다.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며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화하며 해당단위에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집행기관의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해결된다.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성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원들과 군중속에서 신망이 높고 계급적선이 명확해야 한다. 그들의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행기관의 집체적기능과 전투력은 더욱 높이 발휘될것이며 당정책관철에서 초급당조직들의 능동적이며 자립적인 역할이 보다 강화될것이다.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제고에서 집행기

관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한 중요한것은 당핵심을 부단히 육성강화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당핵심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당원대중을 교양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힘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매개 단위에서 당핵심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그들이 당원들과 비당원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조직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한결같이 발동시킬수 있다. 이렇게 당핵심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비당원군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갈때 그 조직은 하나가 열을 움직이고 열이 백을, 백이 천을, 천이 만을 움직이는 강유력한 전투적조직체로 될수 있다.

초급당조직들이 핵심당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당사업에 적극 인입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핵심당원들로 하여금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들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모든 사업에서 당적원칙을 지키고 부정과의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핵심당원들을 부단히 교양육성함과 동시에 그 대렬을 확대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핵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초급당조직의 전투력은 더욱 제고되고 나아가서 전당이 강화되리라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성원들과 핵심당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그들이 모든 어려운 사업에 솔선 투신함으로써 항상 당원들과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것이다. 이렇게 될 때 초급당조직은 군중속에서 견인력이 있고 모든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수 있다.

이와 함께 초급당조직이 자기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사업방법과 작풍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조직들이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며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깊이 료해파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것이다.

초급당조직들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며 특히 이 투쟁을 교양과 사상투쟁을 결합하여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함으로써만 당정책관철에서 당원들과 군중의 정치적각성을 부단히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최대한 동원할수 있으며 그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할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초급당조직들로 하여금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와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

전 대 영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지방당 및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에서와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에 대하여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을 하시였으며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상세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지역적거점에 관한 리론의 창시로 된다.

지난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방침에 따라 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지방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이 힘차게 추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창성군의 모범은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에 일반화되여 도처에 수많은 《창성》이 생겨났으며 산간지대로부터 벌방지대에 이르는 모든 농촌들이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을 가진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변모되였다.

실로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기지로, 지역적거점으로 확고히 전변되였다.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군을 튼튼히 꾸리고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체득하며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1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전망과 실천적방도를 명확히 안겨줄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대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명시되여있는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후 맑스—레닌주의당앞에는 농촌문제해결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선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착취관계를 완전히 청산할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

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지역적거점의 설정은 바로 농촌문제 해결의 이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38페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문제는 농촌사업의 특성,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분산성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농촌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것은 과거 사회에서 물려받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구성의 복잡성, 농촌경리의 자연적 및 계절적 제약성과 관련되며 또한 중요하게는 농촌의 분산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농촌사업의 대상은 전국각지와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농촌마을들과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나뉘여 일하며 살고있는 농민들이다. 물론 농촌의 이러한 분산성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으로 현저히 퇴치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성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성으로 남아있게 되며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것이다.

이리하여 농촌사업은 언제나 농촌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하게 조직되고 집행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반드시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거점으로 설정하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만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러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지 않고 그 역할을 높이지 않는다면 분산된 농촌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옳게 줄수 없다.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점차 접근시킬데 대한 과업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원칙적태도와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은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도시 및 로동자구와 함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히 꾸리며 점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우와 같은 책, 29페지).

로동계급이 농민을 진심으로 혁명동지로 간주하며 그들을 책임지고 공산주의까지 이끌고가자면 농촌생활의 모든 령역, 농민들의 모든 활동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정치, 경제, 문화의 각반면에 걸쳐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분산된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농촌사업에서 일정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

지 않는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이러한 지도와 지원은 진실로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사업을 강화하고 군소재지를 잘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킬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기때문에 군을 잘 꾸리는것은 결코 일시적인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주력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5~6페지).

지역적거점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시기 제기되는 당면한 혁명과업들의 해결뿐아니라 앞으로 공산주의사회실현의 원대한 전망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다름없는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를 설정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으며 이러한 단위는 사회주의건설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진척되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된다하여도 농촌과 로동자구의 주민은 전체 인구의 절반은 될것이며 또한 농촌부락들은 분산되여있기때문에 앞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다하여도 모든 농촌리들을 다 생산단위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설정할수는 없을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적거점을 옳게 설정하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뿐만아니라 미래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일정한 지역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고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 크기가 적절하여야 하며 해당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타 조건들에서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위는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바로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들을 구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지역적단위로, 거점으로 되는것이다.

군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과 그 장래발전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려진 실로 귀중한 결론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도 로동계급과 같이 공산주의에로 끝까지 이끌고 가기 위한, 우리 나라에서의 전면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확고한 혁명적립장,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2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일찍부터 군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 튼튼히 꾸

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은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에 내놓으면서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군이 하부말단지도단위로서의 역할을 옳게 담당수행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지방지도일군들을 위한 중요한 회의들을 몸소 조직지도하시면서 농촌지도에서 군사업이 더욱 중요하게 된 환경과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그에 상응하게 지방당 및 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강일층 개선강화할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여기에서 1960년 2월에 있었던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와 강서군당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와 강서군당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당시 우리 농촌에 조성되였던 새로운 환경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군이 우리 나라 당 및 행정 조직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하시였으며 군의 임무가 당의 정책을 직접 조직집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단지도단위로서의 위치에 맞게 군당 및 군인민위원회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청산리교시이후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과 군사업에서는 실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게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지난날에는 이름조차 알려져있지 않았던 깊은 두메산골, 창성군과 같은 자연지리적조건이 가장 불리한곳에서 몸소 군사업의 전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나라에 일반화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모든 군들의 사업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울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군당위원회들을 비롯한 군급기관들을 유능한 간부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인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으며 군에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며 학교, 병원, 도서관, 영화관 등 수많은 문화후생시설들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은 실로 우리 당과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지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온갖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다 갖추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오늘과 같은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테제에서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특히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

한 테제》, 40페지).

군은 오늘 우리 농촌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혁명과업들의 수행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군은 자체가 가지고있는 지도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의거하여 농촌을 지도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의 각분야에서 농촌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있으며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수행을 힘차게 촉진하고있다.

군은 우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를 실현하는 정치적거점으로서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다.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인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고있으며 농민과 로동자구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접근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군을 통하여 농촌과 로동자구에 들어가고있으며 농민들과 로동자구주민들은 군을 통하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받아들이며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지도하에 그것을 집행하고있다. 농민들 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주는 문제도 중요하게는 군을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오늘 우리 농촌들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더욱더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당의 농촌진지가 보다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농민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사실은 정치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가일층 제고되고있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의 지방지도인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와 창성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농촌리들과 군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시면서 일일이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에 무한히 고무되고 그 모범을 따라 부단히 배우면서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수령의 교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들을 도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훌륭히 집행해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된다》(《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4페지).

우리의 군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맺어주는 경제적거점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공업의 발전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고있으며 농촌경리도 군에 의하여 직접 조직지도되고있다. 그뿐아니라 도시의 기술문명도 군을 통하여 농촌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우리 당은 지난기간 군을 지방경제의 발전과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키는 경제적거점으로 꾸리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시켜왔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취하여진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의 대규모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은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다:

《지방에 공장을 광범히 건설한다는것은 공업을 농업에 더욱 접근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41페지).

대규모중앙공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방에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밝혀져있으며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가 명시되여있다.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 자체의 공업적토대를 가지고있어야만 농촌경리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혁명적전환으로 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여 매개 군단위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실현하며 협동경리의 지도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접근시킬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점차 접근시킬데 대한 과업을 능숙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 군들에는 평균 1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군들은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망라하는 지방경제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군내 주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고있다.

우리 나라 군들에 건설된 지방산업공장들은 농촌에서 로동계급의 대렬을 장성시키고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주는데서도 큰 작용을 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경제적리익과 국방상 리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며 나라의 모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기업소들도 지방에 널리 배치되여있다. 거의 모든 군들에 한두개 또는 그 이상의 중앙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이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큰 힘으로 되며 공업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면에서 유리한것이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앙공업기업소들은 주변의 협동농장들을 물질기술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적극 도와줌으로써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우리의 군은 또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농촌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 상업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여야만 농촌에 공업상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공업상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장성시키고 상품의 실현을 촉진하여 공업발전을 더욱 추동할수 있다. 또한 이 련계를 강화하여야

만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도시주민들과 공업의 식량 및 원료 수요를 보장할수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장성시키고 농촌경리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에는 자체의 튼튼한 공급기지가 꾸려져있다. 그리고 상품류통기관들은 군내의 생산 및 주민수요와 밀접한 련계를 가진 공급체계로 개편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군들로 하여금 중앙공업과 지방에 창설된 공업적토대, 자체의 튼튼한 공급기지에 확고히 의거하여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며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각종 원료를 도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농촌들에서는 농촌상업망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목욕탕, 리발소, 세탁소, 피복 및 가구수리소 등 편의봉사시설들이 더욱더 확대되여 모든 농촌리들을 농업의 튼튼한 생산세포로뿐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급세포로, 봉사세포로 만들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우와 같은 책, 45페지).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락후한 생활양식과 인습을 청산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주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의 군들은 농촌문화혁명수행에 필요한 수단들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특히 도시의 선진적인 문화와 생활풍습을 농촌에 들어보내는 기지인 군소재지들이 날에 날마다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알뜰하게 꾸려지고있으며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이 국가자금으로 도처에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또한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노는 학교와 병원, 도서관, 영화관과 탁아소, 유치원 등 문화보건후생시설들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의 교육, 문화, 보건사업은 모두 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고있다. 군은 농촌학교, 진료소들을 직접 관리하고있으며 군내의 전반적문화위생사업을 지도하고있다. 농촌의 당간부들과 관리간부들도 주로는 군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양성되고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없는 농촌에서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으며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느 깊은 산골에서도 도시와 다름없이 나라의 부담으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로동할 년령에 이르기까지 9년제기술의무교육제의 혜택을 받고있으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자로, 수령의 붉은 혁명전사로 육성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군이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얼마나 크고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고있는가를 말하여주는것이다. 군이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자기 역할을 높일수록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화혁명수행의 력사적과업은 더욱더 촉진될것이다.

3

오늘 우리앞에는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군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할 중

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군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농업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로선을 받들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군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옳게 실행할수도 없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현시기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우리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 군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교시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군을 튼튼히 꾸리고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력사적인 교시들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오늘뿐만아니라 래일에 있어서도 군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리론실천적해답이 명백히 주어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무엇보다 먼저 군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들, 특히 자기 군과 농촌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하며 그이께서 현지지도과정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신 사업방법의 모범을 따라 부단히 배워야 한다.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농촌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의 농촌사업지도를 계속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47페지).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사업의 모든 전선들과 부문들을 다 장악하고 옳게 지도해나갈 때에만 군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하여 주신 김일성동지의 모든 교시들, 특히 자기 군앞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다 잘 풀어나갈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매개 군당위원회들에 나라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민들과 자원을 맡기고있으며 군내의 자원들을 옳게 리용하여 인민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데 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그가 책임진 우리 나라의 200분의 1에 해당한 지역내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회안전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며 결국 온나라의 모든 일을 다 잘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군당위원회들은 우리 당의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의거하여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등 군내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자기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키잡이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반드시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하면서 농촌에서의 모든 정치경제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것은 현시기 군당위원회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또한 우리 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이신작칙하면서 군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모든 사업에서 대중을 적극 발동하며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당의 결정과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군사업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한층더 급속히 발전시키고 군을 우리 혁명의 더욱 튼튼한 진지로 꾸려야 한다.

오늘 군을 꾸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가일층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군이 정치적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군내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보다 확고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지도적지침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며 그것을 각분야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이다. 우리의 모든 군들에서는 군내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도록 하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어떠한 역경속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며 당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보다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진정한 혁명가로, 수령의 붉은 혁명전사로 만들며 그들 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오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군이 지니고있는 임무는 매우 크다.

모든 군들은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각분야에서 생산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일대 혁명적고조를 계속 높이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더욱 준비있게 앞당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군들은 특히 지방에 파묻혀있는 무진장한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지방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켜야만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군내 주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수 있으며 전반적인민경제의 발전과 국방력강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대규모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방에 중소규모기업소들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기업소들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에 각종 기계설비들을 더많이 생산공급해주어야 할것이며 특히 모든 군들에서는 중앙공업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을 보장할수 있도록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려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들이 주민생활의 제1차적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소비품생산분야에서 뿐만아니라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채취공업 등 일련의 중공업부문들에서도 경제적리익을 위해서나 국방상 리익을 위하여 대규모공장들과 중소규모공장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현시기 농업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있는 토지와 농기계, 이미 건설된 관개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는것은 군들 앞에 나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경리부문에서 경제건설도 잘하고 국방건설도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첫째 가는 과업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증대시키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이 추진되고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협동벌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올해에도 황해남도현지지도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하에 고인물을 없애기 위한 전군중적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류례드문 큰물을 이겨내고 례년에 드문 대풍을 마련하였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게 지을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황해남도현지교시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주신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군을 공고한 알곡생산기지로, 식량기지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동시에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과수업과 잠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의 농촌경리를 더욱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우리는 군을 튼튼히 꾸리고 군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할것이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심문제

송 복 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함남도 및 함흥지구에서 하신 교시에서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고조를 일으킬것을 호소하시면서 인민경제의 화학화에 각별히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화학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화학공업의 발전은 인민경제의 기술진보를 촉진시킬뿐만아니라 국내의 자연부원을 다각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원래 없는 자원도 있는 자원으로 대용할수 있게 하며 생산과 건설에 천연재료보다도 훨씬 질 좋은 여러가지 합성재료들을 공급하여준다. 더우기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에서 경공업원료를 충분히 공급할수 없으므로 원료를 화학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화학공업, 그중에서도 유기합성공업의 발전과 인민경제의 화학화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71～72페지).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7개년계획은 기술혁명의 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경제의 전면적인 기술개건을 요구한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현대과학과 기술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며 우리 나라 기술혁명의 중요내용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생산공정에 화학적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화학제품을 원료, 재료로 광범히 리용하는것에 의하여 실현된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조건에서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더욱더 긴절한 과업으로 된다. 지금 고결도물질을 화학적방법으로 가공하거나 부식방지대책을 세우며

도금, 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 공업부문의 많은 생산공정의 완성이 화학화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기계화, 전기화, 자동화와 함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생산수단과 로동력을 극력 절약하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과의 차이를 없애고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우리 인민에게 더욱 문명하고 유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34~35페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업이 적어도 원료의 70%이상을 국내산으로 보장하여야 자립적민족공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원료를 기본적으로 국내산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공업은 자립적인 민족공업이 아니라 예속공업인것이다. 우리 나라의 공고한 원료기지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건설하여야만 인민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자체의 힘으로 계속 보장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바로 자기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를 관철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원래 없거나 부족한 자원도 있는 자원으로 대용하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을 비롯한 기타 공업부문들에 요구되는 원료, 자재의 많은 부분을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지금 경공업의 원료, 자재의 대부분이 화학공업제품으로 구성되고있으며 기계공업, 건재공업 등 기타 공업부문들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적지않은 비중을 화학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만 우리 나라 공업의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섬유, 합성고무, 합성수지제품들을 대량생산하며 가볍고도 견고하며 원가가 낮은 좋은 건재와 다양하고 맵시있고 쓸모있는 값눅은 인민소비품을 더많이 생산공급하는데서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농경지가 적은 우리 나라의 실

정은 원료를 화학적방법으로 생산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있는 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식량의 예비도 조성하여야 할 현조건에서 공업의 원료를 농촌경리에서 충분히 공급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업의 원료를 화학적방법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우리 공업의 공고한 원료기지를 축성하며 오늘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된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더많이 생산보장하여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만 알곡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축산업과 과수업 등 농촌경리의 다각적인 발전을 실현할수 있다.

그리하여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당면하게 긴장되여있는 나라의 로력사정을 풀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한 과업으로 하여 로력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다.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경제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로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금 농촌경리부문에서 로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업에서는 벼재배의 비중과 생산의 집약화수준이 계속 높아지고있으며 또한 로력을 많이 요구하는 축산업과 과수업을 비롯한 기타 부문들도 더욱 발전하고 토지건설과 농촌건설도 광범히 전개되고있다. 그러므로 있는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켜야 농촌로력문제를 더잘 풀고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방력강화에 더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돌릴수 있게 하며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더잘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현대적인 군수공업은 화학공업의 발전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경제의 화학화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현시기 기술혁명의 수행에서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일환이며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들이 지난기간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마련하여놓은 경제적토대 특히는 화학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부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웅대한 발전전망을 펼쳐주시였으며 그 실현에 거대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화학공업발전전망은 실로 웅

대하다. 조선인민은 가까운 장래에 발전된 화학공업의 나라에 살게 될것이며 자기자신의 로력의 풍부한 결실을 향유하게 될것이다》(《화학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1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면서 화학공업의 발전과 인민경제의 화학화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화학공업은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경공업의 원료와 기타 공업부문들의 원료, 자재를 생산보장하며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을 농촌경리에 공급해줌으로써 공업 특히는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기간적인 중공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며 우리의 중공업은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복무하며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그이의 교시를 실현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화학공업발전의 방향과 단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여주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조직하시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옷감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비날론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배려하시였다. 전후에 몸홍벌의 갈밭에 손수 비날론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흥남종합비료공장의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공장, 제1뇨소공장을 비롯한 화학공장들의 건설방향과 단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제기되는 애로들, 걸리는 문제들을 그때마다 하나하나 손수 풀어주시군하시였다. 그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비날론공장의 건설에로》, 《화학비료는 곧 쌀이며 쌀은 사회주의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의 영웅적인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당의 구호실현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깊은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세계 일등급의 현대적인 대규모비날론공장을 비롯하여 화학섬유공장들과 합성수지공장들이 신설확장됨으로써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기지가 축성되였다. 또한 흥남종합비료공장의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 제1뇨소비료공장, 아오지화학공장의 석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계통의 제1계단공사, 청수화학공장의 석회질소비료공장,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의 제2비료직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과 직장들이 새로 조업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지난시기 화학비료를 비롯한 일부 무기화학제품이나 생산하던 기형적인 공업으로부터 유기합성공업 특히 고분자화학공업과 무기화학공업을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대규모의 화학공업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믿음직한 구성부분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화학공업은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잘 복무하며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적극 실현할데 대한 당과 김일성동지의 구상을 더잘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인민경제화학화에 대한 원대한 구상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도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 전면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인 화학공업의 창설—이는 오직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 따뜻한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이미 마련하여놓은 화학공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는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킬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 *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이 화학공업부문앞에 제시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은 오늘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킬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특히 농촌경리의 화학화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경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성장을 자극하며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을 구제하는 이 모든 일들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실현하여야만 농촌에서 고되고 힘든 일을 덜며 적은 로력으로 농사를 집약적으로 하여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0~81페지).

현시기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촌로력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 나라 농사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것은 모내기와 김매기 작업이다.

우리가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켜 살초제를 원만히 공급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김을 맬 필요가 없게 되며 김매기작업이 없어지면 벼를 직파하고 모내기작업을 없앨수 있다. 따라서 적은 로력으로 더많은 경지를 다룰수 있게 될것이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는 중요방도로 된다. 농사에서 화학적방법의 적용은 토지를 개량하고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각종 병충해와 잡초를 없앨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할 때 알곡의 정당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식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현시기 농촌기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며 그것은 력사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적합한 다종다양한 화학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각종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는것이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21페지).

각종 화학비료를 더많이 생산공급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화학적방법으로 제거하는것은 현시기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선 화학비료를 더많이 생산보장하

며 그를 옳게 시비하는것이 중요하다.

화학비료의 시비량의 증가는 토양조건과 작물구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화학비료를 준것만큼 알곡생산의 장성을 가져온다. 특히 질소비료, 린비료, 카리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해주는것은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결실을 충실하게 하며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질소, 린, 카리는 비료의 3대구성 요소이다.

화학비료생산에서 린비료의 생산보장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것이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질소비료가 많이 생산공급되는 현조건하에서 알곡생산을 증대시키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린비료의 생산보장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린은 식물의 생장을 도우며 특히 뿌리끝세포의 생활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다른 영양물질을 잘 빨아들이고 낟알을 잘 여물게 한다. 린비료는 산성이 강한 토양에서도 곡식이 제철에 충실히 여물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에 적지않게 있는 린회석을 자체로 개발하여 린비료를 생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린회석의 개발을 적극 추진시키며 그의 조성에 맞는 경제적인 선광법을 확립하며 이미 연구된 선광시약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선광시약을 연구하며 용성린비료의 생산대책을 적극 세워야 한다.

질소비료생산을 계속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존질소비료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그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그의 질적구성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석회질소비료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암모니아후처리공정에서 그 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카리자원에 대한 탐사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이미 찾아낸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카리비료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질소비료와 함께 린비료와 카리비료를 농촌경리에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상 질소비료, 린비료, 카리비료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질소비료의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다른 비료들도 효과를 더 잘 낼수 있다.

비료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또한 류린안비료를 비롯한 복합비료의 생산을 조직하고 비료의 유효성분을 높이며 농작물의 특성과 시비방법에 맞게 비료를 생산하는것이 필요하다.

미량원소비료를 생산보장하는것은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동, 망간, 아연, 몰리브덴, 코발트, 붕소 등 미량원소와 마그네시움, 칼시움, 규소, 철 등은 농작물수확량증대에 큰 영향을 준다. 미량원소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것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각종 페설물로부터 미량원소비료를 회수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합리적이다.

미량원소비료로 리용되는 철화합물, 망간화합물, 붕소화합물을 비롯한 동, 마그네시움화합물 등은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미광, 페설물, 폐재들을 회수하여 약간한 가공만 한다면 능히 얻을수 있다.

화학비료의 생산공급을 증대하는것과 함께 그 리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것은 농작물생산의 증대에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농작물은 논밭에 주는 비료들의 성분을 전부 흡수하지는 못한다. 만약 화학비료에 포함된 비료성분을 더 많이 농작물이 흡수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만한 비료공장을 새로 얻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며 그만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더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토양분석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매개 경지 및 작물별 특성에 맞는 비료를 선정하여 사용하며 비료의 류실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동시에 토양의 물리적성질을 화학적방법으로 개선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농작물의 수확량은 토양의 물리적성질에 많이 좌우된다.

우리는 농경지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키로그람에 이르게 하고 장차로는 1톤이상의 수준에 올리며 과학적시비체계를 확립하여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의 합리적리용은 큰 의의를 가진다.

살초재와 살충, 살균제들은 풀과 병해충을 죽임으로써 로력을 절약하고 농민들의 일을 헐하게 하며 농산물의 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한다.

각종 영농작업이 2중3중으로 중첩되여 로력사정이 가장 긴장되는 5~8월기간에 살초제를 사용하여 김을 없애는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조건에서도 사람과 가축, 물고기, 농작물등에 해를 주지않으면서 잡초와 해충들을 없애며 살초효과와 살충효과가 높은 농약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의 대량생산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 분야의 연구사업에서는 동화합물, 수은화합물을 대신할수 있는 농약의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농약의 품종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조건과 기후조건에 맞게 작물별 사용방법을 확정하고 인체와 가축에 대한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면서 살초작용과 살충, 살균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수업에서 농약은 알곡생산에서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수원들에서 병해충과의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과실나무를 잘 키울수도 없고 과실의 품질을 제대로 보장할수도 없으며 높고 안전한 과실수확을 보장할수 없다.

그러므로 시약체계를 잘 세워 농약의 살충, 살균 효과를 높이고 약제의 리용에서 류산동과 류황의 소비기준을 점차 낮추고 대용약제의 생산을 조직하며 새로운 여러가지 농약과 부착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종 화학제품을 리용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축산업발전에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사료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배합사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그에 필요한 미량첨가제 및 단백질 등을 화학적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오늘 현실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배합사료의 생산을 개선강화하고 •단백효모의 생산과 메치오닌의 합성을 조직하며 각종 합성비타민과 철, 코발트, 아연, 망간 등 미량첨가제의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과 생산조직사업을 하여야 한다. 미량첨가제와 비타민의 생산에서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페설물, 부산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당은 농촌경리를 화학화하는것과 함께 더많은 경공업원료를 화학적방법으

로 해결하는것을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있다.

경공업의 중요원료로 되는 스프, 비날론을 비롯한 각종 화학섬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염화비닐, 페놀수지, 뇨소수지, 메라민수지 등 합성수지와 합성고무공업을 발전시키며 산, 알카리 등 기초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염료, 도료 및 안료와 화학시약, 향료, 방부제, 세척제 등의 대량생산대책을 강구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화학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자체의 공고한 원료기지인 합성섬유, 합성수지공업이 창설되였으며 섬유 및 일용품의 원료중에서 화학제품의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화학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화학섬유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비날론, 인견스프를 비롯한 인조섬유와 합성섬유를 대량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인민들에게 더좋은 옷감을 더욱 풍부하게 공급할수 있게 될것이다.

그리고 염화비닐을 비롯한 합성수지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값싸고 문화적인 일용소비품들을 원만히 공급하며 합성고무와 염료, 안료 등의 생산을 증대하며 그 질을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유처리기지와 석탄건류에 의한 화학제품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유기합성공업을 발전시키며 목재와 금속 등 재료를 화학제품으로 대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계속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오늘 원유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화학공업자체를 일층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부문 일군들은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적극성, 창발성을 다하여 원유가공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서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건재생산에서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키는것이다. 화학건재는 다른 건재에 비하여 훨씬 가벼우면서도 질기고 잘 닳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염화비닐을 비롯한 화학건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공업토대가 이미 마련되여있다. 이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화학건재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건재구성에서 화학건재의 비중과 질을 더욱 높이며 도료, 방수제, 접착제의 생산을 증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는 중소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며 화학공업의 현존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심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상이다.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 당의 정책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을 꾸준히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견결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실속있고 똑똑하게 그리고 적입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소극성, 신비주의를 비롯한 일체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 빼고 주체를 똑똑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화학공업을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잘 해나갈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당의 방침대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생산현장에 내보내여 생산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릴것이 요구된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실속있게 배워주고 그들을 오래 고착시키며 직장학교, 작업반강습교, 기능공학교 등을 더잘 운영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도입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매개 사람들이 사상동원이 되여다 자각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며 할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관리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당이 인민경제의 화학화와 관련하여 제시한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계획화사업에서 민주주의적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계획의 세부화 및 일원화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 부문 기업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화학화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술혁명 그중에서도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킬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고야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이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토대와 화학공업의 강력한 기지가 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힘, 이 위력한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당과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촉진에 더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혁명에서의 농민문제

수 흠

1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할것을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농민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이다》(《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98페지).

남조선혁명에서 농민은 주력군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농민과의 공고한 동맹을 형성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에 적극 인입함으로써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에서 농민문제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관련된다.

남조선혁명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인 국내반동세력들을 청산하고 민족적해방과 민주주의적변혁을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달성해야 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다.

이 혁명은 광범한 농민들을 미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매판자본에 의한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남조선농민은 로동계급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철저한 수행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은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그와 함께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여야 할 계급이다.

오늘 남조선농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가혹하게 억압착취당하고있는데서 로동계급에 가장 가까운 처지에 놓여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영향하에 토지를 위한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농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무마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배와 수탈 체계를 재편성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농지개혁》이 실시된후에도 의연히 봉건적착취관계가 지배하고있으며 농민들의 경리는 더욱더 령세화되였다.

봉건적착취관계가 지배하고있는 남조선농촌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한줌도 못되는 지주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10만에 달하는 지주들이 총경지면적의 40%에 해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140만호이상(총농가호수의 약 50%)의 농가를 봉건적착취관계에 얽매여놓고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지주에게 수확고의 50~60%나 되는 고률의 소작료를 바쳐야 하며 지주와 부농의 고리부채에 얽매여있다.

농민들은 미제와 괴뢰정부에 의해서도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농촌은 미제의 식민지착취와 략탈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10만정보이상의 토지를 략탈하여 침략과 전쟁을 위한 군용지와 군용도로로 전변시켰으며 수많

은 농촌청장년들을 끌어내여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강요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하며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방대한 군사비의 많은 부분을 농촌에 대한 수탈에 의하여 충당하고있다. 미제의 농촌수탈은 주로 괴뢰정부의 조세체계와 신용 및 상품류통 체계를 통하여 감행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매년 평균 114만석에 달하는 엄청난 《농지세》를 부담하고있으며 기타 가렴잡세를 수탈당하고있다.

이밖에도 남조선농민들은 농산물강제매상, 자유시장에서의 저미가판매, 영농자재의 구입 등 류통과정에서와 신용체계에 의해서도 가혹하게 수탈당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이 이러한 수탈체계에 의하여 농가호당 평균 총수입의 30%이상을 수탈당하고있는데 이것은 각종 봉건적착취의 총량의 6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영농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키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에 심한 고통을 주고있다. 오늘 남조선농민들은 항시적인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의 절량농가호수는 매년 평균 100만여호이상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의 농촌과 농민들을 전쟁정책의 희생물로 삼아온 미제국주의자들은 농업생산의 필수적조건의 하나로 되는 관개시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있으며 저들의 군사적목적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관개시설마저 파괴하는 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 지주들의 가혹한 략탈과 착취로 인하여 남조선농민들은 막대한 액의 부채의 중하에 짓눌리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발표한 공식적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채를 걸머지고있는 농가는 경작농가의 92%에 달하고있으며 호당 평균부채액은 1965년에 무려 1만 1,000여원에 달하고있다.

엄청난 부채를 갚을수 없는 수많은 남조선농민들은 해마다 리농하고있는데 그 규모는 매년 평균 6만여호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산업의 극심한 파탄은 리농한 농민들조차 흡수하지 못하여 농촌의 방대한 잠재적실업인구를 형성케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농촌에는 로력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 및 반실업자들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농촌봉건세력들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착취와 략탈을 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고있다. 그들은 지어 인신적, 인격적 멸시와 모욕, 박해, 천대까지 받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농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2중적압박과 착취 밑에서 겪고있는 암담한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적극 참가하게 된다.

남조선농민은 그의 계급적처지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으로,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 되며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사정으로 하여 로동계급이 반드시 전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력량이다.

남조선농민은 남조선인구의 7할이상을 차지하며 기본상 농민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어민이 약 100만이나 된다.

남조선에서 농민은 가장 수가 많은 혁명군중으로서 그들을 혁명에 인입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달성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은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그들을 혁명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농민문제해결에 대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방침을 수립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혁명력량을 확대발전시켰으며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우리 당은 로농동맹을 계속 강화하며 농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조성된 객관적정세와 계급관계,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타산하여 농민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개조가 끝난후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주의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한것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 관련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농민들도 공화국북반부에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을 마련하여주신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흠모의 정으로 충만되여있다.

2

남조선혁명에서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성격에 상응하는 농민들의 기본 투쟁목표와 당면한 투쟁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제시하신 농민문제해결을 위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경험은 남조선혁명에서 농민문제해결을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데 있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2~3페지).

남조선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농민들이 달성해야 할 기본목표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과 그들의 사회정치생활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농촌정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토지에 대한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농촌에는 약 56만호의 고농이 있는데 이들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있거나 2단보(600평)미만을 소유하고있다. 이들은 주로 품팔이를 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농촌프로레타리아트이다. 남조선에는 약 160만호의 빈농민들이 있다. 이들은 0.2~1정보의 적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때문에 년중생계비의 50%내외를 고용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충해나가는 농촌의 반프로레타리아트이다. 1정보미만의 토지를 경작하는 빈농민들의 평균경작면적은 1955년에 0.57정보로부터 1964년에는 0.54정보로 감소되였다. 남조선농촌에서 빈고농들의 대렬은 부단히 확대되고있는데 1945~1964년간에 남조선총농가호수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1.4%로부터 75%로 높아졌으며 그중 고농은 같은 기간에 5만여호로부터 56만여호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남조선농촌에는 1~2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기본상 자기의 로력으로 농사지어 생계를 유지해가는 중농이 약 32만호나 있다. 오늘 남조선의 중농의 다수가 고리채, 토지부족 등으로 곤난한 형편에 처하여있으며 이들은 부단히 몰락되여 빈고농층으로 떨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근로농민들은 령세한 토지에서 착취자들의 부단히 강화되는 수탈로 항시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이 감행하고있는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봉건적토지소유 및 착취관계는 남조선농촌에서 생산력발전을 심히 억제하며 농민들을 극도로 령락시키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농민앞에 토지문제의 민주주의적해결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는 응당 밭갈이하는 농민들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또는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줌으로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야 한다》(단행본, 110~111페지).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문제의 해결은 혁명의 중요 대상의 하나인 지주계급을 가장 철저하게 청산하며 반면에 빈궁과 기아에서 신음하는 빈농, 고농들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도이다. 그것은 또한 토지가 다시는 착취수단으로 전화될수 없게 하고 부농경리의 장성을 제한함으로써 농민들을 영원한 농촌의 주인으로 되게 하며 농촌혁명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이다.

토지분배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분배된 토지의 매매, 저당, 소작을 엄격히 금지하는것이다.

이것은 빈고농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할뿐아니라 토지가 오직 근로농민들의 밭갈이하는데만 리용될수 있게 하며 다시 착취수단으로 전화되지 못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근로농민들이 안정된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향상시키게 할뿐아니라 근로농민들을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 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적토지개혁의 실시와 함께 농민들을 고리대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착취와 략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조선농민들은 지주, 고리대업자, 부농, 중간상인, 괴뢰정권의 관리 등의 가혹한 고리대적착취를 당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농민들의 대부분이 고리부채에 얽매여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농민들을 고리대착취로부터 해방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다.

남조선농민들을 고리대착취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고리대를 철폐하며 농민들이 진 토지채무와 빈농민들의 일체 부채는 폐기되여야 한다.

또한 토지기근으로 인한 남조선농민경리의 령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간하여 경지면적을 확장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 농업생산력을 복구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킬수 있다.

남조선혁명에서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문제의 해결, 각종 착취관계의 청산과 함께 농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토지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농민문제해결의 불가분의 통일된 구성부분으로서 그의 각이한 두 측면을 이룬다.

농민들은 토지의 주인으로 될뿐만아니라 일체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여야 한다. 남조선농민들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미제와 괴뢰도당의 온갖 탄압과 압박을 청산하며 농촌의 제반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는 미제와 괴뢰정권의 파쑈적탄압과 직접간접으로 되는 수탈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남조선농민들의 반파쑈민주화와 반수탈투쟁은 자신의 당면한 정치경제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의 첫째가는 대상인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타격을 가하는것으로 된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토지략탈을 비롯하여 각종 형태의 량곡 및 현금 수탈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동시에 남조선농민들은 괴뢰정부의 략탈기구인 《농업협동조합》과 《토지개량조합》 등의 수탈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리익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적대중단체를 가지며 그의 합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농민들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등 모든 정치경제적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타도하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며 식민지통치를 청산함이 없이는 농민문제의 해결도,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농민들과 인민들은 미제를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미제의 주구인 박정희도당을 쓸어버려야 한다.

오늘 남조선농민들은 투쟁속에서 점차 각성되고 단련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각종 수탈과 봉건적착취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에서는 괴뢰정권의 반동적농업시책과 수탈책동, 관제어용단체의 부정부패와 수탈책동을 반대할뿐만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조직의 창설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성격이 점차 높아가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의 투쟁건수는 작년에 비하여 금년에 수배로 장성하고있으며 투쟁형태에 있어서도 농성, 시위, 집단항거 등 적극적투쟁의 비률이 점차 제고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농민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혁명적당주위에 결속되며 로동계급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학생, 인테리들과의 련합을 실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높이들어야 한다.

남조선농민들이 대중적혁명투쟁에서 더욱 각성되고 조직되며 혁명적당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날 때 남조선혁명은 더욱 촉진될것이며 남조선농민들의 혁명적요구는 달성될것이다.

남조선농민들은 혁명투쟁에서 능히 승리할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와 행복에로 이끌어주시는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주위에 하나로 통일단결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사회주의제도와 불패의 혁명적무장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이 있다. 남조선에서도 혁명력량은 장성강화되고있으며 혁명투쟁은 촉진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같이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근로자 제 11 호 (루계 309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로자사 주소•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쇄•1967년 11월 25일 발행•1967년 11월 30일

ㄱ—73429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평양 근로자사 1967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 (310)

차 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내각 수상 김 일 성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환호 소리 오래 계속)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선거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관철을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가 비상앙양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성과적으로 실시되였습니다. (박수)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들은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한결같이 선거에 참함으로써 인민정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을 기어코 완수하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선거의 결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허운 신뢰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세상다시한번 시위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이번에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이 우를 신임하여 다시 공화국내각을 구성할것을 위임한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렁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진정한 인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난 19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네번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네번째로 공화국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인민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에 의하여 그리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렁찬 박수)**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강토에 오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선거가 있은 이후 공화국내각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1966년 10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가 내놓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라의 위력은 더욱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자기들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를 무한히 신뢰하게 되였으며 그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과 로선을 자기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의 위업과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우리 국가와 사회제도의 공고한 기초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세계의 대소국가인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할수 있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경제정책에 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1966년에 공업생산은 1962년에 비하여 1.4배로, 해방직후인 1946년에 비하여는 41배로 높아졌습니다.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

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조직전개한 결과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토대는 더욱 정비보강되였으며 여러가지 중공업제품의 생산이 현저히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촉진하는 튼튼한 기지로서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박수)

경공업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넉넉하지는 못하나마 자체로 생산한 상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고있으며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을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경공업의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박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도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이 개선되고 농촌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농민들의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열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최근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심한 자연재해가 계속되였으나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이를 완전히 이겨냈습니다.(우렁찬 박수)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생산이 빨리 늘어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1966년에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은 500원으로서 1962년에 비하여 1.2배로 높아졌으며 올해에는 그것이 580원으로 늘어날것이 예견되고있습니다.(박수)

공화국정부는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축적을 끊임없이 늘이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국방건설에 돌리면서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실질수입을 훨씬 높였습니다. 특히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방침에 따라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애고 농촌기본건설을 국가투자에 의하여 진행하며 국가부담으로 농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등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박수)

주택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근로자들의 주택조건은 상당히 개선되였습니다. 1963년부터 1966년 사이에 도시와 농촌에 1,021만평방메터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차례졌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문제가 해결되였을뿐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뿐만아니라 지난날에는 상품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던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근로자들은 자기들에

게 필요한 상품을 유일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은 교육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98개의 대학을 비롯한 9, 260여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60만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교육사업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박수)

1962년에 비하여 1966년에 대학졸업생수는 1.2배, 고등기술학교 및 중등전문학교 졸업생수는 3.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1962년에 비하여 2.3배나 되는 42만 5,700여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습니다.(박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의 기술자,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으며 새로운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부단히 건설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새 조국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였습니다. 보건부문에서 지난 4년동안에 의료일군대렬이 훨씬 늘어나고 의료시설들이 확장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더욱 개선되였습니다. 인민보건사업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써 1966년에는 해방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0년이나 길어졌습니다.(우렁찬 박수) 이것은 오직 인민대중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및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수많이 설치되여 어린이들을 훌륭히 교양육성하고있으며 녀성들에게 사회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박수)

이 모든것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의 뚜렷한 표현입니다.(우렁찬 박수)

최근년간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에 꾸바공화국을 반대하여 카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후 웰남민주

공화국을 반대하여 바크보만사건을 도발하고 남부윁남에서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당과 정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인민경제를 개편하는 한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떠한 원쑤들의 무력침공도 능히 물리치고 조국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지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이 모든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거대한 우월성의 뚜렷한 발현이며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과 창조적로동의 위대한 결실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할수 없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계속 많은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새로 구성된 공화국내각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기의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할것이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부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과업을 실행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것입니다.

첫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갈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

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매개 나라는 자기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기 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가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일군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그들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통채로 삼키는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대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정신이 훌륭히 구현된 결과 공화국의 정치적자주성이 공고히 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과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우리 나라는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의거하여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쌓음으로써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공화국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과학문화분야에서 주체가 선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촉진되고 교육사업과 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질적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개화발전하게 되였습니다. (박수)

국방건설분야에서도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였기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하고 그 수행에로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풍부한 국내부원을 동원하였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박수)

공화국정부는 공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사법정책 등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모든 정책을 당의 령도밑에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규정하며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일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과 건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물론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벗들과 단결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부합되고 배울만한것이라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하며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거나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은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립장을 계속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전조선을 외래침략자들의 손에 내말기려는 매국배족행위라고 인정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일관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대외정책분야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경제적관계를 맺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반제투쟁이나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것이며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부는 정치에서 자주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여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충실히 집행하여나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기초를 닦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믿음직한 경제적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 모든 과업은 오직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견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러한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안일성과 해이성에 사로잡히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범할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

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박수) 그러므로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체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이와 같이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축성되여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과학기술과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수 있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계급적차이와 함께 민족적불평등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마자 인차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시대는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이 지배하는 시대이며 극소수의 민족에 의하여 대다수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되고 민족적불평등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민족으로 만들어야 할뿐아니라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국방건설분야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하여 나라의 자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물론 제국주의의 침략과 국제자본의 압박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단결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우호적동맹은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공동의 원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주며 지지성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며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매개 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입니다.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습니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원조만 바라고있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없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자위의 정신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이미 쌓아놓은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특히 우리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원쑤들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유사시에 전방과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이 강한 자립경제로 만들며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침공하여와도 그것을 능히 자기의 힘으로 물리칠수 있도록 나라의 군사력을 철벽으로 다질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서 훌륭히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나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둘째, 공화국정부는 인공적인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한 현재와 같은 우리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없애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인민들을 항상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계속 남북으로 갈라진채 남아있고 새로운 한 세대가 자라도록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20여년이나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조선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은 점차 사라져가고있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없게 하고있습니다.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남조선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 속에 떠뜨리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이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적침략정책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왔습니다. 1946년 10월인민항쟁과 리승만괴뢰정권을 뒤집어엎은 1960년 4월봉기를 비롯하여 《한일회담》을 반대하며 《한일협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련이어 일어난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들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대하여 매번 총칼에 의한 가혹한 탄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군사파쑈독재정책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압소동이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남조선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면 금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남조선전역에

서 련이어 일어나는 남조선혁명가들의 무장소조활동과 대중적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동원된 미제국주의군대와 남조선괴뢰군과 경찰은 예비사단을 포함하여 무려 10여개 사단이나 되며 이른바 《소탕작전》에 직접 참가한 미제국주의군대와 남조선괴뢰군과 경찰의 수는 연 600여만명에 이릅니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경북대학교 교수 김대수박사를 중심으로 한 혁명조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10여명의 애국적인테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금년 가을에는 부산일대에서 인민혁명당사건이란 죄명을 씌워 많은 청년들을 검거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또다시 서울에서 소위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을 날조하는 한편, 학술단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불온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많은 대학교수를 비롯한 인테리들과 애국적인사들을 체포투옥하고 《공판》놀음을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세차게 일어나는 애국적남조선인민들의 모든 혁명투쟁을 마치도 북조선에서 파견한 《간첩》들의 활동이라고 터무니없는 잡파대를 하면서 《반공》소동을 더욱 요란하게 일으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떠한 야수적인 폭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적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늘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은 반미구국항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모든 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오직 자기자신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허부실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 용감하게 떨쳐나선다면 미제와 박정희도당을 능히 타도하고 남조선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나는 전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이름으로 남조선각지에서 그리고 지하에서,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에서까지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모든 애국적인민들에게 열렬한 혁명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고있는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있는한 조선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하루빨리 완수하는것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혁명력량을 어떻게 확대강화하며 적들과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도 크게 달려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의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갖추는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임무를 자기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반부에서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여 안일해이할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있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습니까?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져야 하며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하겠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이와 함께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을 강화하는 기본담보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늘의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더 혁명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복종시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공화국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전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지 않고는 남조선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국가살림으로부터 개인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한알의 쌀, 한그람의 철, 한방울의 휘발유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조성하여야만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습니다.(박수) 또한 그렇게 하여야 앞으로 나라가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남반부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하여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주인답게 일하며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만과 해이성도 사소한 안일과 부화와 사치도 허용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기풍으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전체 인민이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모두다 당이 부를 때에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하겠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셋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강화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를 와해시키려고 밖으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

의 반항을 진압할뿐아니라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도 점차 없애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과 전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동시에 문화혁명을 전개하여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할 과업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추진하여야 하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고하고 어려운 그리고 장기적이고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는 혁명과업입니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한 로동계급이며 그들에게는 혁명적단련이 많이 요구됩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짧은 시일내에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로동계급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가운데는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이후에 로동자로 된 어제날의 소상인, 수공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여 그들을 보다 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전사회를 개조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도와 문화적영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들의 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사회의 로동계급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테리들을 혁명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인테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당과 로동계급과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하여 그 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조선로동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대중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투쟁대상은 착취계급이 남겨놓은 개인주의, 리기주의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무겁게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정신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

로자들이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몸바쳐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우월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우리가 이미 창조하여놓은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미 마련한 귀중한 밑천을 더욱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교양하는데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들이 우리의 모든 재부가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고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실속있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조금이라도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애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라와 인민의 재부를 늘이고 그것을 알뜰히 거두기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혁명적사업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 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풍모를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합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누구나 다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견실하고 유능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온 나라를 붉은 대가정으로 꾸리고 전사회를 혁명적정열로 들끓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에서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여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넷째, 공화국정부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도록 할것입니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며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버리고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새환경과 조건에 맞게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편하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린 결과 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960년 2월에 있은 청산리에 대한 지도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혁명과업수행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우며 그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국가, 경제 기관정무원들은 다 인민이 선출한 일군들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들입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지 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

못한 근로인민을 위한 그들의 실지 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고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당정책으로 재여보고 당의 의도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제때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적극 해석선전하여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일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며 군중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군중의 정치사상적각오를 부단히 높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나 먼저 그에 대한 당의 의도를 대중에게 정확히 해석침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며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키고 지도방법을 결정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아래를 지도하는 중요한 목적은 아래일군들을 도와서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고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자는데 있습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서 명령과 지시만 할것이 아니라 아래일군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며 그들과 힘을 합하여 걸린 문제를 풀며 그들에게 일을 잘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할뿐아니라 국가의 법령들과 결정, 지시들을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른 인민적품성을 가짐으로써 실지행동으로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민들이 우리의 일군들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올수 있으며 인민정권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

을 강화하여 그들이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인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참말로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고상한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계급적관점과 군중관점을 세우는것과 함께 그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자기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앨수 없으며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할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혁명가로 되여야 하며 인민대중으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다섯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규정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잘 정비보강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생산력을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공업생산은 가까운 년간에 배이상으로 높이도록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1. 공 업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우리는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할것입니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튼튼히 틀

어쥐고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에 의거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대규모화력발전소건설을 촉진시키며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과 공장화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조건으로 인한 전력생산의 계절적파동성을 완전히 없애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동력의 제한을 받지않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

탐사일군대열을 늘이고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예비탐사와 특히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선진탐사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어느 부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탄광, 광산들에서 채굴작업과 운반작업을 비롯한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모든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선진적인 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특히 로천채굴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사업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 채취공업의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채굴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 광석의 종합적처리에 대한 연구사업 등 채취공업부문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을 모든 방면에 걸쳐 적극 추진시킬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발전에 확고히 앞세우며 나라의 원료기지와 연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의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수준과 경제적위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무진장한 철광석자원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강철공업은 매우 전망이 큰 공업부문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흑색야금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7개년계획에 예견된 강철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박수)

지금 있는 제철소, 제강소들에서 원료처리와 제품처리 능력을 보강하고 부대시설들을 정비하며 산소취입을 비롯한 선진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여 야금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김책제철소 강철직장과 압연직장 신설공사를 비롯한 야금공장들의 개건확장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흑색야금공업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할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강질과 강종에 대한 요구성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강종을 대대적으로 늘이며 합금강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

다.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늘이고 특히 박판과 랭간압연제품생산을 발전시키며 2차가공제품생산을 늘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입니다.

현시기 흑색야금공업앞에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이 부문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산연료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으로써 제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기초를 닦는 한편, 환원단광법, 럽칠의 련속제강법 등을 완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박수)

유색야금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여러가지 유색금속과 희유금속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할것입니다 유색금속압연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유색금속생산에서 완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자체의 경금속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것입니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의 발전을 바랄수 없으며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결국은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기계공업발전에 필요한 흑색금속과 유색금속 자원이 풍부하며 야금공업기지도 튼튼합니다. 우리는 이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기계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혁신을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박수)

이미 있는 기계공장들을 하루빨리 보강하고 완비하며 중소기계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적극 발전시켜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수산업, 농촌경리,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필요한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비추어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대형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형설비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속도가 빠르고 정밀한 기계들을 생산하는 정밀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우리의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박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화학화의 대대적인 도입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며 생산력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추진시켜 농업생산을 높이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체의 원료로 화학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원유가공공업, 합성고무공업 등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박수)

화학공업부문에서 화학섬유의 생산량과 질을 높이고 새로운 종류의 화학섬유들을 만들어내며 염화비닐을 비롯한 여러가지 합성수지들의 생산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질소비료와 함께 국내원료로써 린비료와 카리비료를 생산하도록 하며 살초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재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들과 합성약품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새로운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며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은 건재생산을 그에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와 금속건재, 화학건재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할것입니다.

림업부문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도입하여 원목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제재실수률을 높이고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을 늘여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긴장된 목재사정을 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경공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 가까운 년간에 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완비하며 기술공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소비품의 질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 직물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일용품생산과 식료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공업부문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값싼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 바다의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근해어업과 함께 원해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과 함께 물고기가공사업을 결정

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물고기가공에서 뒤떨어진 방법을 버리고 랭동, 통졸임 등 현대적가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조리 가공하며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긴장된 수송문제를 푸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우리는 교통운수, 특히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철도전기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가까운 년간에 철도의 전기화를 기본적으로 끝내며 일부 지역에 디젤기관차를 도입하여 철도의 견인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기관차, 화차, 객차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철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새철도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하천 및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며 자동차운수도 더욱 확대발전시킬것입니다.

2. 농촌경리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여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며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확대공고화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관개시설들을 정비하여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새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계속 널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치산치수사업은 조사를 잘하고 설계를 세밀히 한 다음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련결농기계와 부속품을 충분히 생산공급하며 농기계의 정비보수사업을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수리화와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토양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의 효능을 높이며 여러가지 농약을 잘 리용하여 작물들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할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질소비료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없애고 린비료와 카리비료 및 미량원소비료를 자체로 많이 생산공급하여 단위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살초제를 비롯한 효능이 높은 농약들을 많이 생산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건설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기화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농촌리의 98.2%, 모든 농가의 86.1%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전기가 들어가지 못한 곳은 매우 널려있는 산골주택들뿐입니다. 우리는 널

려있는 농촌주택들을 될수록 한곳에 모으면서 전기화를 계속 추진시켜 가까운 년간에 모든 농촌과 농가에 전기가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농촌기술혁명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적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생산적건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매개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본투자의 규모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건설에서 설계를 앞세우고 그 질을 높이며 시공을 면밀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적건설과 함께 농촌에서 문화주택을 새로 많이 지으며 낡은 집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지음으로써 농촌에서 오래동안 내려오던 락후와 빈궁의 유물인 초가집들을 몇해안으로 완전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이 모든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워 알곡생산을 비롯한 공예작물, 남새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빨리 장성시켜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축산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미 닦아놓은 축산업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축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이 부문의 락후성을 없애고 축산물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공고한 사료기지를 마련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논, 밭 2모작을 널리 도입하는 한편, 수확성이 높은 사료작물을 대대적으로 심으며 배합사료공장을 여러곳에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량가축원종체계를 세우는 대책을 강구하며 가축사양관리를 개선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며 축산물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을 리용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13만 3,000여정보의 과수원과 10만정보의 밤나무밭을 귀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이것이 다 연대를 맺게 하여 과실과 밤 생산을 훨씬 높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맛있는 과실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결정대로 과수원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가까운 년간에 과수 총면적을 20만정보에 이르게 할것입니다. 해마다 더 많이 생산되는 과실을 저장, 가공할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3. 인 민 생 활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배려, 이것은 공화국정부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리의 부단한 증진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국민소득의 체계적인 장성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국민소득을 훨씬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축적과 소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국방건설의 성과적진행을 보장하면서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국민소득을 잘 분배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것입니다. (박수)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생산을 늘이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화폐임금과 실질수입을 높이기 위한 온갖 대책을 강구할것입니다. (박수)

공화국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에 더 많은 국가투자를 실시할것입니다.(박수)

특히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상업 및 보건 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릴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업류통부문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식료품들과 옷 그리고 여러가지 문화용품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며 특히 겨울용 상품들의 판매량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망을 잘 포치하고 더욱 늘이며 상업시설들을 현대화하여야 할것이며 지역별, 계절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상품을 잘 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포장 및 배달, 야간 또는 이동 판매를 잘 조직하는 등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식당을 더 설치하고 사회급양의 질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할것입니다. 편의시설망을 늘이고 잘 꾸리며 근로자들에게 더 잘 봉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많은 가정부인들이 사회적로동에 참가하여 로동계급화, 혁명화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보건부문에서는 병원과 진료소들을 증설하고 거기에 많은 의료일군들을 배치하며 의사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위생방역사

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현대의학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의학을 발전시키고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도 주목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의약품생산을 발전시켜 합성약품의 품종을 늘이며 항생제 의약품생산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것입니다.

4. 로동행정사업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로동력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리용하는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제기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농경지가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세우기 위하여서는 집약적농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촌경리기계화의 완성은 오랜 시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시하여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공업에 끌어들일수 있는 농촌인구의 원천이 많지 못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하는것만큼 나라의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앞에 나선 정치, 군사적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킬수 없습니다.

현시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며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방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입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근로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입니다.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일뿐만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 그들로 하여금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는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 미워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여 로력랑비를 결정적으로 없애는것입니다.

협동생산과 분업이 매우 발달되고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생산에서 매개 생산단위와 모든 일군들이 제정된 규률을 엄격히 지켜야만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할수 있습니다. 8시간로동제는 로동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가법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소한 로력랑비나 로동규률위반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분초를 다투어 일하며 로동시간내에 최대한의 생산능률을 내기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로력랑비를 없애고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지어줌으로써 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작업중단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자재와 반제품생산을 앞세우고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여 협동생산에 참가하고있는 모든 단위들에서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료, 자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대로 계획에서 세부화를 실현하며 우로부터 아래로 자재를 책임적으로 날라다주는 기자재공급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준비를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혁신은 당면하게 긴장되여있는 로력사정을 풀며 1인당생산액을 빨리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전개하여 한공수의 로력이라도 더 절약하며 보다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생산부문내에서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간의 옳은 로력균형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는것은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건

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될것이며 인구 1인당생산액을 높이고 국가축적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력배치에서 중요한것은 생산부문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의 일군수를 규정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원칙에 확고히 서서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간접부문로력의 비중을 낮추며 기본생산부문의 로력, 그 가운데서도 직접부문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기관일군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년령별, 체질, 기술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력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따라 분배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로동에 본질적인 차이가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이 정확히 관철되여야만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의 제고를 자극하여 생산력발전을 추동할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정확히 분배몫이 차례지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로동계획화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계획화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초이며 따라서 로동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 기본조건입니다. 국가 및 경제 기관지도일군들은 로동계획화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이 모든 사회주의경제건설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경제적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여섯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적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업인 전면적기술혁명의 수행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이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당면한 기술개건사업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과학자들의 창발성과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 자기의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내원료로써 공업생산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에 부족한 원료는 더 찾아내고 없는 원료는 대용자재를 만들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기술혁명을 촉진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과 경험들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경제발전의 전망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해나가는것입니다.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기계공학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현대적공장을 건설하고 최신기계설비를 만드는 과업도 있는 공장과 설비의 능력을 높이는 과업도 과학연구성과들을 빨리 인민경제에 도입하는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공학발전에 과학력량을 집중하여 이 과학분야를 하루빨리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수행에서나 인민경제발전의 장래전망으로 보아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가 널리 도입됨에 따라 전자공학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있으며 그 적용분야는 부단히 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공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모든 방면에 걸쳐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있게 개발리용하며 자연을 성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화학, 생물학, 농업과학, 림산과학, 해양과학 등의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과학자들과 과학연구기관호상간의 련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인민경제적으로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 이미 착수하였거나 채 끝내지 못한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

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한문제 한문제씩 완성해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일군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두가 과학리론수준이 높고 실천경험이 풍부하며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밝은 일군으로, 현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유능한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연구조건들을 더 잘 마련하여주도록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다 공부시켜 그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결정적으로 잘 실시하는것입니다.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잘 실시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 (박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이 다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더 잘 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후대교양과 간부양성에서의 성과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역할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교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워 그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전문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교수교양사업을 더욱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기관들의 물질적토대를 잘 꾸려주는데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적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현시기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을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일곱째,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 전인민적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경제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오직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더우기 국토가 량단되고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절박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군사침략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만명의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으며 60만이 넘는 방대한 괴뢰군병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고있습니다.

최근년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괴뢰군병력을 더욱 증강하고있으며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을 비롯하여 함선, 비행기 등 군사장비를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을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하여 전시동원체계를 세우면서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도발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들을 일본을 비롯한 아세아의 반동들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려고 책동하고있으며 《한일조약》을 미끼로 하여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을 조작하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며 남조선의 군사력을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침략전쟁에 손쉽게 동원하려고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웰남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남조선괴뢰군들을 끌어들였으며 박정희매국도당은 그 어느 추종국가들보다도 먼저 그리고 보다더 많은 병력을 남부웰남의 전쟁터에 밀어넣었습니다.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여가고있으며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은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고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국방사업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우리의 혁명기지를 보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인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우렁찬 박수)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전체 인민은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원호하여야 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동지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든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최대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어떠한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맞받아나아가 싸울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에서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인민들은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모든 장병들이 한등급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지금 있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다 싸울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충분히 소유하도록 그들속에서 전투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민군대를 당과 로동계급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무장된 혁명대오로, 적들의 그 어떠한 분별없는 모험도 능히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에 기초한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켜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긴장한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생산도 계속할수 있고 전투도 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와 함께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어느때 어디로 적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일격에 물리칠수 있도록 전국을 군사요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이 모든것은 국방에서의 우리 당의 자위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야만 적들의 일상적인 파괴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으며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을 능히 격파할수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여덟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를 발전시킨다는것은 결코 국제적인 경제적련계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만들어낸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조건도 다르며 소여 단계에서 매개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과학기술발전수준도 다르며 따라서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과 량도 다릅니다. 이런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거나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수 없는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세계사회주의시장은 제2차세계대전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체계에서 떨어져나와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된 경제적결과로서 형성되었습니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의 형성은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들의 민족경제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 인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저애하며 나아가서는 세계사회주의 경제체계를 질식시키려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렬강들의 야망을 파탄시킬수 있게 하였습니다. (박수)

사회주의시장,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뿐만아니라 신생독립국가들에도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유무상통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 부등가교환과 뒤떨어진 나라들의 략탈에 의한 독점적고률리윤추구의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시장과는 달리 사회주의시장은 신생독립국가들로 하여금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여유있는 공업제품과 농산물을 실현하며 그 대신 자기 나라 경제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다른 나라의 공업설비와 원료, 자재들을 구입할수 있게 합니다.

이리하여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이 더는 지난날과 같이 자본주의시장에 꽉 얽매여 자기 나라의 부원과 자기 인민의 고귀한 로동의 열매를 무제한 략탈당하지 않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시장의 형성은 광대한 시장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롱단하는 제국주의독점체들과 억단장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해외시장을 독점하고 세계원료자원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여보려던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을 여지없이 분쇄하였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전반적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우렁찬 박수)

만일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켜나간다면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의 발전은 더욱 촉진되고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조건이 보다 더 유리하게 이루어질것이며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시장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고 세계자본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을것입니다. (박수)

물론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를 강화발전시킨다고 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과 경제적련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와 경제적련계를 맺기를 원하는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과 무역 및 통상교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경제실무적관계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무역에서 어디까지나 부차적의의를 가지며 그것이 대외경제적관계에서 기본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응당 형제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제1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개 형제나라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호상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며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특히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어떠한 정치적부대조건도 아무런 사심도 없는 더 많은 물질적지원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렬강들의 경제봉쇄를 성과적으로 물리칠뿐아니라 자본주의시장과의 거래를 적게 하고 사회주의시장에 의거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외무역관계에서도 결코 계급적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도덕과 동지적의리를 잊어버려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적리익과 국제적리익의 통일을 위하여 형제나라들간의 경제적련계를 긴밀히 하며 세계사회주의시장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제국주의멍에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관계를 맺으며 통상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오늘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많은 신생독립국가인민들 앞에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은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하여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워 해방된 나라 인민들을 또다시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고 꾀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이 떠벌이고있는 《구라파공동시장》과 《세계경제의 통합》과 같은것들은 다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제적자립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음흉한 침략적목적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및 경제적 부대조건도 없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신생독립국가들과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하며 이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번영을 도모하는것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아홉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자기의 조국을 떠나 해외에 류랑하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이국땅에서 오래동안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민족적차별대우와 온갖 멸시를 다 받아왔으며 무권리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서 끝없는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고있으며 공화국의 륭성과 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습니다. 해외조선공민들은 공화국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며 공화국의 공민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60만 재일조선동포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총련의 지도밑에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적박해와 멸시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으며 자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지금 재일동포들속에서는 조국에로의 귀국을 계속 실현하기 위한 광범한 운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는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당당한 민족적권리입니다. (우렁찬 박수) 일본에는 아직도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오려는 수많은 재일조선공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국제법과 국제적관례와 인도주의적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며 그것을 중도에서 파탄시키려고 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고있으며 일본과 세계의 공정한 사회여론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탄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합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공화국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실시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을 응당 외국인으로서 대우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탄압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일본당국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날로 우심해지는 일본당국의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오직 전체 조선인민의 더 큰 민족적격분을 자아낼뿐이며 이와 같은 부당한 행동은 결국 저지되고야 말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해외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열째,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며 우리 나라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도모할것을 시종일관 천명하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온갖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하는것입니다. 우리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전례없이 공고히 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있습니다. 1962년 제3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구성된 이

후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는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으며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박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문화적교류도 더욱 확대발전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통상 및 문화적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과 우리 인민들간의 교류도 날로 활발하여지고있으며 그들과의 친선적인 련계가 더욱 확대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계속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의 이와 같은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것이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벗들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긴장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주되는 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의연히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의 진보적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주로 분렬된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으려 하는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의 예봉을 웰남을 비롯하여 아세아나라들에 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책동은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으며 전반적인 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오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해서도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진실로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됩니다. 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나라들은 반미투쟁에서 나타나고있는 온갖 편향을 없애고 미제를 반대하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렁

찬 박수)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반제력량의 분렬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입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은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이루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으로부터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세계의 모든 반제반미력량과 단결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선차적과업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며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을 백방으로 지원하는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웰남은 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불굴의 웰남땅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이 투쟁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여,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군사, 정치적 패배를 주고있으며 그들을 헤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이 최고인민회의연단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그리고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전체 영웅적남북웰남인민들에게 가장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있으며 형제적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웰남민주

공화국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는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의 립장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정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우렁찬 박수) 꾸바혁명의 승리와 꾸바공화국의 존재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습니다. 오늘 꾸바공화국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과 혁명적미래를 대표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교살하려고 악랄하게 미쳐날뛰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을 그러모아 꾸바를 반대하는 침략음모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책동도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서 확고하게 전진하는 영웅적꾸바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은 서반구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온갖 파괴책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인민은 형제적꾸바인민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그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특히 우리 인민은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모든 아세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일본의 민주력량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반제력량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인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억세게 투쟁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의 혁명투쟁에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편에 언제나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의연히 평화와 사회주의력량에 리롭게 발전하고있습니다.(박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것이며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반제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대의원동지들!

공화국정부의 정강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로선을 구현하고있습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이 정강의 실현은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더욱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킬것이며 우리 인민의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그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공화국정부는 이 정강을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고 전체 인민들과 대의원들의 기대에 보답할것입니다.(우뢰와 같은 박수)

전체 인민들은 당과 정부 정책을 높이 받들고 계속 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을 박차고 더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앙양이 일어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그 어떠한 힘도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를 받고있으며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한것이며 승리는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편에 있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만세, 환호소리 오래 계속)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15주년을 맞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1952년 12월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소집되였던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이 지나갔다.

제5차전원회의는 미제무력침공자들이 우리 당과 인민을 반대하여 발광적으로 접어들던 그 준엄한 시기에 당내 순결성을 보존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케 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당시 전쟁에서 심대한 참패를 거듭하여 더욱더 곤경에 빠져들어가게 된 미제를 괴수로 한 16개국 무력침략자들은 저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다하면서 대규모적인 공격을 기도해나섰다.

당앞에는 적들의 《신공세》기도를 파탄시키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긴박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제고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선인민의 해방전쟁에서 승패는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향도적역할에 달려있다.

미제국주의무력침범자들과 그의 주구들을 격멸소탕하고 조국의 자유와 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을 더 한층 공고히 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92페지).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으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 당의 전투력에 대한 총검열이였다.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신 우리 인민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은 전쟁의 온갖 난국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함으로써 강철의 당으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로 굳게 결속된 우리 인민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무비의 완강성과 영웅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일부 동요분자, 비겁분자들은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요하였으며 특히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도당들은 우리 당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틈을 타서 로골적으로 당을 반대하여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4차전원회의이후 지난시기 당조직로선집행에서 나타났던 관문주의적

오유를 시정하고 당대렬의 급속한 장성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당의 량적장성과 질적구성간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조성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운 시련속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전쟁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이것은 당시에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당내형편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리고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강의한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하여 취하여진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에서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내에서 온갖 종파주의, 자유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정치군사적 과업의 요구에 상응하게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를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강령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되였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당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일관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종파주의, 자유주의를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 투쟁과정에서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전락된 반당반혁명도당들이 적발숙청되였다.

반당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투쟁과 더불어 당원들의 당성이 비상히 제고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여갔으며 당은 더욱 강철의 대오로 단련되였다.

또한 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은 사상사업분야에서 발로된 교조주의, 사대주의, 형식주의, 민족허무주의 등의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이 투쟁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전쟁승리를 위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미제무력침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후 혁명과 건설의 도상에서 제기된 모든 난관들을 용감히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던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제5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하신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모든 방침들은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할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제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종파주의의 표현형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폭로분석하시고 전당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것을 호소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은 혁명적경각성과 당성을 더욱 높여 이런 분자들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며 종파분자들이 우리 당내에서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미제국주의무력침범자들과 가렬한 전쟁을 하고있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파적행동을 추호도 허용할수 없다.

…만일 종파분자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들이 결국은 적의 정탐배로 되고만다는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여야 하겠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8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특히 반종파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의 전투력을 제고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대렬의 순결성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는것,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은 바로 전투적인 단결에 있으며 그것은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성, 행동의 일치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대렬내에서 종파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함이 없이는 당의 강철같은 사상적통일과 조직적단결을 확고히 견지할수 없다.

당대렬의 통일을 고수하며 그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반종파투쟁은 극히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해방전후를 통하여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분자들은 헤아릴수 없는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그 불길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창건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가장 심중한 관심을 돌려왔으며 당내에 잠입한 온갖 종파분자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당내에 잠입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전당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전쟁시기에 또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종파분자들은 적들의 군사적공세가 강화되고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던 시기에 발악적인 반혁명음모를 감행하여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5차전원회의에서 종파주의의 표현과 해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파분자들과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적들과의 결사전을 준비하고있을 때에 종파를 치고 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것은 오직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내외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세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우리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앞에 난관이 중첩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당내투쟁으로 내부의 원쑤들을 제때에 극복청산하고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의 확고한 길로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를 통하여 정세가 긴박하고 어려울수록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과 종파주의의 본질, 해독성을 전체 당원들에

게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반종파투쟁을 당원대중의 높은 정치적각성에 기초한 전당적투쟁으로 되게 하시였다.

이것은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가장 심도있게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이 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수립할수 있게 한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특히 제5차전원회의문헌을 토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정치적각성이 제고되였으며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전당적인 심각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였다.

당원대중의 높은 정치적각성에 기초한 전당적인 사상투쟁행정에서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전락된 박헌영, 리승엽 도당이 폭로숙청되였으며 당은 해방전로동운동에서 물려받은 종파주의를 결정적으로 청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당원들의 각성의 제고, 비판과 자기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의 적극적인 전개, 당내민주주의와 집체적지도의 강화, 이 모든것은 우리 대렬을 약화시키려고 기도하는 어떠한 적대분자들도 용허하지 않았다》(《김일성선집》, 제4권, 537페지).

반종파투쟁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종파분자들이 준동하자 제때에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데 대한 주동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

간첩종파분자들이 적발숙청되고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가일층 강화됨으로써 미제의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파탄시키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투쟁을 혁명과업실천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케 하시였다.

우리 당은 제5차전원회의문헌을 토의하는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원대중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정을 비상히 앙양시켰으며 그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내외원쑤들에게 제때에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었다.

제5차전원회의의 력사적교훈은 당내에 종파를 그대로 두고서는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할수 없으며 혁명정세와 제기된 혁명임무에 상응하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림으로써만 전당과 전체 인민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전쟁시기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그후 계속 종파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추호도 늦추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였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오래동안 종파적음모를 계속하면서 기회를 노리고있던 종파분자들이 국제종파와 결탁하여 또다시 당에 도전하여나섰을 때에도 우리 당은 제때에 그들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여 폭로분쇄하였으며 우리 나라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에서 력사적고질로 되여있던 종파주의를 결정적으로 청산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종파를 청산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앙양된 대중의 열성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함으로써 당내사상투쟁을 대중의 증산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그리하여 조성되였던 모든 난관을 성과있게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낳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명도하에 우리 당은 종파주의와 그 온상인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당의 통일을 저애하는 일체 반당적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실로 우리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당이 혁명 앞에 부닥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어려운 고비를 극복할수 있게 한 기본담보였으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성단련은 결정적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5차전원회의보고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종파주의, 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높일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며 자유주의적경향과 종파주의잔재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페지).

당내에서 온갖 자유주의적경향을 극복시정하고 당내 종파분자들을 적발숙청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당적원칙과 높은 정치적각성에 기초한 전당적인 사상투쟁이 요구되였다. 당원들이 당과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원칙성, 온갖 비당적 또는 적대적 경향에 대한 비타협성,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높은 자각성과 정치적경각성을 견지함으로써만 사상투쟁을 옳게 진행할수 있었으며 반종파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절대다수의 우리 당원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당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은 계급적으로 예리하지 못하고 정치적식견과 각성이 높지 못하였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의 계급의식과 정치적각성을 높이는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또한 전시에 당대렬이 급속히 확대된 조건하에서 당의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기도 하였다.

우리 당은 제4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전선과 후방에서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중에서 수십만의 우수한 동무들을 새로 당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아직 혁명적 단련과 당적세련이 부족하였으며 정치사상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당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간고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당원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야만 하였다. 당발전에서 당시의 이러한 객

관적조건은 당원들의 당성단련문제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의 당내 형편과 당의 조직구성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당원들의 당성단련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시였으며 당성의 본질, 당성의 표현 그리고 당성단련의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을 강화한다는것은 매 로동당원이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사업에 적극적이며 혁명의 리익과 당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알고 개인의 리익을 이에 복종시키며 어느때, 어느곳,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당의 리익과 당의 원칙을 고수하며 일체 반당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들과 타협없이 투쟁하며 당조직생활을 잘하고 당의 규률을 철저히 지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강화하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77페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어진 당성에 관한 과학적인 정식화는 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발전에 있어서 탁월한 기여로 되며 혁명적당들의 당생활규범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당성단련에 관한 강령적교시는 당원들의 당성과 당적태도를 평가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척도로 되었으며 제5차전원회의와 그 이후에 벌어진 종파주의, 자유주의와의 심각한 사상투쟁에서 매개 당원들이 높은 당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전체 당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당성의 최고표현으로 삼고 언제 어데서나 그이의 가르침대로 종파주의와 자유주의를 폭로청산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원칙성과 정치적각성을 견지하고 온갖 비당적 또는 적대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성단련의 방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성단련의 기본방도로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할것을 제시하시고 당생활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견지할것을 가르쳐주시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당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전체 당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고 강철의 규률에 따라 움직일수 있으며 온갖 불건전한 경향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철통같은 통일을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당원들의 당성단련의 방도로서 또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것을 교시하시였다:

《당성단련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에게는 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검열되고 예리한 무기가 있다. 우리는 이 무기를 틀어쥐고 당성과 어긋나는 모든 경향들을 일소하며 사업상 결함들과 오유들을 폭로시정함으로써 우리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하겠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8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천명하여주신 당원들의 당성단련에 대한 제방침은 당원들의 당성, 계급성을 높이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전체 당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당성, 계급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부정적현상에 대한 비타협

적정신이 제고됨으로써 당내에 잠입하여 준동하던 반당반혁명간첩도당들이 더는 배겨낼수 없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5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하신 당성단련을 강화할데 대한 교시는 오늘도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하고 그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성단련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우리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며 당의 질적공고화를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5차전원회의에서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를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시였다.

사상사업은 우리 당 사업에서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그를 개선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당시 당대렬내 신입당원의 비중이 적지않았던 조건에서 당원들의 계급의식과 사상리론수준을 높여야 할 사정과 그리고 조성된 특수한 군사정치정세와 밀접히 관련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당사상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내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당원들로 하여금 명확한 혁명적전망을 가지게 하며 모든 사변들을 계급적으로 옳게 분석하며 혁명과업을 정확히 실천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90페지).

전원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민족허무주의가 끼치는 엄중한 해독성을 심각히 분석하시고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데 사상사업의 기본을 두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강화할것을 교시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민족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사상교양사업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혁명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가장 철저한 주체적인 사상사업방침이였다.

이것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였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였으며 그 후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의 현실을 연구하지 않고 남의 경험에만 매달려 그것을 통채로 삼키고 기계적으로 모방하였으며 나중에는 민족허무주의에 굴러떨어졌다. 교조주의, 형식주의는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였다.

그것은 교도의 창조성과 적극성, 주도성을 요구하는 조국해방전쟁의 간고한 실천에서 더는 용납할수 없게 되였다.

전쟁의 어려운 시련은 모든 당원들이 우리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줄 아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력사적인 제5차전원회의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정책,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맑스—레닌주의교양사업을 우리 나라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것을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을 맹목적으로 몇천권, 몇만권 읽게만 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당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적사상관점과 방법을 체득하여 그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줄 알게 하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정세를 분석하고 그 현재를 옳게 파악할뿐아니라 장래까지도 예견할줄 알게 하자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90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사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다.

전당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조선혁명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당으로 더욱 공고발전되였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확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분쇄하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으며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패망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는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군사전략의 약점과 기도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 및 자연지리적 제반 실정에 적합한 독창적이고도 명철한 전략전술을 작성하여 인민군대의 작전과 전투를 몸소 지휘하심으로써 원쑤들에게 련속적인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를 깊이 인식하고 그이의 독창적이고도 탁월한 전략전술에 확고히 의거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떨쳐나설수 있었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사상사업분야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전당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인도하여 전시의 난관과 애

로를 극복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였다.

전후시기에 와서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시켰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에 제기된 새로운 조건에서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교조주의, 사대주의의 해독성을 전면적으로 폭로비판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로 삼아 항상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사상으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철저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뚜렷이 구현되였다.

전후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창설,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의 축성,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의 관철 등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빛나는 례증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전후시기 교조주의를 반대하며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그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기회주의적조류가 종파분자,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을 통하여 침습하지 못하도록 사상사업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당의 통일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좌우경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원칙적립장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 당의 대외적위신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상사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자체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지난기간 우리 당건설에서와 혁명발전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는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하신 모든 사상들이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바로 이 사상적기초우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이 발전하여왔고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였다.

실로 지난기간 우리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

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립장이며 방침이다》(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20주년에 제하여》, 21페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이 일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온갖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오늘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튼튼히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 *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되여온 과정, 특히 제5차전원회의이후 시기의 전행정은 당내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단결이 칠석같이 강화되였을 때, 그리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 때 그 어떠한 간악한 원쑤들의 침공도,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능히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며 공화국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가 비할바없이 크고 어려우며 국제국내정세가 복잡한 조건하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제고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모두가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고 당의 친동같은 통일단결을 보수하며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 앞에 나선 성스러운 과업이며 제일차적 의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떠한 불건전한 사상요소의 침습도 제때에 극복하고 철두철미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확고한 당적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가르침에 끝까지 충실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할수 있도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당력사강좌)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

윤 영 식, 박 희 석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공산주의자들의 동지적관계—혁명적동지애의 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와주면서 혁명과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였다.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이룩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동일한 사상과 목적으로 서로 굳게 결합된 동지들간의 참다운 혁명적관계였으며 그것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발전시키며 어떠한 시련과 풍파도 이겨내고 장기간에 걸친 어려운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한 중요한 힘의 원천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이룩해놓은 고상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건전한 혁명적동지관계를 가지게 함에 있어서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항일유격대원들 속에서 그처럼 높이 발양된 혁명적동지애의 품성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교양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특히 대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원칙적으로 교양하신 그이의 고매한 덕성과 실천적모범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게 하고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호상간의 관계를 가장 옳게 맺도록 부단히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한사람의 혁명동지도 우리에게는 천만금의 재부보다도 더 귀중하오…》라고 말씀하시고, 부모형제와 고향산천을 뒤에 남기고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것을 결심하고 투쟁에 나선 사람들, 살아도 혁명을 위해 살고 죽어도 혁명을 하다가 죽을것을 각오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우는 혁명동지들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고 항상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혁명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에 대하여 배려하며 동지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할줄 아는 고상한 혁명적동지애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교양하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간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관계가 아니며 동지들 속에서 혁명의 리익과 배치되는 결함이 나타날 때에는 비록 그것이 사소한것이라하더라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일깨워주고 비판하여 시정해주는 혁명적인 관계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몸소 그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우리는 그이께서 항일유격대원들을 얼마나 깊이 믿고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며 얼마나 두터운 배려를 돌리시였는가를 《숙영지에서 있은 일》, 《한홉의 미시가루》, 《한대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뒤골령밀영의 귀틀집에서》, 《누룩에 담긴 이야기》, 《선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사랑》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가슴뜨거이 찾아보게 된다.

《고난의 행군》 때에 자신보다도 먼저 대원들을 생각하시여 한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주신 그이의 어버이의 사랑, 그이의 건강을 위해서 대원들이 2년간이나 건사해가지고 다니던 산삼을 앓는 대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손수 닭에다 고아서 쓰게 하신 그 뜨겁고도 깊은 사랑을 과연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간고한 전투마당에서는 몸소 진두에 서시여 승리에로 대원들을 인도하시였으며 행군시에는 대원들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깊이 보살피고 배려하시며, 숙영할 때에는 먼저 대원들의 잠자리부터 잡아주시고 깊은 밤중에 잠든 대원들이 찬이슬에 추울세라 오직 한장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까지 덮어주신 그이의 뜨거운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태산보다도 높고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던것이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선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사랑》은 대원들에 대한 그이의 더없이 높고 깊은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가을, 많은 소부대를 각지에 보내시고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시여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하시였고 끼니도 드시는듯마시는듯하시였다.

련계가 끊어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소부대원들을 생각하시여 그이께서는 사령부가 이미 있던 숙영지를 떠나시면서 우둥불자리에 식량과 해솜을 두고 새로 지은 겨울옷을 묻게 하시였다.

그후 사령부가 숙영한 자리에 이른 한소부대는 그이께서 묻어두신 식량과 새군복을 발견하고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핌에 감격하여 모두가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 하고 목메여 그이를 부르면서 어찌할바를 몰라했으며 그이의 곁으로 한시바삐 달려가 새로운 혁명임무를 받고 더 영용하게 싸우리라 굳게굳게 맹세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쩌다 한마리의 사슴을 잡았을 때에도 소부대활동으로 나가 련락이 끊어진 대원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고기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따로따로 종이에 싸라고 하신후 선개의 봉지마다에 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시고나서 그것을 잘 건사해가지고 다니다가 소부대를 만나면 꼭 주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봉지 하나하나에 소부대동무들의 이름을 쓰시는데 따라 그것을 눈여겨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읽고있던 대원들의 가슴은 뭉클해졌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원들은 굶어쓰러지면서도 불길속을 뚫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넘는 어려운 순간에도 가루봉지를 다칠세라 소중히 건사하고다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처럼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항상 그 선개의 가루봉지를 채근해보시였고 때로는 그것을 해빛에 말리고 손질해서 건사하라고 당부하시기도 하였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소부대원들을 생각하시여 이토록 걱정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꼭 돌아오리라고 믿으시는 그이의 이 뜨겁고도 깊은 사랑, 그 매개 가루봉지에 담긴 어버이의 사랑을 어찌 천근만근의 황금에 비기며 그 깊이와 높이를 어찌 바다와 산에 비길수 있겠는가!

사령부의 행처를 잃고 그처럼 피흘리며 굶주리며 쓰러지면서 싸우던 소부대원들은 바로 수령의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있고 수령의 따뜻한 어버이의 손길이 잇닿아져있었기에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사령부를 찾아올수 있었으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끝까지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대원들을 깊이 보살피고 뜨겁게 사랑하시였을뿐아니라 《총가목에 대한 이야기》, 《북만원정의 길에서》, 《공산당원의 영예를 지니기까지》 등 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대원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는 모범을 몸소 보여주시였다.

《총가목에 대한 이야기》는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대원들의 심중을 깊이 통찰하시고 거기에 맞게 비판하시며 또 그가 과오를 시정하도록 친절히 도와주시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행군도중에 총가목을 부러뜨린 자기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중대장의 원칙적이고도 날카로운 비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한 녀대원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아주시고 그가 부러뜨린 총가목을 밤을 새워가시며 몸소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이께서 대원들을 깊은 어버이의 사랑으로 대하시면서도 어떻게 원칙적으로 교양하시였는가를 가슴뜨거이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사랑,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가 진정한 혁명가—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었던것이다.

이와 같이 대원들을 깊이 믿고 사랑하시며 원칙적으로 교양하신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와 고매한 덕성은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동지들간의 원칙적단결과 사상의지적통일을 정녕 깨뜨릴수 없는것으로 공고히 한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　　　*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실천적인 모범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일상생활에서, 학습과 훈련에서 동지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준데서 표현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일상적인 교양과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 고매한 덕성을 본받아 동지의 곤난과 아픔을 자신의 곤난과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훌륭한 혁명가—공산주의자로 되기에 노력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과의 계속되는 투쟁속에서 먹을것도 제대로 못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입고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이겨내야 하였으며 험산준령과 깊은 숲을 헤가르며 하루에 수십수백리행군도 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처럼 간고하고 준엄한 난관과 시련도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꺾을수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는 굶주리면서도 동지에게는 끼니를 보장해주며, 엄혹한 추위속에서 자신의 옷과 신발로 동지를 따뜻하게 해주며, 행군할 때에는 서로 짐을 덜어주고 부추기며, 피곤한 동지의 보초를 자진하여 대신 서주는 고상한 혁명적동지애의 기풍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여》는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동지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몸바쳐 싸웠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며 우리들을 무한히 감동시킨다.

김정숙동지가 처창즈유격근거지에서 작식대원을 하고있을 때 유격대의 생활형편은 이루 말할수 없이 간고하였다.

몇끼씩 굶어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매일같이 산에 올라 송기를 벗겨다가 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던 어느날 뜻밖에도 반사발가량의 밀가루가 생겼다.

김정숙동지와 작식대원들은 그것으로 동무들에게 《특식》을 만들어주려고 석면처럼 부드럽게 두드린 송기에다가 밀가루를 섞어 채기떡을 만들었다. 동지들이 떡그릇을 받아들고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것을 바라보던 김정숙동지는 자기의 몫으로 내놓았던 떡까지 모두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날밤 잠자리에 누워서 전우들이 배고프지 않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동무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니 배고픈 생각이 없어졌어요. 뭐 먹어서만 배가 부른가요?

동무들이 그처럼 좋아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지 않고라도 견딜것 같아요… 오늘밤 나는 무한히 행복해요!》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동지들에게 한술이라도 더 먹이고싶어하는 마음, 동지를 위하는 그속에서 진정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고상한 혁명적동지애의 품성은 개인의 리익과 안일을 앞세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한 마음은 1주일이상 끼니를 넘긴 30여명의 대원들이 한그릇의 밥을 나누어 먹고도 서로 동지를 위하여 반사발이나 남긴데서, 무더운 여름날 장시간의 전투를 마친후 한잔의 물을 수십명의 대원들이 마시고도 남긴데서, 기아와 굶주림 속에서 자기의 귀여운 자식을 잃고도 슬픔을 참고 이겨내면서 산나물을 뜯어 국을 만들어 동지들을 대접한 안순화동지의 고상한 동지애 등에서 수없이 찾아보게 된다.

실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한알의 감자를 놓고도 여러토막으로 쪼개였으며 어쩌다 받게 되는 군복과 내의, 신발도 동지에게 먼저 양보하군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동지를 혈육의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크나큰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겼으며 혁명동지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것을 혁명하는 사람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 돕고 가르쳐주면서 학습담화도 하고 훈련에서 부족점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학습과 훈련에서 구대원은 신대원을 앞선 동무는 뒤떨어진 동무를

상 성심성의로 방조하면서 원쑤와의 싸움에서 더 큰 공훈을 세우도록 서로 고무격려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구대원들이 신대원을 아끼고 사랑해주며 그들을 친동생과 같이 보살펴줄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구대원은 신대원들의 맏형이다. 맏형이 동생들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신대원들이 피로와하는 점, 안타까와하는 점을 제때에 포착하여 해결해주며 일거일동에서 신대원들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신대원들의 맏형이 되여 학습과 훈련,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살뜰히 돌보아주었다.

구대원들은 신대원들에게 한자의 글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가르쳐주며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하여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리해력이 빠르지 못한 동무들에게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와 같은 노래를 배워주어 그것을 같이 부르면서 그 내용을 똑똑히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침식을 같이하면서 한자의 글, 한개의 구호, 한절의 문장이라도 더 잘 따르로 외우고 쓸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상하부간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피여났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곤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보다 먼저 지휘관을 생각하고 보살폈으며 지휘관들은 또한 대원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계급적처지의 공통성, 그들의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에서 흘러나온 필연적인 동지적관계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빨찌산부대에서는 상부와 하부사이에 굳은 단결이 이루어져있었다.…

…그때 장관들은 모두가 전사들 속에서, 인민의 자제들 속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장관과 병사들 사이에는 추호의 간격도 있을수 없었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일치단결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살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아끼는 아름다운 전통이 수립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311페지).

항일유격대내의 지휘관들은 《…대원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자신이 춥고 배고플 때 뿐만아니라 자신이 덥고 배부를 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의 애로를 다 알지 못할수 있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따라 대원들을 항상 친동생, 친자식과도 같이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이 아파하고 곤난해하는 점을 제때에 알아내여 해결해주는데 세심한 관심을 돌리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배낭속의 떡》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러날 동안의 쌓이고쌓인 굶주림을 참다 못하여 비상용 떡을 없앤 나어린 한 대원이 남들이 식사를 할 때 따로 나앉아 침을해하는것을 발견하고 자기의것을 나누어주면서 교양한 지휘관의 사랑,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들의 삼엄한 포위속에서 축급증(쭐라병)에 걸려 사지를 쓰지 못하는 대원을 걱정하여 마른 잔디를 뜯어다 자리에 깔아주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며 눈속에서 고깔불을 피우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그의 팔다리를 밤새껏 주물러준 지휘관의 대원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실로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지휘관들로부터 이처럼 육친적인 배려와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휘관을 따라 배우고 존경하며 그들을 굳게 믿고 단결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이 일상생

활에서, 학습과 훈련에서 동지들과 상하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준 혁명적동지애의 모범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15성상의 기나긴 나날에 차고 넘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어려운 전투마당에서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두터운 전투적우의에서 더욱 높이 발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실 우리가 오래동안 동지들과 함께 혁명사업을 해보면 자기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동지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구원해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혁명동지들보다 더 친근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혁명동지들의 집단은 어떤 가정보다도 더 단합되고 화목한 집단으로 된다. 혁명가들은 자기의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혁명집단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것이다》
(《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7페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일념으로 혁명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간고하고 준엄한 전투마당에서는 서로 먼저 뛰여들어가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였다. 그들은 동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가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동지를 구원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천보산의 용사》에서 김충진동지가 자기의 목숨으로써 동지의 생명을 구원한 것을 감격없이는 읽을수 없다.

련대로부터 임무를 받고 떠난 세명의 습격조원들은 자기들의 전투임무를 끝마치고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수백명의 적과 싸우면서 엎어지고 뒹굴면서 계속 산발을 타고 내달렸다. 적들이 지척에까지 접근해옴으로써 세 습격조원들이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을 때 김충진동지는 더는 지체할세라 마지막 수류탄을 놈들에게 던지고 나서 부상병을 업고 같이가던 전우에게 《부탁합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가던쪽과는 딴방향으로 내달리면서 적을 자기에게로 유인하였다. 두 동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것을 결심한 김충진동지는 탄알이 떨어지게 되자 달려드는 적들에게 바위돌을 내리굴리면서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용하게 싸웠다.

이와 같이 《천보산의 용사》 김충진동지는 자신의 희생으로써 혁명동지들을 위험에서 구원해내였으며 련대에 정찰한 자료를 보내여 전투승리를 보장하였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인간애기 없는 의사에게 쥐여진 인삼록용은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어주어서라도 환자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런 의사의 손에 쥐여진 한뿌리의 개삼만큼도 효력을 낼수 없다.**

…무엇보다도 필요한것은 개삼 한뿌리를 가지고도 인삼록용의 효과를 나타낼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인간애다》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심장에 아로새겨 어떠한 곤난과 위험도 이겨내고 뜨거운 사랑으로 혁명동지를 구원해내였다.

심한 출혈로 하여 위험에 처한 전우에게 자기의 손가락을 도끼로 찍어 뜨거운 피를 넣어줌으로써 동지의 생명을 구원한 리춘근동지, 적탄을 여러군데 맞은 몸으로 탄우속에서 계속 부상당한 동지들을 업어내다가 마침내는 부상자를 업고 기던 그 자세대로 눈속에서 숨을 거둔 리순절동지, 자기 배낭에 만두를 가득넣어 지고서도 전우들을 생각하여 거기에는 손대지 않고 눈속에서 도

토리를 주어먹으며 길을 다그치다가 적들에게 포위되자 자신의 한목숨을 바쳐 동지들과 식량을 구원해낸 오응룡동지 그리고 《로동계급의 아들》,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우리는 그 모범을 찾아보게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엄혹한 혁명의 길에서 어떤 보수나 공명도 바라지 않았으며 개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혁명을 위하여,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투쟁하는것을 혁명하는 사람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처럼 용감하게 싸워이겼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 속에서 발현된 이러한 자기 희생성과 전투적우의는 상하부간의 관계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항일유격대내의 지휘관들은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심지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대원들을 념려하였으며 또한 대원들은 언제나 지휘관을 존경하고 목숨으로 옹호하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그 빛나는 실례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였으며 항일유격대의 유능한 지휘관이였던 최춘국동지는 부대의 식량공작을 위하여 어느 집단부락의 적을 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이 부상당한 몸이였으나 적탄에 중상을 당하여 위급하게 된 한대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를 업고 탄우속을 헤치며 몇번이고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달리군하였다.

같이 가던 련락병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휘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놈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하며 했으며 업혀가던 부상병은 자기때문에 지휘관의 생명이 위험해짐을 깨닫고 등에서 굴러떨어지려고 막 모대기였다.

이러자 최춘국동지는 그를 힘껏 취업고 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로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오. 그래, 동무를 버리고 우리 혼자 가란말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오. 기운을 내고 나를 꼭 붙잡소》라고 하면서 몇번이나 넘어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달리였다. 그의 등에서는 부상당한 대원이 《나때문에… 나때문에…》하며 계속 흐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생명을 내걸고 자기 대원을 업고 달리는 지휘관을 부추기며 따라가던 련락병의 가슴에도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대원들에 대한 육친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 곤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보다 먼저 지휘관의 안전을 보살피며 목숨으로 그를 옹호하려는 대원들의 마음,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항일유격대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원쑤를 족치고 승리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또한 동지의 사소한 결함과 오유에 대해서까지도 융화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비판하고 시정해줌으로써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의 기초에는 혁명과 조직에 대한 충실성이 놓여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으나 동지들 속에서 혁명의 리익과 조직의 통일단결에 어긋나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융화묵과하지 않고 엄격히 비판하였다.

동지의 결함을 보고도 융화묵과하는 것은 결국 그의 결함을 더욱 조장시켜주는것으로 될뿐아니라 더 큰 오유를 범할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혁명에 큰 손실을 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결함은 비록 적을지라도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방해가 될수 있다.

우리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말고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자신의 결함을 시정할줄 알뿐만아니라 동지의 결함을 시정해주기 위해서도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동지호상간에 보다 공고한 사상의지의 통일이 보장될수 없다.

결함이 있는 동무들에게는 동지적으로 더 가까이 접촉하면서 방조를 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였으며 동지의 잘못과 결함을 자신의 잘못과 결함처럼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결함을 빨리 시정하도록 제때에 성실하고도 따뜻한 비판과 방조를 주었다. 그들은 동지들 속에서 발로된 결함에 대하여 한갖 회의나 그 어떤 모임에서만 아니라 결함이 나타나면 즉시에, 일상적으로 비판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비판사업은 동지호상간의 깊은 우애에 기초한것이였으며 결함을 범한 동지가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시정할수 있도록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는 《한토리의 털실》, 《규률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한다》, 《입대후 첫전투총화》를 비롯한 여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떻게 비판사업을 통해 동지호상간의 사랑을 더욱 두터이하고 원칙적인 단결과 혁명적동지애를 강화하였는가 하는 모범을 배우게 된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입대후 첫전투총화》는 비록 그리 크지 않은 문제를 놓고도 자신을 엄격히 비판하며 또 그에 대하여 동지들 호상간에 성실하고도 원칙적인 비판을 전개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높은 비판정신을 보여준다.

한대원이 탄알 세발로 두놈의 적을 잡고 한발을 랑비하였는데 이것은 자랑할만한 일이기도 하였으나 그 대원은 귀중한 한발을 랑비한데 대하여 자신을 뉘우치고 비판하였다. 이때 다른 동지들은 《…동무는 아직도 그 하나하나의 총알에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다는것을 잘 모르는것 같소. 아직도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이 약하고 사격술을 높이는데 적게 힘을 들인 까닭이라고 생각하오》라고 하면서 그를 준절히 비판하였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은 복잡한 전투환경에서 단 한발의 총알을 허실한 사실을 놓고도 동지호상간에 심각한 비판을 전개하였던것이다.

이러한 비판사업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는 더욱 깊고 의식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원칙적인 단결을 강화하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일층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동지호상간의 신임을 두텁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빨찌산대오는 숭고한 동지애와 함께 또한 엄격한 비판정신과 규률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비판받고 처벌받은 사람이 대렬에서 도피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는 대원들을 처벌할 때에도 반드시 그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경중을 두었고 처벌한후에는 곧 동지를 들여서 꾸준한 교양을 주었던것이다》 (《김일성선집》, 제6권, 285페지).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로 튼튼히 결합되였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장기간에 걸친 적과의 투쟁에서 일당백의 군대로 완강히 싸워이겨낼수 있었으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었다.

* *

15성상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 류례없이 가렬한 전투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생활속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인 관계로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본받아야 할 품성이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동지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감으로 된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을 거울로 삼아 동지호상관계를 가장 옳게 맺음으로써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천리마운동을 보다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다.

경험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동지애로 튼튼히 결속될 때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앞에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4천만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름에 따라 우리 혁명을 더 빨리 전진시키자면 혁명적동지애를 더욱 높이 발양하여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애의 모범을 본받아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동지호상관계를 당적인 관계로 되게 하며 모두가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는 참다운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보다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앞에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근 로 자 제12호 (루계 31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illegible]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7년 12월 25일 발 행 • 1967년 12월 3[illegible]

ㄱ—73457 값 50전

1967년도 《근로자》차례묶음

문 헌

필자 호수 페지

편집국론설

혁 명 전 통

당 건 설

정치 및 철학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

평론 및 서적해제

자 료